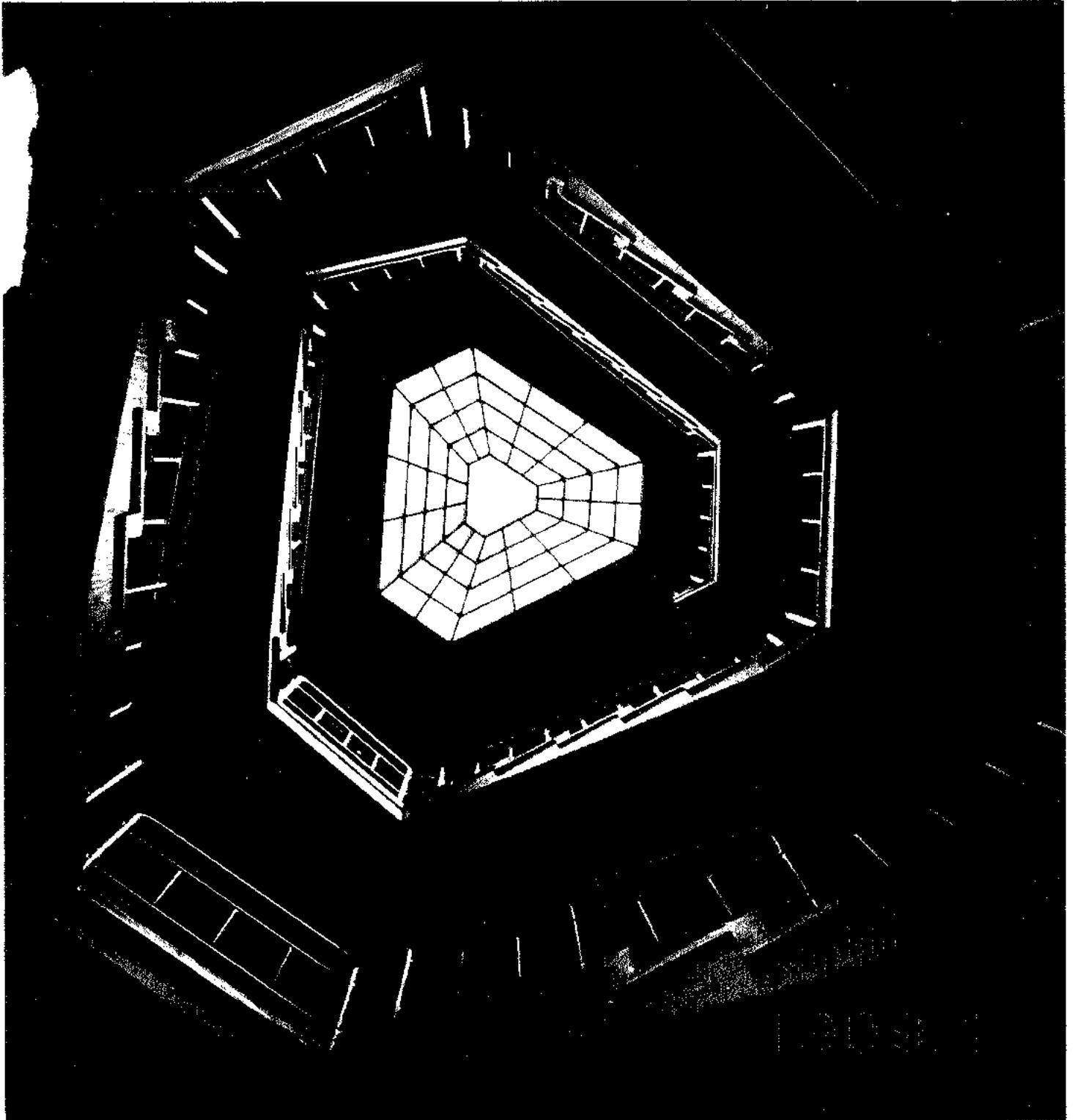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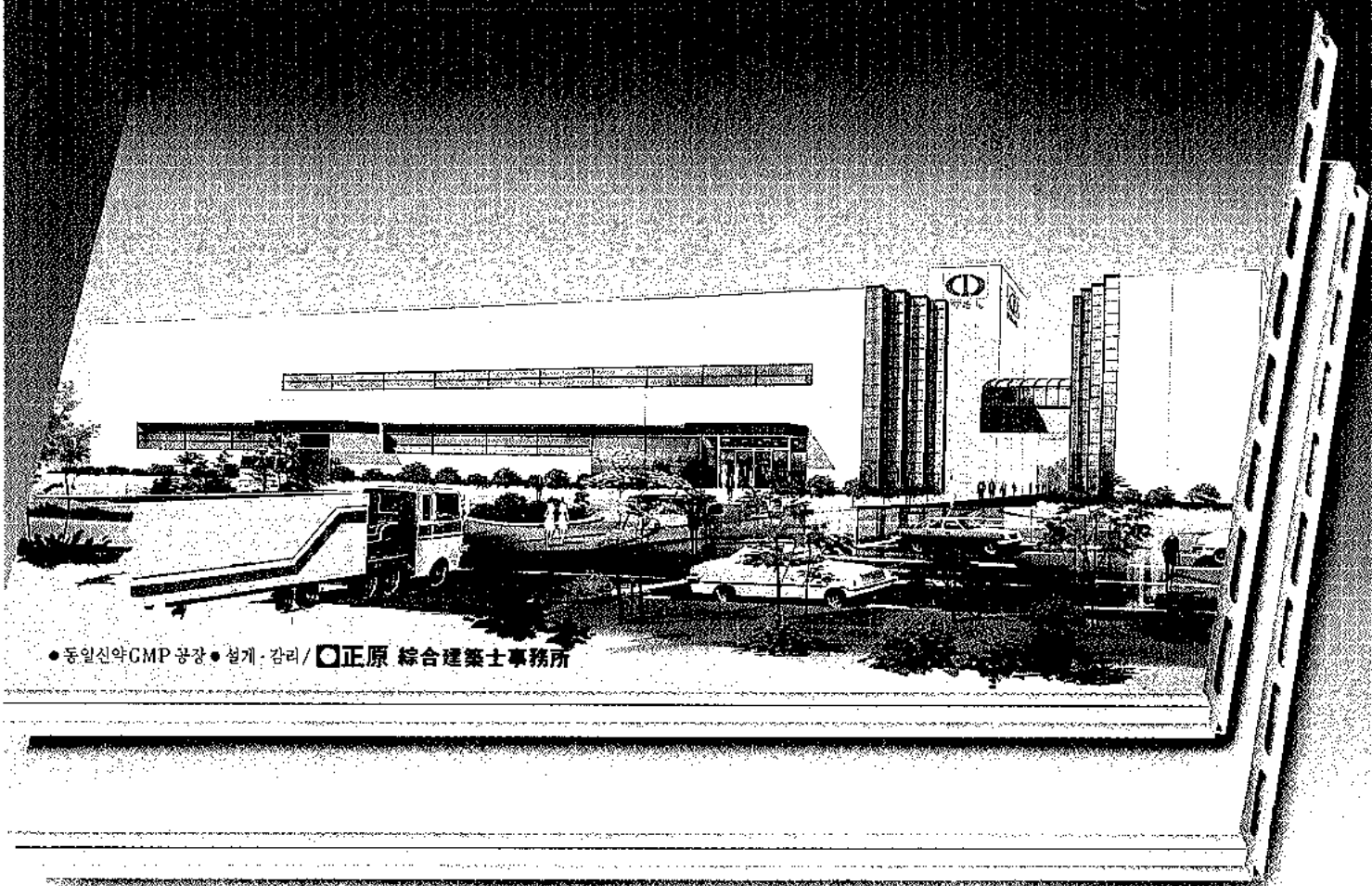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JANUARY 1989, NO. 238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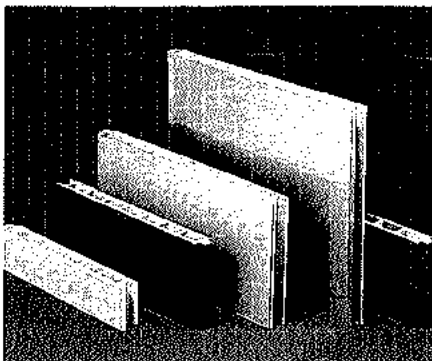
月刊 建築士 発行日: 1989. 1. 15. 1985. 12. 31 第3種郵便物(特)級 認可 郵便番号: 137-071





● 동일신약GMP 공장 ● 설계·감리 /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9(구내281) 베이스사업부

분류번호	건축사지
도서번호	등기제각각
구입년월일	1989. 2. 15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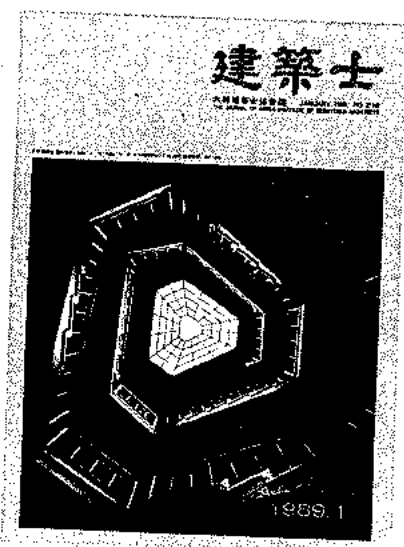
“協贊에 感謝드립니다”

本協會가主催한 第3次 아시아建築士大會의 開催와
 ‘韓國의 建築’冊子發刊에 協贊해 주신 業体에
 深甚한 感謝를 드리며 協贊業体の 無窮한 發展을
 祈源합니다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宋基德

■ 第3次 아시아 建築士大會 協贊業体

- | | | | |
|------------|----------|---------------------|----------|
|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 代表理事 崔永增 | (株) 기린産業 | 代表理事 全爽宰 |
| (株) 碧山 | 代表理事 金熙喆 | (株) 世京建設 | 代表理事 趙德俊 |
| 漢南化學株式會社 | 代表理事 柳油鶴 | (株) 中央防水 | 代表理事 張永壽 |
| 京南企業株式會社 | 代表理事 金承根 | (株) 中央防水企業 | 代表理事 柳重根 |
| 雙龍建設株式會社 | 代表理事 金錫俊 | (株) 太營 | 代表理事 卞鐸 |
| (株) 漢陽 | 代表理事 裴鍾烈 | ■ “韓國의 建築”冊子發刊 協贊業体 | |
| 大林産業株式會社 | 代表理事 李峻鎔 |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 代表理事 崔永增 |
| 極東建築株式會社 | 代表理事 金明根 | 럭키開發株式會社 | 代表理事 韓泰熙 |
| 東山土建株式會社 | 代表理事 高宗鎭 | (株) 기린産業 | 代表理事 全爽宰 |
| 롯데建設株式會社 | 代表理事 李商淳 | 東陽物産株式會社 | 代表理事 印致東 |
| (株) 大宇 | 代表理事 金錫俊 | (株) 大宇 | 代表理事 張永壽 |
| (株) 럭키 | 代表理事 具滋源 | | |



표지: 한일고등학교 본관 계단실 천창
설계: 하학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주건축)

건축사

차 례

1988년 1월호 (통권 238호)

發行人: 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副委員長: 尹錫祐

委員: 金琪碩, 卞鎰, 金晶東, 趙聖烈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레ックス: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 (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D.C.: 69/72 (054-2): 0612 (519)

印刷人: 全允圭 (洗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Vice Chairman: Yun, Suk-Woo

Member: Kim, Ki-Seok

Byun, Yong

Kim, Chung-Dong

Cho, Sung-Yu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 (054-2): 0612 (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 6 協會長 新年辭
- 8 建設部長官 新年辭
- 10 建築家協會長 新年辭
- 27 建築學會長 新年辭

會員作品

- 11 가든 올림피아..... 朴舒弘
- 14 과천시청사..... 李珪杓
- 16 스위트호텔..... 黃圭烈
- 20 키모드 빌딩..... 崔英集
- 22 삼일제약사옥..... 金漢根
- 24 한일고등학교..... 鄭時春+河學秀

研究

- 28 외국의 현대건축가 소개 ⑦ / 리카르도 보필 레비·건축공방..... 成仁洙
- 46 韓國의 傳統建築 ⑫ / 三國時代의 建築文化..... 張慶浩
- 52 건축형태의 이론 ① / 建築形態의 理解..... 金光鉉
- 56 전통극 공연장의 건축요소(4)..... 金基哲

寄稿

- 64 국제건축세미나의 성과..... 趙聖烈
- 82 종합건축 35주년에 즈음하여..... 尹錫祐
- 84 한국의 목재 구조 건축..... 美 국립 목재생산협회

일하며 생각하며

- 45 왜 건축사는 월급장으로 근무를 못하게 하는가?..... 金知德

이달의詩

- 67 집..... 吳成允

- 69 설계경기 / 목동도서관 현상설계 공모

서울건축 (案)

정림건축 (案)

종합건축 (李承雨) (案)

아키프렌 (金宇成) (案)

이공건축 (柳春秀) (案)

- 86 11월분 도서신고현황

- 88 新入會員

- 92 協會所消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603-55 /

581-5715~8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 169-16 / 333-1873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 1422-17 / 888-6744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 131-13 / 903-3425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 3가 81 / 634-2143

강서분소 / 강서구신대동 317-4 / 484-6840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 1105-5 / 695-0787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 252-16 / 446-5244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 101-7 / 923-6213

종로분소 / 종로구청진동 201-1 / 735-0905

마포분소 / 마포구도화동 250-4 / 712-8844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 50-12 / 423-9158

중구분소 / 중구무학동 11-2 / 252-6507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 1가 129-22 / 712-7647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 1동 1623-1 / 586-7707

은평분소 / 은평구응암동 103-12 / 356-7172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 147-79 / 599-6754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 241-6 / 545-0757

노원분소 / 노원구공릉동 617-6 / 976-1836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 1027-9 / 646-7172

종로분소 / 종로구영수동 516-41 / 491-0825

성북분소 / 성북구삼선5가 410 / 923-4401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 130-32 / 864-3988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래동 1가 1 (부산테피드내)

(051) 23-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계곡동 3가 1-8 /

(053) 72-5141~2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남산 1동 558-1 /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서문구대인동 323-11 / (062) 224-7598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직할시중구대동 437-1 / (042) 254-2441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곡로 3가 124-5 /

(0331) 42-6490, 7072

직할분소 / 경기도수원시매곡로 3가 1-8 / (0331) 42-6490, 7072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 719-9 / (0343) 2-2698, 2-0012

부천분소 / 부천시신촌동 74-6 / (032) 63-3144

성남분소 / 성남시산동 5512 / (0342) 2-5445

외환부분소 / 외환부시의정부동 182 / (0351) 2-1083

송탄분소 / 송탄시신장동 21 / (0333) 4-6153

고양분소 / 고양시관악동 38리 38리 16번지 / (0344) 63-8902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 409-2 / (0346) 63-8112

이천분소 / 이천시원삼동 215-8 / (0336) 2-3396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 464-7 / 682-2375

안산분소 / 안산시고잔동 531-5 / 82-2820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석촌동 39-5 / (0361) 2-2442

원주분소 / 원주시인산동 206 / (0371) 42-3257

강릉분소 / 강릉시상대동 6 / (0391) 2-2262

속초분소 / 속초시중앙동 468-66 / (0392) 2-5081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 55-43 / (0397) 2-3106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동 1리 959-35 / (0372) 2-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2가 116-168 /

(0431) 56-2752, 53-7342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 673-1 / (0441) 2-3082

제천분소 / 제천시지평동 8-8 / (0443) 2-6253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안리 139-4 / (0433) 2461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동 437-1 /

(042) 255-4088

천안분소 / 천안시 문화동 160-14 / (0417) 2-4551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1 / (0451) 2-2853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문리 710-2 / (0463) 2-221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 635-5 (대복빌딩 508)

(0652) 3-3881

이리분소 / 이리시남동동 1가 77-22 / (0653) 52-3304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 1가 185 / (0654) 2-4050

남원분소 / 남원시하장동 106 / (0571) 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화정동 783-23 (주선회관)

(062) 364-7567, 33-9944

목포분소 / 목포시호남동 1 / (0631) 2-5152

순천분소 / 순천시장전동 85-7 / (0661) 2-7545

여수분소 / 여수시관문동 441번지 / (0662) 64-1144

경상남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민동 1가 285번지 /

(053) 425-4904

포항분소 / 포항시북동 96-70 / (0562) 74-9713

경주분소 / 경주시노들동 100-1 / (0561) 3-7743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 356-2 / (0546) 52-7903

안동분소 / 안동시북문동 29-5 / (0571) 2-6635~6

김천분소 / 김천시평화동 280-1 / (0547) 2-2541

영주분소 / 영주시영주 4동 470-17 / (0572) 2-4566

경춘분소 / 김천시평화동 261-2 / (0581) 2-2706

황주분소 / 황주시남성동 11-3 / (0582) 2-4306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가 3 /

(0551) 46-4530-1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 585-6 / (0522) 74-8836

진주분소 / 진주시본동 7-20 / (0591) 2-6403, 42-3434~5

충무분소 / 충무시서호동 177-101 / (0557) 2-2504, 2-7420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 25B-17L / (0594) 2-3155

밀양분소 / 밀양군밀양읍대일동 392-1 / (0527) 53-2110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하동 483-9 / (0598) 2-3777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대방리 500-3 / (0523) 4-2669

거제분소 / 거제군 신흥읍고려리 139-2 / (0558) 32-1066, 2-3377

제주도지부 / 제주국제자유도시 2도 1동 1289-6 /

(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포동 299-6 / (064) 62-2233, 32-7777

CONTENTS

January 1989 Vol. 238

New Year Address by KIRA President	6
New Year Address by Minister of Construction	8
New Year Address by KIA President	10
New Year Address by AIK President	27

WORKS

Garden Olympia	Park, Suh-Hong	11
Kwachŏn City Hall	Lee, Gak-Pyo	14
Suite Hotel	Whang, Kyu-Ryul	16
Kimode Building	Choi, Yong-Jeep	20
Samil Pharmaceuticals Co. Headquarters Bldg.	Kim, Han-Keun	22
Han-Il High School	Chung, Si-Choon & Ha, Hack-Soo	24

REPORT

Overseas Contemporary / Ricardo Bofill: Taller de Arquitectura	Seong, In-Soo	28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Period	Chang, Kyung-Ho	46
Theory of Architectural Form / Understanding of Architectural Form	Kim, Kwang-Hyun	52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Proper Theater for the Traditional Korean Dramas	Kim, Kee-Chul	56

FEATURE

After the Closing of UIA	Cho, Sung-Yul	64
Facing the 35th Years of Chonghap Architects & Associates	Yun, Suk-Woo	82
Wood-Fram Construction For Korea	The National Forest Products Association	84

ESSAY

	Kim, Chi-Dok	45
--	--------------	----

POEM

House (I)	Oh, Song-Yun	67
-----------	--------------	----

DESIGN COMPETITION / Mok-dong Public Library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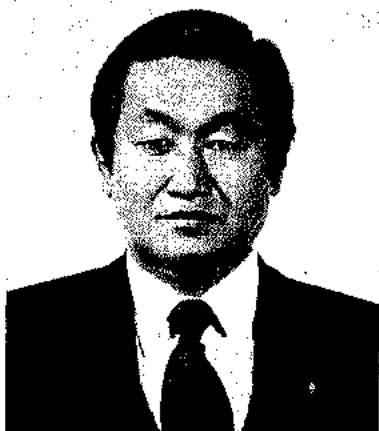
Seoul Architects & Associates Plan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Plan
Chong Hap Architects & Associates Plan
Archiplan Architects & Engineers Plan
Beyond Space Group Plan

MATERIALS 86

NEWLY ADMITTED MEMBER 88

KIRA NEWS 92

己巳年은 『일하는 協會像』 정립의 해



宋基德 / 本協會 會長

존경하는會員 여러분,
먼저 己巳年을 맞이하여 事業이 더욱 繁昌하시고 貴宅에 萬福이
넘치시기를 祈願합니다.

우리 協會는 오늘날 23년의 연륜과 지난 1월 19일로서 3천 회원을
기록하는 大協會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歷代會長을 비롯 본부 및 시·도지부 임원과 그리고
회원 여러분이 희생적으로 협회를 키워주신 결과 임을 되새기면서,
다시한번, 그 勞苦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가 外見上으로 이처럼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內的으로는 그와 같은
發展趨勢에 조화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懸案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實相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社會的 地位가 만족할 만큼 向上되었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權益도 더욱 伸張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믿어지는 이 단편적인 예만으로도, 그간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微弱하였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의 우리가
적야할 責任이 얼마나 무거운지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無氣力했던 어제가 변함없이 오늘로 이어져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衷情 하에,
과감히 발전하는 힘 있는 協會가 될 수 있도록, 새 면모를
갖추고자 다음 몇가지를 당부드리며 聲援을 바라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建築士 여러분이 一心 團結해 주실 것을
바라고자 합니다. 「몽치면 살고 호터지면 죽는다」는 말이 과거
사회에 풍미했던 적도 있었지만, 임으로는 3천의 회원, 23년의
역사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우리가 團合, 協力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건축사로서 競爭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同志요
伴侶者로서 協力하고 補完해 주는 위치에 있음을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建築士界에서 正義가 最高의 價値로 받들어지는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단없이 사회적 지위향상을 외치고 권익신장을
바랍니다만, 우리건축사가 단 한분이라도 違法建築의 발생에
관계되고 事務所의 不正한 운영에 연루되는한 그것은 空念佛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法을 준수하고, 廣明 正大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사무소를 운영하여, 우리건축사계에 正義感이 차고 넘칠때, 우리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고 권익이 신장되는 것임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協會運營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심으로써 참나운 協會人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의 일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협회의 일이어서 협회와 우리는 바로 하나인데, 마치 나와 협회는 별개인양 착각하는 분이 세신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을 위하여 협회가 무엇을 해 주었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협회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먼저 協會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할지 自問하고 적극 앞서서 협력해 주시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

협회를 이로써 <힘 있는 협회>로 가꾸어 주시는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을 토대로 저는 우리 협회를 <일하는 협회>로서의 새면모를 쇄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전심 전력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협회의 모든 업무는 委員會 중심으로 분담, 위원회 책임하에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이나 委員께서는 개인의 이익을 다소 유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협회 업무에 헌신해 주셔야 할 것이며 부여된 職分이 결코 명예직이 될 수 없음을 통찰해 주셔야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木요일을 任員 懇談會의 날로 정하여 임원들께서 자주 협회에 방문하시게 하고 운영 상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능한 많은 회원이 어떤 경로로든 협회나 지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협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협회발전을 위해 회원으로서 수반하는 義務와 責任에 입각, 힘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각종 制度나 건축관련 法令중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들을 예의 연구검토하여 개선안을 작성, 강력하게 관계기관에 改善을 建議하겠습니다.

우리건축사 업무수행상 불합리한 법령, 오늘의 민주화의 새 시대상에 부합되지 않는 법령, 우리 건축사의 권익을 부당하게 위축 시키는 법령 등등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째, 매년 개최하고 있는 議案協議 중심의 總會를 금년부터는 각종 행사를 포함하는 「建築士 大祝祭」로 발전시켜 개최하고자 합니다.

建築士 大祝祭는 건축사의 상호우의를 돈독히 하고 일체감을 높혀 회원들을 굳게 단합시켜 줄것이라고 기대 합니다.

네째, 본부 事務處나 支部 事務局 職員들이 협회와 회원 업무를 나의 일처럼 창의력 다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執務環境을 改善해 나감으로써 협회와 회원업무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협회가 平生職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근무의욕을 높이는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己巳年 새해에는 본부건 지부건 임직원들이 과거의 3배 이상 일할 결의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89년은 「일하는 協會像」을 정립하는 元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協會란, 會員이 協力하여 설립하고 유지하는 會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에도 역시 회원이 협력하여 유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글자의 국어 사전적 뜻풀이에 불과 합니다만,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실로 교훈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會員 여러분이아말로 協會의 發展을 위해 盡力하여야할 바로 그 主體임을 確認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는 기필코 새로웁고 큰 일을 이루는 한해가 되도록 적극 聲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己巳年은

協會와 會員 모두에게 天佑神助의 큰 幸運의 해가 되기를 祈願하면서 신년 인사에 갈음합니다.

己巳年 元旦

『민족 번영의 統一時代』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



朴 昇 / 建設部長官

希望에 찬 새해를 맞이하여 建設人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1년간은 우리국민 모두가 對內外的으로 많은 難關과 隘路를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땀흘려 일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勞力의 결과, 온 국민의 염원인 自由民主主義의 土臺를 공고히 하고, 經濟的으로 물가안정 기반을 다진 가운데 內實있는 高度成長을 이룩했고, 또한 전세계의 耳目을 집중시킨 가운데 제24회 서울올림픽을 成功的으로 開催하여, 우리국민의 無限한 잠재력을 국내외에 誇示했습니다.

建設人 여러분께서도 國內外的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난 1년간 國土建設을 위해 熱과 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民主繁榮의 統一時代』를 具現하기 위해 새로운 出發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모든분야에서 轉換期的 陣痛을 청산하여 自由民主主義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經濟를 安定成長의 굳건한 바탕위에 올려 名實相符하게 선진국 단계로 이끌어 올려야겠습니다.

이를위해 『先進和合經濟』를 과감히 推進하고, 우리의 文化傳統이 세계속에서 찬란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繼承發展시킴으로서 『民主繁榮의 統一時代』를 힘차게 열어나가야할 때입니다.

經濟部門에서는 특히 安定成長의 바탕위서 階層間, 地域間, 都農間의 平均衡을 시정하고, 不勞所得과 特惠를 根絶시켜 經濟의 倫理性을 확립하는 동시에 強力한 安定政策을 추진해 나가야할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에 새롭게 떠나갈 國土建設에 대한 抱負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地域間均衡開發과 國土의 效率的 利用으로 內實있는 國土開發을 줄기차게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계속 억제하기 위한 首都圈整備 綜合計劃을 수립하고, 이미 확정된 中部圈과 東南圈 종합개발계획을 알차게 추진하며, 西南圈綜合開發基本計劃을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濟州道를 비롯한 多島海, 太白山 및 88올림픽고속도로 주변등 特定地域開發도 계속 추진하고, 全州圈Ⅱ 단계 개발사업을 착공하고, 江原道 및 慶北 北部地域개발계획을 수립하여 落後地域 開發을 촉진하겠습니다. 西海岸 開發事業을 착실하게 推進하기 위해 西海岸開發推進委員會 심의와 地域住民의 輿論을 收斂하여 對象事業計劃을 확정하고, 西海岸高速道路를 비롯한 大佛과 群山, 長項 産業基地開發計劃을 수립, 事業을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國民生活基盤設施의 質的인 改善과 福利增進에 最大限 力點을 두겠습니다.

無住宅국민의 住居生活 安정을 위하여 公共部門에서 15만호, 民間部門에서 21만호, 모두 36만호의 주택을 建設供給할 계획이며 특히 都市零細民과 無住宅勞動者를 위하여 賃貸住宅9만호를 建設供給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달동네등, 都市零細民의 現地改良事業을 통한 住居環境 改善을 위하여 對象地區內에서는 行爲規制의 緩和와 國公有地 拂下 및 住宅改良 資金支援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에는 達芳댐事業(4만톤/일)을 完工하고, 琴湖江系統(36만톤/일) 首都圈Ⅳ段階(150만톤/일), 蟾津江系統(7만5천톤/일)등 8個 廣域上水道事業을 추진하여 上水道普及率을 76%로 提高시키고, 1人1日 給水量도 330ℓ로 높여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生活環境造成을 위하여 下水處理設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蔚山(25만톤/일), 溫山(15만톤/일), 昌原(25만톤/일)은 '91년까지 完工할 계획이며, 大邱, 仁川, 光州, 大田, 全州,

春川, 水原 등 19개 都市下水道를 '92년까지 모두 完了하여
下水道 處理率을 26%로 提高시키겠습니다.
20個 國立公園, 43個 都·郡立公園에 대한 시설을 繼續整備
擴充하고, 都市別로 示範公園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毎年 되풀이 되는 災害를 줄이기 위해 全國의 河川流域別 및
海岸脆地域에 대한 항구적이고, 종합적 防災 中長期綜合對策을
수립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經濟의 先進化를 위하여 社會間接資本을 持續的으로
擴充해 나가겠습니다.

'92년까지 國道·地方道 100%, 郡道 80% 鋪裝을 목표로 한
2000년대를 향한 『綜合道路基本計劃』을 수립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高速道路建設事業은 板橋~九里間 23.5km, 新葛~半月間
23.2km를 '9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大邱~春川間 280km,
全州~大田間 161km, 大邱~龜浦間 96km,
中部內陸間(龜尾~尙州~利川間) 235km의 高速道路建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全長 505km의
西海岸(仁川~木浦~順天間) 高速道路建設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早期着工을 檢討하겠습니다.
浦項, 昌原, 麗川, 光陽工業港 建設을 '90년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西海岸(牙山) 多目的港灣 개발사업을 '92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多目的港 建設은 住岩港을 '90년에, 臨河港을 '91년, 南江港을
'92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제, 土地政策을 發展的으로 運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10 措置以後 강력한 不動產投機 억제로 地價가 상당히
安定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土地公概念 研究委員會 연구결과를 受容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土地去來許可制의 運用을 內實化 하며, 土地先買
備蓄財源의 확보로 公共機關의 土地需給 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公示地價制度의 도입을 위한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는 한편 開發利益還收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建設産業의 育成·發展과 海外建設의 內實化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建設業 면허를 개방하여 競爭基盤構築을 통한 기업능력을

提高시키고, 建設工事 都給契約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隨意契約의 多樣化에 대응한 建設業體系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地方, 中小建設業體를 育成하고, 下都給系列化 정착을 통한
專門建設業 성장기반 확립과 建設業 紛爭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紛爭調停委員會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란, 이라크戰爭 復舊事業 참여와 北方政策과 연계한
進出摸索, 미국, 일본 등 先進國市場을 개척하는 등
市場多邊化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建設 技術開發을 促進하여 先進經濟實現에 拍車를
加하겠습니다.

지난해에 建設技術管理法令의 제정으로 建設技術研究, 開發
및 利用에 관한 法的制度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建設業體의 技術開發投資 확대와 研究開發專擔部署
설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民間次元의 기술개발을 촉진토록 하는
한편, 企業間 또는 協會등을 통한 共同開發을 유도하겠습니다.
建設技術研究院을 활용하여 情報의 모집·처리·보급과
情報管理의 進善화 및 서비스를 확대하여 建設技術 流通體制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建設工事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建設工事 品質試驗을
강화하며, 工事監理制度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國民便益 增進을 위하여 建設行政을 刷新하겠습니다.

過多, 重複規制등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과감히 정비하고
行政의 公正性確保와 建設行政의 公權力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建設施策은 그 決定過程에서부터 國民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維持하겠습니다.

또한 建設不條理를 一掃하겠습니다.

이상 세세에 떠나간 基本方向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는 결코
어느 한 個人 또는 政府單獨의 힘으로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기술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믿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努力할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룩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우리모두 加一層 奮發, 努力하여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新年辭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989年 1月 1日

새해에 거는 期待

金正澈 / 韓國建築家協會長



1988년 戊辰年은 幕을 내리고 己巳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묵은 해를 돌이켜보고 새해의 계획에 反映하고 밝은 미래를 期約해 보는 일은 지혜있는 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격변의 해요, 엄청난 많은 일이 벌어졌던 民族歷史에 特記할만한 한해였습니다.

역눌렸던 많은 욕구가 소용돌이처럼 분출했으며 自由化, 民主化의 물결속에 새 공화국이 출범하였고 국회의원의 선출과 與小野大의 국회탄생등 정치의 민주화의 열기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던 해였습니다. 올림픽이 東西南北의 인류의 호응과 화합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세기 最上最大의 行事로 歷史의 기록에 남을 대회였습니다.

건축계에서는 두개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것도 自祝해야 할 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국건축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서양건축의 무비판적 도입으로 죽보없는 건축이 범람하고 우리의 것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소화불량적 부조화의 환경만이 조성된 상태라 하겠습니까.

기술의 미흡, 안목의 부족, 철학부재의 건축이 난립된 도시, 이것이 해방후 수십년의 실적이며 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고도의 물질문명의 산업사회가 되었습니다. 대규모의 양적인 것, 내용은 없어도 외양이 번듯한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행동하는 공간을 원하기에 앞서 불편해도 보기 좋은 것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으며 진정한 건축을 만들기 원하는 건축주는 극히 드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은 영원히 완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되도록 적게 주려는 設計費에 당장 착공하기를 강요하는 건축주의 인식과 불이해 앞에 天下 健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건축을 사랑합니다. 하나의 坵地위에 설계하여 건축을 만들 수 있는 특권은 오로지 한 건축가에게만 있다는 사명으로 나의 최선과 나의 애정을 다 쏟아야 하는 것이

건축사들의 職能이며 召命입니다. 사람들이 살 안전하고 훌륭한 공간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다할때 사회는 우리의 職能을 인정하고 건축사를 존경하며 건축사의 사회적 地位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세기의 말미에서 다가오는 다음 세기를 눈 앞에 두고 우리가 쌓은 경험과 建築的 思想을 구현하는, 세월이 흘러도 그 價値가 유지되고 퇴색되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노력을 더 傾注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을 통하여 하먼된다는 의지의 結集으로 오늘날의 조국건설의 영광을 가져왔고 올림픽에 있어서도 세계가 감탄하는 성공적 행사를 이룩해낸 이면에는 우리 건축사들의 설계활동이 根底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축계의 功勞에도 불구하고 일반사회의 건축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무지에 가까우며 起工式이나 竣工式에도 이것을 창외적으로 설계한 건축가가 거론되지 아니함은 물론, 작품으로 평가되는 일도 극히 드문 형편입니다.

작은 노래 한편이 지면에 실려도 作詞者나 作曲者는 거명되는 것이 상식인데도 말입니다.

자질함양과 겸양적 미덕으로 작품만들기에 열중하는 것도 건축사의 기본적 소양이겠으나 모든 작품의 작가를 내세우는 "프라이드"는 있어야겠으며 건축문화를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만드는 운동이 꼭 이루어지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의사, 변호사, 건축사를 3대 직능인으로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禮遇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회가 문화수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 인권, 인간생활의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다루는 귀중한 전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다같이 합심협력하여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환경을 만드는 직능인으로서 그 대우와 올바른 사회적 평가를 받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쌓은 경험과 건축적 사상을 구현하는,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유지되고 퇴색되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노력을...

가든 올림피아

Garden Olympia

朴舒弘 / (주) 회산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Suh-Hong / Hee-San Architects Collaborative Co., Ltd.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7

대지면적 / 2, 217. 9m²

건축면적 / 685. 8m²

연면적 / 1, 765. 8m²

건폐율 / 30. 9%

용적율 / 53. 2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 지붕 - 적삼목잇기

외벽 - STUCCO

창호 - 16mm 복층유리

착공 / 1986. 3

준공 / 1988. 12

Location / Samsung-dong Kangnam-gu, Seoul

Site Area / 2, 217. 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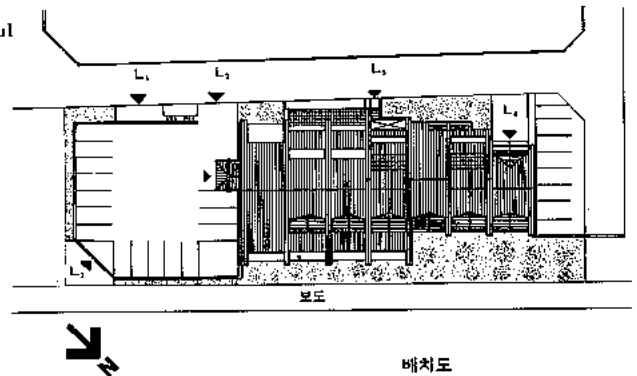
Archi. Area / 685. 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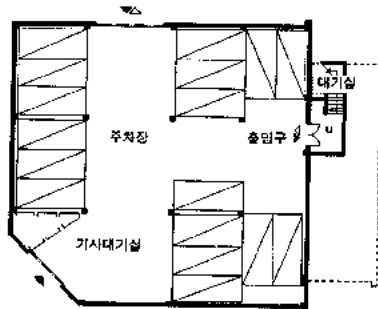
Gross Floor Area / 1, 765. 8m²

Bldg. Coverage / 3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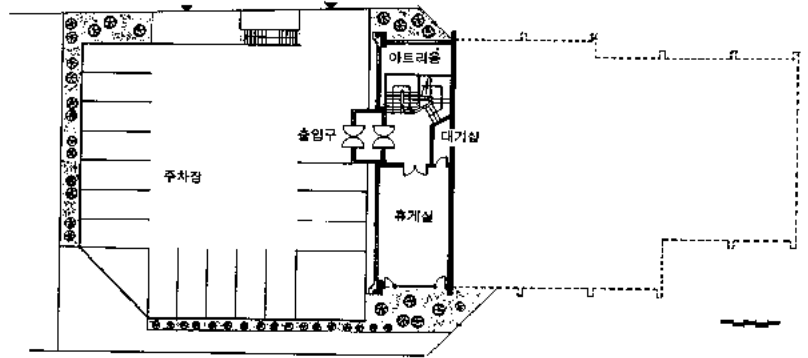
Floor Area Ratio / 53. 23%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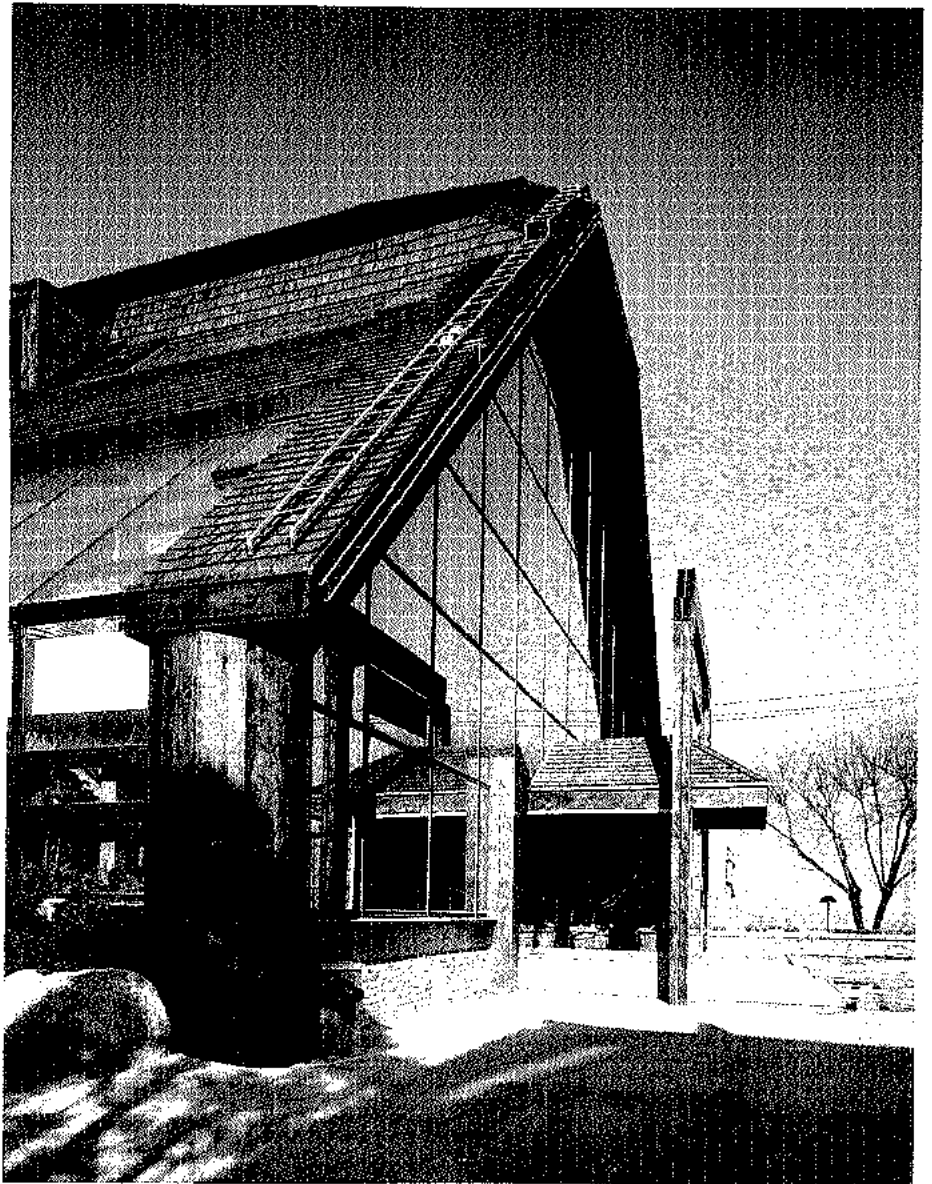
본 대지의 최초 계획은 Client측의 요구에 의해 일부 고급주거(6세대)를 포함한 오피스 빌딩, 호텔이나 전시전용빌딩등이 계획안으로 거론되었으나 최종 레스토랑(한식과 일식)으로 결정되었다.

레스토랑 계획에 있어서 법적인 제한을 전제로 해서 대중이용의 문제점, 소유면적과 건축가능지의 구분, 차량 진출입의 부적합, 사용자 계층의 한계성, 투자의 비효율성등의 주로 부정적 시각의 검토가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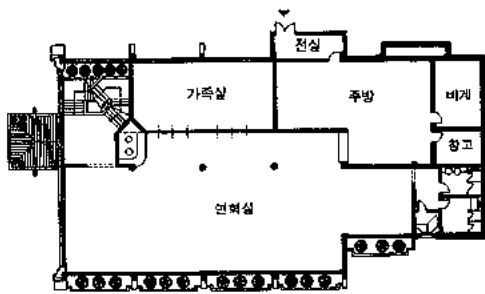
건축적 계획에 있어서도 단지 한강에 면해서 얼굴을 내어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투자 의지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물이 어떠한 디자인으로서 미화시킬 것인가가 계획의 중점이었다.

◎ 디자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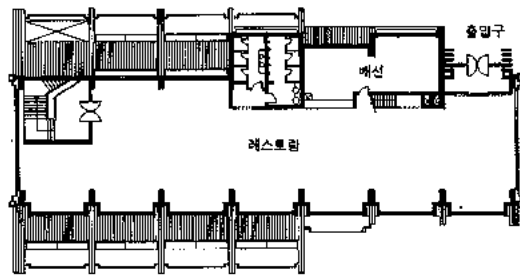
1. 기능 및 동선의 구분에 있어 대지가 갖고 있는 경사지의 성격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4-Level Approach로 구분)
2. 주변환경을 압도하면서 군림하는 형상의 매스와 형태를 피하고자 시간을 투입하여 마감재료의 선정도 이런 흐름에서 수용의 폭을 넓혔다.
3. 빠른 시간과 늦은 시간의 접근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스케일의 변이로 대처하였다.
4. 내외부 공간의 흐름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요소로서 "물의 공간"을 연출하려 하였음.
물론 전편의 한강을 의식한 시도이긴 하나, 테넌트 결정과정에서 취소, 변경된 것은 실내장식과 건축사이의 강요받은 한계성과 아울러 미진한 여운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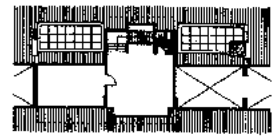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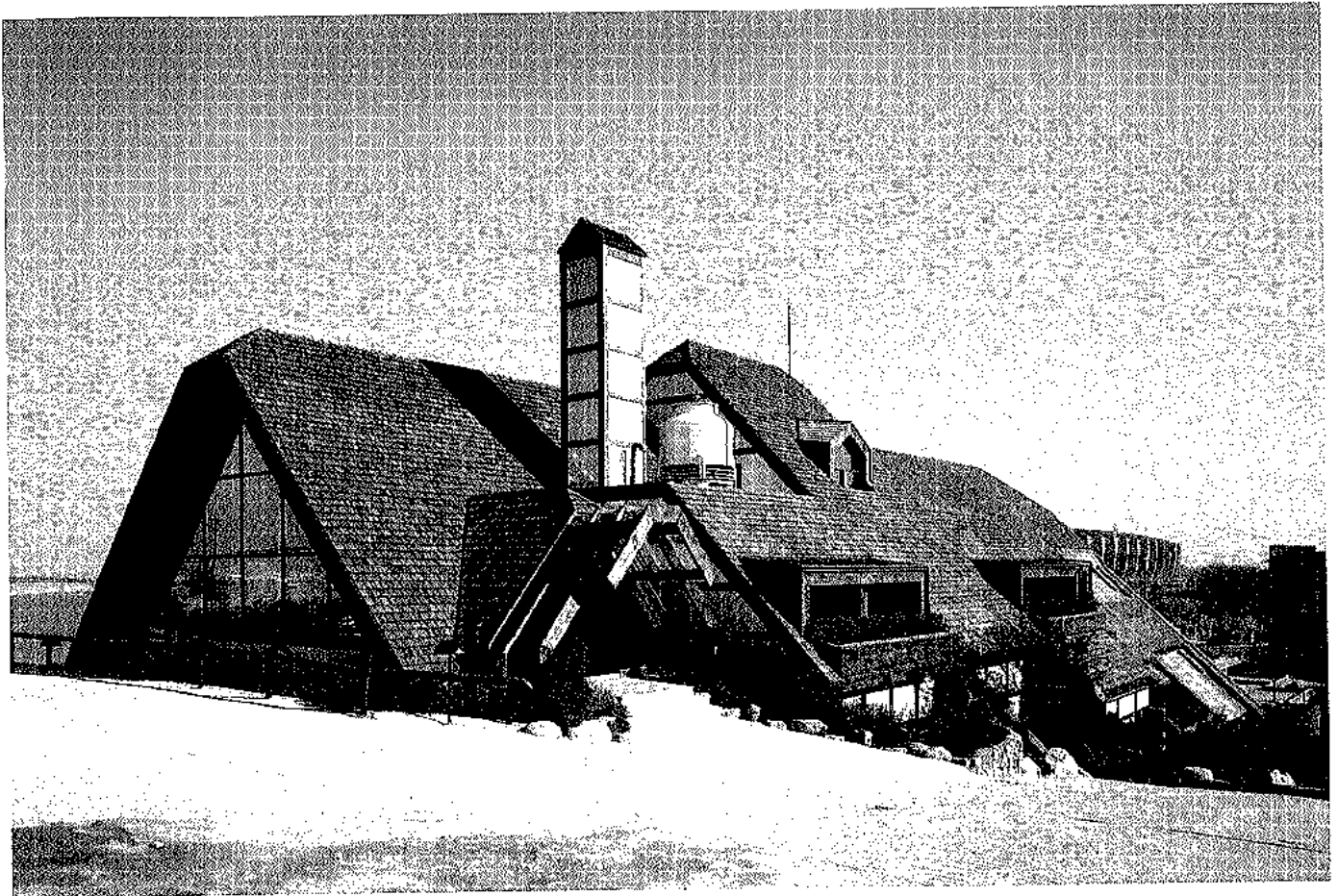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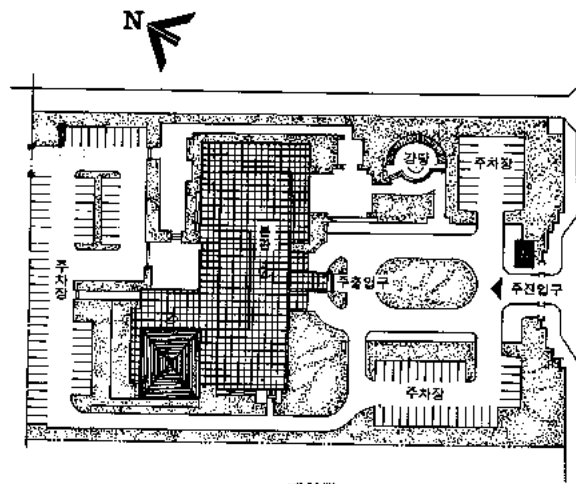


과천시청사

Kwachon City Hall

李珪杓 / 엠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Gak-Pyo / Aum Lee Architects Inc.



배치도



강당에서

대지위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3번지
대지면적 / 24, 132. 8m²
건축면적 / 3, 029. 84m²
건폐율 / 7. 9%
연면적 / 7, 505. 48m²
용적률 / 23. 3%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 적벽돌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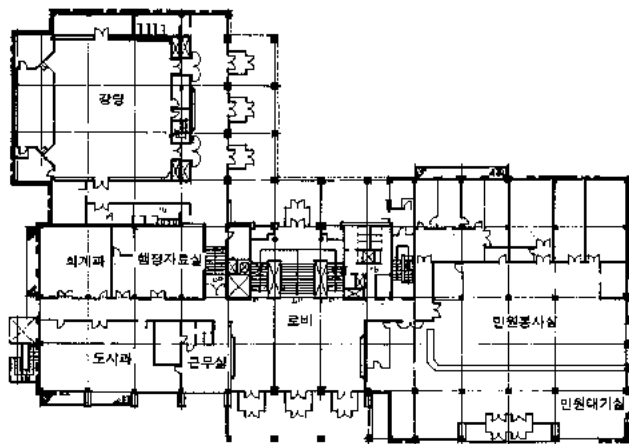
Location / Choongang -dong Kwachon, Kyungkee-do
Site Area / 24, 132. 8m²
Archi. Area / 3, 029. 84m²
Gross Floor Area / 7, 505. 48m²
Bldg. Coverage / 7. 9%
Floor Area Ratio / 23. 3%
Scale / Basement 1,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Red Brick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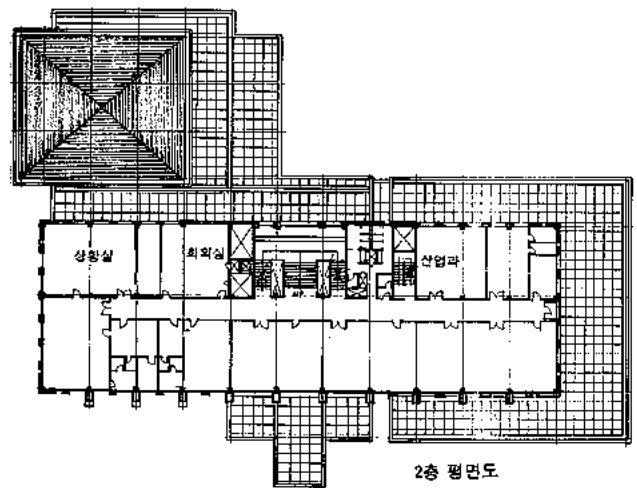
행정권의 요청지인 과천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본 건물은 정부청사와 근접하게 배치됨으로써 장차 2천년대 지방자치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리라 믿는다.

기존대지 고저차에 따른 약점은 전, 후면간의 자연스런 층별에 따른 진입으로서 해결하였으며 전면 공간의 충분한 확보로 지역주민의 Public 공간으로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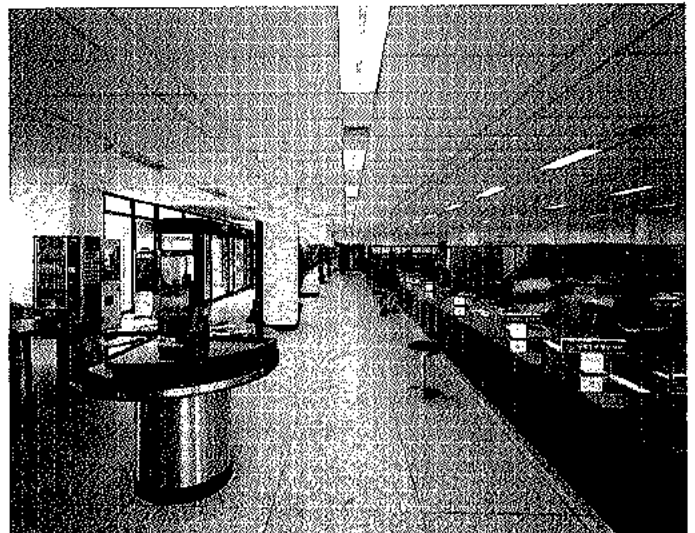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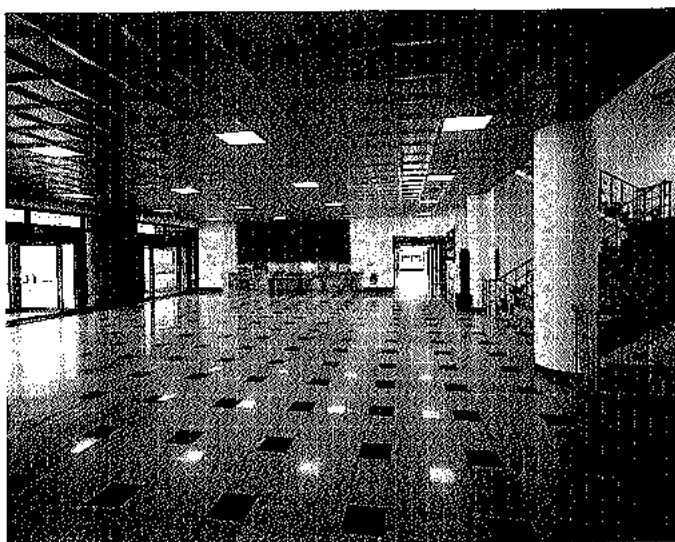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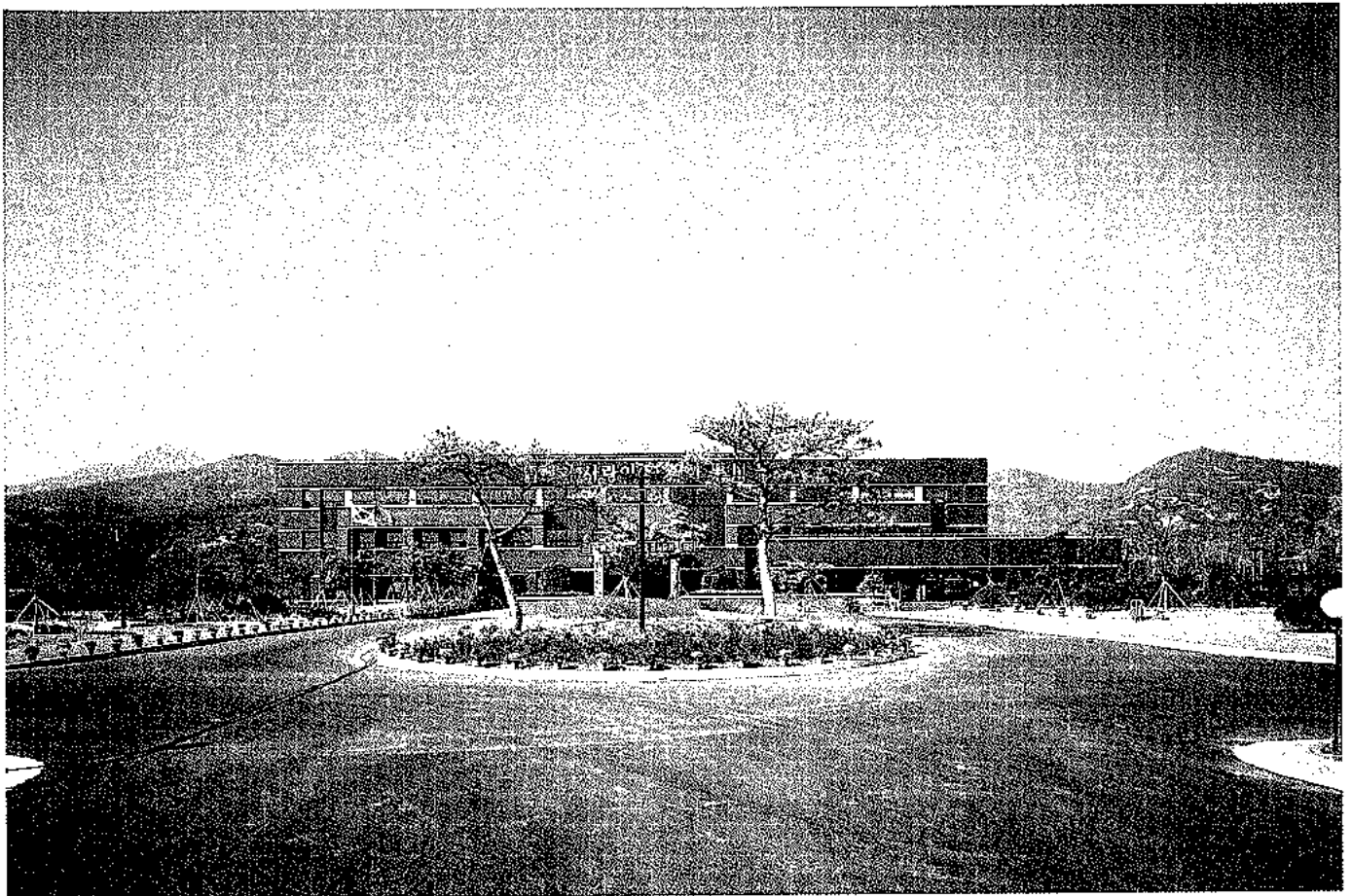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경직된 기능성 및 분위기를 나뉘대로 유연하게 하고자 외벽은 부드러운 색조의 적벽돌을 사용하였고 실내공간을 최대한 개방하여 계획하였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스위트호텔

Suite Hotel(Swiss Grand Hotel)

黃圭烈 / 삼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Whang, Kyu-Ryul / Samjung Architects & Engineers



대지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01-1
대지면적 / 37,497.0m² 용적률 / 161.73%
건축면적 / 2,862.72m² 규모 / 지상 19층
연면적 / 26,683.11m² 객실 / 111실
건폐율 / 37.3% 외장 / 에말 그라니트

Location / Hongeum-dong Seodaemun-gu, Seoul

Site Area / 37,497.0m²

Archi. Area / 2,862.72m²

Gross Floor Area / 26,683.11m²

Bldg. Coverage /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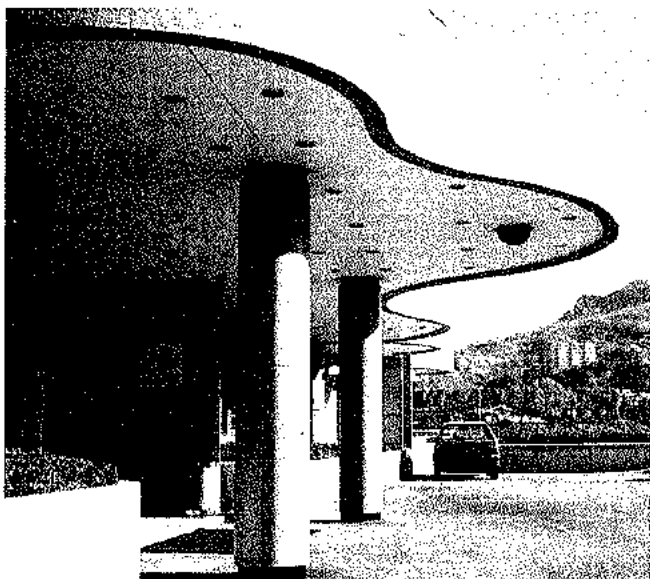
Floor Area Ratio / 161.73%

Scale / 19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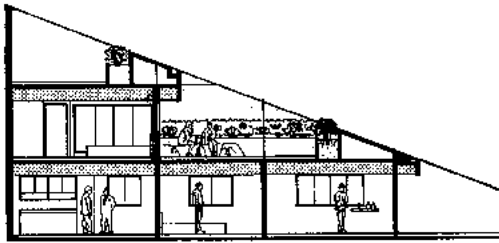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Capacity / 111 Rooms

Exterior Finish / Emal-Granite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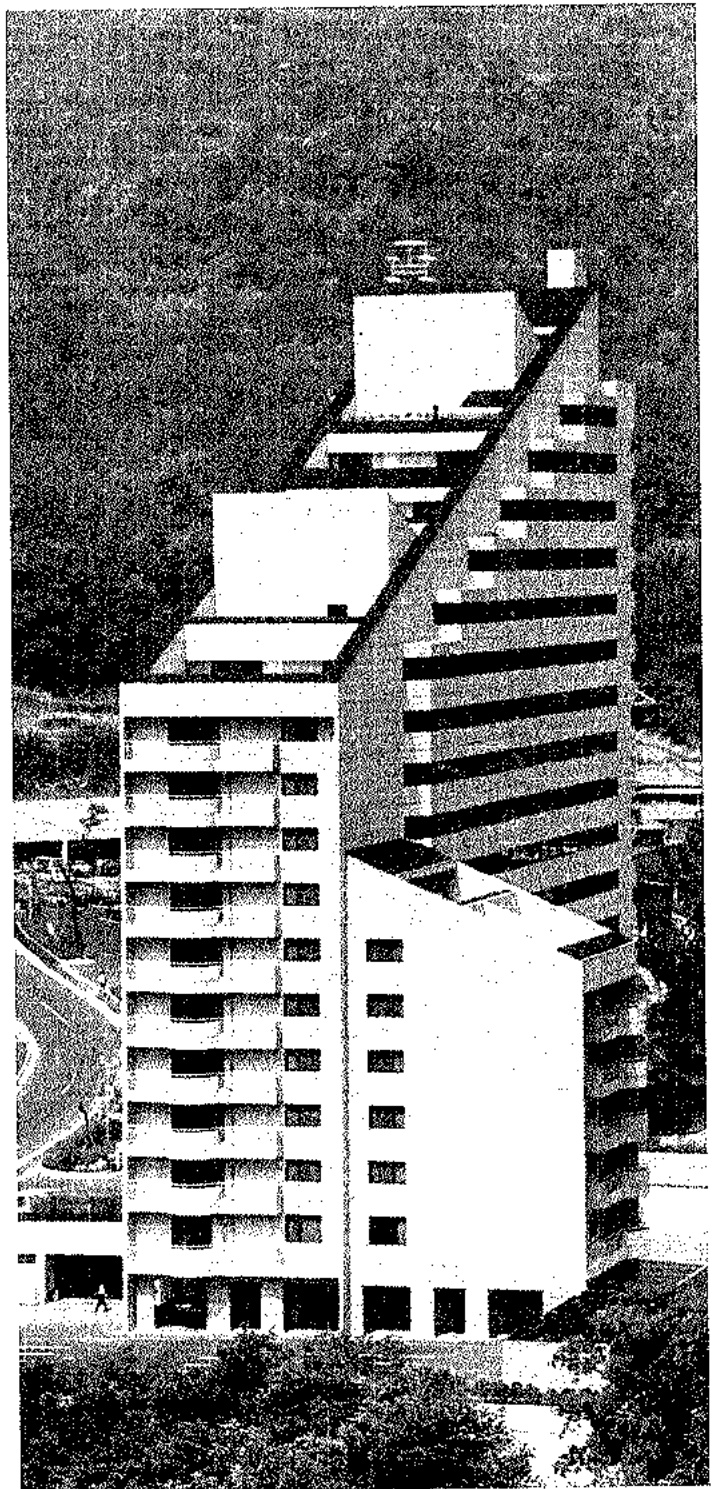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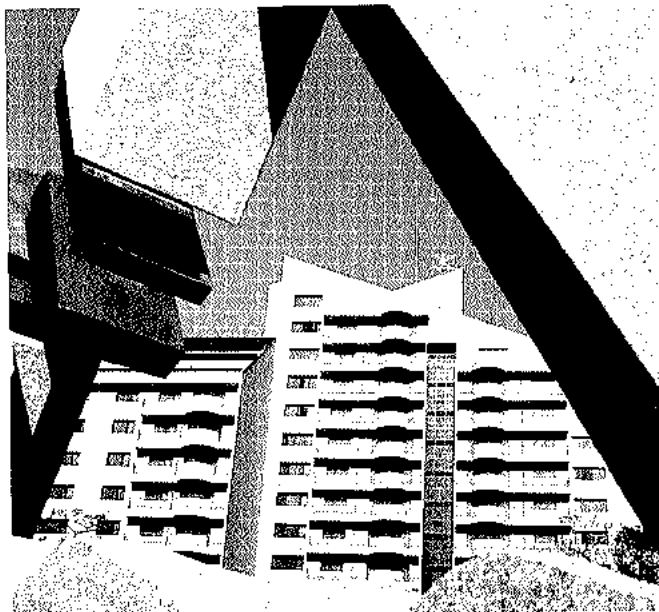
5BED-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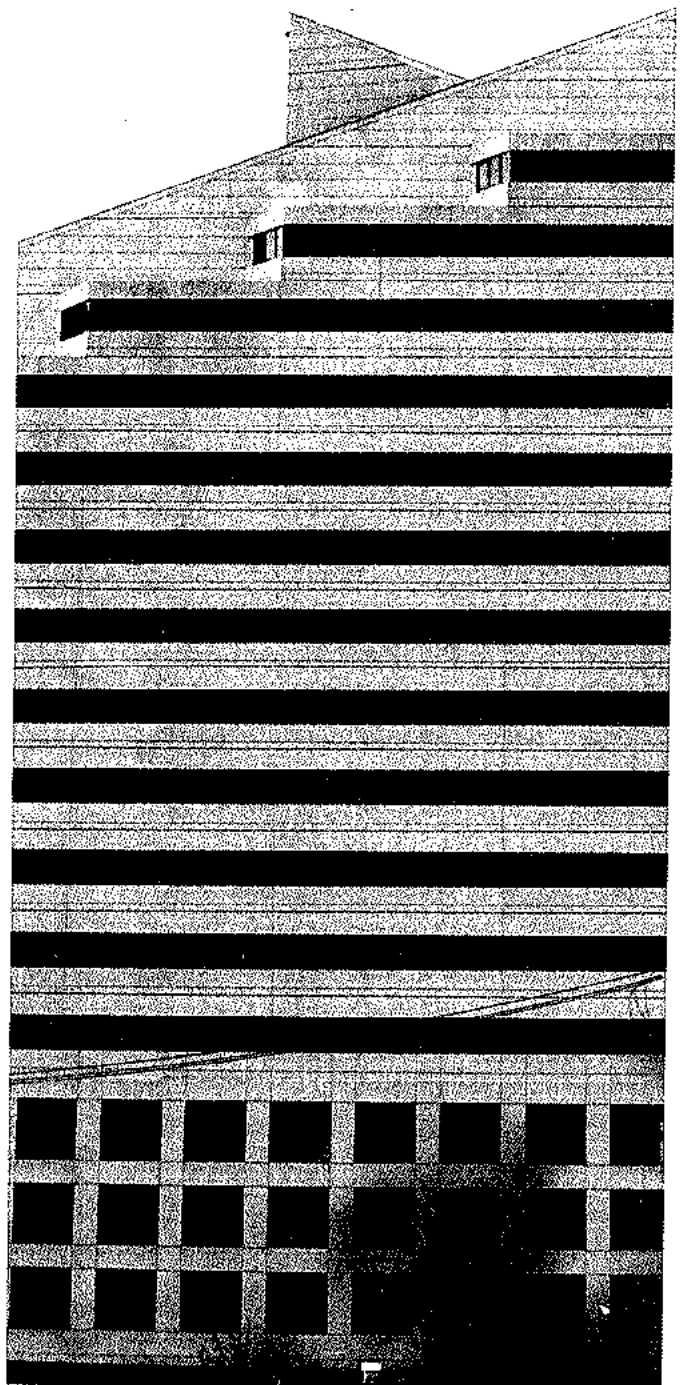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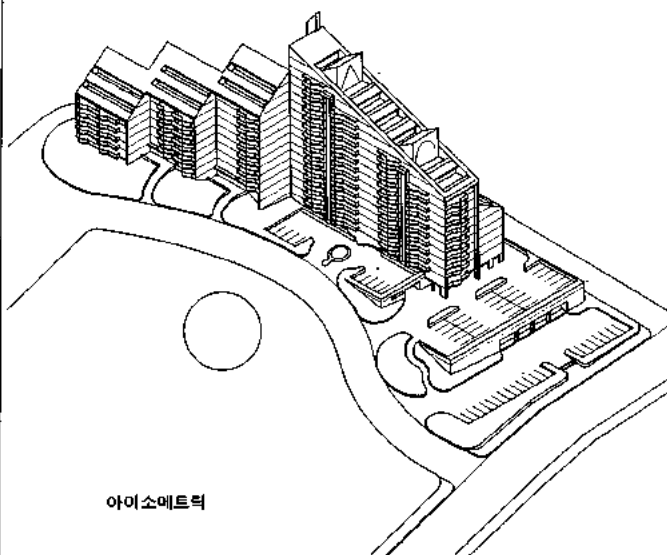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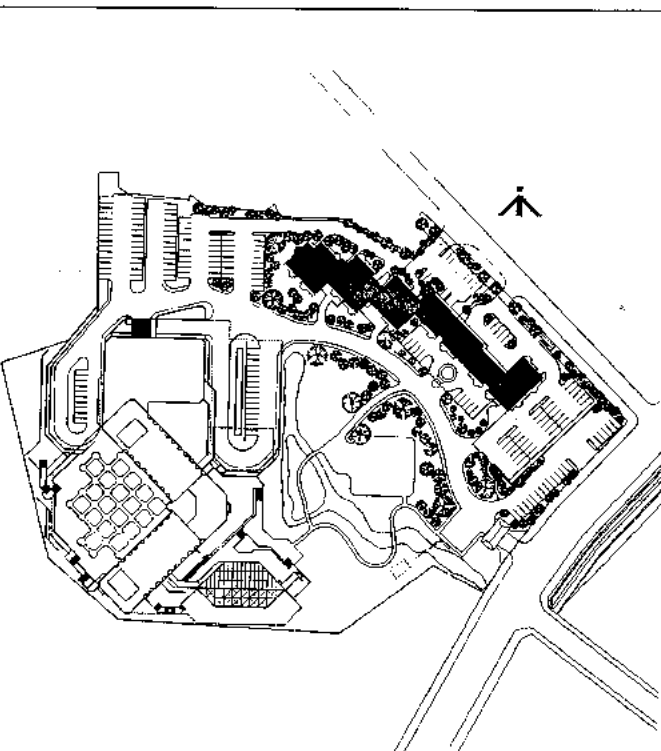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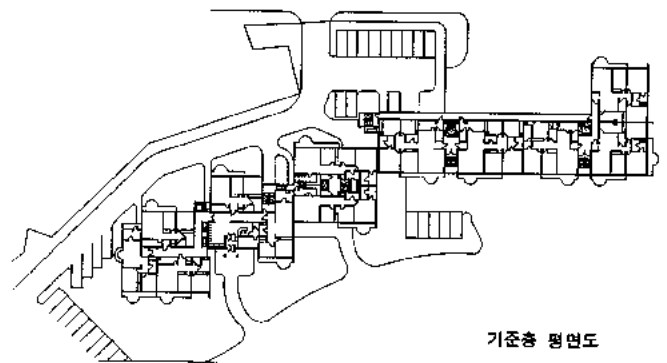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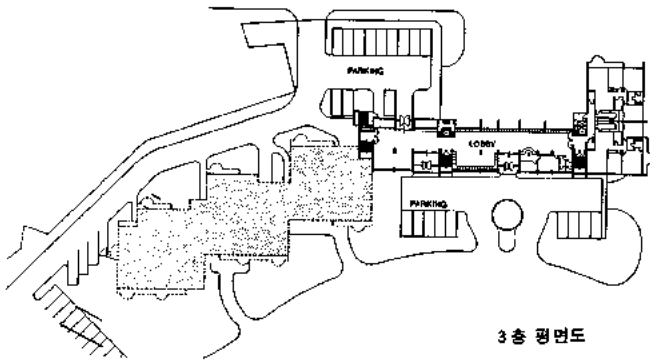
스위트 호텔은 홍은동 연희로변에 위치하며 기존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과 동일 대지내에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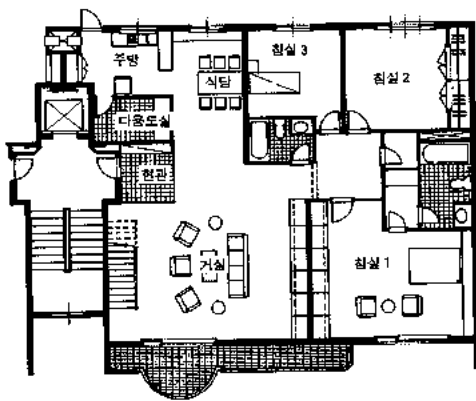
주위의 환경에 순응하면서 기존 호텔과 외관, 스카이라인, 일조권 등을 감안하여 종래의 호텔 입면에서 볼 수 없었던 의장을 추구하여, 현대건축의 미를 나타내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상징인 알프스를 회상되도록 하였다.

단층과 복층형식 (Maisonette Type) 을 갖추어 호텔 호텔의 쾌적함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최상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아파트 형식의 주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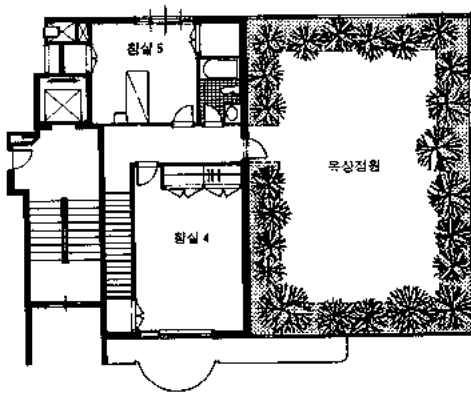
장단기 거주자를 위한 이 호텔은 앞으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서울에서의 Ultimate Living 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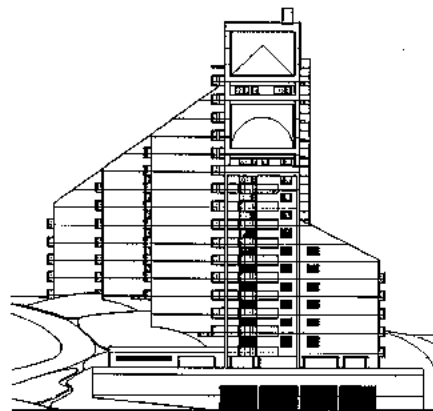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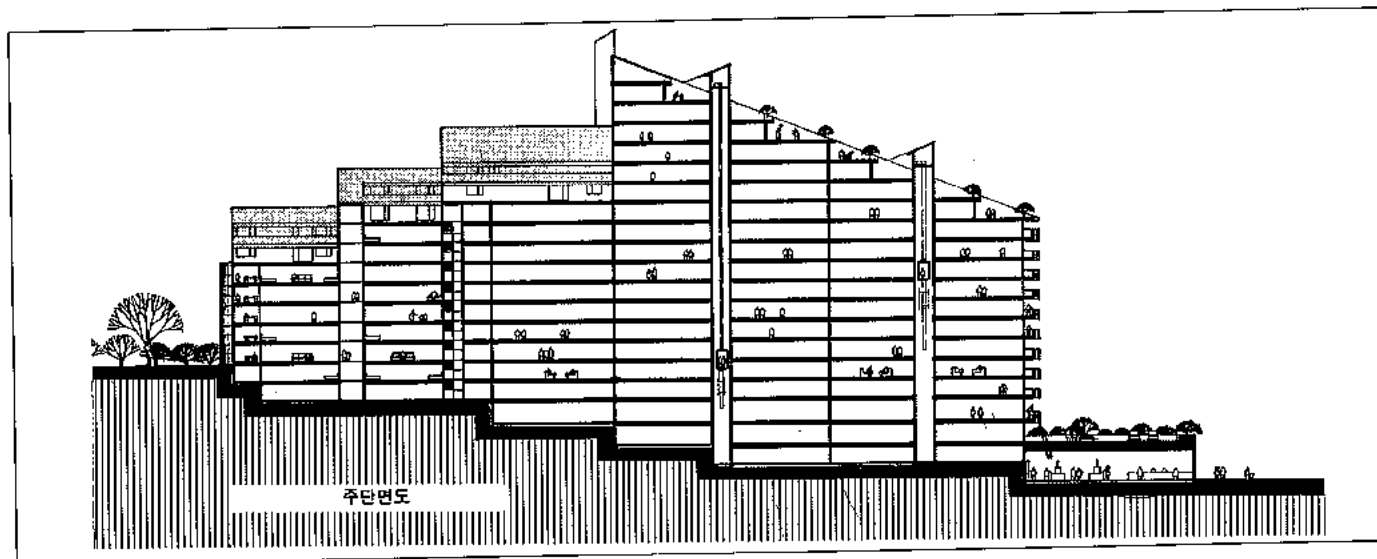
하층



상층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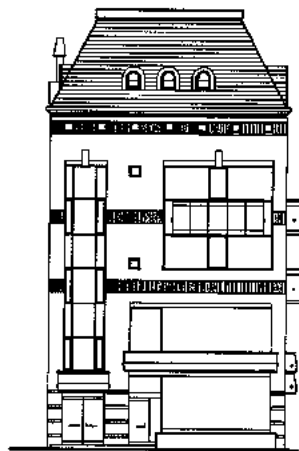
주단면도

키모드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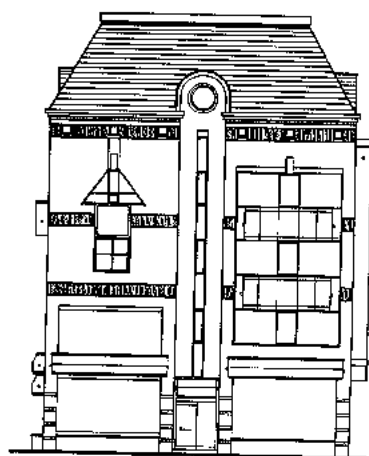
Kimode Building

崔英集 / 건축사사무소 탑

Designed by Choi, Yong-Jeep / Top Architects & Engineers



정면도



측면도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대지면적 / 378.5m²
연면적 / 1,080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외벽단열시스템,
중앙공급식 냉난방시설
설계기간 / 1987. 1 ~ 1987. 8
공사기간 / 1987. 9 ~ 1988. 8
시공 / 요진산업주식회사
건축 / 임부식, 박차현
구조 / 임철웅
설비 / 송기업
전기 / 이래설
인테리어 / Ferragamo, Zegna 박차현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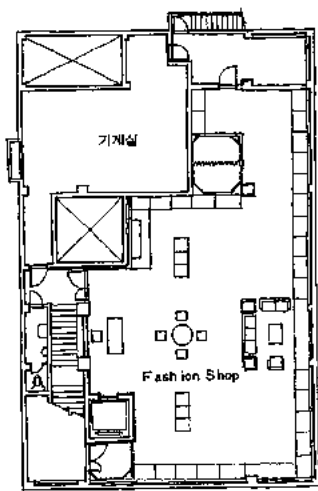
기능의 전개에 있어서 건축이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의 성격을 이미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익숙해진다면 건물의 이미지와 키모드 Fashion Shop의 의미와 판매하는 상품브랜드가 믹스되어 일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1층과 2층의 쇼윈도우를 우선 이색적으로 눈길을 끌게 만들 것이고, 1층 입구를 통해 들어온 고객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층 매장과 2층 매장으로도 안내된다. 처음 계획시 각 매장을 연결하는 내부계단도 구상을 하였으나 내부공간이 비좁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 3, 4, 5층은 별도의 전용계단을 통해 진입하게 되는데 Dead Space를 최대한 줄이고 전용면적을 크게 하는데 힘썼고, 또 용도변화에 따른 가변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외벽의 단열시스템은 몇가지 불안한 요인도 있었고, 시공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면서도 과감하게 채택하고 더욱 발전시켜 타일과 조화시키는 시도도 감행하였다. 에너지 효율도 효율이지만 이른바 중간단열의 시공에서 오는 부실함을 익히 아는 터이라 보다 야무지게 단열시공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 주된 요인이려면, 타일이나 벽돌에서의 석상삼을 해소하고 석재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하며 신선한 표면감각을 얻기 위한 것이 그에 못지않은 요인이랄 수 있다.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에너지 절약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잘 보완하여 사용하면 매력있는 공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건축가는 새로운 자재나 공법을 항상 실험적으로 개발, 시도, 발전시키는 적극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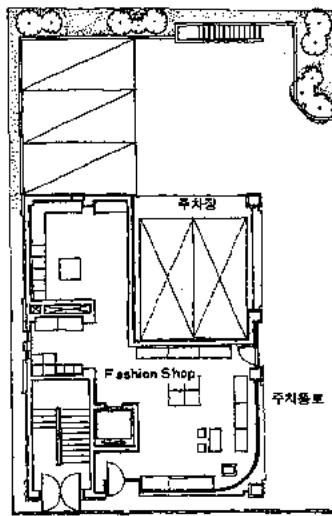


전경

Location / Nonhyun-dong Kangnan-gu, Seoul
Site Area / 378.5m²
Gross Floor Area / 1,080m²
Scale / Basement 1, 5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Rah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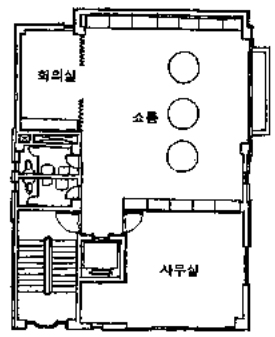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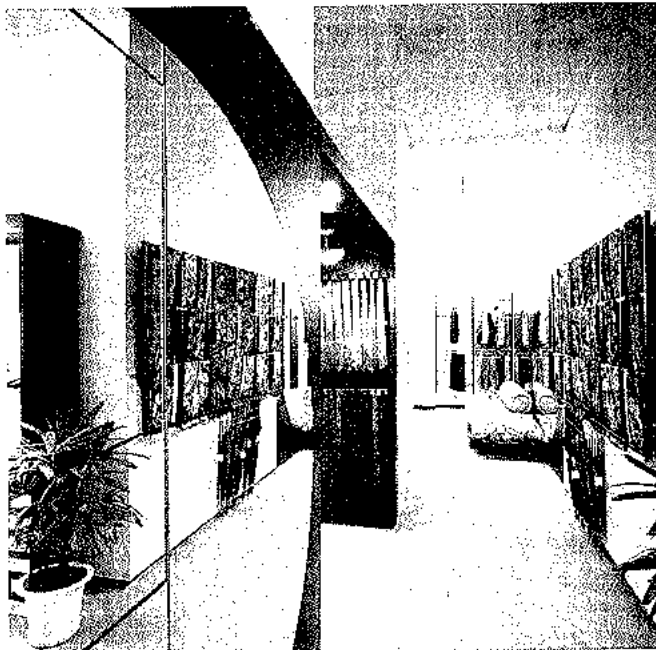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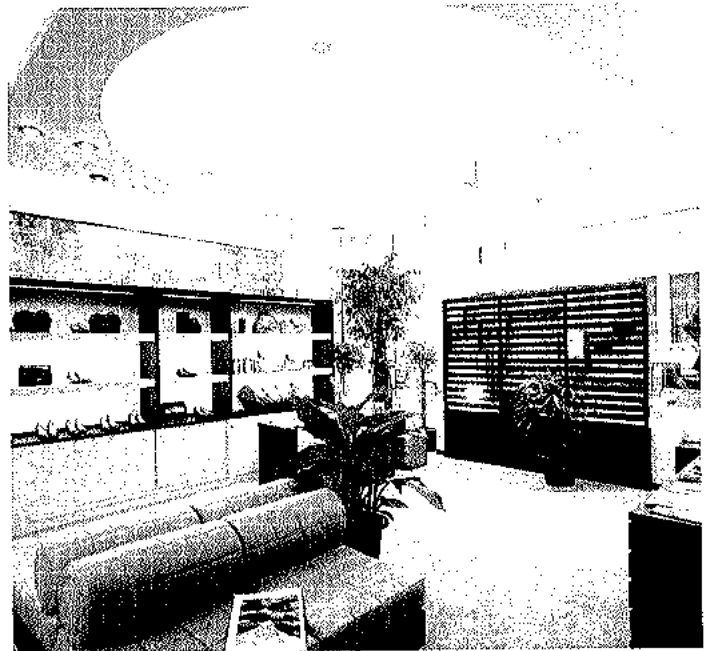
정면전경



주출입구상세



1층 매장전경복도



매장

삼일제약사옥

Samil Pharmamaceuticals Co. Headquarters Bldg.

金漢根 / 한중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an-Keun / Han Architects & Associates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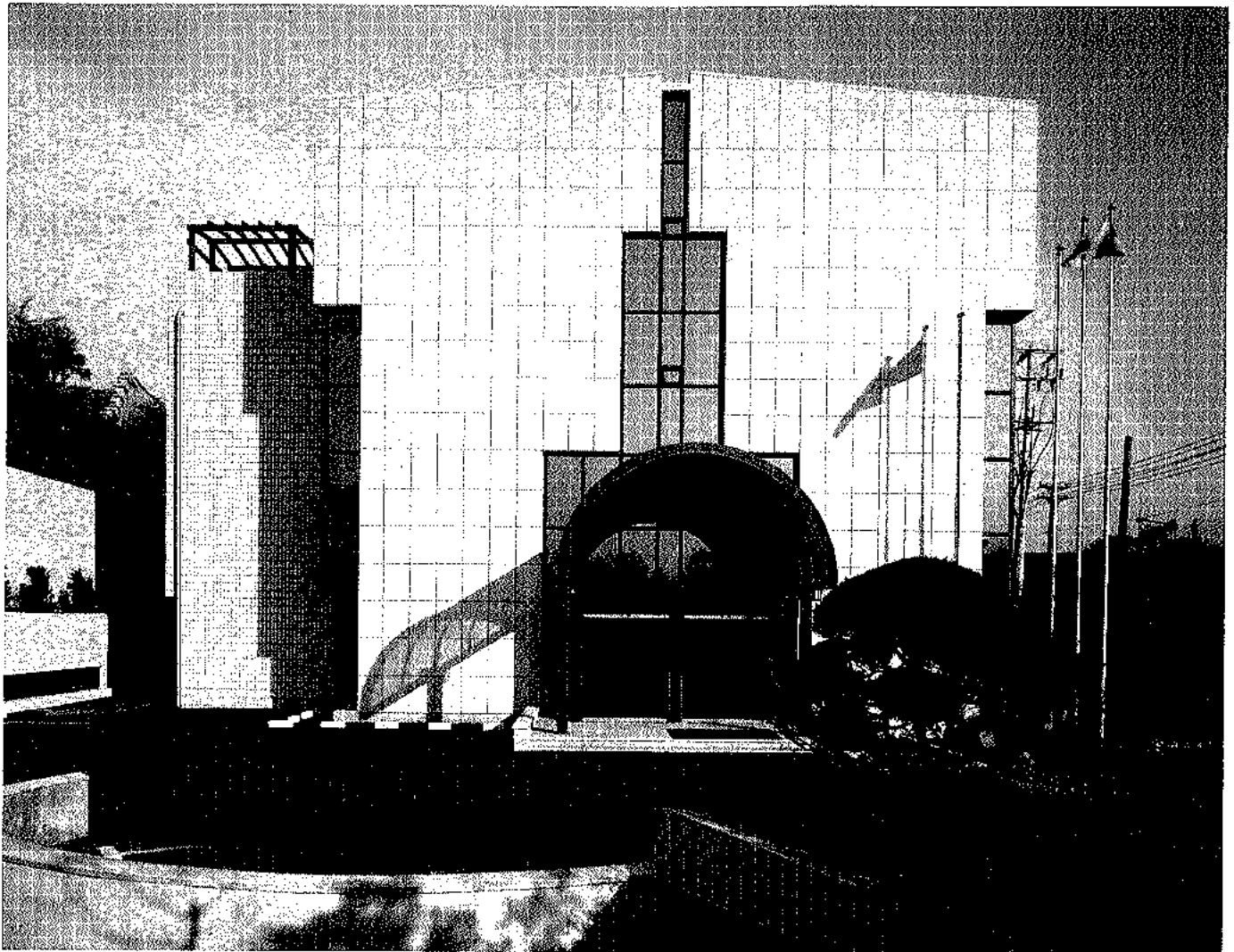
대지는 서울고등학교에서 방배전철역으로 넘어가는 언덕에 위치한 곳으로 당초 효령대군능역이던 지역으로 전면도로는 약 6%의 경사로이고 전면도로와 후면 효령대군능역 남상까지는 약 15m 정도 높이의 차가 있는 경사가 심한 대지이다.

회사 사옥인 오피스빌딩으로서의 형태를 구성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단순 명쾌하면서도 보통 상업적 건물의 가벼운 모습에서 벗어나 기념적 성격을 부여하려고 시도하였다.

외장재료는 화강석 판재와 커튼월을 이용, 단순화하여 외관을 처리하여 주변의 경관과 한국의 담장과도 상치되지 않도록 하였다.

배치계획은 대지조건에 따라 현관 및 전면을 개방된 쪽으로 배치하여 출입시개방을 주도록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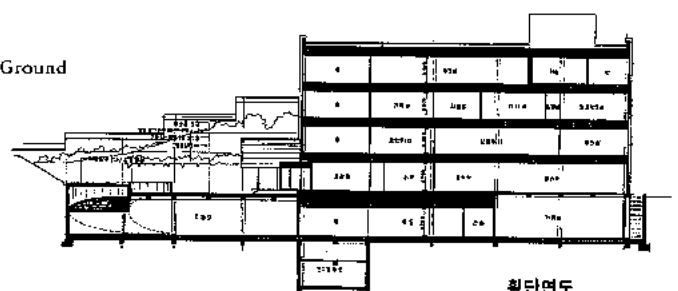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비교적 바닥면적이 넓지 않은 오피스임을 감안하여 전면진입부에 코아부분과 내측의 사무실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 사용을 극대화하였으며 도로에 면한 (남측) 쪽과 후면 (상측) 의 건물 양측을 창으로 개방하여 남측에서의 태양광선 유입과 후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유입으로 사무실의 공간을 정원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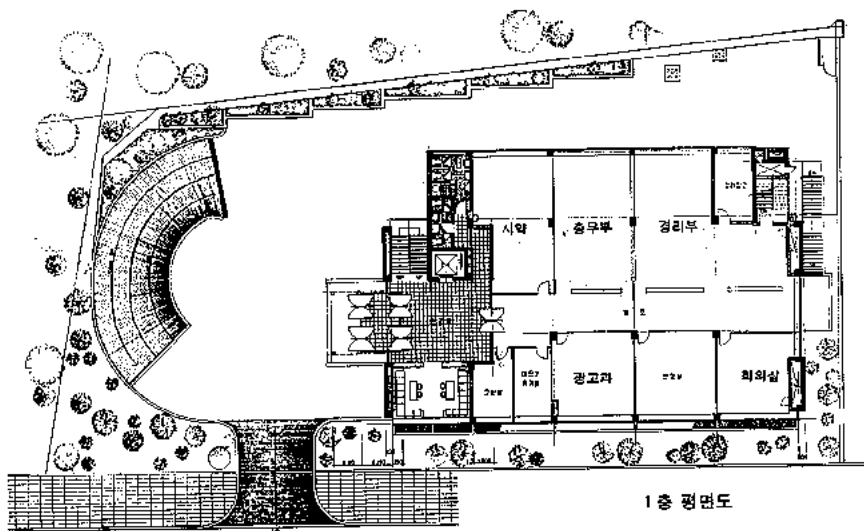
서측일면상세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990-1
지역·지구 / 주거지역, 주차장경비 미관지구
대지면적 / 1,652.9m²
건축면적 / 613.65m²
연면적 / 3,460.95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폐율 / 37.13%
용적률 / 136.24%
주요설비 / 소방, 냉·난방, 급배수, 환기설비
외부마감 / 화강석버너마감, 불소수지 코팅알루미늄 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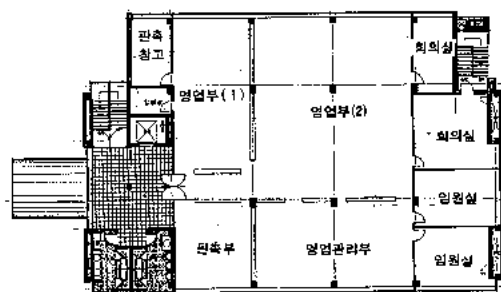
Location / Bangbae-dong Kangnam-gu, Seoul
Site Area / 1,652.9m²
Archi. Area / 613.65m²
Gross Floor Area / 3,460.95m²
Scale / Basement 1, 4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Bldg. Coverage / 37.13%
Floor Area Ratio / 13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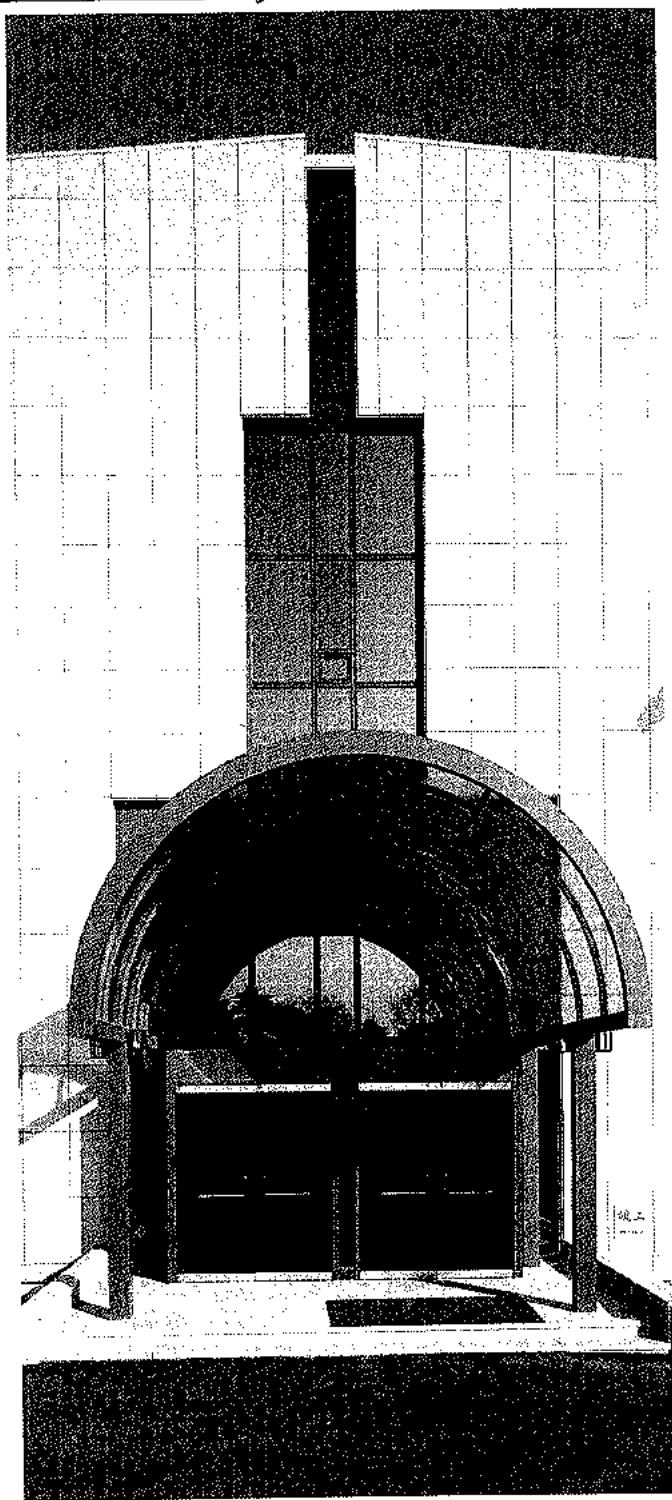
횡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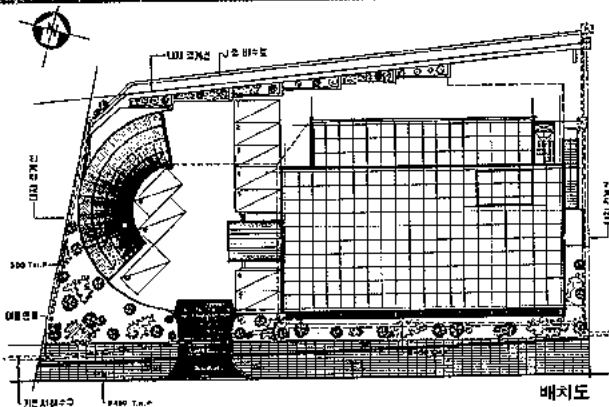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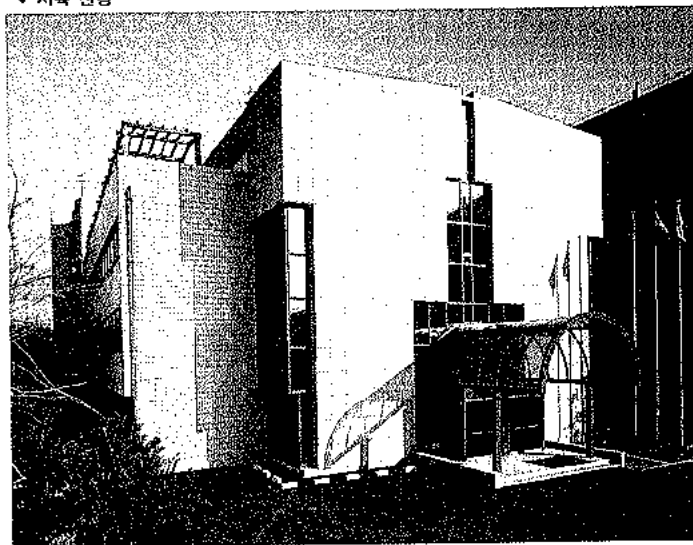


주출입구상세



▲ 1층 로비

▼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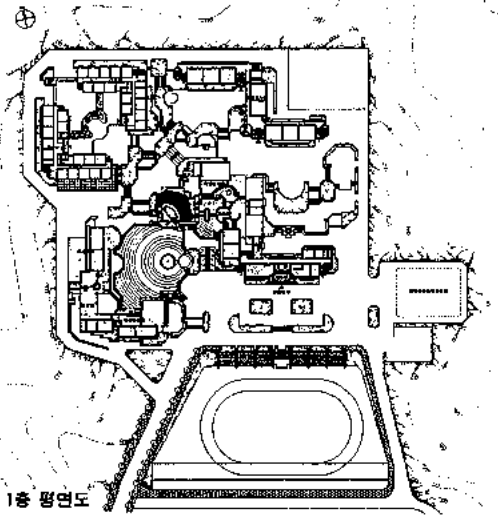
배치도

한일고등학교

Han-Il High School

河學秀 + 鄭時春 /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주건축

Designed by Ha, Hack-Soo & Chung, Si-Choon / Jeongjoo Architects & Engineers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대지위치 / 충남 공주군 정안면 광정리
 대지면적 / 294, 200m²
 건축면적 / 5, 615. 37m²
 연면적 / 15, 702. 4m²
 동별면적 / 본관 및 특별교사동 - 4, 475. 98m²
 도서관 및 학생회관 - 2, 090. 26m²
 일반교사동 - 4, 019. 21m²
 기숙사 - 5, 116. 93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 붉은벽돌 치장쌓기
 설계담당 / 강명준, 김성용
 기계설계 / 신진설비연구소
 전기설계 / 신진전기설계연구소
 구조설계 / 이후관
 Location / Jeonan-myun Kongju-gun, Choongnam
 Site Area / 294, 200m²
 Archt. Area / 5, 615. 37m²
 Gross Floor Area / 15, 702. 4m²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Red Brick

설계소요

1986년에 설립된 한일고등학교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청소년기의 인격 형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식 전수교육이 아닌 인간 교육을 지향하여, 학교 부지를 도시를 떠난 대자연 속에서 선택하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정규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닌 全人, 全人 교육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기능적 목표

가.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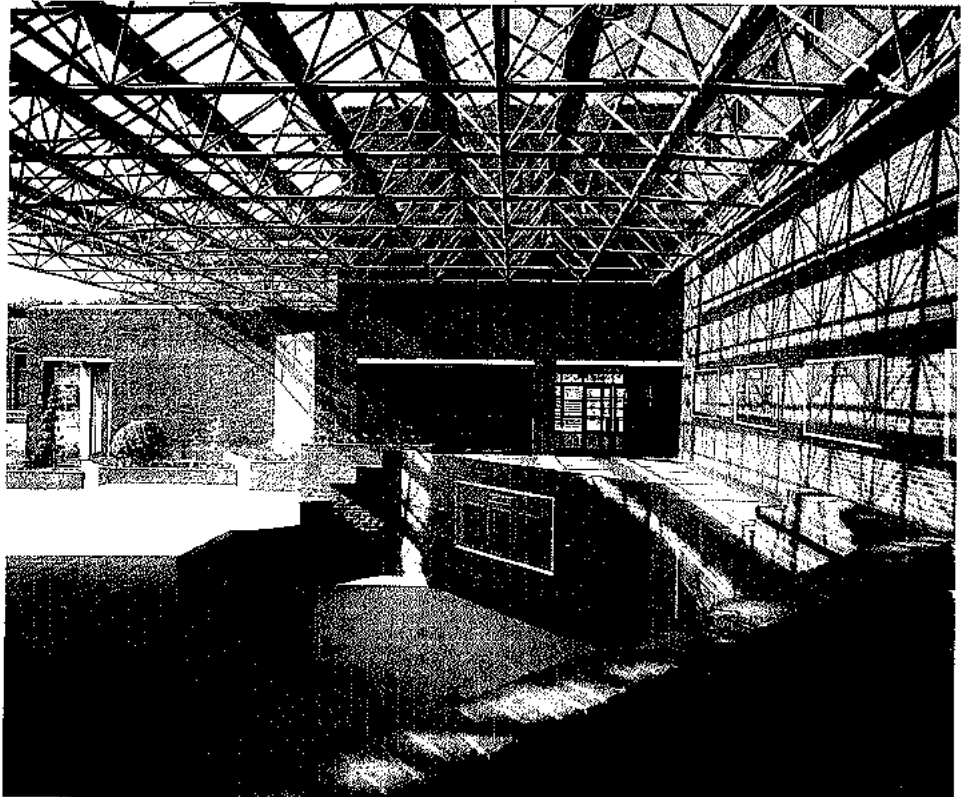
- 초기단계 : 1987년, 학급당 50명, 학년당 4학급, 3개학년으로 1989년에 정원 600명.
- 완성단계 : 1992년, 학급당 50명, 학년당 6학급, 3개학년으로 정원 900명.

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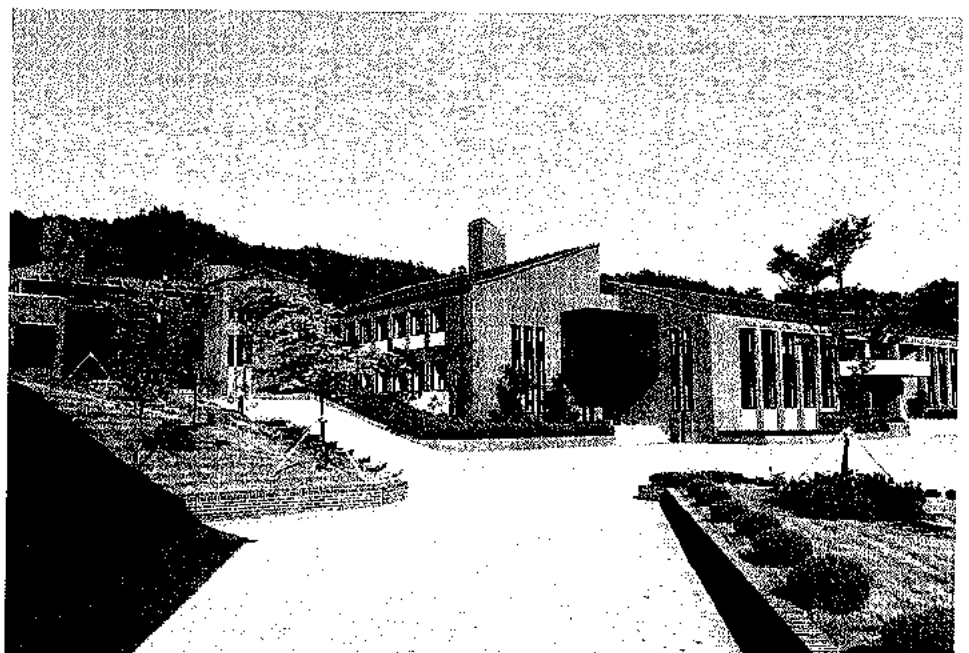
- 학교의 각 시설들은 각기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분절되어야 하며, 동시에 상호 긴밀히 연락하기 위해 재통합되어야 한다.

다. 가치의 위계

- 학교활동중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모든 활동은 이 교육활동을 보완, 지원하는 데 유리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본관과 특별교실동을 연결하는 중정



주출입구에서 본 본관

라. 인간적 가치증진

- 교육과 이를 위한 환경은 인간성 향상을 그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한다.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한다.

*개별성: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

*사회성: 계획된 만남은 정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당연히 이루어짐으로 오히려 학생 상호 간 또는 교사와 학생간의 우연한 만남, 비정규적인 계획된 만남을 위한 장소를 적극적으로 의도함으로써 사회성을 높인다.

형태적 목표

가. 자연환경과의 관계

- 계획부지는 한국 전래의 풍수지리설에 의해 「명당」으로 일컬어지는 지형으로 배후에 주산을 중심으로 좌우의 능선이 「터」를 에워싸고, 앞에 개천이 흐르고, 전면 들 건너에 안

산이 위치해 있다.

- 또한 부지는 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 따라서 명확한 자연의 질서를 배치 및 형태의 기준으로 삼고, 경사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나. 영역성·방향성·입구성

- 사람은 자신 및 자신을 포함하는 그룹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위치, 방향성을 가짐으로써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 풍수지리의 「局」은 이러한 장소이다.

- 이 영역은 입구를 가지고, 또한 표현되어야 한다.

경제적 목표

- 건설비의 적정선 유지

- 유지관리의 효율성

시간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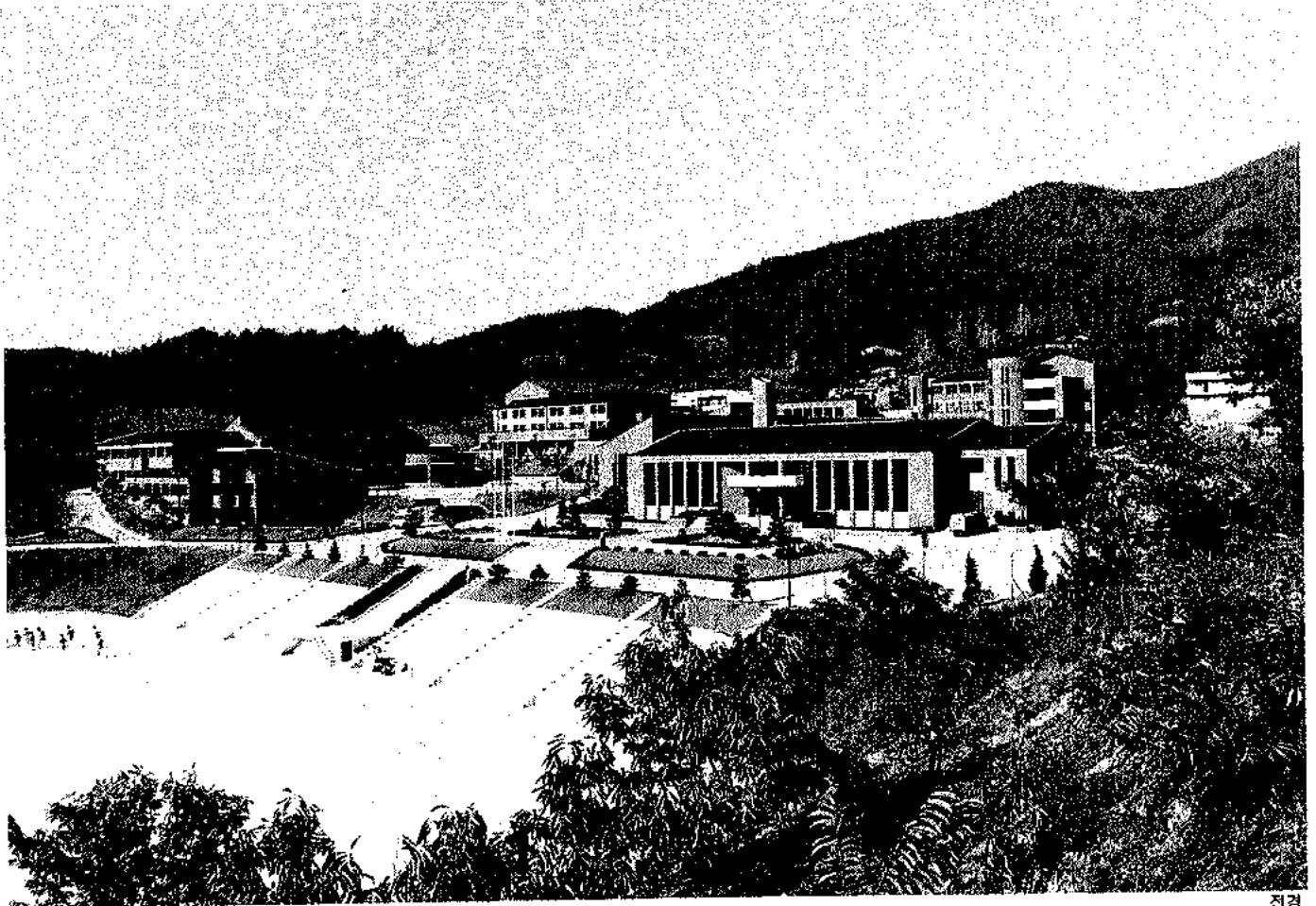
- 학교는 설립후 완성 규모를 가질때까지 성장과정 중에도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교육내용, 방법, 도구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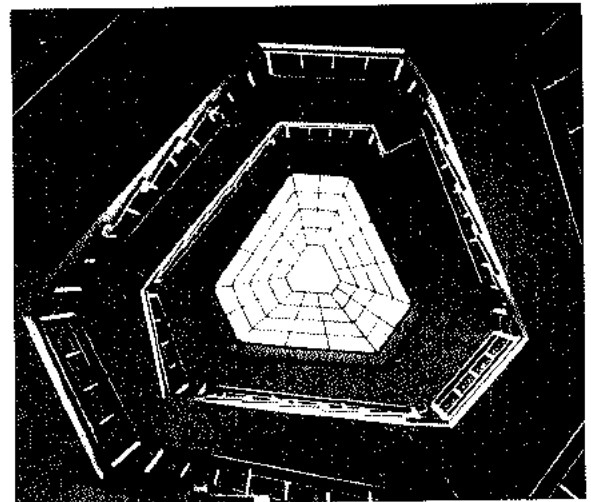
학교 건물은 線形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이 폭의 한계성때문에 線形化 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각 기능별 영역을 분절시키면서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에 의해 둘러싸임으로서 중정을 형성해 갔다. 전면의 운동장을 면한 행정 건물과 여기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결한 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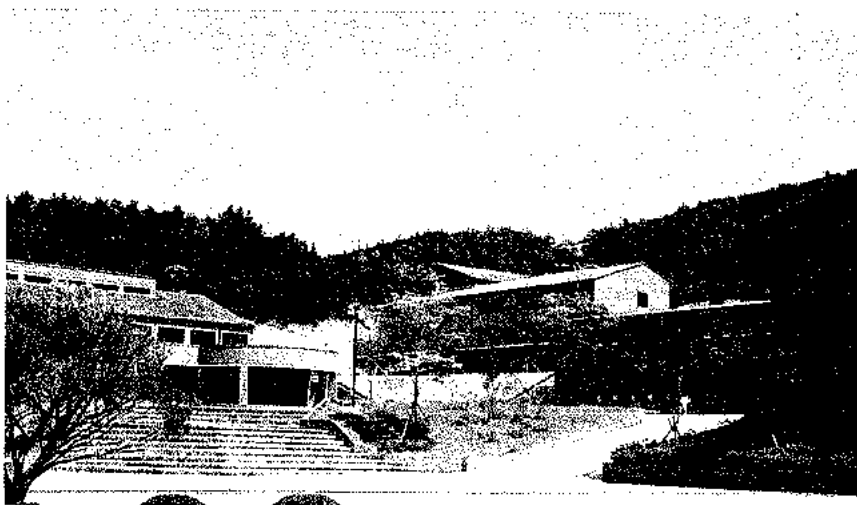
독널교실동



계단실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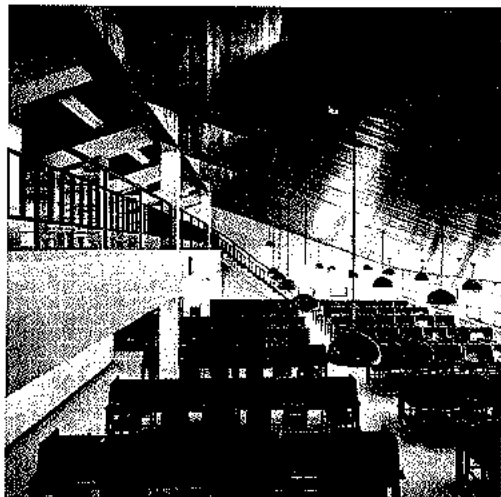
특별교실동



도서관 및 기숙사



본관 부출입구



도서관 내부

별교실동을 캠퍼스의 전면 중앙에 위치시키고 그 후방에 교사동, 그 서측에 도서관, 학생회관을, 북측에 기숙사를 배치하여 행정건물 전방의 「公」에 대하여 교사동, 기숙사들은 각각 고유의 「私」적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행정, 특별교실동과 도서관, 학생회관동 사이에는 캠퍼스 중앙광장을 두어 전면으로는 진입도로와 후면으로는 교사 및 기숙사 영역의 마당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중앙광장에 면한 도서관, 학생회관의 중앙부 1층과 전면을 피로티로 만들고, 특별교실동을 관통하여 중앙광장과 교사동을 잇는 동선의 결절점에 옥내광장을 두어, 다양하고 우연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외부와 내부공간의 단계적 전개를 꾀하였다. 교문으로부터의 진입로는 적절한 곡선을 가짐으로써 시각의 연속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평면계획

기능공간들은 일정한 모듈에 의해 계획함으로써 장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였으며, 복도의 창측에 앉을 수 있는 창대를 만들고,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출입을 두어 동선처리하는 물론, 교육시간외의 자유로운 행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도의 길이는 최대 50m를 넘지 않도록 하고 더 길어지는 경우에는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형태계획

벽돌 벽에 오지기와와 단순한 매스들이 곱이 고, 집합되고, 중첩되면서 통일된 주제속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가진 「群集形態」를 시도하였으며 행정동, 일반교사동, 특별교사동, 도서관, 학생회관, 기숙사들이 각각 그 기능속에서 우러나온 표정을 갖도록 하였다.

새해 人事



朴胤成 / 大韓建築學會長

1989年을 맞이하여 建築士여러분들에게 새해의 人事를 올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萬福이 깃드시길 祈願합니다.

建築士協會는 작년에 ACA 3라는 큰 잔치를 치르는등 많은 어려운 일들을 훌륭하게 마치고, 또한 새會長님을 選出하여 새로운 陣容을 갖추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동을 하여온 激動의 時期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금년도 이러한 변동속에서 建築士여러분들께서도 건축사의 새로운 役割에 대한 사회적인 좌표에 대하여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새로운 方向性에 대한 定立을 하여보는 것도 轉換期에 처하여 있는 우리사회의 한 모퉁이에서 意義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建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은 변화발전을 거듭하여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축은 크게 변화발전하여 갈 것이라고 期待를 하면서 희망의 찬 새해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건축사의 사회적인 신망도도 두터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建築士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어 갈 것을 크게 期待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의 기술적인 발전 또한 학문적으로 깊이 있고 폭 넓은 연구와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民主化의 물결이 거세게 오고 있고, 과거의 權威主義는 喪失하여가고 있는 격랑속에서 건축사 여러분의 權威를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權威를 치켜올려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새롭게 부각된 課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건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훌륭한 건축을 창조해 나가야하는 건축사의 사회적인 임무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力量의 蓄積은 어디까지나 학문을 토대로하는 새로운 理論의 展開와 尖端技術의 消化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건축활동의 活力에서 期待를 갖는 것이 올바른 方向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도 학문에 대한 熱意를 저버리지 마시고 平生 研究를 통한 학문의 깊은 조예를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새해에도 훌륭한 건축작품을 사회에 선보이시고, 우리사회에 큰 寄與를 하여주실 것을 祈願하면서 몇마디 新年의 人事말씀으로 代할까 합니다.

리카르도 보필 레비

건축공방: 탈레 드 아키텍투라

Overseas Contemporary / Ricardo Bofill · Taller de Arquitectura

成仁洙 /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Seong, In-Soo



▲ 리카르도 보필 레비 근영

베르니니가 했던 것처럼,
숲을 자라게 하고 그안에 광장을 만든다.
타원형의 궁전을 만든다.
거대한 콜로네이드,
주위에 빛나는 작은 분수,
나무 사이로 투시도를 그린다.
숲을 조각하고 미로처럼 길을,
조밀한 터널을 잘라낸다.

수면은 끝없이 빛을 반사하고
찬란히 빛나는 태양과 질은 그림자,
홀로 걷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젊은이에게 축제의 광장.
집단무의식에 잠긴 꿈을 위하여.

— ‘레알’ 공원계획안중

발제한 시와 설명문 중에서 —

◆
成仁洙

52년 仁川生으로 75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여 同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송민건축, 외전건축사무소에 근무하였으며 현재 울산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1. 대표작

탈레(Taller)라는 말은 Studio 나 Workshop 을 가르키는 스페인어로서, 리카르도 보필이 이끄는 팀의 작업 속성을 말해준다. 여기서는 ‘공방’으로 해석하여 이 팀의 명칭을 ‘건축공방’으로 부르려 한다. 파리 근교 뉴타운을 계획하는 다수의 계획안 중에는 몇사람의 계획안이 모더니즘을 향한 끝없는 여행(Space Odyssey Modernism)이나 목가적인 향수(Bucolic Nostalgia)를 느끼게 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작업의 시작이 — 최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 바르셀로나의 건축공방/리카르도 보필의 팀에 의해 프랑스 베르사이유 근처

생-랑탱-앙-이브린느(Saint-Quentin-en-Yvelines)에 세워진 두개의 복합건물에서 일어났다. 1972~75년까지 설계된 ‘호수의 아케이드’(레자카드 뒤 락 Les Arcades Du Lac)라는 뜻의 600세대의 공용 주거단지계획과 호수 위 교량 위에 세워진 ‘교량’(르 비아뒤크 Le Viaduc)이라는 74세대의 공동주택을 대표작으로 볼 수 있다.

1974년 당시 건축공방의 ‘건축 및 도시관’을 반영하고 있는 이 두개의 인접한 계획안은 단일 그리드와 전원도시로서 계획되었다. 이는 프랑스에서 시행된 최초의 저렴 임대 공동주택의 실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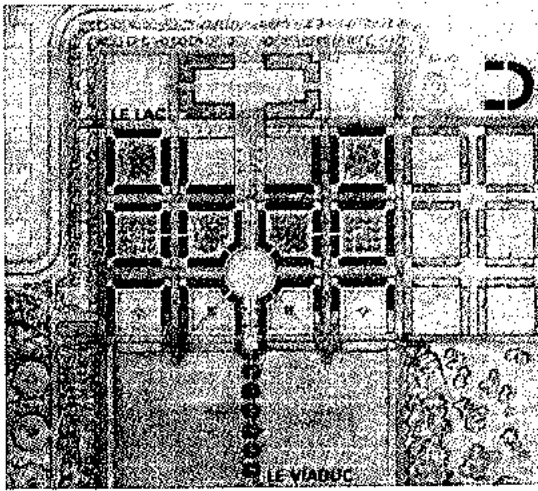
형태가 두드러지지 않는 주위경관에 대해 대담한 대조를 이루면서, 보필과 그의 파트너들은 밀집한 매스로 된 건물과 견고한 축에 따른 공간을 구성하였는데, 엄격한 규범에 의한 정면들과, 균일한 옥상난간의 선들과, 정형의 정원과 이를 가로지르는 인공호수로 되어있다. 입면 콘크리트 패넬, 콘크리트면의 단순한 장식, 콘크리트의 질감등이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고전적 기둥양식을 도로측 입면으로하여

강한 인상을 주게 하고, 이것이 연장되어 베르사이유 궁전과 파리대로를 연상시키는 조경에까지 확장되었다. 멀리서 보면 아르카디아 풍경 속에 신전같은 구조물의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가까이서 바라보면 수세미를 거치며 형성된 거리풍경에 적응된 분위기의 매스를 느끼게 될 것이다.” 아케이드라는 명칭은 건축공방이 꿈꾸는 서구의 시민생활을 담아주는 곳으로서,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었을 것이다. 가로로는 도시의 통로를 만드는 장소이고, 광장은 집단의 모임이나 만남을 위한 장소이다. 가로, 광장이 의도적으로 단순한 직교배치의 축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 자연이 넘치고 자동차가 없는 고층의 주거단지이다. 현대 도시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자동차는 지하주차장에 보관한다. 이 건물은 그 이후 건축공방의 작업의 모델을 제시한 작품이었다.(사진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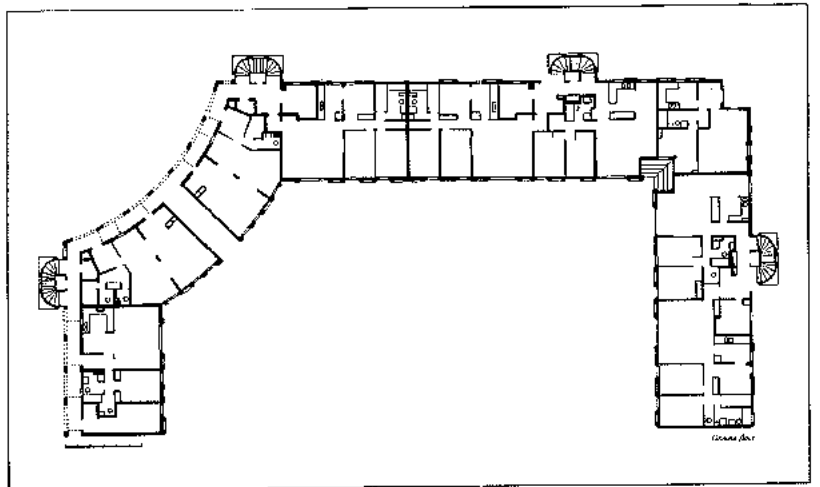
이 계획안들은 1970년대 말에 완공되었는데, 그동안 파리의 ‘레 알’계획안을 진행했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계획안에 대해 당시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은 리카르도 보필을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건축가’라고 격찬했다.²⁾ 커다란 원형열주로 중심을 이루고 그 주위에는 나무숲이 배치된 계획이었다. 도시의 교통과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파리 중심지역에 과거를 회상시키는 요소와 상징으로 길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자기 것인 이 공원에서 현대생활의 피로를 풀기를 바라며 출몰했다. 주민을 위한 계획과 주민에 의한 참여가 ‘도시의 극장’(Urban Theater)을 통해 이루어 지도록 희망했다.³⁾(사진 11, 12)

2. 그들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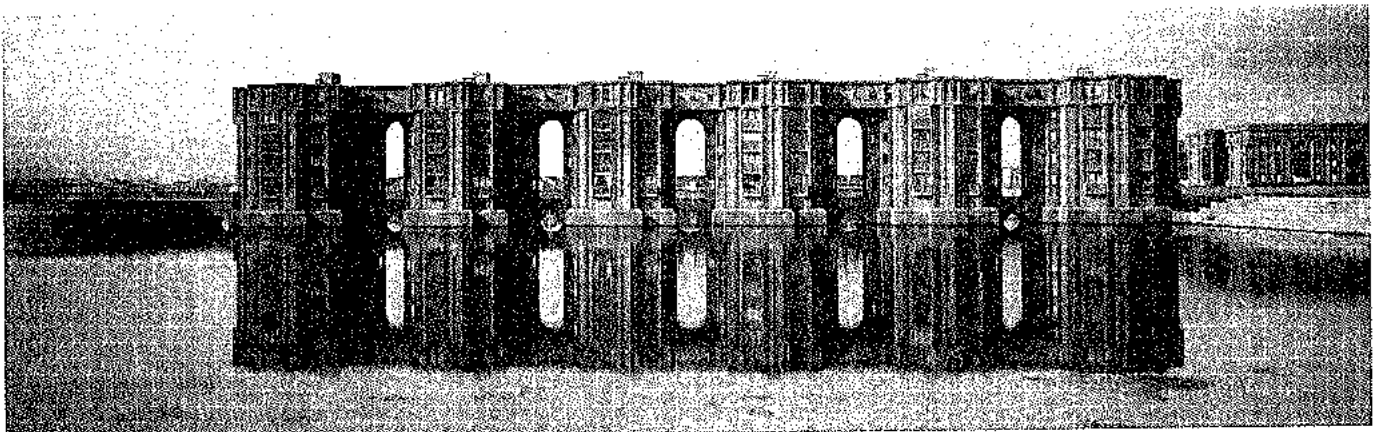
a. 리카르도 보필(Ricardo Bofill)의 생각
리카르도 보필의 발언에 의하면, 건축공방과 자신의 시기를 2시기로 나누고 있다. 최근까지 26년에 걸친 그의 활동기간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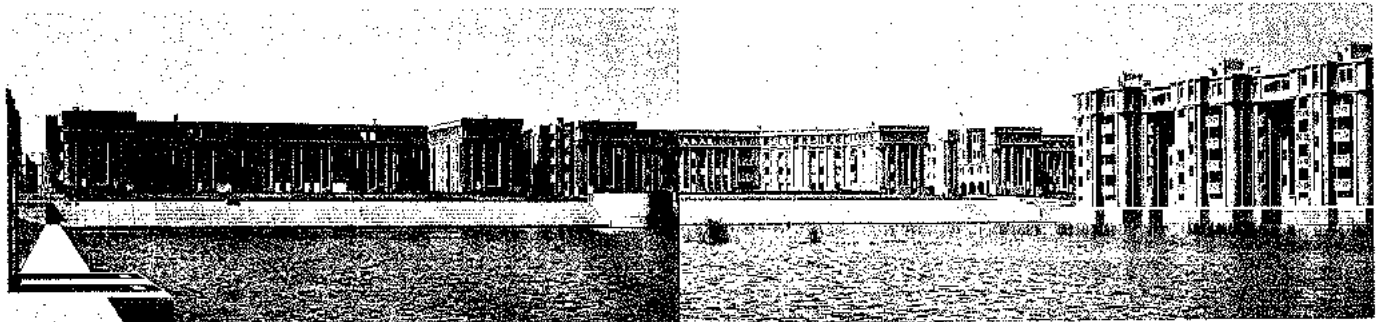
▲ 1.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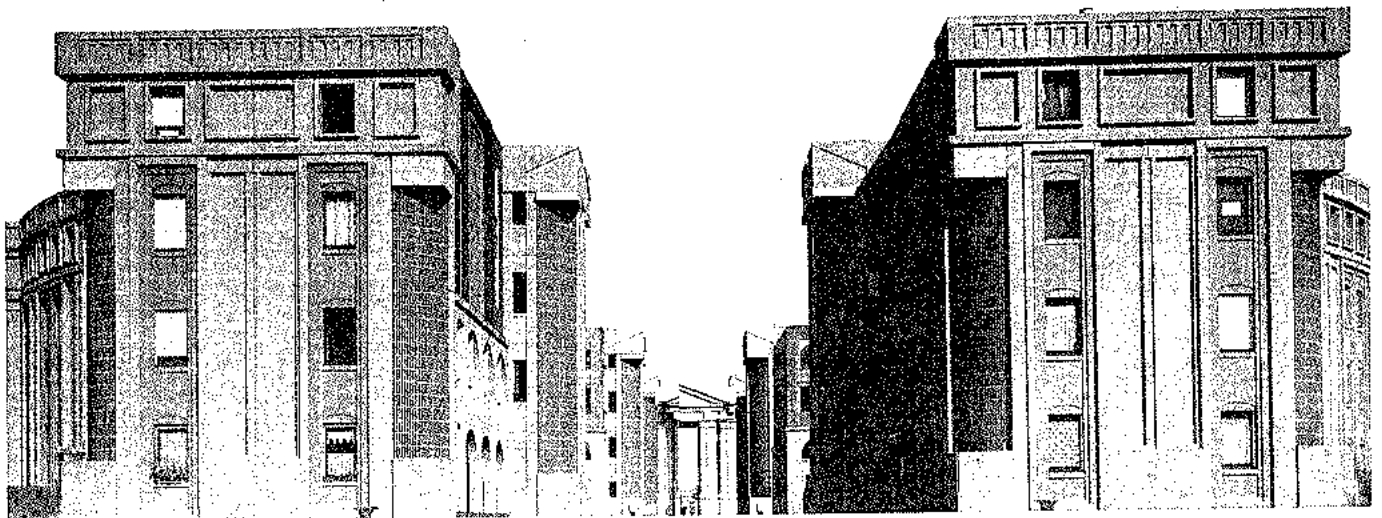
▲ 2.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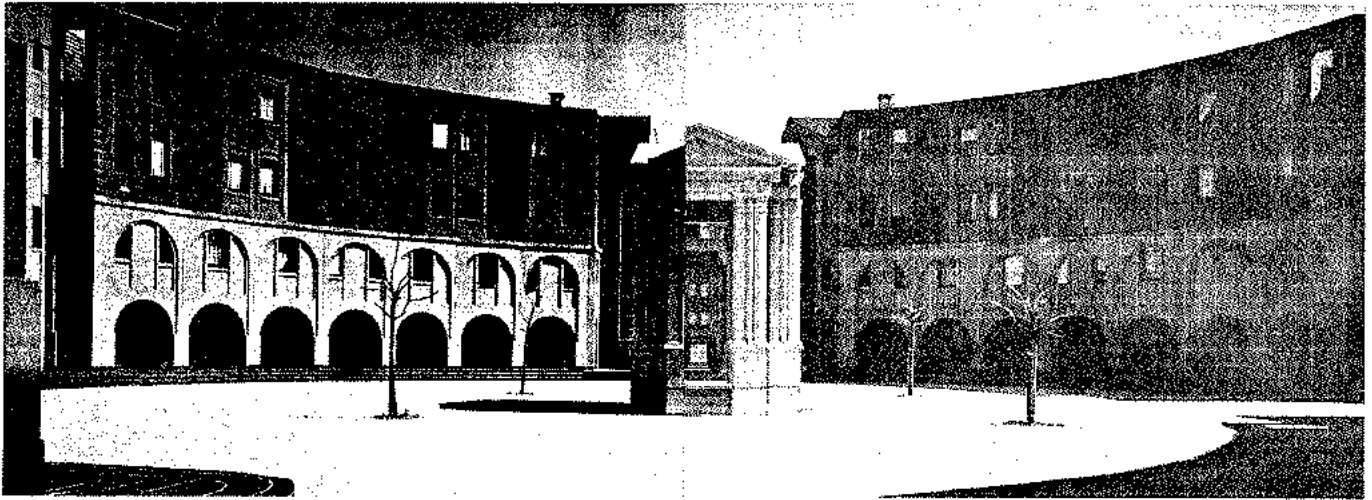
▲ 3. 호수 위의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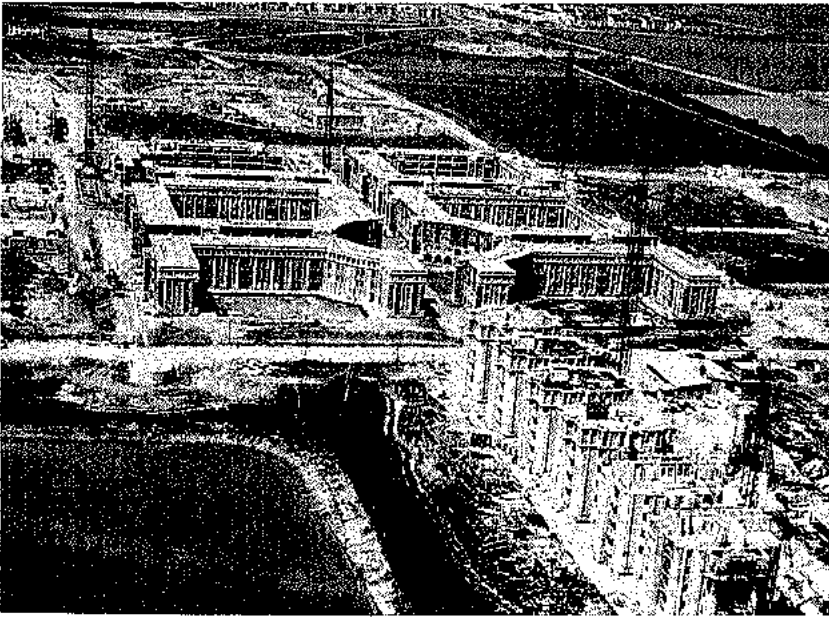
▲ 4. 호수 위 '교량' 일부와 '호수의 아케이드' 전경



▲ 5. 광장일구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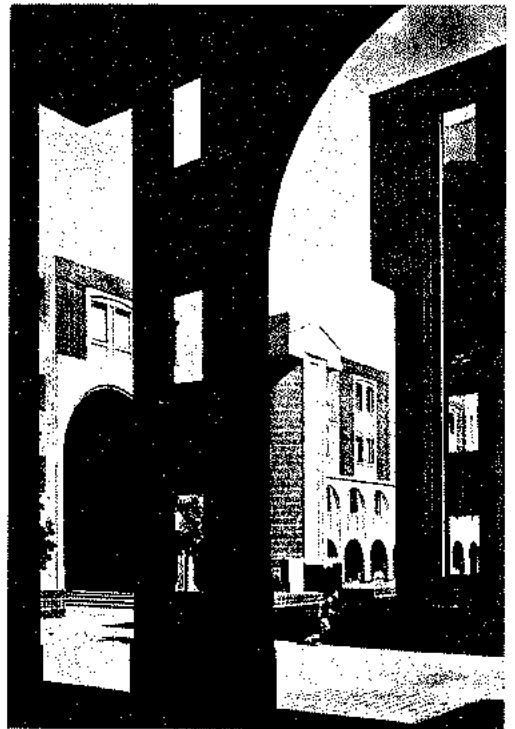
▲ 6. 공장내부



▲ 7. 공사중의 항공사진. '교량' 건물은 시공을 위해 앞에 흙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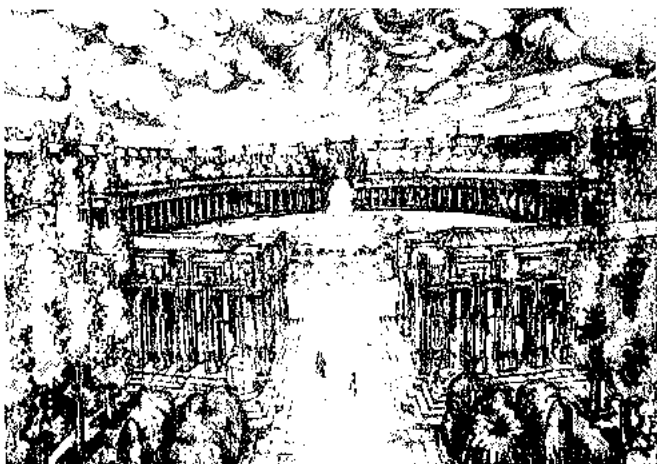
▲ 8. 호수의 아케이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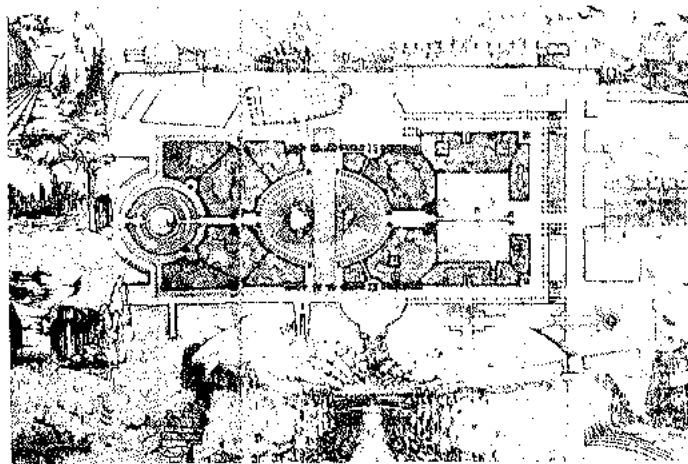
▲ 9. 아치들 통해 본 공동주택



▲ 10. 거리



▲ 11. 타원형 평장 투시도



▲ 12. 레 알공원 1차안

제1기(1964~1975년)와 제2기(1976~현재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몇채의 주택을 짓고 난후, 최초로 대규모 공동주택계획을 '가우디 지구'(Barrio Gaudi)에 설계했다. 이때로부터, 앵글로 색슨 문화에 의해 수입된 합리적인 근대건축언어에 대해 변화를 취하기 위해, 지중해 지역에 적당한 건축언어를 재안하기 위해 도시주거 환경에 관해 연구하고 설계하는 기나긴 작업을 진행한다. 이 작업을 통해 건축공방은 소위 '국제적'건축의 원리를 공격했고, 공간의 특수성을 표현하여 확립했다. 이시기중 1964~1970년까지는 국제주의 양식에 항의하며, 향토적인 태도의 건축을 하였고, 1970~74년까지는 그러한 시도를 포기하고, 근본적인 건축형태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했다.

2기에는, 프로젝트가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다. 건축이 아니라 도시설계에 가깝게, 역사적 도시의 중심이나 그 근처에 새로운 중심지역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이때에 과거의 건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질을 향상시키고, 우아하게, 문화적인 것이 되도록, 현대의 건축기술체계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보필의 저서 "인간의 건축"을 통해, 기하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안나 보필은 박사학위논문 "건축 및 도시형태의 기하학적 생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보필이 고전주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지식으로서의' 고전주의자가 아니라, 생활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추구했다. "서로 다른 배경, 국적, 인종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바르셀로나에 모아 활동한 것이 제1의 시기이다. 당시 우리들은 여러 연속된 주제를 다루었다. 60년대 당시 기계문명에 대한 도취감과 낙관적 세계관의 시기에, 건축공방은 우리만의 고유한 유토피아와 건축에 관한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계획안을 통해 유토피아의 장소를 추구했다. 그동안 300여 계획안을 설계했고 실현된 것은 30여개 정도이다. 모든 계획안은 실험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건축공방은 그당시 근대건축의 국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계획안은 도시와 공동주택의 문제점에 대한 질적 개선을 다루어 왔다. 우리는 지역(Zoning) 개념, 사회계층개념 그리고 '아름다움'이나 '경제성'의 원칙을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우리들의 건물들은 저렴하며, 건물이 들어서는 대지, 지역 또는 국가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건축적, 기술적 고유성에 맞도록 마련되었다. 건축공방의 기본철학은 건축이 공간을 시각화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 즉 건축은 첫째의 또는 최고의 예술이며,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상상을 만드는, 건축언어를 개발하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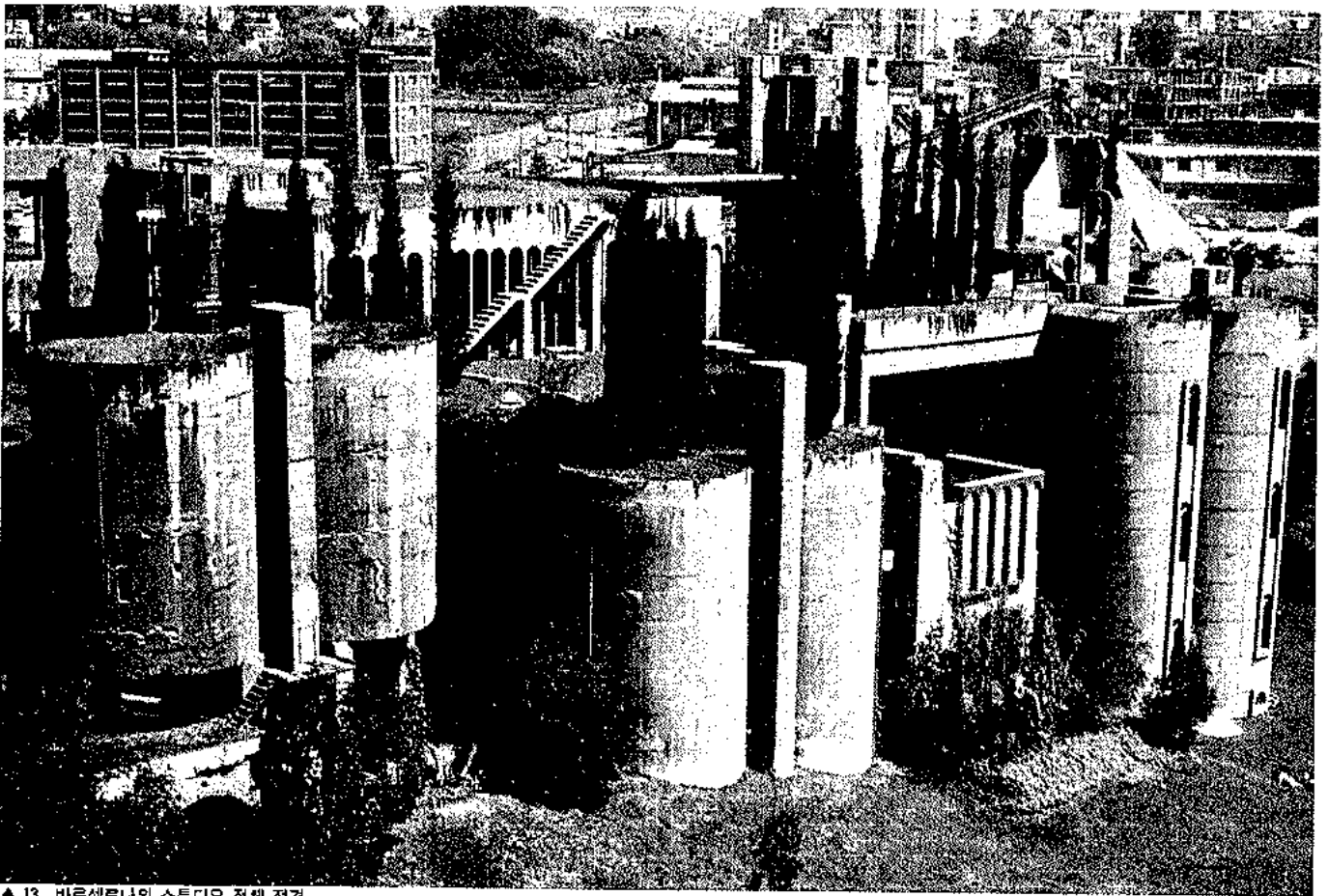
우리의 활동시기의 제2시기에, 건축공방은 미리 정해진 약보에 따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입장과 같았다. 각 연주자는 자신의 악기로 최선을 다하면 되었다. 지휘자 - 리카르도 보필 자신이 많은 역할을 한 - 는 심오한 건축의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조정하고 통합하였다. 1972년부터 건축공방은 실험을 중단하고,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깊은 연구를 진행했다. 주로 같은 주제를 종합적, 집중적으로 처리하므로써, 60년대의 낙관적 세계관의, 기술발전에 대한 신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는 더욱 심각한, 경제적 위기 속에 건축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생활방식과 균형을 찾아야만 했다. 또한 우리는 역사, 시간 그리고 공간을 세로이 파악해야 한다. 마차 4,000년간의 건축의 중요한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고, 건축의 역사가 1920년대에 시작되어 우리가 역사적인 선구자의 시점에 처한 것으로 여기곤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일순간 밖에 모르는 기나긴 역사에 대해 새롭게 폭넓은 접근을 하려고 한다. 도시도 작업분야의 하나인데, 연구를 통해 우리는 지나간 각 시대별 거리의 정면과 공간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건축가들은 연대기적인 연속성으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역사관을 포기하고, 각 시대를 넘나들어, 공간의, 상징의, 어휘의 비교적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새로운 공간관을 지녀야 한다.

역사를 이해하며, 건축공방은 건축접근방식을 바꾸어, 현재는 '동일주제'라고 내가 말하는 방식을 계속하고 있다. - 호수의 아케이드, 아브락사스 궁전 등 -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주제는 도시에 관한 것이다. 모든 시민을 위한 상징적 도시공간의 창조; 고전적 어휘를 개발하고,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기준을 사용하여 개인과 공동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상징의 건설. 지금은 잃어버린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고, 현재 어려운 단계에 있다. 어쨌든 우리가 진정한 예술인 건축을 해야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보필은 스스로 그가 추구하는 바를 밝혔다. 그가 잃어버린 언어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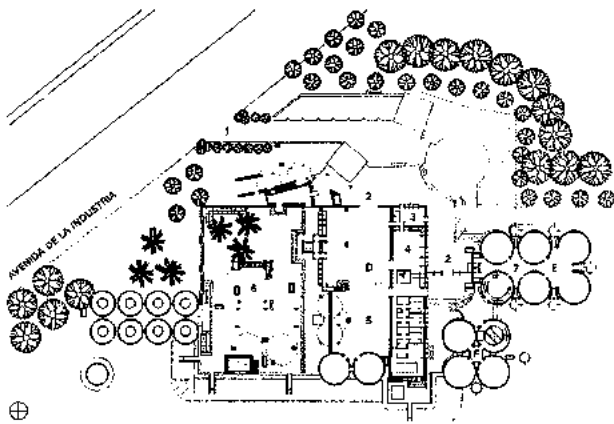
b. 브레인 스토밍 (Brain Storming)

- 건축공방의 팀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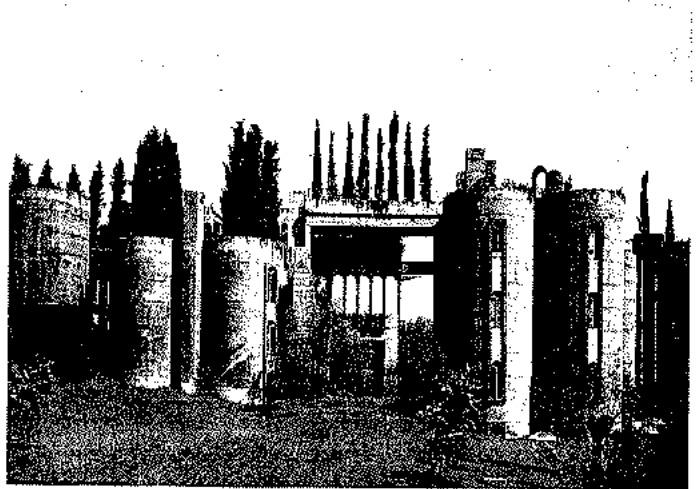
보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순수한 건축그룹, 가장 강력한 그룹, 가장 신명나는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 건축공방을 만들었다. 낡은 시멘트 공장을 개조하여 그의 사무실로 꾸미고, (사진 13~17) 전세계 10여개국 이상의 젊은 건축가들 30명 정도가 모인 이 그룹은 평균연령이 30세 정도로 젊은 편이며, 집단사고과정을 통해 설계를 한다.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의 여러나라에서 모인 이들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집단 활동으로 설계한다. 경험이 많은 다른 그룹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개발한 방법에 의해 설계를 진행한다. 리카르도 보필외에 그의 누이인, 스페인에서 교육받은 안나 보필(Anna Bofill)과 영국의 AA 스쿨에서 교육받은 피터 호지킨슨(Peter Hodgkinson)이 그를 돕고 있다. 보필의 절친한 협조자는 문학비평가인 살바도르 클로타스(Salvador Clotas)이며, 줄리오 로메아(Julio Romea)는 경제학자이며, 그런가 하면 무대예술가인 마놀로 뉴네즈(Manolo Nunez), 엔지니어인 라몽 콜라도(Lamon Collado) 등이 있고, 또 호세 - 어거스틴 고이티솔로(Jose-Agustin Goytisolo)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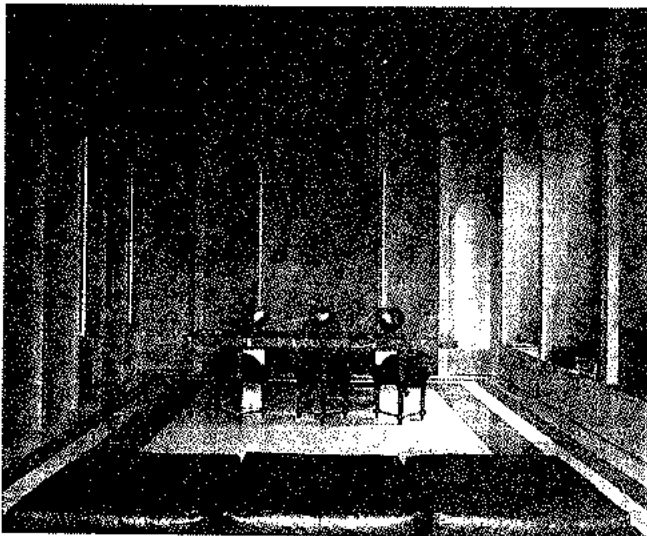
▲ 13. 바르셀로나의 스튜디오 전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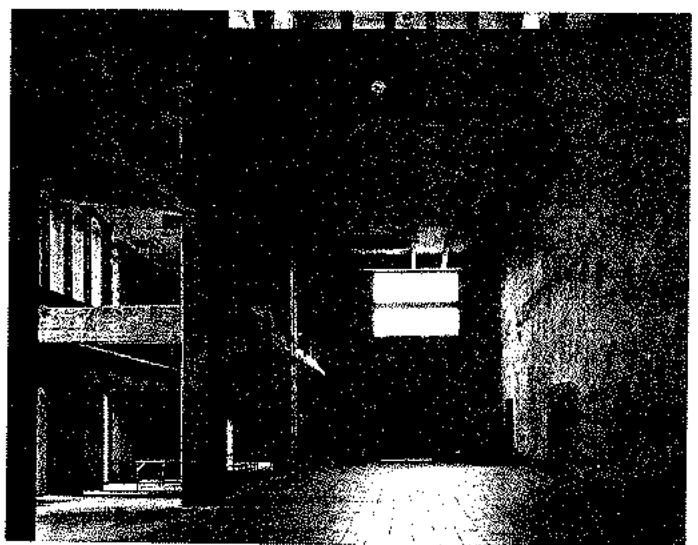
▲ 14. 배치도



▲ 15. 전경



▲ 16. 거실



▲ 17. 주 설계실



▲ 18. 바르셀로나의 사무실에서 '건축공방'



▲ 19. 파리사무소 회의

유명한 스페인의 시인이다.

창조적이고 항상 개발하는 그룹의 설계방법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필과 클로타스가 건축주를 만난다. 클로타스와 로페아가 그후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것이 건축공방에게 특별한 성공을 약속하는 첫 단계이다. 후에 건축주는 웬만한 상세가 포함된 각종 대안과 각 대안별 경제성 및 조언이 포함된 계획안을 담은, 심지어 자금을 언제, 어디서 조달해야 하는지까지 포함된 계획안을 받아보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작업분담은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건축공방은 스스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소규모 사회'로 생각하여, 각역할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아이디어팀은 보필 오누이와 고이스틸로가 맡고 - 뉴제즈가 돕는다 - 프로젝트의 모든 가능성을 향해 강력한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을 행한다. 브레인 스토밍이란 회의에서의 의사결정방법의 하나로써, 회의에서 여러사람의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는 기법으로, 구성원 모두가 어떤 전제나 제약조건없이 의견을 토로하고 모두 이를 듣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즉 프로젝트나, 대지에 관한 것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 브레인 스토밍이 끝난후 고이티 솔로가

건축공방이 제안해야 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역할을 받는다. 이 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왜, 어떻게 제안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나 보필과 고이스틸로는 그후 건축공방의 토론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꾸미는 동안, 기하학의 재능이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 뉴제즈는 페리스 토폴스키가 말하는 방법에 따라 호리고 잔 선의 질감을 이용한 복잡한 스케치를 한다. 건축주가 - 또는 누구라도 관계없이 -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선으로 놀라운 형태를 만든다.

(사진 18)

일단 건축주가 그가 원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계획안은 피터 호지킨슨에게 넘어가고, 그의 고도로 숙련된 '실시설계'팀에 의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진다. 주로 바르셀로나에서 계획하고 파리사무소로 넘겨져 실시설계와 건축기술과 건물 조사 등을 한다. 계획안이 바르셀로나를 떠난 순간부터, 건물이 완성되어 입주할 때까지의 전과정은 파리사무실이 담당하게 된다. 그들 역시 여러나라 출신이며 극히 젊다. 그들이 하는 작업에는 생명력이 있고, 이시대에 건축양식과 건축언어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사진 19)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사고에 따라, 새기술을 이용하고, 이 기술로부터 자연적으로 개발된 새 디자인 언어의

가능성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그동안의 건설방법은 최근 20년간 급격하게 변했고, 건축은 예술적 기법 - 실제로 벽들을 한장씩 쌓고, 얇고 작은 보를 얹고, 친숙한 타일을 사용하는 등의 기법 - 으로부터 멀어져갔다. 고도로 복잡한 공장제 패널체계 - 콘크리트를 개발하여 아름답게 만든 패널, 돌과 염료로써 인조대리석의 다양한 종류를 보여주는 판넬,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몰딩과 조각을 한 패널 - 는 실제로 벽판의 크기와 같은 것으로, 공장에서 실려 와서, 크레인으로 건물로 올려서, 설치한다.

최종적으로 라몽 콜라도와 그의 시공팀에 의해 자상에 실현된다.

최근 20년 간 프랑스에서 개발된 콘크리트 PC 패널을 이용하는데, 프랑스는 철근콘크리트 기술에 정통한 나라중에 하나이다.

콘크리트 표면에 각각 다른 치리를 하여, 특이한 질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기복이 있게 하고, 갈고, 색채를 사용하고, 모래를 뿌려 광택을 없애고, 산화시키기도 한다. 패널의 표면을 보호하고, 그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 표면에 방수처리를 한다.⁵¹

c. 리카르도 보필과 호세

- 어거스틴 고이티솔로의 선언(1975. 10. 4) 우리의 계획에서 지역사회의 중심지역의 개조는 그 도시의 구체적인 철학에 따르는 법칙에 의해 이룩된다.

-도시를 파괴하는 충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획을 통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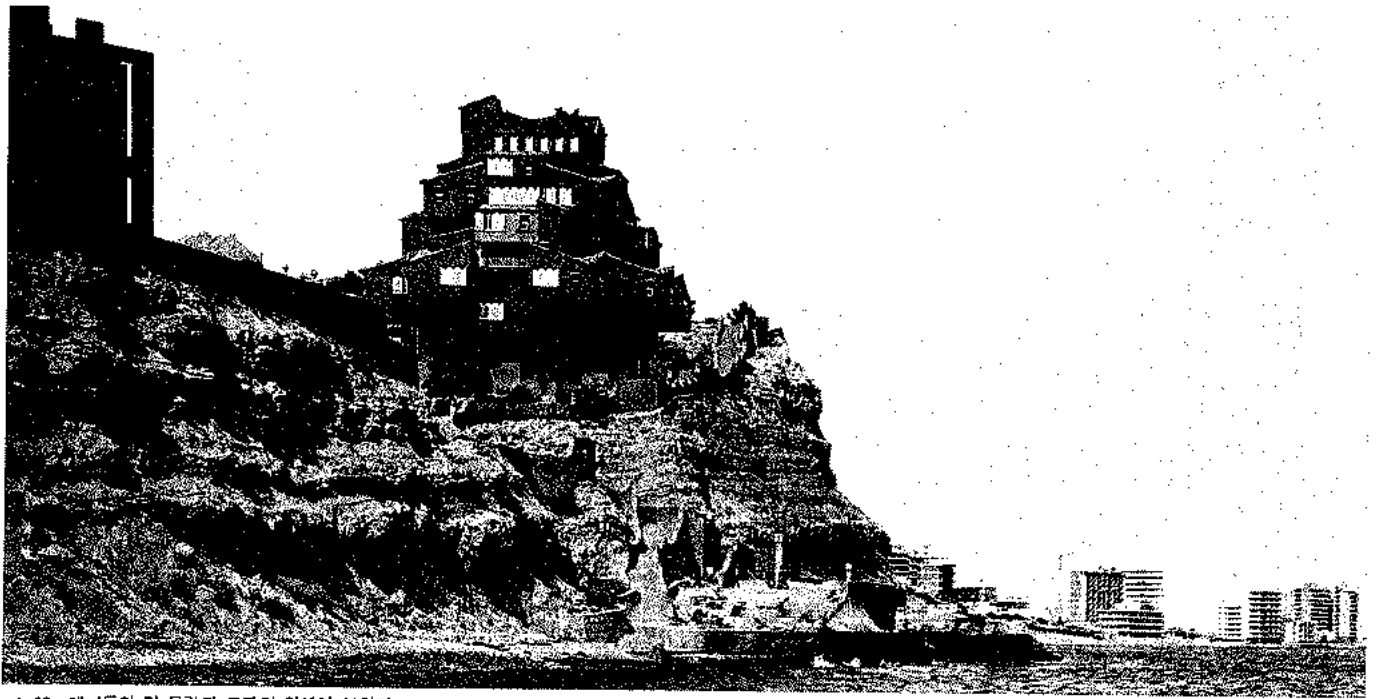
-남겨진 공지에 나무를 심기 보다는 공공녹지를 창조할 것.

-그 이전에 지역의 용도가 무엇이었던지 열린 건축으로 바꿀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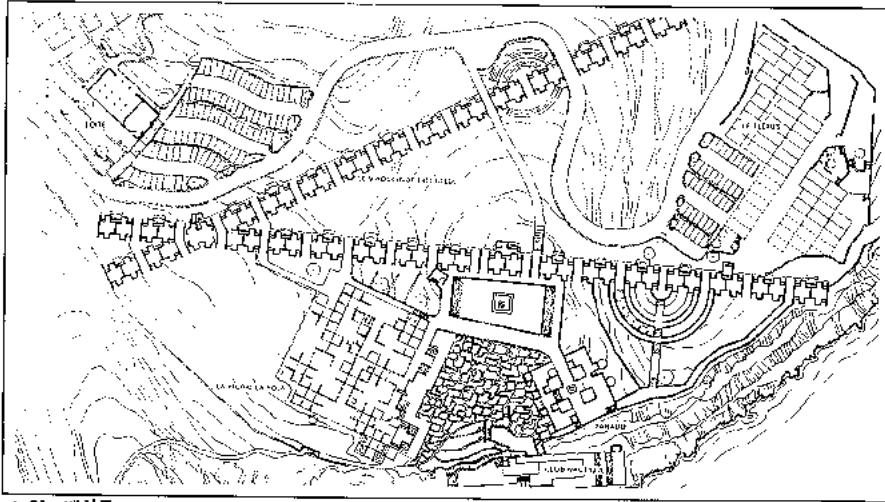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보다는 집단이나 대중적인 희망에 따라 설계한다.

-'장소'(Place)란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며 주위가 조화되게 테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장소'란 존재하지 않는다.

-'장소'는 생활을, 참여의식을 또는



▲ 20. 제너두와 라 뮈렐라 로파의 일부가 보인다.



▲ 21.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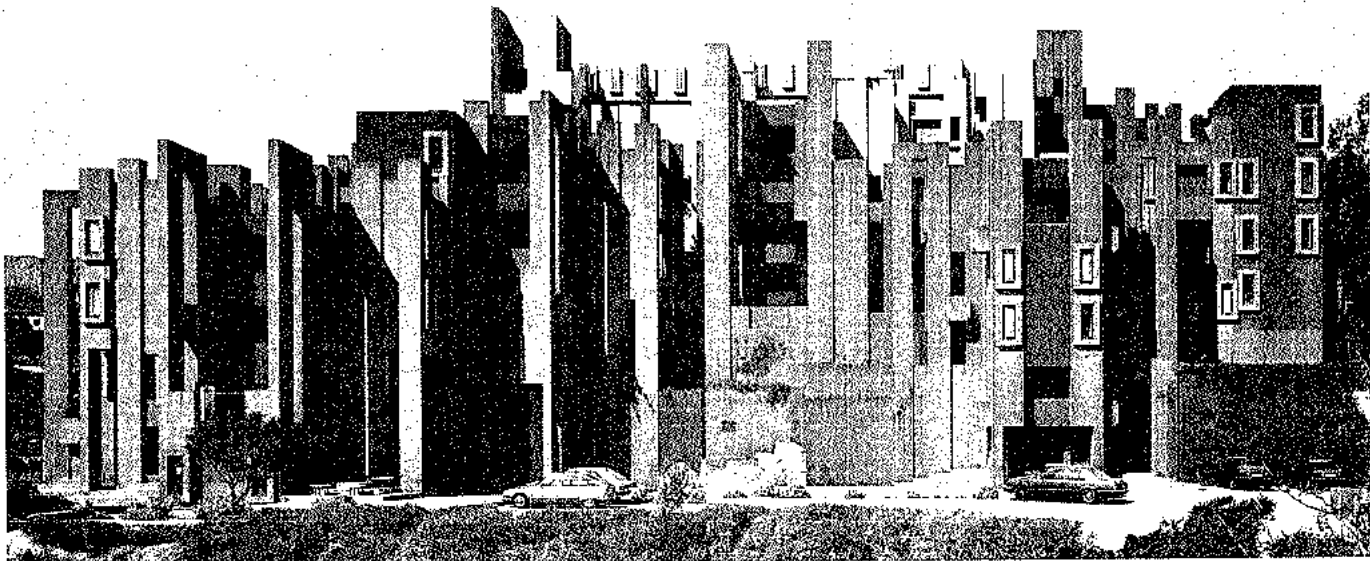
▲ 22. 제너두 전경

공공의식을 증진하며, 에스플레네이드는 사회적 접촉을 분산하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한다.

- 프랑스 정원은 조각된 자연이며 건축적으로 조절된다 : 여러 종류의 인간의 행동을 가능케 해준다. 프랑스식 정원과 대비되는 것은 머무는 곳보다 산보하는 곳에 나무로 된 간단한 몰(Mall) 일 것이다.
- 이 정원에서는 즐기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이 '인간의 희극' (Human Comedy) 이 공연되는 큰 무대에서 각자 역할을 바꿀 것이다.
- 도시의 중심부에서 건축을 창조한다는 것은 역사적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유행했던 양식으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국제주의 양식은 문화의 결과라기보다 기술의 결과이므로 타당치 못하다. 같은 이야기로, 국제공용어는 '신곡' (Divine comedy, Divina commedia) 을 쓰기에는 적합치 못하며, 신호를 위한 코드(Code of Signs) 일 뿐이다.
- '레 알' 계획안의 대지는 개인의 실현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진지하고 객관적인 공공의 건축적 실험을 위한 장소이다.
- 우리 계획안에서의 최종 광장은 우리가 제안한 가설에 대한 파리시민(사용자)의 비평적 반응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d. '유럽에서의 고전주의의 재도입을 위한 항변'

- 피터 호지킨슨
건축공방이 고전적 형태를 취한 이유로 피터 호지킨슨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전주의는 양식적 번덕이나 장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북미 건축대학의 절충적 합성이나 이탈리아인의



23. 라 윌랄라 로지 전경

프랑스대학의 역사적 복고주의를 추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에드윈 러티엔스나 알버트 스피어의 지루한 말년의 경험들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호수의 아케이드’ 계획안은, 내가 “시민들을 위한 베르사이유”라고 이름 붙였는데 찰스 푸리에의 계획안 ‘새로운 산업세계’(1829)의 금전적 작품 속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베르사이유궁전의 형태적 해석을 기초로 하여 긴구조와 강력하고 특징적인 주거단지의 이미지를 만들었다.”⁷⁰ 즉, 베르사이유의 형태적 언어로 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기술로서 향토적 설계의 원천을 사용한 것이다. 호지킨슨은 그들의 ‘새로운 고전주의’를 프랑스 시민들이 친숙해하며, 시민의 도시환경에 타격을 입힌 모더니즘에 식상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분양이 세일시장처럼 잘되며, 우수한 개발업자나 대규모 건축자재 생산업자가 건축공방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보고한다. 평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혁명이나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서 오래된 궁전들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서 시민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제 그전의 궁전모습의 건물에서 많은 서민들이 모여 살면 어떻겠느냐는 호지킨슨의 질문으로 해석된다.

“시민도 한번 귀족처럼” 살 살아 보세! 호지킨슨은 건축공방을 이끄는 설계책임자인데, 그가 역사를 보는 시각을 다음 글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팔라디오를 첫 근대주의자로 파악한 ‘원형으로서의 주택’이라는 글이다.

“안드레아 팔라디오는 유형론을, 거의 방법론이기는 하지만, 시골의 큰 저택에서 작은 농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유형론을 발전시킨 첫번째의 위대한 건축가이다. 베네토 브로조와에 의해 지원된

그의 개인적 연구 프로그램은 주택건축개념을 확장시켰는데, 아직도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팔라디오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귀족을 위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카르나 모짜르트 영화에나 나올 대단한 주택들을 설계했는데, 세계적으로 처음 주택의 유형론을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경제성, 기후, 폐적, 기능, 공간, 프라이버시, 외관 등 무한한 요소를 조합하여 헌신적으로 재발명한 건축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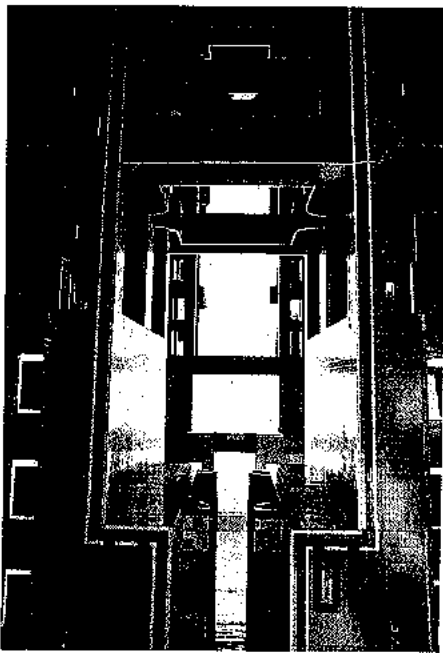
신전의 형태에 기초한, 팔라디오의 단독주택은 9등분의 평면, 단면, 정면을 갖는 원형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인데, 3개의 수평면과 3개의 수직면으로 나뉘어 있다: 1층(낮은 천정의)은 창고, 작업실, 나무, 술창고와 부엌등이 있고; 2층 주요층(Piano Nobile, 높은 천정의)은 응접실, 거실, 식당, 침실 등이 있다; 3층은(낮은 천정의) 과일과 나무열매나 햄을 말리고, 비둘기를 두는 방이 있다. 이것은 중세도시와 시골의 주거개념의 중간정도에 해당하며, 자급자족하는 가족의 주택으로서 당시 주생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층과 3층은 틀이 없는 개구부를 통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환기가 되고, 한편 2층에서는 2중창과 덧창이 거주자를 보온해 준다.

주택은 3칸으로 나뉘어, 중앙부에는 높이 현관이 있어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고) 보호도 되고 기능적인데, 측면으로는 1층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며, 양옆 두칸은 4개의 교차하는 벽돌 내력벽으로 된 다른 실들이 있다. 벽은 고정된 목재타일지붕을 지지하고 있다. 건축주가 원하면 스테코 외벽을 부분적으로 가볍게 프레스코 질감으로 장식해 준다. 기본적인 팔라디오식 주거 생활단위는 전반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것이다; 많은 방, 다른 용적, 건물의 긴 날개,

주택의 장식, 풍부한 조각, 감미로운 정원과 프레스코 등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비례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 모든 영속적인 개별성으로, 각 주택을 통한 건축적 철학이 있다.

건물보다 주위환경으로부터의 철학이며, 평면, 입면, 단면, 구조, 건설과 자연에 관계한다. 이것은 거주자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살기에 편안하게 해주며, 신 플라톤적 자유주의의 인간적 전통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를 준다. 선택하기 위한 최적의 기준으로 계획하고, 빠르게, 경제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팔라디오의 특유한 유형론을 탁월하게도 오늘날도 적합하다. 그의 주택은 테라스, 반달의 형태, 광장, 길 등을 종합한다. 이런 집들이 언덕 위에 서고, 강이 휘도는 곳에 자연의 조각물처럼 서있다. 그의 작업은 세계의 주택건축 사고에 탁월한 공헌을 했고, 건축가로 하여금 단독주택을 정신적으로 주위환경에 대해 지배적인 것으로 구성하며, 물리적으로는 시각적으로 주위와 조화가 되도록 주택의 다양한 요소를 통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하였다. 팔라디오의 스케일의 이론은 나에게 경제적 실현성을 지니고, 작은 공동사회로 단독주택을 모을 필요를 암시했다. 또 이것을 직교좌표로 모아, 공간적질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을 사용하고, 경계를 약화시키며, 땅이 비려져 있지 않도록, 경비가 지평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런 모든 중요한 유럽의 도시에 대한 계몽정신은 단독주택이 문제에 직면했을때, 건축가의 고유한 책임이며, 닫혀진 주택안에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기 보다, 공동사회의 환경을 계획하고 통합하는 진지한 시도를 해야 할 책임이 건축가에게 있다.”⁷¹



▲ 25. 중경에서 올려다 본 광경

3. 상황과 배경

a. 고전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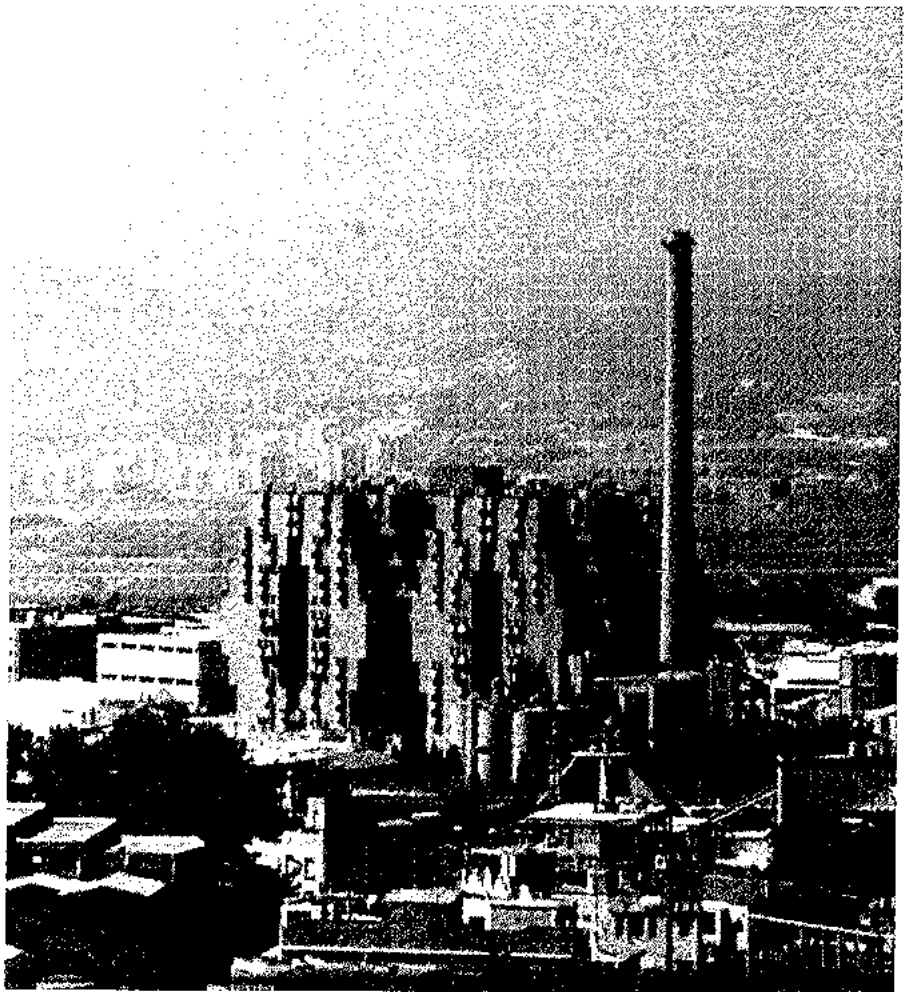
건축에 있어서, 18세기 후반에 신고전주의(Neoclassicism)가 바로크 및 로코코의 건축형태를 대신하게 되었다. 고전주의 건축의 주요 본보기가 되는 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물이다. 광범위한 고고학적 발견, 특히 이 중에서 1748년의 폼페이(Pompeii)와 헤라클레눔(Herculaneum)의 발견이 정확한 과학적 정보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은' 소재(Motif)를 배제하고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특히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건축디자인이 크게 참조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고대 이집트의 건축이 특별한 자극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최근들어 '고전주의'의 개념의 혼란이 건축가, 전문가, 저널리스트 등에게 일고 있다.

고전주의의 부활은 대중성과 독재성으로 비롯된 반이적 오명으로 비난받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고전주의의 부활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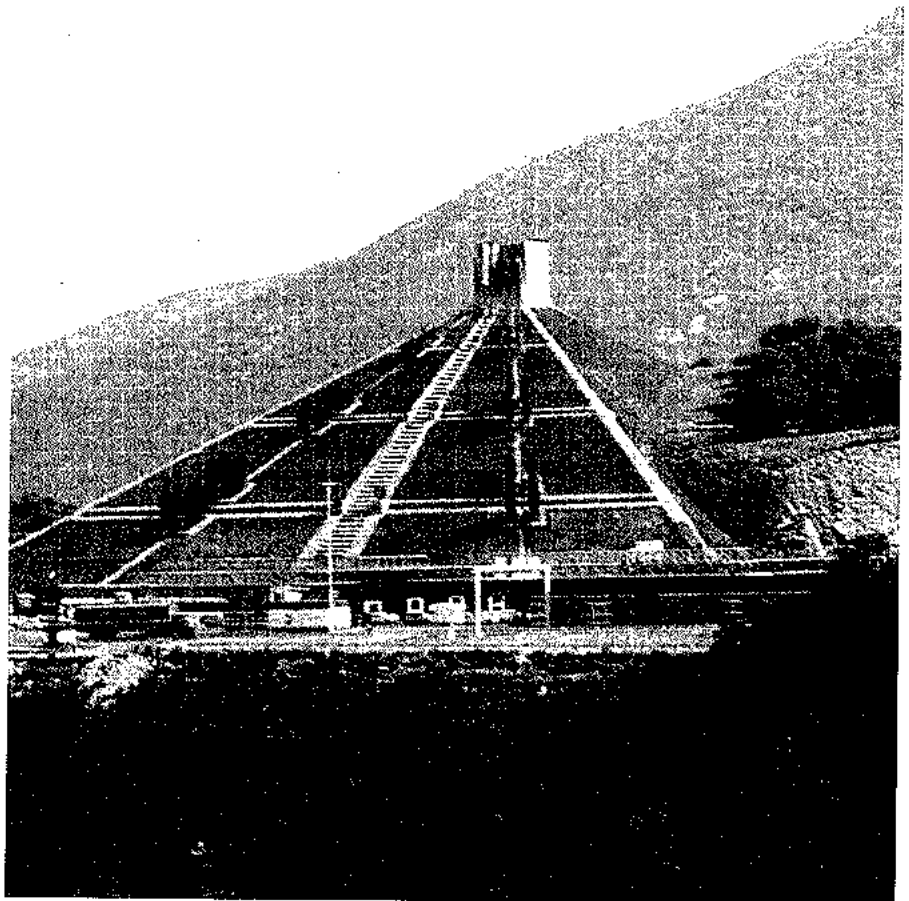
고전주의의 긍정적인 질적 측면은 대중적이고 기념비적 성격이 영원한 문화적 가치로서 나타난다. 문화적 가치는 '진정한' 건축으로서 장래의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다.

고전주의 건축이 2천년경에 '진정한' 건축으로서 되살아 날 것을 믿는다. 고전적 건축의 반복 - 아마 고전적 건축정신이 - 살아날 것이다. 진정한 건축은 무엇인가?

일상적으로 아름다운 마감을 했고, 우아한 비례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장식으로 표현된 건물은 일반인이 훌륭한 건축으로 이해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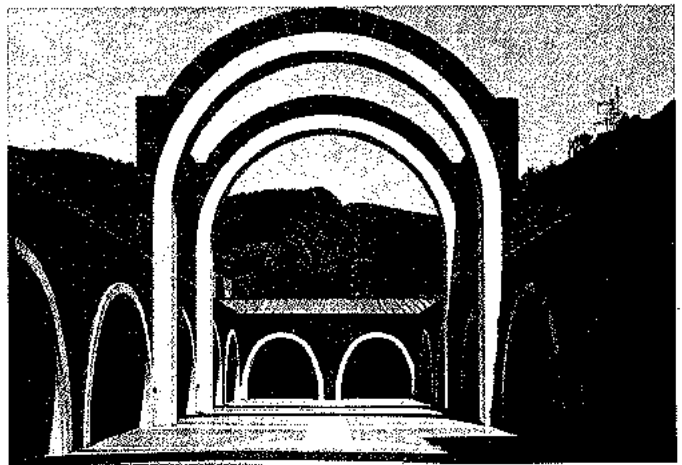
▲ 24. 월덴 7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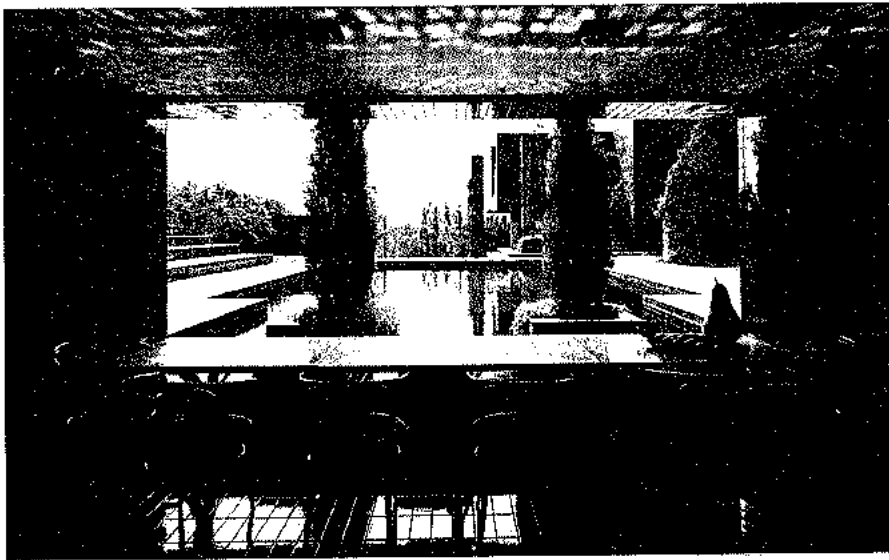
▲ 26. 라 마르카 공원 원경



▲ 27. 에리셀교회 원경



▲ 28. 내부 중정



▲ 29. 보필의 가족용 여름별장 식당에서 본 중정

왔다. 즉 고전주의 건축으로 알고 있다. 규범과 역사적 자식이 풍부한 건축이다. 그러나 모더니즘과 그 계승자들의 건축형태와는 달리, 고전적 건축은 3천년간 공통문화권의 언어로서 진화되어 온 것으로 본능적으로 이해되고 인식되었다. 영국에서, 최근 10년간 고전주의의 부활이 일어났다. 전체 건설된 건물수에 비하면 적은 비율이지만, 일반 대중의 반응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아직도 고전적 건축물들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지금의 상황은 1920년대 후반의 모더니즘의 상황과 비슷하다. 한가지 상황은 제외하고, 모더니즘은 호전적인 대중과 싸움을 했다. '새로운 고전주의' (New Classicism)는 단지 여러 계획안을 통해 마음내켜 하지 않는 건축관료와 싸워야 한다. 대중의 의견은 이미 압도적으로 '새로운 고전주의'의 편을 들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고전주의'는 '신고전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고전주의 건축은 2000년에도 진정한 건축으로 되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 즉 고전적 건축은 '진정한' 건축으로서 장래의 희망의 원천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⁰⁾ 고전주의의 부흥은 여러가지 이유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역사적인 이유 - 이차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의 가장 필사적인 요구는 건설하는 것이었다. 부분적으로 독일 공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또 부분적으로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의 유토피아를 향한 꿈은 긴급하고 절박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높이 지어라! 싸게 지어라!" 이것이 당시의 표어였다.

영국에서의 대량의 개축은 1970년에 끝이 났다. 집을 지어야 한다는 여분은 사라졌다. 그이후, 주민들의 요구는 그들이 살고 있는 건물에 정이 가게 하고, 슬픈 추억이 담긴 건물들을 서서히 바꾸는 일이었다. 천천히 도시건축물의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로써 국가의 잉여이익도 발생할 수 있었다.

(2) 기술적 이유 - 고전주의는 요소가 반복되는 양식인데, 가끔은 반복하기에 복잡한 요소도 나타난다. 최근까지 고전주의는 대량생산을 배격하였는데, 다만 인조석의 사용만을 용납할 정도였다. 그러나 더욱 고도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황은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조 몰딩 등이 주문에 따라 가공이 가능해졌다. 즉 고전주의 방식에 따르더라도 가격이 저렴화되고 있다.

(3) 재정적 이유 - 또 다른 이유는 재정적

이유이다. 1970년대에는 보존의 시기였다. 1980년대 말에는 보존은 목이 설만한 논쟁의 위험에 놓였다. 항상 전문가들 사이에 복구의 시점에 관해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 예를 들어, 어떻게 역사적 건물의 내부를 변화할 것인가? -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대선헌이 벌어졌다. 런던 중심부에 집을 지어야 할 빈 땅이 있다면, 보존지구가 되거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옆건물의 대지에 인접한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 역사적 맥락에 저슬려서 설계를 하기위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느니 고전주의 태도를 받아들이게 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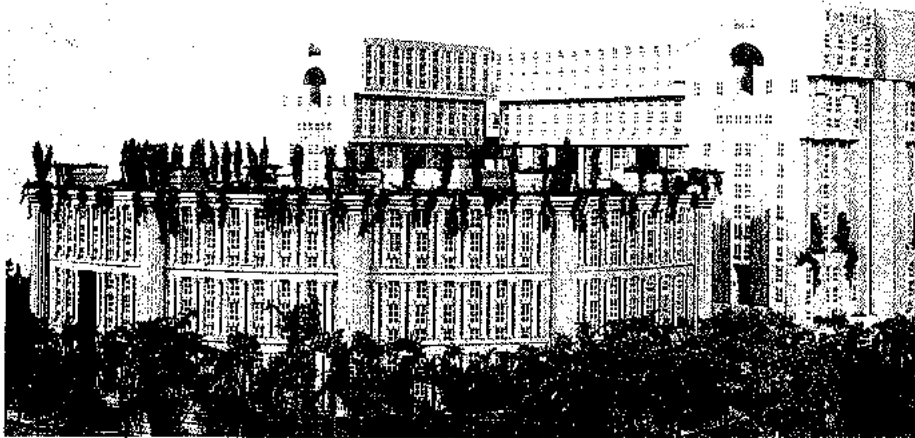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서 고전주의 건축은 부활되고 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제3의 형태라고 젠크스는 보고 있다.

고전주의와 역사 자체를 부흥의 역사로서 보기도 한다. 로마인이 그리스를 부흥시켰다. 샤를마뉴가 로마를 부흥시켰고, 알베르티가 그랬고, 이니고 존스가 그랬다. 스투어트, 윌킨스, 콕커렐이 그리이스를 부흥시켰다. 이런 건축가들이 소개한 양식들은 가끔 지나간 양식과는 관련이 적다. 다만 회고하는 과정에서 고전주의를 담은 것 같고, 공동의 전통에 따르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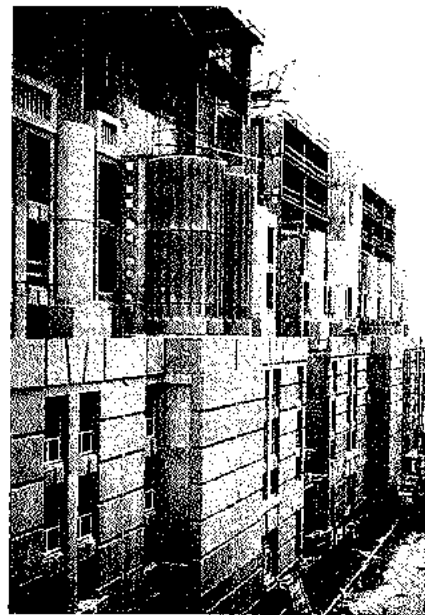
b. 스페인의 정원

유럽이 암흑기에 처해 있을때, 북아프리카 해안은 아라비아문명이 서쪽으로 진출하던 통로였으며, 아라비아의 문화가 전파된 길이었다. 그중 일부인 부어인은 지브랄탈 해협을 건너 유럽에 까지 진출하였다. 711년에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스페인 남부지방인 안달루시아에서 번창하였다. 그이후 756년부터 1031년까지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위대한 이슬람문화를 번영시켰다. 그이후 종교적 분쟁과 소왕국의 난립으로 인해 하나들씩 기독교 세력에 흡수되어 갔다.

무이인이 점령한 안달루시아에는 고대 로마의 위대한 문화가 여러곳에 남아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슬람문화를 꽃피웠다. 특히 무이인들의 고도로 발달된 관계기술로서 과달키비르강을 따라 코르도바, 세빌리아, 그라나다와 같은 도시들이 번성하고 그



▲ 30. 아브락사스 원경



▲ 31. 공사중의 아브락사스

도시들은 정원 속에 묻힌 도시를 가꾸었다. 스페인 동북부 카탈로니아지방이 있는 이베리아반도는 사막에 가까운 풍토를 갖고 있다. 기후면에서, 녹지로 둘러싸인 협곡이나 온난한 빛이 넘치는 '온화한' 프랑스와는, 또는 완만한 기복이 연속된 중앙유럽의 경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편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명확한 윤곽을 갖고 용이하게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과도 다르다. 스페인의 끝없이 연속된 평원과 불모의 산맥은 오히려 아랍의 여러나라를 연상케 한다. 색채가 없고 전체적으로 둔한색으로 둘러싼 경치속에서는 내부가 시원하고 심리적으로 둔한색으로 둘러싼 경치속에서는 시원하고 심리적으로 신선한 효과를 가져오는 내부공간이 요구된다. 결과로 이슬람 건축은 항상 정돈된 정원을 가진 내부공간의 예술을 꽃피웠다.

이 지역에 남은 유물중에서 모스크는 내부공간을 반듯하게 한정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정원들은 중정, 이를 둘러싼 그늘진 아케이드, 분수, 덩굴식물이 덮인 트렐리스 등이 특징이다. 이슬람정원중 세빌리아의 알카자르, 코르도바의 대모스크, 그라나다의 알함브라궁전 및 제네랄리페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적들이다.²³⁾ 건축공방은 후에 공원과 정원 설계를 많이 하게 된다.

교외의 소규모의 정원으로부터 도시 규모에 이르는 정원까지 다양한 종류의 정원을 설계했다. 바르셀로나 지역이나 근처의 황량한 지역을 정원으로 가꾸었다.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하는 현상설계 2등 당선작인 엔산체 고전적

공원 (Ensanche Classical Garden) 의 경우를 살펴보자.

피터 호지킨슨은 이를 설명하며, 카탈로니아의 대도시의 교외에 위치하는 황무지에 공원을 디자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가설을 제시했는데 그들의 디자인의 철학은, '고전주의'적인 것과 '지중해'형의 패턴을

혼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전주의적이라는 것은 헬레니즘기의 로마의 유산에서 얻은 가장 적합한 문화적 가치를 채용한다는 추상적인 뜻이며, 지중해형이란 이 해안에 가장 적합한 나무의 종류들과 건축물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뜻을 그들의 해결책에 이용한 것이다. 카탈로니아 지방의 정원을 만들기위한 주요요소로는 다음 것들이 있다.

- 나무 (Tree); 지중해 기후에 맞는 토착 과실수와 관상수를 위주로 낮게 처리한 나무들.
- 물 (Water); 물이 적은 지역이므로 자급할수 있게 인공 연못은 관개용 수로 역할도 해야 한다.
- 벽 (Walls); 경관과 보안의 기능, 공원은 24시간 개방한다.
- 상점적 신전 (The Umbraculo); 원주기둥 및 박공과 지붕으로 된 개방된 신전형 집회장소.
- 포장 진입로 (The Esplanade); 계단으로 이어지는 진입입로.
- 옥외극장 (Amphitheater); 공원의 중심을 향해 설치되는 모든 야외 활동의 중심지.
- 산책길 (Walkways);
- 스포츠시설; 공원내, 외부 담에서 떨어 뜨려 어디에나 설치.
- 정원가구 (Garden Furniture); 고전적 형태의 다양한 옥외의 가구. 색채 콘크리트를 이용한 파골라, 벤치, 화장실등.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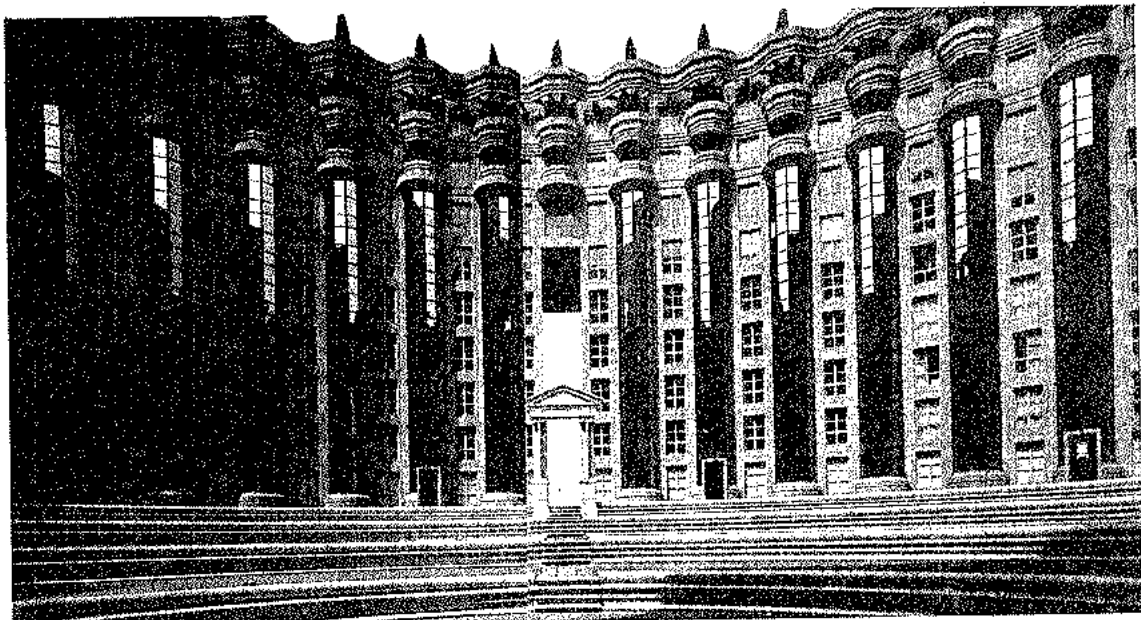
c. 아케이드 (Arcade)

건축사를 통해, 건물 유형으로서 아케이드와 이와 유사한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라틴어 Passus 에서 유래되어 프랑스를 거쳐, 독일 용어 Passage 로 이어진 이 용어 아케이드는 큰 건물 블록으로 내부가 나뉘어진, 연결된 좁은 사적인 도로를 지칭하기 위해 18세기부터 쓰인 용어이다. 건축사에서 아케이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 통로이며 시작과 끝이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 공간은 통로로부터 도움을 받는 건물로 경계가 지어지고 상부천정이 덮여진다. 그러므로 아케이드의 기능은 그 자체로 다양하다. 여러나라에서 아케이드를 지칭하는 용어는 가끔 인접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해 보이지만, 아케이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물유형을 가르킨다. 다양한 용어를 아래에 알파벳 순으로 나열했다.

- Arcade : 모든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
- Bazar : 독일과 다뉴브강 주위 국가에서 사용.
- Boulevard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용.
- Cite : 벨기에에서만 사용.
- Colonnade : 영국에서 사용.
- Corridor : 영국에서 사용.
- Druchgang : 스위스에서 사용.
- Galeria : 스페인어 사용권에서 사용. Galerie : 프랑스, 벨기에, 독일, 궁전의 Gallery 와 관련 있음. Galleria : 이탈리아, 또한 터널에 사용됨.
- Halle : 독일에서만 사용.
- Passage :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 3국에서 프랑스에는 열린 아케이드와 닫힌 아케이드로 분류. (Passage Ouvert, Passage Couvert)
- Passaje : 스페인에서 사용.
- Pasaz :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사용.
- Pasaji : 터키에서 사용.
- Stoa : 그리스에서 사용.
- Walk : 영국에서 사용.

많은 아케이드는 보통 'Passage', 'the Arcade', 'the Corridor' 로 불린다. 역사적으로 아케이드는 거리, 광장, 건물명이 붙는 경우, 도시나 국가명이 붙는 경우, 건설자나 개인의 이름이 붙는 경우 또는 역사적 사건이 수식어가 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아케이드는 교통과 기후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새로운 종류의 상품을 찾거나 정보를 구하던 수단으로서의 공공시설로서의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기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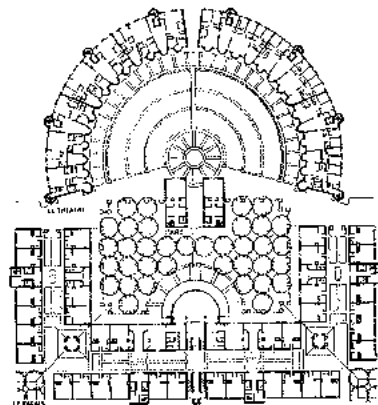
▲ 32. 아브라사스 내부 정면

Classical Colonnade, Markets, Basilicas, Medieval Market Square 등이 있다. 고대로부터, 생활을 위한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고유한 장소였다.⁴⁰⁾ 현대에서의 아케이드는, 우리 경우 상가정도로 쓰이지만, 건축공방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의 아케이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꼭 짜여지게 하므로써, 그 사이의 공간과 통로가 그 이전의 아케이드로 환원되기를 원했는지 모른다.

d. 브레인 스토밍 (Brain Storming)

두뇌에 폭풍을 일으킨다는 뜻인데, 아이디어의 집단 개발법으로서 활용되는 기법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일상적으로 개인의 머리는 한정되고, 경직되기 쉽다는 뜻이다. 일정한 테마에 관하여 회의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며, 그러한 아이디어가 겹치고 쌓이는 속에서 새로운 발상을 찾으려는 방법이다. 그 원리는, -한 사람보다 다수인 쪽이 제기하는 아이디어가 많다.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비판이 가해지지 않으면 많아진다.

등의 원칙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브레인 스토밍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발언이라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자유분방하고 엉뚱하기까지한 의견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자유연상법이라 할 수 있다. 회의에는 리더를 두고 구성원수는 10명 내외로 한다. 이때 사회자는 단순히 각자의 연쇄사고를 촉진시키는 역할만 한다. 1939년에 미국의 광고회사 부사장 A.F. 오즈번이 제창하여, 그의 저서 “독창력을 뽐내라”(1953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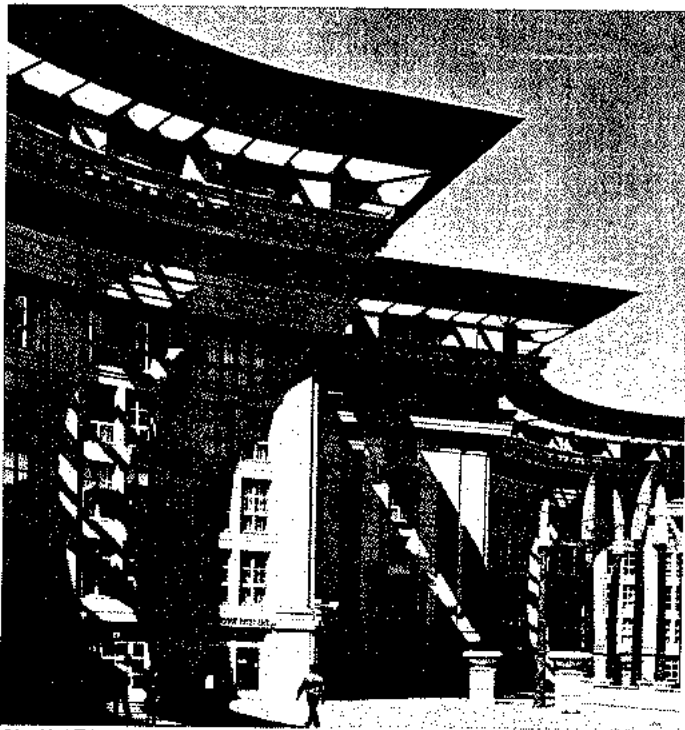
▲ 33. 1층 평면도

널리 소개되었다. 건축공방이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달성한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건축설계의 협동작업은 구성원들이 동등한 상태에서 보다 상하관계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건축을 공부한 분들은 암암리에 한 사람의 거장으로서의 건축가를 꿈꾸게 된다. 거장이라는 말은 자발적인 협동을 전제한다기 보다 권위나 지시를 연상시킨다. 이것은 바로 개인적 능력이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며, 역으로 건축가의 개성으로 돋보이기도 한다. 건축공방의 브레인 스토밍이란 거장의 원숙함에 필적하기 위한 젊은 건축가들의 공동노력일 것이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이나 능력일 것이다. 건축공방의 경우도 그러하다. 한편으로 협동작업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정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우리의 현실을 보면 토론이나 회의가 원활한 경우는 보기 힘들다. 브레인 스토밍에도 사회자가 필요하고, 사회자는 활발한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 또한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필요하다. 일반회의에서의 회의 지도자의 능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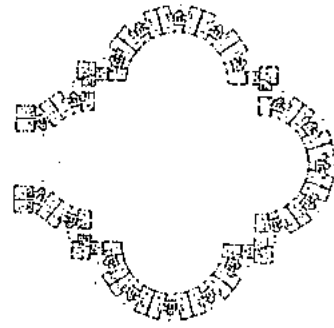
분석력, 창조력, 전문적 지식, 판단력이 필요하다 한다. 이것이 브레인 스토밍이나 건축설계에도 해당할 것이다.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것과 개인차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도, 또는 팀웍을 위해서도 회의를 잘 하는 것은 필요하다.⁴¹⁾

4. 그들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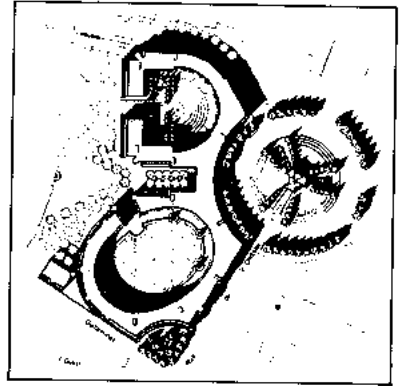
건축가를 소개하면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외국의 평론가가 먼저 놓은 그물에 걸려 있는 건축가를 구출하는 일이다. 사실을 기초자료로 하고 우리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건축공방이 초기경력으로 지역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자유로운 양식을 구사했다해서 ‘자유로운 양식의 고전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피터 호지킨슨이 자평하듯, ‘기술적 고전주의’를 따를 수도 있다. 아브라사스궁전에서는 터스칸 주두양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세로홈이 파진 아르테코 기둥을 사용한 것은? 프리 스타일 바로크 양식으로? 또 도릭 기둥을 사용한 것은? 신장식주의(Neo-decorativism)? 신바로크(Neo-Baroque)? 신이슬람주의(Neo-islamism)? 일반적으로 쉽게 정의해서 ‘향토적인, 풍토적인’(Vernacular)의 뜻은 ‘고전적이 아닌 것’(not Classical)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서로 대립되어 보이는 것이다. ‘고전적’인 것과 ‘풍토적’인 것은 서로 융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건축공방의 작품에는 두가지가 조화되어 나타난다. 근대산업체제는 고전적 건축언어와는 또한 상반되게 느껴진다. 고전적 건축언어를 사용하기에는 현재 건축제요나 시공방법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건축공방의 작품에는 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업화 부재가 경제적이거나 실제적인 이유로서 채용되어 나타난다. 비아냥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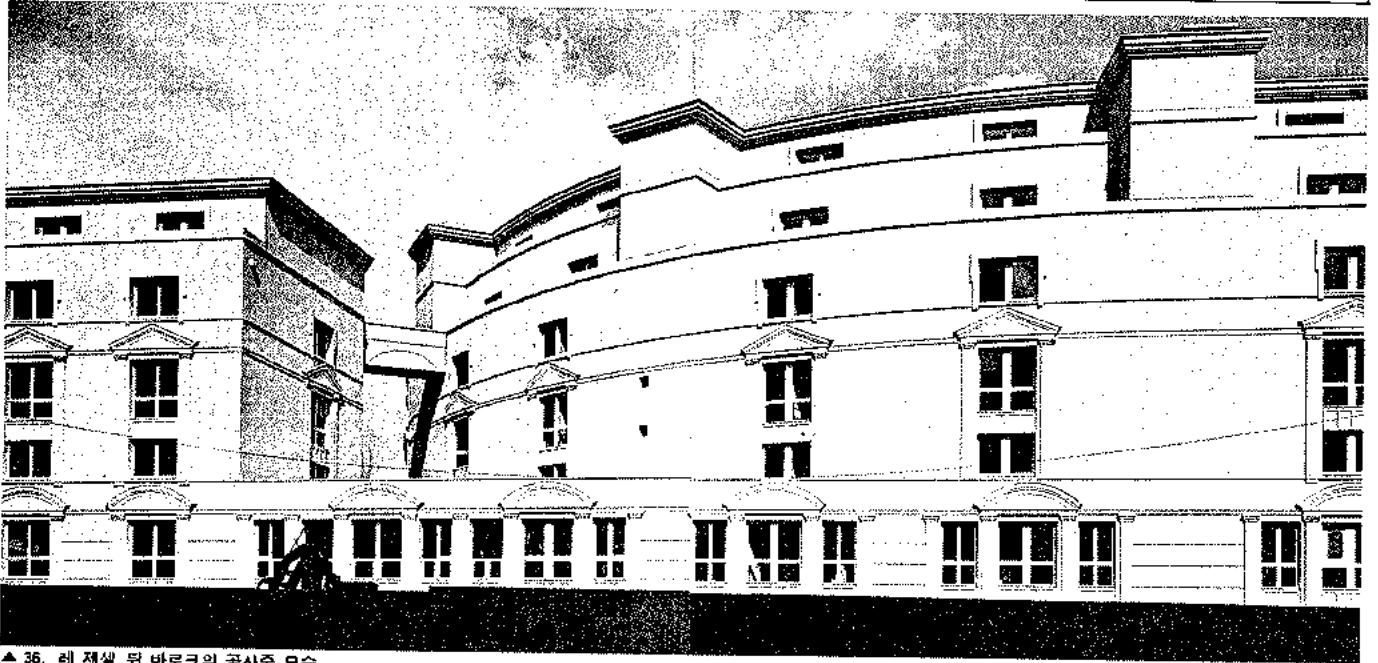
34. 양띠콘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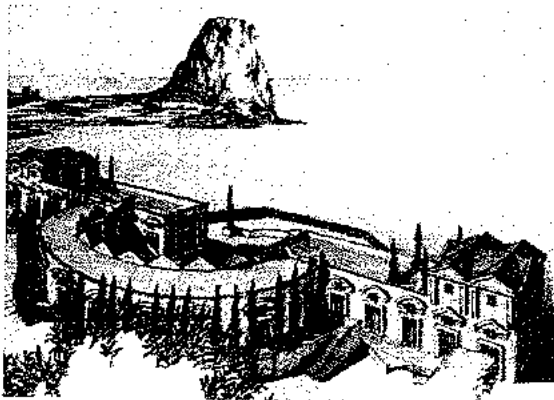
▲ 35.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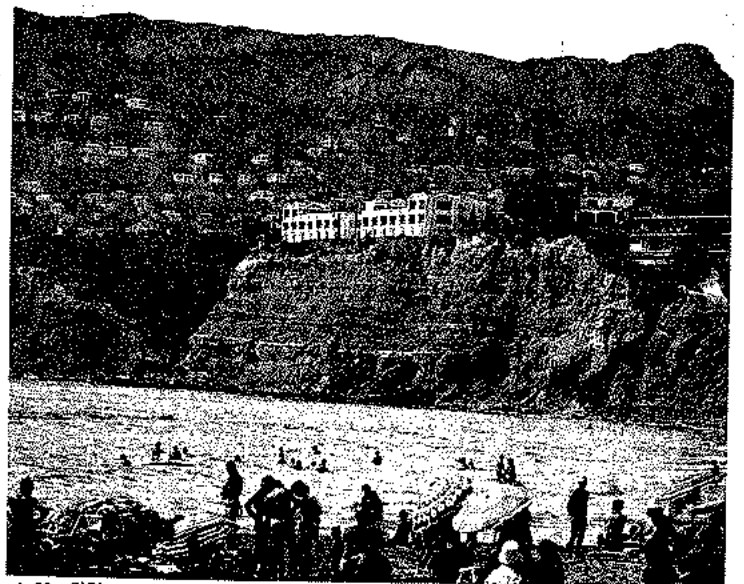
37. 최중안 배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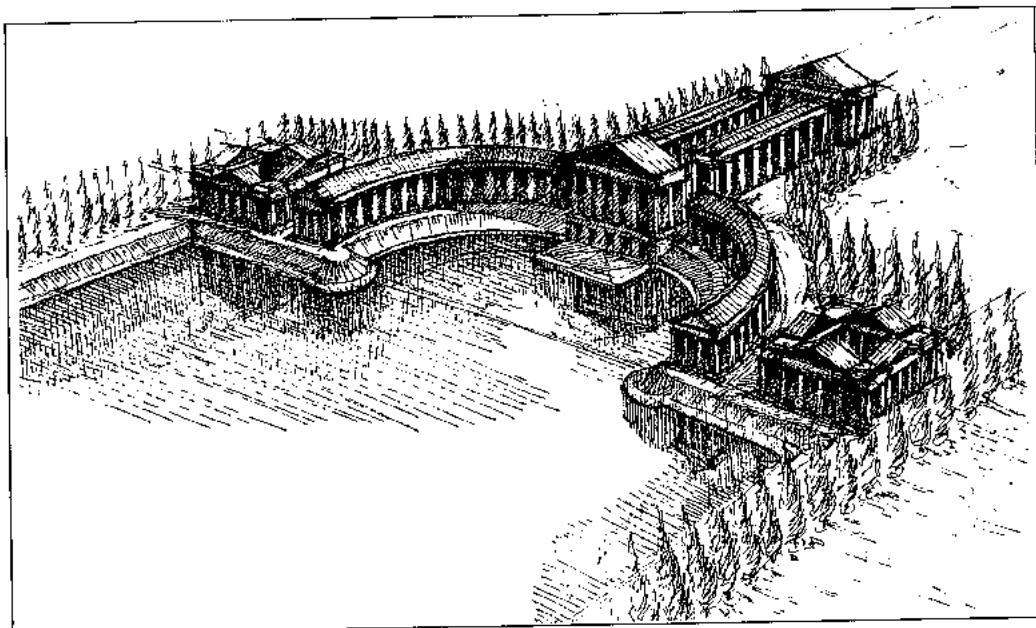
▲ 36. 레 재살 뒤 바로크의 공사중 모습



▲ 38. 엘 안피테아드로 투시도



▲ 39. 원경



▲ 40. 르 팜팔르 뒤 락 투시도

투의 이야기로는 다른사람들보다 뻔뻔한 편이어서, 고전적 건축에 대해 정공법을 당당히 활용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념비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호수의 아케이드', '교량'에 사는 사람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물들을 선호한다고 한다. 프랑스대통령의 청찬이나 메리셀 교회 준공식에 데스탱 대통령의 부인이 참석한 것도 일반인의 선호를 보여주는 현상일 것이다. 이 팀이 스페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여러민족의 건축가들로 구성되었으면서도 파리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축공방이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에 뿌리를 두고서도, 프랑스라는 다른나라에 옮겨 온 것은 무엇때문인가? 리카르도 보필은 자기 책에서 건축작품은 지역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즉 그 장소에 적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콘크리트 기술 및 산업수준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지역적 전통을 새로이 해석하여 그들의 작품에 소화해 냈다.¹⁶⁾ 고전주의가 현대건축의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 과거의 가치와 원칙을 단순히 재건한다.
- 탈산업사회에 맞는 적당한 형태로, 고전적 교의를 융통성있게 해석한다.

그러면 건축공방의 태도는 무엇인가? 건축공방의 작품을 통해 나타난 2가지 공적이 있는데,

- 통합된 도시계획 즉, 전원도시의 개념이 실패한 뒤 전통적 도시를 발견하려고 한 것이며, 참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주거환경에 명쾌한 이미지를 부여했다.
- 건축언어를 새롭게 변화시킨 점, 과거의 원형의 형태를 채용하고, 역사적 모티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체계내에서 과거와 현재를 통합시켰다.

는 점이다.¹⁷⁾ 그렇지만 존 모리스 덕슨은 다음의 이유로써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후 평가로서 할 수 있지만, 그가 초기에 '호수가의 아케이드'를 방문한 것과 도면, 사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이다.

- 오늘날의 프랑스 도시교회 거주자들의 - 파리가 아니라 뉴욕이라 해도-요구가 모험적인 주거시설을 필요로 하는가?
- 외부구성을 위한 창과 발코니의 변화만으로, 고전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포플러 나무사이의 산책길이 오늘날 옥외활동에 적합한가?
- 건축가들이 고전주의에 따라 설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설계를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또 프리즈나 필라스터(헛기둥)에 창을 낸 아파트의 형태가 적절하게 형태의 통합성을 보여 주는가?
- 현대의 외부재료를 교묘히 다루는 건축가의 눈속임이 고전적 건축을 확신시킬 수 있는가?¹⁸⁾

5. 작품과 활동¹⁹⁾

리카르도 보필은 건축가겸 시공자의 아들로써 1939년에 출생함(50세). 바르셀로나 대학, 건축학과 졸업. (Degree in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Barcelona) 제네바 건축대학에서도 건축에 관한 공부를 함(앞에 있는 숫자는 설계시작년도를 기준하였음). 1962년 아파트 설계, 스페인, 바르셀로나, 작곡가 바하 거리 28번지. 1963년 건축공방(탈레 드 아키텍투라) 설립을 위해 일군의 건축가들 모음. *아파트 2동 설계, 스페인, 바르셀로나, 작곡가 바하 거리 4번지. *아파트 설계, 스페인, 바르셀로나, 니카라과 거리 99번지. 이 작품으로 FAD 건축상 수상.

(제1기)

1964년

*'바리오 가우디', 스페인, 테라고나, 류·안토니오 가우디의 출생지인 '가우디 지구'에 세움. 학교, 쇼핑센터등 공공센터가 있는 600세대용 사의 주거 단지를 설계.

1966년

*화학공장,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라노렐. *엘 카르텔,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자용 아파트 설계.

1967년

1968년 저서발간. "스페인의 도시 형성에 대하여", 바르셀로나.

1969년

*'라 만자네라'. 스페인, 알리칸테, 칼페. 두건물(체너두, 라뮤랄라 로짜)로 구성된 45세대 휴양지 주거 시설. (사진 20~30) *전시회. 마드리드, "정신 4".

1970년

*'공간적 도시', 스페인 마드리드, 문화센터, 주차장, 학교, 공원, 오락시설이 있는 1,500세대용 복합 주거단지.

*'윌덴 7',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무소, 주차장, 쇼핑센터 등이 있는 1,000세대용 복합 주거단지. 3개의 건물이나 1단계로 400세대의 1동만 완성됨. 색채, 형태, 구성상 독특한 형태의 건물. (사진 24~25)

1971년 파리에 제2사무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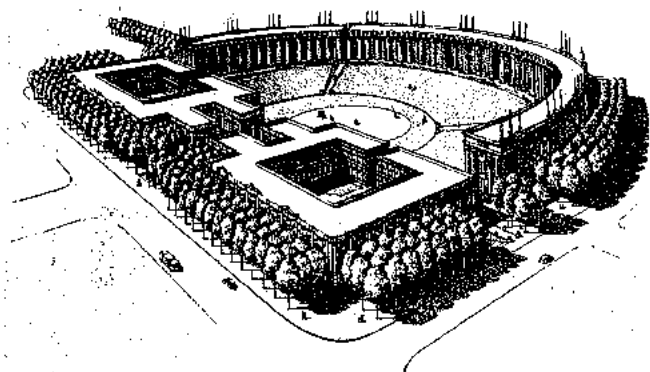
*'라 페티트 성당', 프랑스, 세르지 퐁트와즈 신도시.

*'라 마르카 공원', 스페인과 프랑스 경제 지역에 조경을 통한 환경 계획. 기념조각으로 피라미드를, 카탈로니아를 기념하여 세웠다. (사진 26)

*'메리셀 교회', 안도라, 계곡을 가로지른 선형구조의 건물로서, 행정건물, 공회당, 종교건물, 상업시설과 공공장소가 포함된 계획. (사진 27, 28)

19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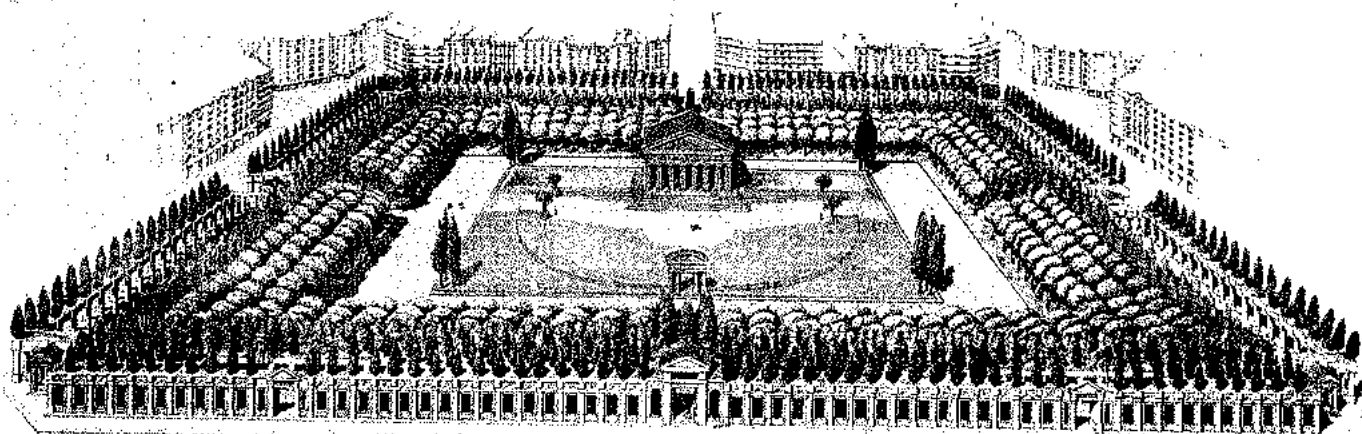
*'레 자까드 뒤 락' (Les Arcades Du Lac), '호수의 아케이드'라는 뜻의 600세대의 공용 주거단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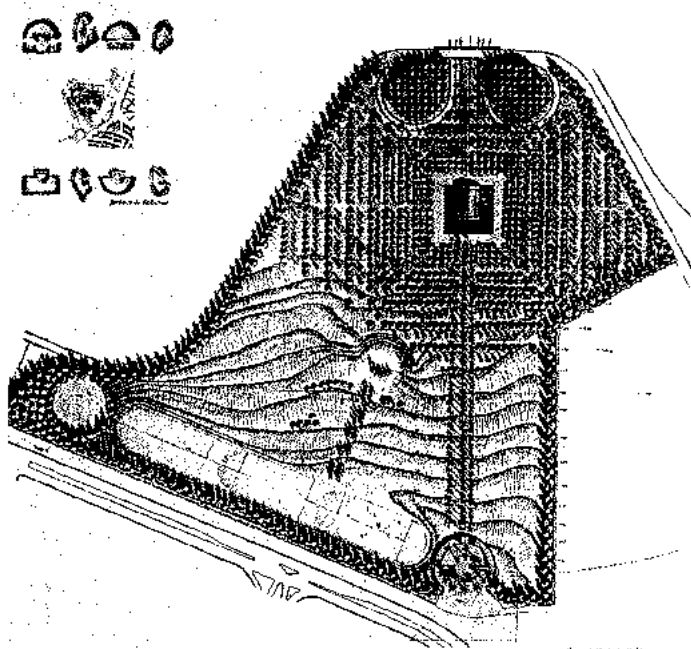
▲ 41. 랑 피데아프르 베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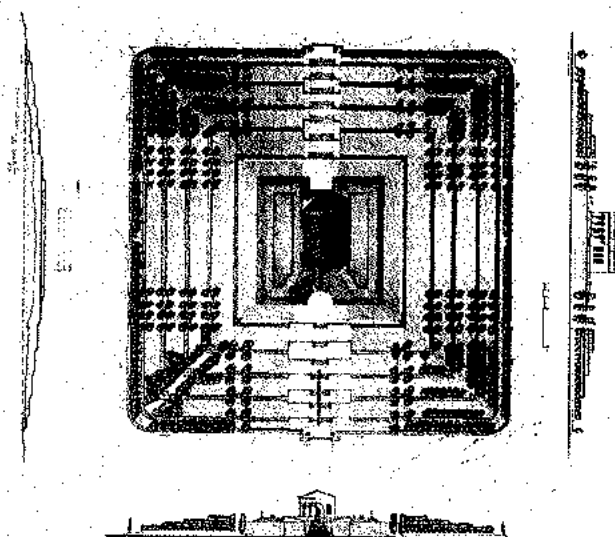
▲ 42. 공사중의 건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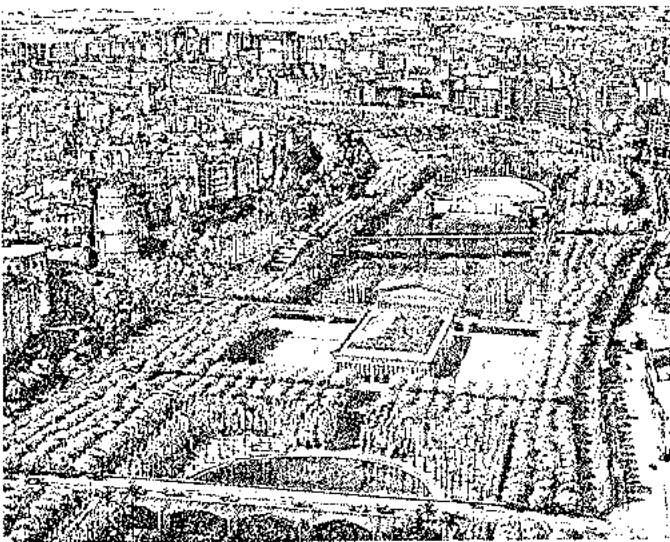
▲ 43. 연산체 고전적 정원의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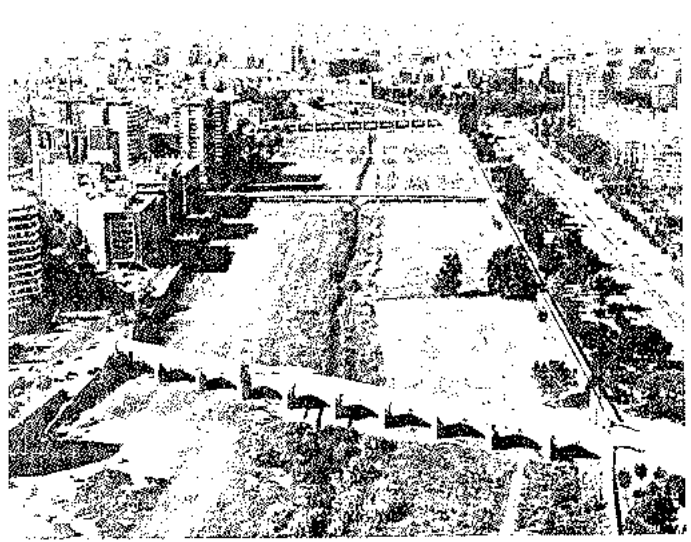
▲ 44. 카타로니아 정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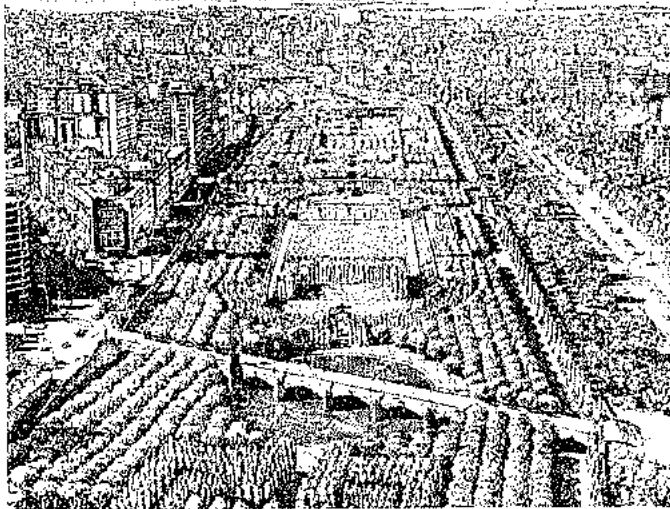
▲ 45. 신전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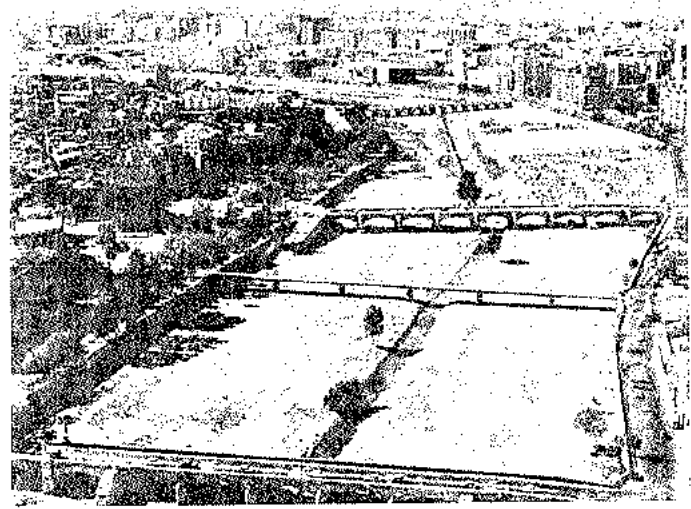
▲ 46. 유리아성원 중앙부분 투시도



▲ 47. 현재 전경



▲ 48.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전경 투시도



▲ 49. 현재 전경

1973년

*프랑스, 생-캉탱-앙-이브린느, 성채 (La Citadelle). 오래된 군사요새를 바뀌, 극장, 강의실, 예술회관, 헬스클럽, 상업시설, 객실 100실의 호텔이 있는 복합시설로 만든. 이대지 주위에는 호화로운 주거 복합시설인 "아브라사스 집합주거"가 있는데 1,200세대용 주거와 공용시설 및 주차장이 있다.

*에밀리오 포벨주택, 스페인, 세로나, 몬트라, 가족용 여름별장. (사진29)
*라 퍼브리카, 스페인, 바르셀로나, 30개의 사이로가 있는 낡은 시멘트 공장을 개조하여 보필의 주택겸 건축공방의 스튜디오를 포함하여 문화시설을 갖춘 건물이다. 1년여 동안 철거하고, 재거 및 청소, 옥상정원 및 발코니에 식수, 그리고 전혀 새로운 용도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외부는 노출 콘크리트의 원통이 그대로 있다. 이 건물로 1980년에 '바르셀로나시 건축상'을 수상함.

1974년

*'센터 포인트 M', 프랑스, 파리, 라 대팡스, 호텔, 주차장, 상업시설이 포함된 공공건축물 계획.

*'르 비아뒤크' (Le Viaduc), 74세대의

공동주택. Les Arcades Du Lac 의 인공호수로부터 수로를 형성하고 있다.

*'레 알' 계획. 설계경기.

1975년

*'루브르 - 라 네방스', 프랑스, 파리, 양쪽에 선형건물이 있는 선형 공원의 계획. 도시의 축에 대한 연구로서.

*'르 자르탱 네 알르', 프랑스, 파리. 2개의 1등 당선안 중의 하나. 파리중심에 도시시설을 계획함.

(제2기)

1976년

*'작은섬' 계획. 스페인, 말로르카. 바닷가의 400세대 주거시설, 상업시설과 스포츠시설이 있다.

*전시회. "건축의 정후",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회. "시장(레 알)", 파리.

*전시회. "문화예술센터", 브에노스 아이레스.

*저서발간, "건축공방", 바르셀로나.

*'일레프', 스페인, 말로르카. 400세대 주거시설.

*'카스트로 노보', 스페인, 산타델. 기존 도시 중심의 확장으로서 700세대 공동주택.

*'루쿠아' 주거단지. 현상설계.

1977년

*'베고나 공원계획', 공원,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계획.

1978년 저서 "리카르도 보필 - 인간의 건축" 발간, 파리.

*'알제리아 계획', 7개지역의 도시설계 및 계획.

350세대, 6,000세대, 7,000세대 등의 주거시설 및 행정시설, 도시확장, 선형도시 계획등이 포함됨.

*'카스트로 노보', 스페인, 산타델.

700세대 공동주택중 1단계로 2,000세대 주거단지 설계.

*'산타, 마리아 드 갈렉스', 공동주택.

*'르 벨레 다브라사스', 프랑스, 마르느 라 발레. 441세대 공동주거계획. (사진30~33)

1979년 주요 활동무대를 파리로 함.

*'앙페르느', 프랑스, 몽펠리에. 역사적 중심지 옆에 도시 설계. 착공

1983년. (사진34, 35)

*'레 제셀 뒤 바로프', 파리 4지구, 300세대 계획. 착공 1983년. (사진3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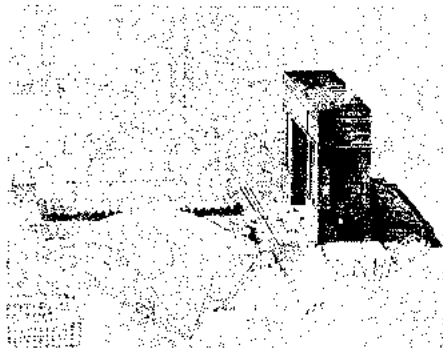
*'르 데아프', '라르크'. 131세대 주거시설.

*사우디 외무성 국제 설계경기 2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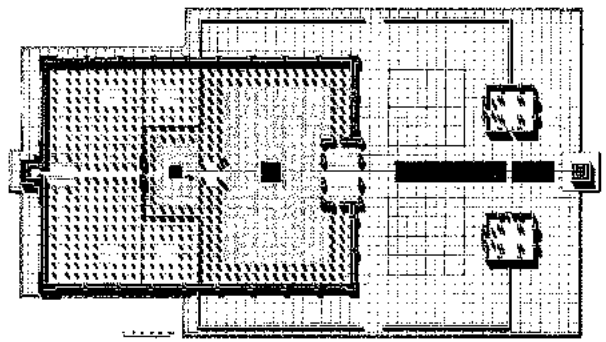
1980년

*아파트 설계, 홀랜드.

*콘도미니엄 설계. 미국, 텍사스.



▲ 50. 라 빌레트공원 참가작 루시도



▲ 51. 모스크 국제지형 설계경기 평면도

*전시회. “새로운 거리” 베니스 비엔날레 80.
 *‘엘 안피테아프로’, 알리칸테, 캄페. 공동주택 27세대. 일광욕실, 수영장과 설벽 아래로 바닷가가 보이는 중앙광장등이 있다. (사진38, 39)
 1981년
 *‘르 땅뵈르 뒤 락’, 200세대 공동주택과 조경. (사진40)
 *‘르 발롱 쉬르 라 빌’, 프랑스, 드●. 200세대 공동주택 설계 경기 당선작.
 *‘랑피테아프로 베르’, 300세대 공동주택, 착공 1983년. (사진41, 42)
 *‘엔산체 고전적 정원’(로스 자르데네스 크라쇼 델 엔산체). (사진43)
 *‘카타로니아 정원’(로스 자르데네스 데 까탈루냐). (사진44, 45)
 *‘튜리아 정원’(로스 자르데네스 데 튜리아). (사진46~49)
 *테라스 하우스.
 *‘르 떼종 땅뵈르’.
 *‘레 리브 드 레즈’.
 *도시 조형물 설계.
 *‘르네상스 정원’. (레 자르탱 드 라 르네상스).
 *전시회. “건축공방 - 리카르도 보필”, 영국, A.A. 스쿨.
 *전시회. “프랑스 계획안 1978/81 - 도시 : 역사와 기술”.
 *전시회. “과거의 현존”, 파리.
 *저서발간. “아브라함사의 공간 - 궁전 - 극장 - 아퀴”, 파리.
 *책자발간. “프랑스의 프로젝트 1978/81 - 도시 : 역사와 기술”(카다로그), 파리.
 1982년
 *라 빌레트 공원, 파리. 국제설계경기 참가작.
 라르코 크리스탈 - 라 포르트 드 라 꼬유니카시옹, 프랑스 파리. 데프 테팡스에 관련된 국제설계경기. (사진50)
 *몬티갈라 공원, 바르셀로나, 바다로나. 고밀도 주거지역내에 건설된 공원계획안.
 *모스크. 이락, 바그다드, 국제 지명설계경기. (사진51)
 *바브 엘 세이키 - 6지역, 이락 바그다드. 도심지 주거상업시설.
 *전시회. “과거의 현존”,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전시회.
 *전시회. “튜리아의 정원”, 스페인,

발렌시아, 로나궁전.
 *전시회. “현대 이슬람 건축”, 베니스 비엔날레 82.
 *책자발간. “튜리아의 정원”(카다로그), 발렌시아 시청 발행.
 1983년
 *라폰 주택, 모로코, 말라케. 여름 피서용 주택.
 *전시회. 이탈리아, 로마, 브라스카궁전. “튜리아의 정원 - 문화와 자연 속에서의 도시의 변형 - 스페인의 모범사례”. 그 이후의 활동은 지역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카메룬, 50,000㎡의 대규모의 도시중심시설, 주거시설, 주차장, 상점, 호텔, 학교, 주교관 등이 포함된 시설.
 *상가포르, 아파트 복합 주거시설. 800세대용 공용주거단지.
 *크리스찬 디올 향수병 디자인.
 *바르셀로나 도시계획안 제안.
 *파리 오페라, 파리 바스티유궁의 오페라 극장 국제 설계경기.

□ 註 □

- 1) P/A, 1981 : 10.
- 2) P/A, 1975 : 09, pp.82 ~ 83.
- 3) Monica Pidgeon. “Pidgeon Audio Visual 1979”. Tape & Slide 에서, Bofill 의 발언.
- 4) G.Broadbent, “Bofill”, Architectural Design, 1975 : 07, pp.402 ~ 417.
- 5) “Ricardo Bofill”, A.D.A. Tokyo.Co.Ltd. 1985.
- 6) A.D., 1975 : 07, p.417.
- 7) John Morris Dixon. “Wage-earners’ Versailles”. P/A, 1981 : 10.
- 8) Peter Hodgkinson, “House as Archetype” A.D. 1981 : 09. pp.137 ~ 138.
- 9) Vittorio Magnago Lampugnani,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1980. 윤재희, 지연순역, “현대건축론”, 서울, 세진사, 1987. p. 13.
- 10) Clive Aslet, “Classicism for the year 2000”, A.D.Design Profile 71 ‘The New Calssicism in

Architecture and Urbanism’, pp.5 ~ 10.

- 11) 알책.
- 12) 정영선, “서양조경사”, 서울, 산학사, 1979. pp. 67~80.
- 13) 세계건축가 3. “리카르도 보필”. 서울, 전우사, 1987. pp. 174~179
P/A : 1984 : 06, “Garden in Spain”.
- 14) J.F.Geist, “Arcades”. The MIT Press. 1985. pp.3 ~ 12
- 15) 이합의 편저, “각종회의 진행법”, 서울, 송원문화사, 1983. pp. 47~62.
세계백과대사전. 브리테니카.
- 16) 세계건축가 3. “리카르도 보필”. 서울, 전우사, 1987. p. 19
- 17) C.N.Schulz, “form and Meaning-the Work of Ricardo Bofill/Taller de Arquitectura”, p.21
- 18) John Morris Dixon, “Wage-earners’ Versailles”. P/A 1981 : 10.
- 19) 세계건축가 3. “리카르도 보필”. 서울, 전우사. 1987. p. 195~196

□ 참고문헌 □

- 1) P/A, 1975 : 09, “Taller de Arquitectura”, pp.82 ~ 83
- 2) P/A, 1980 : 09, “Report from environs de Paris”, pp.58 ~
- 3) Domus, 1983 : 11. “Silo Studios”, pp.74 ~ 76
- 4) Jonathan Glancey, “Factory conversion, Barcelona”. Domus, 1983 : 11. pp.77 ~ 78
- 5) J.Glancey, “Valencia Links”, Domus, 1984 : 06
- 6) A + U, 1982 : 02
- 7) A + U, 1984 : 01
- 8) “Architecture 1980 : The Presense of the Past”, Venice Biennale. pp.98 ~ 102
- 9) Paolo Portoghesi, “After Modern Architecture”, pp.97 ~ 98
- 10) Vittorio Magnago Lampugnani,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1980. pp.203 ~ 204
- 11) C.Jencks, “Free-Style Classicism”, pp.42 ~ 46
- 12) C.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왜 건축사는 월급장으로 근무를 못하게 하는가?

金知德 / (주)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월급건축사제도는 우리모두가 한번쯤 다시 되새기며 재고해야 할 제도다. 이대로의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건축사라는 직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형편을 면하기 힘들다. 지금 도처에서 보조원, 보조사들이 노조를 결성함으로써 건축사사무소 소장들이 도전을 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자타가 인정하는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고 자부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업만 가지고는 “돈”벌이가 안된다고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한가지 일에 전문가가 되기엔 60평생도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우리 선배 건축인들에게서 배워왔고, 실제로 생활을 통해 실감하고 있다. 어떻게 건축사가, 본업인 설계연구에 몰두 안하고 건설공사 수주에 분주해야 먹고살 수 있는 것일까? 두가지 분야 모두가 전문가라는 얘기는 두분야 모두 돌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건축사협회 규정에 개업 건축사는 월급받는 직분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규정을 지금도 준수하면서 살아야하는가?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 분주히 연구하고 노력할 나이에 개업해서 설계용역 수주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면 언제 연구하고 누가 설계업무에 종사할 것인가? 세계 어느나라가 이런 모순된 규정을 가지고 있던 말인가?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자기가 근무하던 사무소에 사표를 내고 개업한다고 서둘러 퇴직하는 보조사들을 우린 많이 보아왔다. 이런 현상은 우리 설계업에 종사하는 모든 건축사를 슬프게 한다. 개업 조항 자체가 너무 쉽게되어 있는 모순도 있다. 이것은 건축사 사무소 자체를 영세업으로 이끄는 모순된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어느 대학교수가 자기집을 지으려고 건축사사무소를 서너곳 찾았는데 사무소마다 설계비요청 액수가 틀리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법의 준수를 게일로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통일이 안 되는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깎으려고만 들면 깎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건축사 사무소는 계속 영세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라는 의견을 들은 일이 있다.

서울특별시 지부에서는 요즘 개업 건축사 신고가 매일 3~4건씩 들어와 협회 업무의 주종을 이루다시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능력이 있어서 개업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10평 미만의 사무실에 제도판 2~3개, 보조사, 보조원, 여직원 1명과 전화1대로 시작해서 첫 설계작품은 원가 그대로 출혈하기가 빈번한 사례들이 있다. 이웃나라 동경의 니켄세케이에 가본 일이 있는데 건축사 면허를 받고도 계속 회사에 머물러 건축을 연구하고 건축설계 업무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건축사가 500여명이 넘는다고 들었다. 좋은 작품구상에 여념이 없는 이런 현상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실현이 안되는 것일까? 건축사 스스로 작품구상에 열을 올리는 이런 풍토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건축사면허 (Architect licence) 를 받고 며칠 안되어 개업하는 풍토는 없다. 연봉으로 계약하고 회사에서 작품활동에 꾸준한 건축사가 얼마나 많은가? 젊은 건축사가 일파기에 바쁘다면 무슨 정력으로 작품연구에 열성을 다하겠는가? 출작 건축설계가 나오는 원인은 이런데 있지 않겠는가. 종합사무소란 제도는 또 무엇인가? 왜 이런 허풍선이 제도를 아직도 유지해서 건축사들 모두를 골치아프게 하는가? 실제로 종합사무소 제도의 실태는 어떠한가? 건축사를 월급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아직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협회를 이끌고 가시는 여러 선배님들께서 모순된 것은 하루 빨리 없애고 분명하고 정확한 장래성 있는 정책 실현으로 건축사 사무소 발전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하고 바란다.

三國時代의 建築文化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4. 寺刹建築

『三國史記』新羅本紀 法興王條에 신라의 불교가 전해진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訥祇麻立干 때(417~458년) 고구려로부터 僧 墨胡子가 善山에 먼저 들어와 포교를 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때에는 믿는 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 후에 炤知麻立干 때(479~500년) 다시 고구려에서 僧 阿道 등이 들어와 전도한 후로는 신도가 차츰 생기기 시작하였다 한다. 그러다가 법흥왕 때에는 왕과 신하들 간에 불교를 공인할 것인지 아닌 지를 분분하게 논하다가 異次頓의 순교가 있었던 동왕 14년(527년) 이후에 공인되었다고 본다. 이때부터 신라왕실은 불교의 신봉과 사찰의 조영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었다. 古新羅시대 가장 먼저 조영된 불사건축은 興輪寺와 永興寺이었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이 두 사찰은 僧 아도에 의하여 같이 조영되었다고도 하고 한쪽에서는 흥륜사는 법흥왕 21년(534년)에 시작되어 진흥왕 5년(544년)에 낙성되었다고도 하여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 후의 기록으로 보아 흥륜사에는 전각과 탑, 經樓와 남문, 좌우 회랑, 그리고 南池 등이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에도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신라에는 이에 앞서 이차돈의 殉教를 추모한 刺楸寺란 절을 세웠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들 사찰에 뒤 이어 중요한 佛寺로 皇龍寺, 祇園寺, 實際寺, 三郎寺, 芬皇寺, 靈廟寺 등이 창건되었다. 이들 중에 현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흥륜사와 황룡사, 분황사 등이다. 흥륜사는 법흥왕때 시작하여 진흥왕때 완성되었다고 기록에 나타나 있지만 초창 이후에 많은 重修가 있었음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듯이 <신라 제54대 景明王 때(貞明7年, 921년)에 그동안 남문과 좌우 廊廡가 불에 타고 중수하지 못하였다가 중수하려 하는데 마침 제석천왕이 좌경루에 강림하여 10여일을 머무는데 전각과 탑 그리고 초목과 토석이 이상한 향기를

풍기고 5색 구름이 절을 덮고 南池의 어룡이 기뻐 뛰었다>라고 하여 통일신라 시대에 이 절이 대대적으로 중수되었음을 알려준다. 일제시 이곳 금당(166尺×101尺)이 조사되어 알려졌고 그 후 1978년~1982년 사이 문화재연구소에서 興輪寺址로 추정되는 곳을 발굴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단이 8각으로 된 東·西 兩塔址가 확인되고 동회랑지가 확인되었는데, 탑지의 규모는 전체 직경이 10.5m이고 한변이 약 4.5m였고 탑지 상호간의 중심거리가 약 59.2m라 하며 이 탑지는 自然石列로 이루어졌는데 2단의 기단과 그 밖에 좀 거리를 두어 또다시 石列이 둘러져 있었다 한다.

또 동탑지에서 중심거리 약 17m 되는 곳에서 單廊의 동회랑지가 발굴 노출되었는데 보칸이 2.7m 이었고 도리칸이 약 3.5m 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이 사지의 가람은 二塔式 伽藍을 나타내었는데 동서 가람폭이 약 99m 나 되는 큰 사지라고 한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삼국시대 말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 말까지의 유물들인데 鬼面瓦와 <靈廟之寺>라는 銘文瓦가 출토되었다.

특히 이 발굴조사에서 유구층으로 보아 初創期와 그 붕괴층 그리고 그 후의 重創期의 유구토층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전술한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하고 또 밝혀진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유구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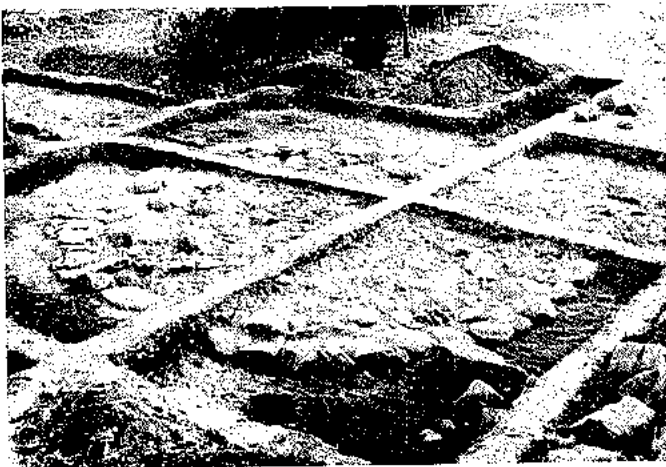
1) 皇龍寺

○創建記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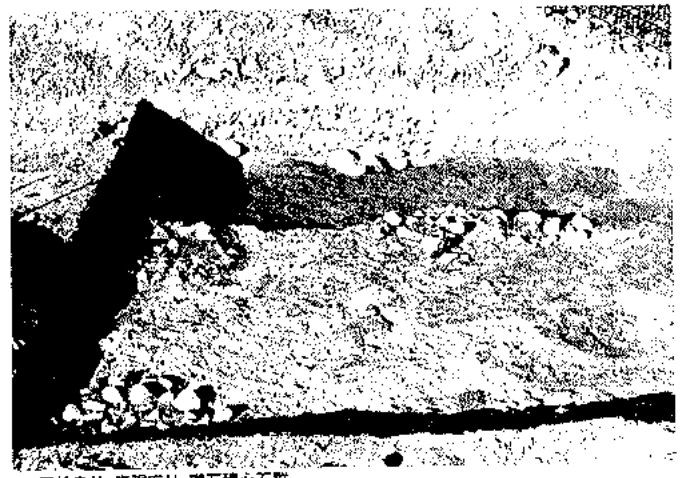
『三國史記』新羅本紀 眞興王條나 『三國遺事』興法條와 皇龍寺 丈六條에 창건기록이 있다 전자는 <...봄 2월에 왕이 명하여 月城 동쪽에 새로운 궁을 지으려 하는데 그곳에서 黃龍이 나타나는지라 왕이 의아하여 佛寺로 고치어 皇龍寺>라고 하여 553년에 창건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또 566년에 <...황룡사를 완공했다>하고 574년에는 <...3월분 皇龍寺 丈六像을 조성하였는데 銅이 35,007斤이고 도금이 10,198分이다>라고 하였다.

張慶浩

36年生으로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61) 하고 1975년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소장을 거쳐 87년 3월 제2대 문화재 연구소장에 취임. 세력중이다. 1988년 홍익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興輪寺址 東塔址 全景



▲興輪寺址 東塔址 礎石積心石群

후자인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569년에 주위담장을 조성하여 17년 만에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574년에 <…鑄成丈六尊像>하고 584년에 <…金堂造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三國史記』善德王條나 『三國遺史』皇龍寺九層塔條에 <慈藏의 발원에 의하여 황룡사 탑을 창건했다>라는 기록이 있어 9층탑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탑의 창건동기의 자장이 중국에 가서 神人을 만나 그의 啓示를 받고 신라 변방에 적국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세운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목탑을 조성할 때 왕이 신하들의 건의를 들어 백제의 기술을 阿非知를 초빙하여 탑을 세웠는데 공사도중 아버지가 백제 멸망의 꿈을 꾸고는 중지하였다가 다시 계속하였으며 마침내 645년에 완성하였는데 그 높이가 露盤下 183尺이고 相輪部가 42尺으로 도합 225尺이라는 자세한 기록을 『三國遺史』에 남기고 있다. 이 사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76년부터 국가에서 행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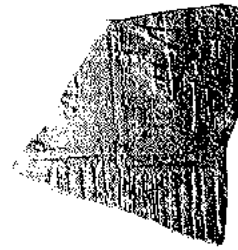
발굴결과 여러 차례 가람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초에는 가람 중앙부에 남북중심축에 따라 남에서부터 남문과 중문, 탑, 그리고 금당과 강당을 두고 중문 좌우를 연결하여 單廊의 남회랑지와 금당 양측에 남북으로 뻗은 동·서 단랑을 두었고 이 단랑에서 외곽으로 좀 떨어져 다시 남북으로 뻗어 남단에는 전기 남회랑과 연결되고 북쪽에는 정방형으로 구획되어 연속된 건물지와 연결되어 이것이 가람 내측으로 꺾이어 강당과 연결되는 배치를 나타낸다. 이 가람 동·서변에서 남북으로 뻗은 건물지는 보칸이 3칸으로 前後 退를 둔 승방지로 보였다. 이렇게 하여 구획된 가람의 동·서공간에 중앙 금당과 나란히 동·서 금당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창건때의 것인가 확실하지 않지만 기단의 구축기법이 중금당보다 앞서는 것 같아 초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보면 황룡사의 초기가람은 백제의 일탑식 가람에 東·西區에 다시 금당을 각 한 개씩 나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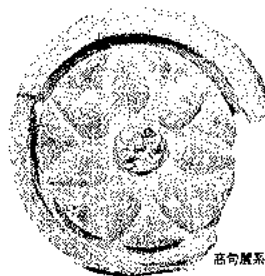
▲興輪寺址 出土瓦

◀ 숫막새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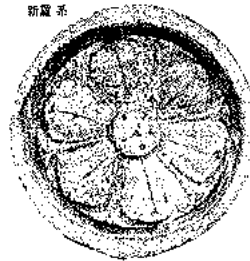
鬼面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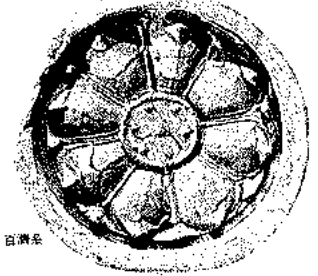
▲〈豐廟之寺〉銘文瓦片



▲皇龍寺址 出土 蓮華文 숫막새



新羅系



百濟系



▲興輪寺址 本塔址 心礎石 跡



▲ 皇龍寺址 出土 磨草文 모서리 기와

놓아 三金堂 一塔式을 이루고 그 외곽의 동·서·북에 긴 승방지로 구획을 두어 중심곽을 이루었다. 다음 제2차 가람을 이룰 때는 584년에 금당을 신축하고 목탑을 계획하던 시기로 645년에 목탑을 세움으로써 이룩되는 장족의 사역으로 이때에는 목탑의 높이나 크기로 보아 그 양옆에 단랑은 있을 수 없게 되어 철거된다. 이때는 중문도 3間×2間에서 4間×2間으로 확장되면서 남쪽으로 移築되었고 중문 양옆에 연결되는 남회랑은 復廊으로 개축되고 東·西 僧房은 당분간 그대로두어 이 승방의 외칸이 동·서회랑의 대용으로 사용된 것 같다. 그 후 곧이어 제3차 가람이 이루어지는데 중문과 남회랑이 다시 한번 남쪽으로 옮겨지고 남회랑은 동·서단에서 외곽쪽으로 연장되며 이 회랑 북변과 동·서 승방 사이에는 작은 연결복도가 놓인다. 이후에도 다시 동·서승방을 復廊으로 개축하고 중문도 4間×2間에서 5間×4間으로 확장되는데 이때에 鐘·經樓를 세웠던가 하였을 것이다. 기록에 중을 주성한것이 754년으로 되어 삼국통일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황룡사의 가람변천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이미 발굴보고서나 건축학회지에 발표된 바 있다. 황룡사는 결국 고려때 몽고란에 의하여 전부 소실되고 말았다. 황룡사지의 각 건물의 규모와 가람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建物址別特徵

황룡사지의 유구는 기반석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 남아있어 특히 초석에 의한 주칸의 검토가 용이하였다. 초석이 잘 남아있었던 건물지는 중금당지와 목탑지 그리고 강당지와 후대 회랑지 등이고 중문지와 중·경루지는 초석 일부만 남아 있었다. 또 동·서 금당지와 승방지, 단랑지 그리고 중문지 등 초석은 없었지만 그 밑에 적심석은 남아있었다. 이 사지의 초창기 초석은上面을 평평히 한 방형초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 이 초석의 상면은 평평하게



▲ 皇龍寺址 中金堂址 基壇前面

가공하였으되 정방형으로 柱座를 이루어 이 주좌의 변은 모를 약간 접어 그 밑에서 수직으로 깎은 것, 또 좀 후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서 방형주좌를 2단으로 만들어 깎은 것이 있고 회랑지나 후대 건물지 등에서 보이는 원형주좌를 갖는 원형초석과 방형초석 등을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인 2단식사리의 원형주좌를 갖는 것도 보인다. 이들 초석 밑의 하부구조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초석 밑을 대체로 건물기단 구축을 한 다음 깊고 넓게 파서 積心石을 차곡차곡 쌓아 견고히 다져 밑이 비교적 평평한 초석을 얹힌 형식을 취하였다. 그 규모의 예를 들면 중문 및 동·서 금당지에서 초석의 일변이 1m 내외인데 적심석의 범위를 직경 약 2m로 잡고 그 깊이도 2m로 하였다. 기단의 築基는 중요한 건물 즉 木塔址와 金堂址에서는 냇돌과 점토층을 여러 번 번갈아 다진 土石混合 版築法을 사용하여 신라의 고유한 건축구법을 나타냈다. 황룡사지를 중요 건물지별로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金堂址

中金堂址의 기단은 상·하층의 2중기단으로 되어있어 소위 고대의 중요건물에 쓰여진 차양칸을 둔 확실한 유구이다. 상층기단 위에 주칸은 정면이 9칸이고 측면이 4칸으로 内外陣 柱列을 이루었다. 기록에 있듯이 이곳에 丈六尊佛像을 안치하였던 거대한 불좌대가 남아있다. 이렇게 큰 불상을 이 건물 안에 봉안하려면 건물이 적어도 2층이 되지 않고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층기단의 초석은 상층의 것보다 약 1m내외의 높이차가 있는 낮은 위치에 놓여 건물외전 주열을 따라 일렬로 놓였는데 초석의 크기도 상층의 것보다 훨씬 작았다. 그러므로 하층초석열까지 합하여 중금당의 주칸은 11칸×6칸이 된다. 그 규모는 별표와 같다. 동·서금당에 대하여는 기술을 생략한다.

○木塔址

목탑은 정면과 측면이 다같이 7칸으로 되어 정방형을 이루고 중심부에는 거대한 心礎의 盤石(4m×3m)이 놓였는데 그 상면 중심부에 사리를 저장하는 사리공을 마련하고 그 위에 다시 덮개 초석을 놓아 心柱(목탑에는 밑에서부터 상륜부까지 높게 세우는 심주가 있어 이것이 형력을 지탱할 수 있게 함)를 받치도록 하였다. 이 반석 위 중앙부에 있는 사리공은 일변 29cm 정방형 평면에 깊이 26cm로서 그 위에는 덮개를 덮도록 턱을 깎아 끼워 맞추도록 하였고 상부에는 排水溝를 주위에 돌려 물이 외부로 유도되도록 하였다. 여기에 덮였던 초석은 긴 변이 1.5m 짧은 변이 1.2m, 높이가 약 1m 정도인데 위와 밑부분에는 중앙에 圓形孔이 뚫려있고 밑에는 측구멍이 4개 뚫려 반석과 축을 맞추도록 되어있다. 이 사리공은 1966년 처음 조사가 되었는데 도굴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사리函을 비롯한 유명한 金銅塔誌는 이전에 도굴되었던 것을 되찾은 것이다. 이 외에도 금·은합과 8각의 사리탈 등이 나와서 현재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발굴에서도 전술한 반석 밑에서 탑을 세우기 전에 의식적으로 묻어 두었던 유물들이 1,500 여점이나 출토되었다.

○講堂址

강당지는 원래 10間×4間으로 되었던 것이 그후 서쪽 일부를 개축하여 9間×4間으로 변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건물 바닥에는 塼을 깔았던 것을 알 수 있었고 건물 내에는 설법단이 있었는데 10間이었을 때는 설법단이 좌우에 2개, 9間이었을 때는 중앙에 한 개가 놓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中門址

중문지는 이미 기술하였듯이 3차에 걸쳐 개축이 이루어졌으므로 일부나마 남아 있는 초석은 최종의 것이다. 남아있는 유구로 보아 건물지는 정면이 5칸이고 측면이 4칸으로 되었는데 중앙부의 3칸은 출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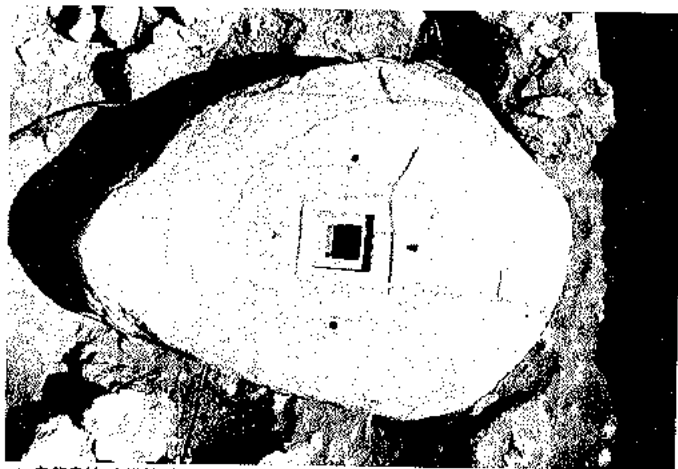
區分	距離	M	曲 尺	高麗尺	換算比
中 院	中金堂~東金堂址間	56.96	187.98	162	1.160
	中金堂~西金堂址間	56.86	187.64	162	1.158
	金堂址~講堂址間	50.73	167.416	144	1.163
	塔址~金堂址間	49.81	164.38	140	1.174
	塔址~1次中門址間	37.57	123.99	106	1.170
	塔址~2次中門址間	43.37	143.13	122	1.173
	塔址~3・4次中門址間	49.87	164.58	140	1.175
東・西 院	東・西單廊址間	64.25	214.064	184~182	1.163~1.176
	東・西僧房址間	173.28	571.85	490	1.160~1.167
	東・西金堂址間	113.82	375.62	320	1.173
	複廊址間	170.79	563.61	480	1.174
	鐘・經樓址間	124.38	410.46	350	1.173
講 堂 址 區	1次中門~講堂址間	138.12	455.79	390	1.168
	2次中門~講堂址間	143.91	474.93	405	1.170
	3・4次中門~講堂址間	150.69	497.28	425	1.170
伽 藍	外廓담장 址南・北間	284.12	946.97	810	1.169
	外廓담장 址東・西間		958.737	820	1.169

▲ 皇龍寺 鷲尾

區分	建物址名	上 層 基 壇				下 層 基 壇				柱 間				備 考
		曲 尺	高麗尺	對角의 길이	換算比	曲 尺	高麗尺	對角의 길이	換算比	曲 尺	高麗尺	對角의 길이	換算比	
皇 龍 寺	木塔址	94.7	80.5	113.8	1.176	112.79	96	135.7	1.175	73.095	63	89.1	1.160	7칸×7칸
	金堂址	171.6×88.77	146.147×76	164.59165.48	1.1751.167~1.168	182.96×100.02	158×86	180	1.158~1.163	148.45×65.51	126×56	137.88	1.1698×1.178	7칸×4칸 (차양제외)
	中門址	88.11×41.58	75×36	83.19	1.155×1.175					55.44×27.12	48×24			1次中門址
										69.3×28.71	60×25			2次中門址
										62.7×28.05	54×24			3次中門址
										77.55×31.02	65×24			4次中門址 (5칸×4칸)
	講堂址	173.58×69.63	150×60	160.55	1.157~1.160					161.9452.35	140×45	147	1.158×1.163	
寺	東金堂址	112.5×62	96×53	109.7	1.170×1.171	126×75	108×64	125.5	1.167~1.172	102.54×50.78	88×44	98.39	1.154~1.165	
	西金堂址	118.67×66.68	100×57	115.1	1.175~1.180					100.4×49.63	86×43	96.15	1.154~1.167	
址	單廊址 (東・西)									10.56×420.75	9×364		1.156~1.173	
址		基 壇 (短邊幅)				柱 間 (短邊幅)								
		曲 尺	高麗尺	換 算 比		曲 尺	高麗尺	換 算 比		曲 尺	高麗尺	換 算 比		
	2次複廊址			1.170		17.49	15			23.76	(唐尺 24尺)		1.166	
	3次複廊址					30.03	26			23.76			0.99	
	4次 (東)	43.56	37	1.170		28.38							1.155	
	(南)	31.35~33	27~28	1.160~1.178										
	(西)	44.55	38	1.170										
	僧房址	50.82	44	1.155		38.61×379.5	33×324						1.170~1.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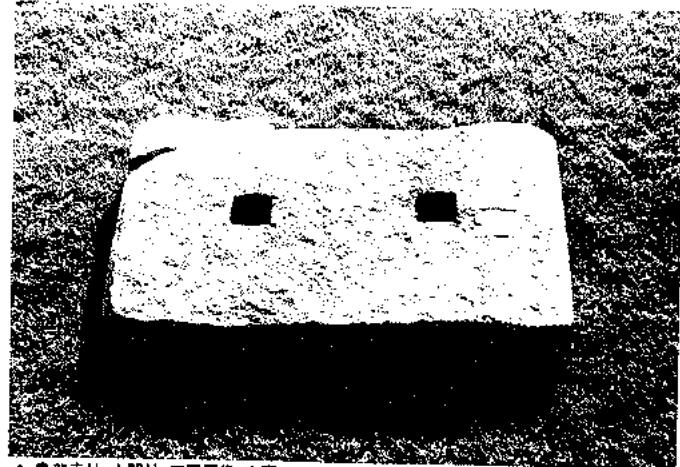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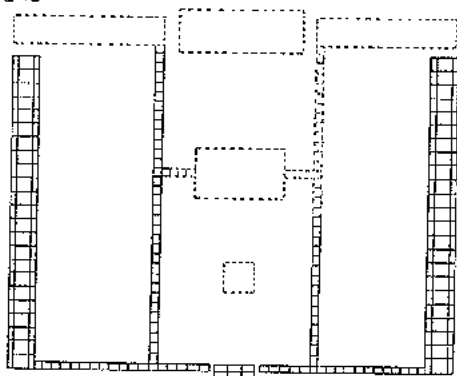


▲ 皇龍寺址 中金堂址 丈六尊佛像座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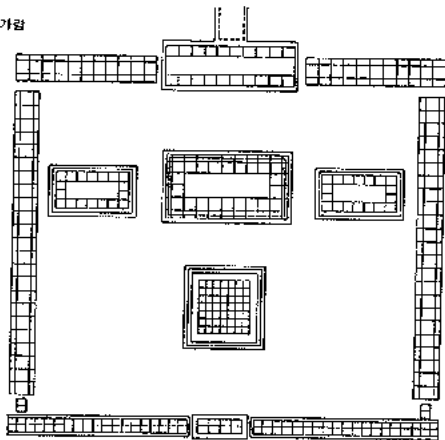
▲ 皇龍寺址 木塔址 心礎石 上面의 사리공

청간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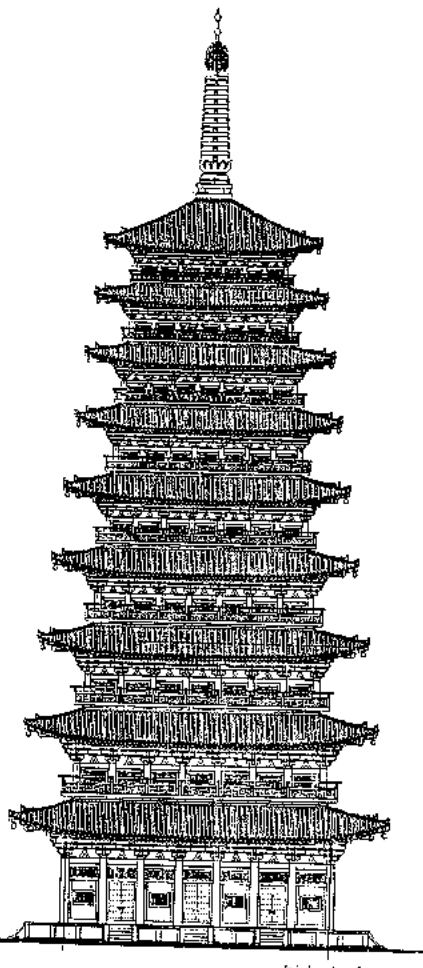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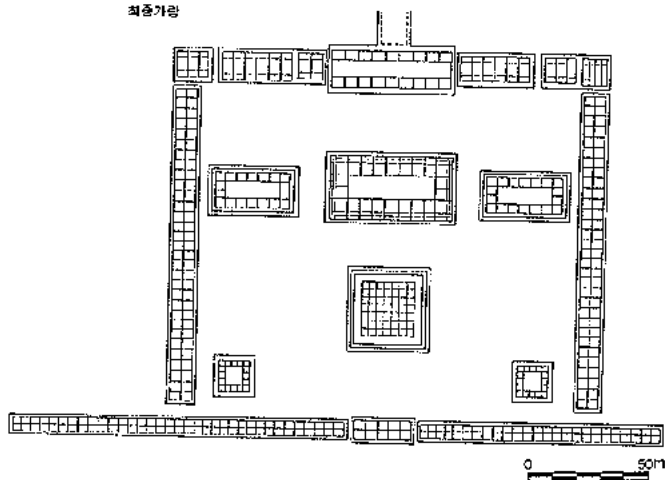


▲ 皇龍寺址 中門址 四天王像 座臺

중건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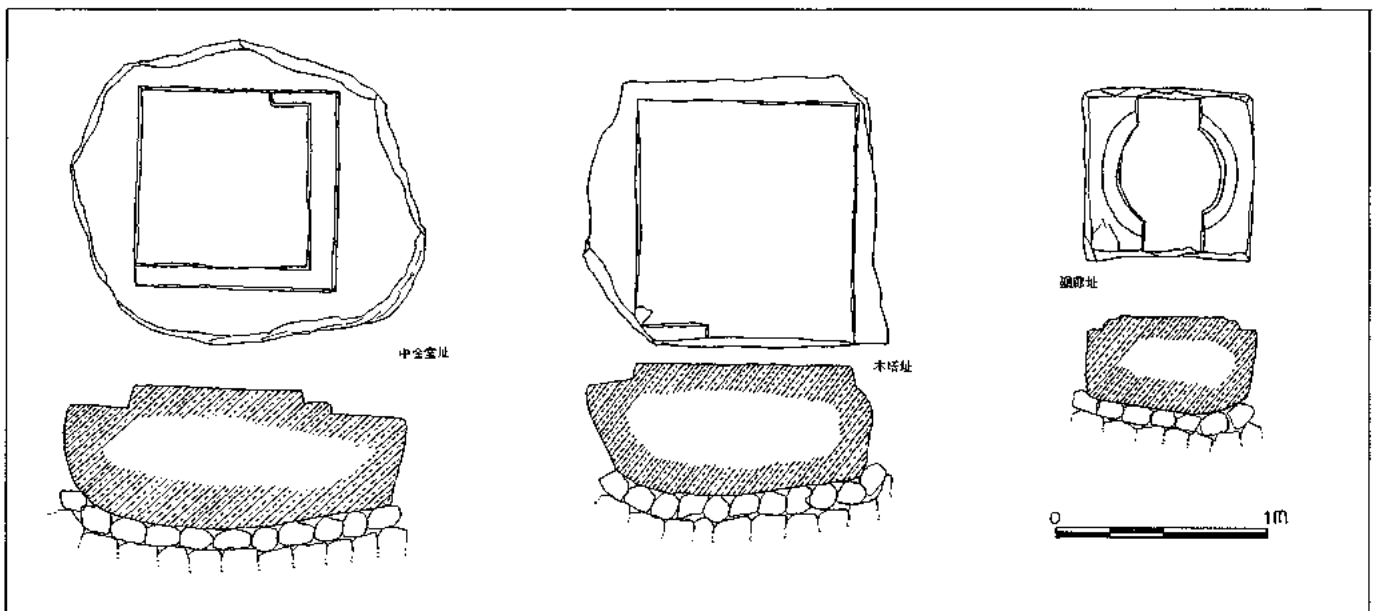


최종가람



▲ 皇龍寺址 伽藍 면천도

▲ 皇龍寺 木塔 推定 復元圖



▲ 皇龍寺址 各 建物址別 礎石 및 積心石

위한 대문을 달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양측협칸은 金剛力士像 좌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강역사상을 놓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대좌의 크기는 긴 변이 약 2m, 짧은 변이 1.3m, 높이가 82cm인데 上面에 像을 고정시키기 위한 方形孔이 있었다.

이상 황룡사지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간추려 기술하고 기타의 내용은 생략하였는데 끝으로 황룡사지에 나타난 영조척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황룡사에 사용된 영조척은 당초 東魏尺 즉 高麗尺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금 사용하는 曲尺과의 환산비는 고려척 1척이 1.155곡척에서부터 1.176곡척의 비를 나타내어 建造時期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후대에 개축된 건물의 주칸은 당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사용된 척도도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었다.

황룡사는 3금당 1탑식의 완성된 가람을 이루기까지는 553년에서부터 645년이라는 큰 1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이 걸린 것이다.

2) 芬皇寺

분황사는 황룡사지 북쪽으로 좀 떨어진

위치에 놓여 현재도 그 模塼石塔이 3층까지 남아 있다. 황룡사지 북단에서 거리로 보아 100여m 내에 위치하여 당초부터 황룡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찰로 추정된다. 『三國史記』善德王條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찰은 634년(선덕여왕 3년)에 완성되었다 하며, 또 『三國遺事』에 의하면 분황사 左殿 北壁에 千手大悲 벽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同書 興法조에 龍宮 南에는 황룡사가 있고 北에는 분황사가 있다고 하여 황룡사와 분황사 사이에는 용궁터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同書 塔像條에는 755년에 분황사의 약사여래불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306,700斤이라 하였다. 분황사탑에 대하여는 『東京雜記』에는 〈분황사 탑은 9층탑으로 신라 3寶 중에 하나였는데 임진란때 적에 의하여 그 반이 훼손되었고 그 후 여러석은 중에 의하여 개축한다고 그 반이 망가졌다〉라는 기록이 있어 원래 9층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탑의 3층만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일제시 수리로 형성된 것으로 원형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탑은 비교적 높은 방형 기단위에 놓였는데 기단의 네 귀에는 돌로 조각된 瑞獸들이 배열되었다. 1층 탑신 4면 중상부에는 감실을 두어 석분을 달았다. 감실의 양측 門楔柱石 면에는 인왕상을

부조하였고 그 앞에는 뗏들을 놓았다. 석탑에 사용된 돌은 30~45cm 크기에 두께 4.5~9cm의 흑회색 안산암이다. 일제 수리시(1911년)에 2층과 3층 사이에서 석함과 그 안에 사라창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유물중에는 고려 때의 古銅錢이 나와서 이때에 중창하여 추가 납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8년 분황사 북쪽 담장 이설공사를 위하여 발굴한 바 있는데 발굴결과 現塔과는 축을 달리하는 거대한 건물 적심이 노출되어 이 부근에 대단히 큰 가람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분황사의 정밀조사가 있어야 그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註 □

- 1)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皇龍寺鐘條 「新羅第三十五 景德大王, 以天寶十三甲午, 鑄皇龍寺鐘, 長一丈三寸 厚九寸…」
- 2)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蹟發掘調查報告書Ⅰ, Ⅱ, 1984.
- 3) 拙稿, 皇龍寺址를 中心으로 考察해 본 우리나라 古代寺刹伽藍, 大韓建築學會誌 1980年 9~12月號.
- 4) 文化財研究所, 前掲書.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 동방포루마 276-0123~5 FAX 279-1718

建築形態의 理解

Understanding of Architectural Form

金光鉉 /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by Kim, Kwang-Hyun

□筆者註□

이 일련의 글은 建築形態에 대한 의미를 살피고 그 이론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건축의장이라는 영역에서는 건축형태에 대해 설명을 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피상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고, 그 정당한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한 편이다. 대개의 경우 건축의장이라는 내용의 이론들은 조보적인 미술 분야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외장이론으로 확립된 것은 아직은 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우기 建築形態는 이에 대한 뚜렷한 이해없이도 성립될 수 있는 것, 또는 실재와는 무관한 이론적인 조작이나 미학적인 유희로만 여겨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태도는 앞으로 계속될 일련의 글에서도 지적되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만 발견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과 관계에 의한 것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회에 예상하고 있는 이 일련의 글은 建築形態에 대한 이론들을 재정리하고 그것들을 평이하게 소개함으로써 建築形態가 얼마나 건축이론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논리로 일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단편적인 지식에 머무른 것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재의 대부분은 建築形態의 이론을 실제의 건축작품과 비교하여 가급적 구체적이며 구체화된 문맥에서 이해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들을 집약적으로 서술함으로써 建築形態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한다.

金光鉉

53년 경복생, 서울대 건축과(1975), 동대학원 석사(1977) 과정 수료, 동경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공학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1. 왜 建築形態에 주목해야 하는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지극히 보편적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주위에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形態로서 존재하고, 形態가 갖는 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도 보이는 이 사실은 建築形態에 관한 이론을 전개해 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의이며, 동시에 이러한 이해가 없이는 건축의 형태 또는 건축 전반의 문제로 접근해 갈 수가 없다.

우리들이 건축물이 지어질 때의 건설 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유럽이나 국내의 훌륭한 건축물을 찾아 감명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아닌 形態가 갖는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일차적으로는 그 건물이 세워지게 된 동기가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들의 상상력이 자극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의 형태란 감명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의 형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만드는 者인 建築家の 사고가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건축가의 사고란 그것이 아무리 건물의 복잡한 프로그램과 얽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형태는 본래 그것이 목적이었던지 아니었던지 관계없이 그 복잡한 프로그램의 해결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건축의 形態(form)를 말하는 경우 空間(space)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 건축가의 설계 행위란 空間을 창조하는 것이며, 空間은 생활과 행위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의 중심 과제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空間이란 내용이며 形態는 그 내용물을 담는 容器라고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윤리적으로 이해하여 내용이 되는 空間은 중시하지만 그 반면에 形態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수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건축가는 벽이나 기둥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거나 생활을

수용하는 것이며, 오로지 虛體로서의 공간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축가의 사고는 형태라는 實體와 관계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더우기 建築形態가 건축 전반에 대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意味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형태에는 形式(形相)과 內容(資料)라는 두 가지의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이것은 형태는 형식이고 공간은 내용이라는 소박한 이분법과 비교가 된다). 말하자면 형태는 순수한 기하학만이 아니라 반드시 건축으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용이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공학기술적인 다양한 의미를 말한다. 건축의 형태가 공간과 크게 다른 점은 공간이란 물리적인 크기나 공간적인 효과를 가질 수는 있어도,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의미를 모두 내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建築形態가 意味를 담당함으로써 생긴 개념으로서 역사적으로 성립된 것으로는 性格(character), 象徵(symbol), 表現(expression), 紀念性(moumentality), 記憶(memory), 傳通(tradition) 등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70년대 이후 논의되어 왔던 한국건축의 전통적인 표현 문제는 단적으로 건축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관련된 것이었다.(그림 1) 비록 그 논의가 건축형태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민족적 자립성을 상징하고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것을 현대라는 관점에서 구현하려 한 시도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노력은 과거 건축의 양식이나 외형을 차용하거나 변형하려 하거나 현대적인 기능과 전통적인 형태와의 조화라는 문제로 바뀌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논의가 객관성을 잃자 형태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공간구성의 응용이라는 관점으로 그 방향이 바뀌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건축형태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을 담당한다는 것과, 건축형태의 문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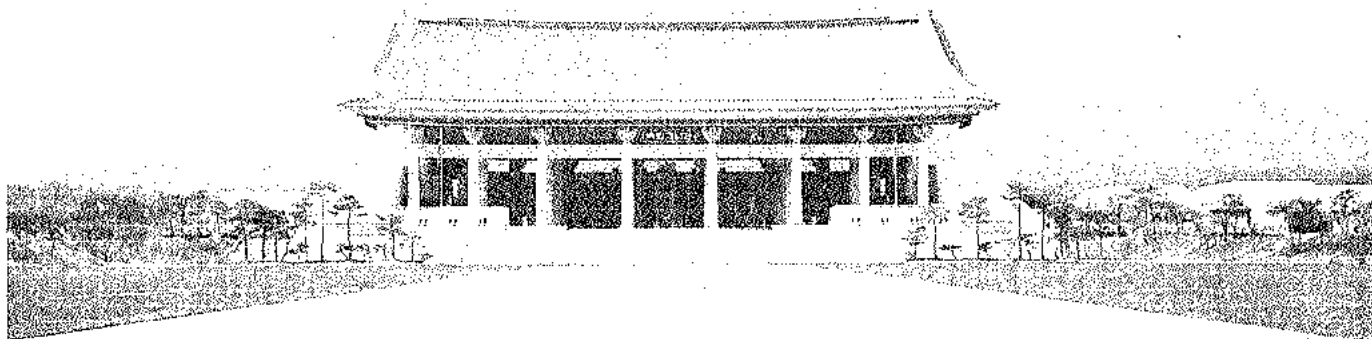


그림1 독립기념관

단순히 미학적이거나 개인적인 관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문화 전반의 현상과 직접 관련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樣式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다도 建築形態의 문제는 건축 전반과 직접 관련되는 건축가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樣式(style)이란 사회 전반에 있어서 공인된 특정한 시대의 건축 개념을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形態의 結合體系이다. 또 그것은 명확한 원리와 방법을 내포하면서 그것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것이다. 양식이 양식으로서 충분히 확립된 상태에서는 마찰없이 그 시대의 사회와 경제 그리고 기술과 대응할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양식은 사회 전반으로부터 공인될 수가 없다. 따라서 건축가는 이같은 틀 안에서 공인된 양식에 의존하거나 또는 이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형태 논리와 수법을 설정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노베르크 슐츠(C.Norberg-Schulz)도 지적하였듯이, 건축이란뿐만 아니라 건축사의 중심 문제는 「이런 특정한 시대의 건물은 왜 특정한 형태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樣式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樣式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과거의 형태를 모방하기 위한 분류가 아니다. 그리고 樣式은 형태의 요소와 관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체계를 가리키는 形態言語이지, 기능이나 공간 또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류된 개념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에 나타나는 여러 장르의 건축들, 즉 고딕이나 르네상스, 바로크나 절충주의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은 단순히 형식상의 분류가 아니라, 건축 그 자체가 고유한 형태적 전통과 내재적인 논리에 의해 전개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건축사에 나타나는 양식의 변천을 建築理論의 변천이라고 본다면, 建築理論의 역사적 전개는 곧 建築形態論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2. 建築形態는 機能의 자동적인 산물인가

近代建築은 1920년대 확립된지 반세기가 지난 이후부터 다시금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정통적인 近代建築理論은 대체로 「形態는 機能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명제로 형태의 생성 원리를 집약함으로써, 건축을 기능이나 경제 또는 공학의 합리적인 체계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기능 관계에 의한 합리적 체계는 너무나도 단순 명쾌하여 다양한 현대생활에 대응해 나가기에는 무력하였다.

근대건축을 대표하는 機能主義(Functionalism)의 입장에서는 형태는 선형적으로 미리 주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형태에 이은 명확한 과정이 없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두가지 입장 중 하나를 택한다. 機能主義에는 유기적인 것이야말로 기능적이라고

보거나, 기계를 최선의 기능적인 산물로 보거나, 아니면 창조된 것은 모두 목적을 갖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건축은 기능적이라고 보는 등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어느 것이나 「형태는 기능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機能主義의 주장 자체도 대부분은 表現의 問題, 美學의 問題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機能主義는 형태가 기능의 자동적인 산물로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건축을 무인가의 형태적인 類推(analogy)⁴로 보고 그 출발점으로서 생물의 類推, 기계의 類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기능주의를 위주로 한 근대건축의 정통적인 이론들은 결과적으로 건축의 형태 문제에 정면으로 대결하기를 회피하거나 부정하였으며 아니면 이에 대하여 침묵하였다.⁵ 예를 들어 「우리는 모든 미학적인 思辨, 모든 敎義, 모든 形式主義를 거부한다. 건축은 공간으로 번역된 시대정신이다. 건축은 살아 있는 것이며 변화하는 것이며 새로운 것이다... 우리들은 形態의 문제를 거부하고 건설의 문제만을 인정한다」는 미스 판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1923년, 1925년)의 언명은 형태에 대한 근대건축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대건축이 형태에 관한 논의를 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먼저 古典主義와 고딕이라는 절대적인 양식의 틀이 붕괴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8세기 이전에 있었던 형태의 안정된 관계는 없어지고, 형태를 미학적으로나 양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인식 기반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당시 경직화되었던 보자르(Beaux-Arts)의 고전주의적인 형태 이론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 때문에, 간접적으로 형태를 정면으로부터 논한다는 것이 타부시되었던 것도 근대건축이 反歷史의이며 反形態의인 태도를 취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둘째로 이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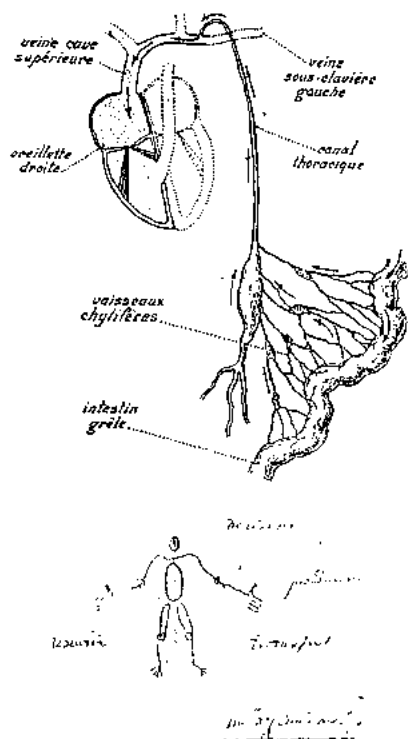


그림2 Le Corbusier에 의한 건축과 도시의 생물학적 類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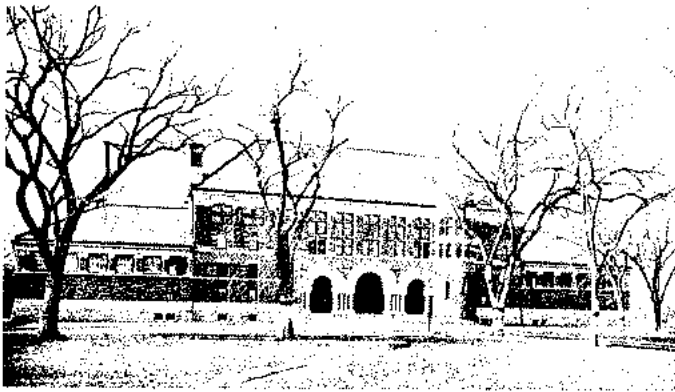


그림3 H.H. Richardson의 Austi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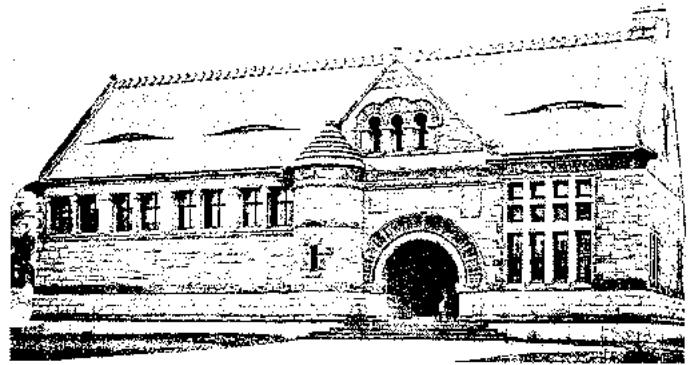


그림4 H.H. Richardson의 Crane 기념 도서관

양식에 의한 공통의 인식 기반 대신에 기술적, 사회적인 설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근대 과학과 사회 혁명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 준다고 믿었으며, 건축의 여러 분제만이 아니라 건축의 조형까지도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결정해 줄 것으로 믿었다. 한편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혁명을 통하여 민중이 모든 것을 결정해 가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사상이 널리 유포됨으로써, 근대건축의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개혁의 프로그램이 건축이나 도시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건축의 건축가들은 새로운 시대의 건축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그 이전의 상투적인 역사적 형태의 논리가 아닌 별도의 도그마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디까지나 건축을 外在적인 조건으로만 설명하려 하거나, 건축의 형태를 기능의 자동적인 산물로 이해하는 태도에는 끊임없이 건축의 본질을 회피해야 한다는 무리가 뒤따른다. 技術이나 합리적인 방법은 건축가에게 새로운 표현 방법과 가능성을 줄 따름이다. 또 프로그램이나 時代精神이 건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것은 설계에 대한 일종의 제약 조건 또는 개략적인 방향 설정으로서만 작용할 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形態는 機能과 일 대 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機能은 설계조건(프로그램)이라는 건축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 조건들을 조직화하는 것일 따름이다. 예를 들어 형태가 과연 기능과 일 대 일 대응하는 것이라면,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실시되는 현상설계의 여러 안들은 반드시 동일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약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안이 가능한 것은 기능이 형태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동시에 형태는 별도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결국 건축가가 이러한 제약 조건

밑에서 실제의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건축가 개인의 상상력과 미학에 의한 것이다.

3 建築形態論이란 무엇인가

건축형태는 건물의 프로그램의 차이를 넘어 공통의 형식을 갖는다. 어떤 시대 또는 어떤 문화의 공통적인 양식을 논하는 樣式論이란 이러한 사실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5세기 이탈리아 건축에 교회당이나 저택이라는 사용 목적의 차이를 넘어 존재하는 형태적인 특징을 부정한다면, 르네상스 건축에 관한 연구가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작가론도 어떤 작가의 작품군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형태의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가의 작품들 속에 공통적인 형태의 특징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특정한 작가를 연구한다는 영역에서만 아니라, 현재 설계해 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논리이다.

건축가는 건물을 구상할 때 흔히 건물의 유형을 넘어 공통의 형태를 사용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건축가가 건물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부정하거나 경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건축적인 사고 속에서는 프로그램의 形態를 통해서 구상되고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H.H. Richardson의 하버드 법학부 건물인 Austin Hall (그림 3)은 그 직전에 설계한 Quincy의 Crane 기념 도서관(그림 4)의 초기 구상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구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의 유형이나 프로그램은 달라도 공통적인 형태가 통합력을 가지고 유효하게 작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형태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일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형태가 기능을 생성시키거나 발견해 준다. 건물의 프로그램은 건축가의 설계 작업에 앞서서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만일 건물이 프로그램의 규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 건물은 빈약한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건축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건물이 새로운 사용 목적에 대응하여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다든가, 중세의 도시가 현대적인 사용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技術만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지도 않으며, 또 새로운 형태가 항상 새로운 기술에 의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옛 형태 속에 이미 존재하는 수도 있다. 르네상스 건축이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건축형태의 새로운 해석 대문이지 결코 새로운 구조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르네상스 건축이 타개하려 한 고딕 건축에 의해 크게 뒤떨어짐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근대건축의 발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근대건축의 발전을 19세기의 공학 기술, 특히 철골 구조의 발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고층의 사무소 건축이 철골 구조의 발전으로 완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만으로 건축의 전반적인 발전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마천루라 불리었던 최초의 고층 사무소 건축은 1877년에 완성된 Western Union Building과 Tribune Building (그림 5)이지만, 모두 거대한 오더와 만사르 지붕으로 된 프랑스 第2帝政樣式의 건물이며 그 구조도 전통적인 조적조로 되어 있다.

한편 1960년대 후반부터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건축형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하나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생활적 요구 조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 프로세스 속에서 형태를 합성해 간다는 태도이다. 이것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의 『形態의 合成에 관한 노트』(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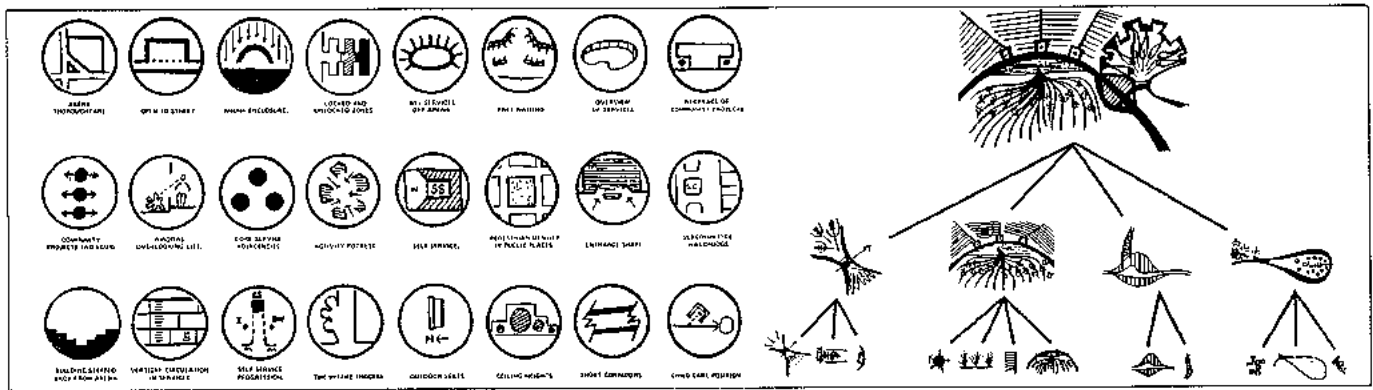


그림6 C.Alexander의 Pattern language에 의한 형태의 합성과 2차 시스템

조건의 전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것을 조건간의 유사성으로 분해한 후 몇 개의 2차 시스템(subsystem)을 만든 다음, 각각의 2차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래픽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이것들을 하나의 형태로 합성해 간다는 입장이다. (그림 6) 「if-then statement」(if : 전제 조건, then : 해결 방법)로 이루어진 「Pattern language」는 마치 단어와 문장과의 관계처럼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 언어가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객관적인 요구 조건에 대응하여 형태의 문제를 풀어 간다는 수학적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열려 있기 때문에 끊임 없이 수정을 반복해야만 한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는 건축의 역사적인 사례와 문화 현상을 근거로 하여, 형태의 구성원리를 분석해 간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建築史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건축이론의 한 분야로서 성립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의 강의 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건축과의 관계 속에서 형태의 존재 형식과 건축의 원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사변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건축론과도 다르다. 이러한 태도의 대표적인 예는 로버트 벤투리(Robert Venturi)의 『建築의 複合과 對立』(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이다. 그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역사적인 사례를 종횡으로 사용하여 근대건축의 순수주의와 그 반감을 공격하고, 다양성과 복합성을 내포하는 설계방법론을 전개하였다. 건축형태에 대한 이같은 태도는 역사를 단순한 양식의 변천사로 보거나 실증에 없는 평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역사에 근거하여 건축가 자신에 의한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건축의 설계 행위를 경험의 세계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론화하고 그

전체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建築形態論이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의 형태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內在的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건축형태에 대한 분석이 작품의 해석에 대해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설계에도 유효하도록 의도된 건축설계 이론의 한 분야이다. 작품 연구나 작가 연구라는 분야에서 이루어진 建築意匠 또는 建築史의 연구도 역시 건축형태론과 마찬가지로 건축형태를 그 대상으로 삼아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建築形態論은 이 연구영역과 공통성을 갖고 있으며, 그 인접영역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영역과 建築形態論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건축에서의 形態論은 건축이 어떠한 形態要素(element)에 의하여 성립하는가, 그 요소들은 서로 어떤 關係(relation)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요소들과 관계는 어떤 意味(meaning)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를 논한다. 그것은 구체적인 건축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만, 다음과 같이 다른 건축의 연구 방법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⁴⁾

- ① 건축 작품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작품 이외의 사상, 사회, 기술 등과 같은 조건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에 내포되어 있는 내적인 관계로 설명하려 한다(建築批評과의 대비).
- ② 건축의 외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적인 조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내부를 규정하고 있는 전체적인 조건을 문제시한다(建築設計學과의 대비).
- ③ 건축의 어떤 요소의 발전이나 시간적인 관계를 문제로 삼지 않고, 類型으로서의 共時的인 관계를 문제로 삼는다(建築史와의 대비).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建築形態論이라는 특정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건축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이해될 때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註□

- 1) Christian Norberg-Schultz : Intentions in Architecture, MIT Press, 1968
- 2) Edward Robert De Zurko : Origins of FUNCTIONALIST Theory, 1957
- 3) 이에 대하여는 David Watkin : Morality and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77과 金光鉉 : 「現代建築에 있어서의 形態의 復權」, 건축과 환경 8411을 참조.
- 4) 香山壽夫 : 「建築 形態分析」, A + U 7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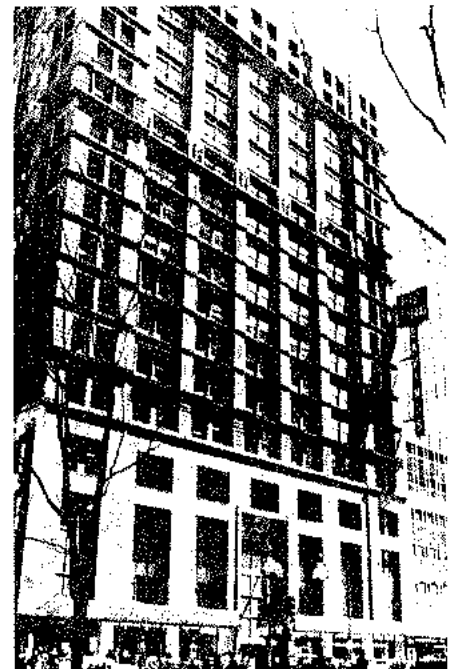


그림5 Tribune Building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要素(4)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Proper Theater for the Traditional Korean Dramas

金基哲 / 工學博士,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

by Kim, Kee - Chul

IV. 傳統劇 野外公演場의 현지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1. 傳統劇 野外公演場에서의 適用

가. 楊州別山台 野外公演場

한적한 마을 뒷편에 位置하고 있어 周圍環境을 演戲하기에 좋으나, 南側 약 150m 지점의 東西로 놓인 350번 국도를 지나는 대형차의 騒音이 가끔 발생되고 있다. (그림 1)에서 입구쪽을 제외한 주변은 자연적인 景觀에 둘러쌓여 傳統假面劇의 公演環境은 良好하지만 주변마을의 규모가 작아 觀衆動員은 쉽지가 않다. 舞臺面積은 323㎡ 정도이나 좌석의 視線條件에 의해 좁아지고 있으며 有效面積은 32% 정도인 103㎡ 정도이다. (그림 2)

화강석으로 설치한 座席은 폭 800mm 높이 270mm이며 全 客席의 면적은 263㎡로서 受容人員 약 580명 정도이다. 音像方法에 의거 객석의 音響狀態를 分析한 결과는 演戲者가 뒤돌아 섰을때 音의 明暗度 85% 정도에 있는 部分이 뒷쪽 客席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受容人員에 비해 舞臺面積이 過多하게 크기 때문에 객석이 밖으로 밀려난 결과로 보인다. 舞臺面積은 잔디로 덮여있고 樂士席이 客席西側에 4.3×4.3m 크기로 設置되어 있다. 照明燈으로는 水銀燈이 公演場의 네모퉁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樂士席 뒷편 양쪽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다.

나. 殷栗탈춤 野外公演場

市街地 中心에 있는 대규모 시민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市街地騒音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며, 垜地西側 뒷쪽으로 公園內 道路가 있고 도로 건너편에 遊園地施設이 있어 騒音發生源이 되나 公演場의 上部에 位置하고 있어 公演場에 直接的인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公演場은 文化會館廣場의 서측과 남측이 경사지에 雜木群으로 막혀 있고 傳修會館 옆 북측으로 멀리 市街地의 景觀이 있다.

舞臺의 規模는 224㎡로서 假面劇演戲에 다소 크며 公演場의 陪騒音은 50 dB(A) 정도이나 가끔 53 dB(A) 정도의 騒音이 발생되고 있다.

다. 水營野遊 野外公演場

住居地內의 市民公園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측과 북동측은 트여있어 遠景으로 시가지가 보인다. 騒音 등의 장애요소는 없어 公演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현재 傳修會館만이 건립되어 있고 公演場施設은 공사예정이며 傳修會館 地下層에 연습장이 있다. 過去 演戲되던 언덕 위의 넓은 空地로써 무대의 規模 등을 고려할때 여유空地가 있으며, 觀客들 觀覽하던 남측 傾斜地에는 松林이 있어 景觀을 운치있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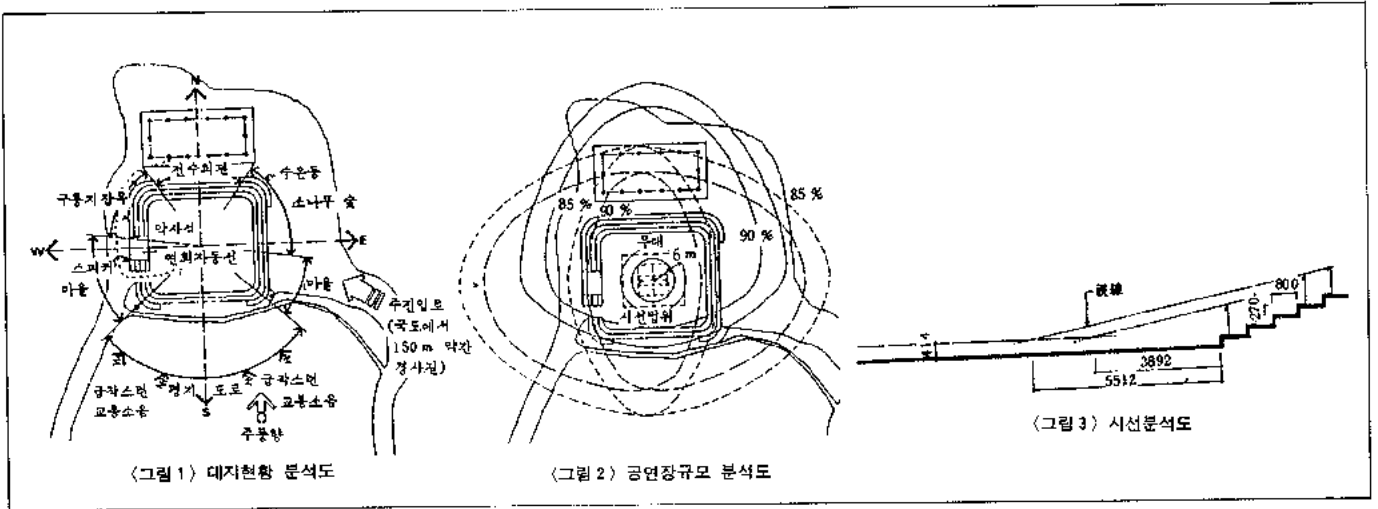
라. 東萊野遊 野外公演場

東萊溫泉場公園內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가지와는 멀리 떨어져있다. 市街地騒音의 영향은 없으며 公園內 遊園地騒音이 가끔 있다. 주위는 소나무숲으로 둘러쌓여 있어 아늑한 環境을 造成하고 있으나 傳修會館과 公演場의 높이차이가 약 5.3m 정도이며, 공연시 매경으로 하는 전수회관을 客席에서 볼때 위로 올라다 보기 때문에 舞臺面에 대한 視線과 반대가 되어 公演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舞臺의 규모는 393㎡로서 假面劇의 算定된 무대규모에 비해 매우 크며, 民俗놀이 등에 이용되고 있어 公演場 북측에 그네가 설치되어 있다. 視線에 의한 유효무대면적은 70% 정도인 약 277㎡이다.

마. 國立劇場 野外民俗公演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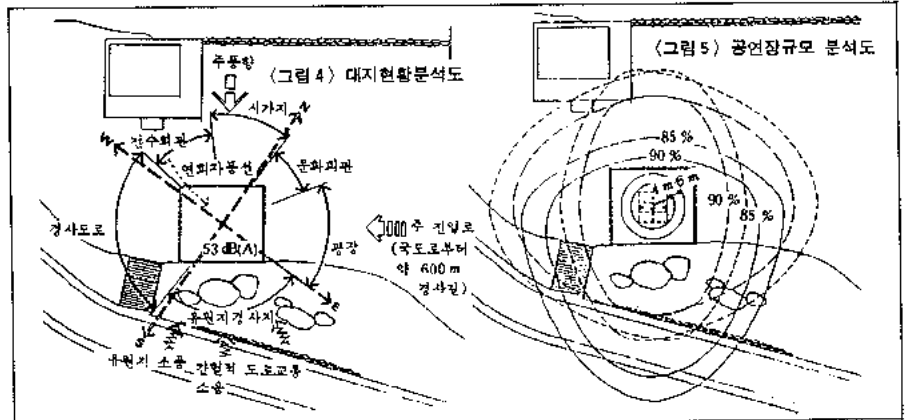
南山 북동측 기슭에 있는 國立劇場內에 있으며 극장건물이 서측 2면을 막고 나머지 2면은 주차장과 광장이 있다. 북동측에 國立國樂學校가 보이며 동측으로는 멀리 市街地가 보인다. 공연장은 劇場外觀과 座席의 높이로

◆ 金基哲
1944년 서울생으로 홍익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후 87년 博士學位 取得, 현재 弘益大, 建大에 출강하며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을 자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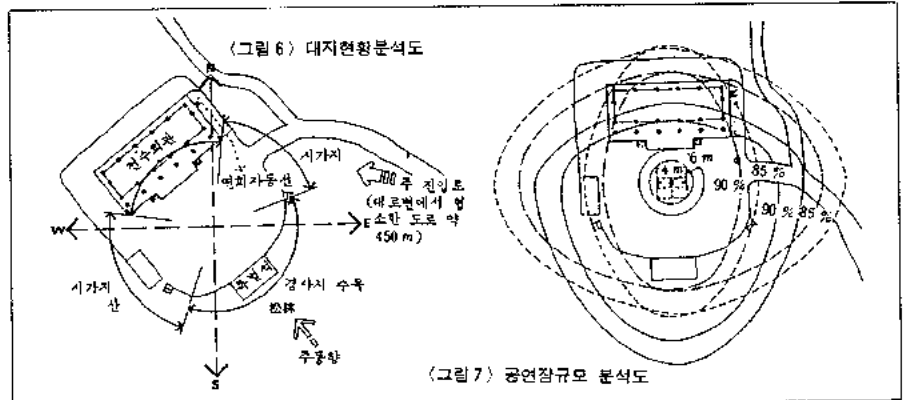
▲ 양주 별산대 야외공연장

들러쌓여 있다. 공연장의 남동측 廣場 아래쪽에 도로가 있어 廣場 끝부분에서의 騒音度는 57 dB(A) 정도로 높으나 廣場의 거리로 公演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廣場과 주차장의 잡음영향이 크다. 공연장 주위의 暗騒音은 53 dB(A) 정도로 높은 騒音度를 나타내고 있다. 객석을 向하여 6개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고 照明燈이 4개소에 配置되어 있다. 舞臺의 규모는 567㎡로서 傳統劇演戲時에는 매우 넓으나, 民俗놀이系統의 演戲를 위한 것이다. 좌석의 視線은 경사도가 낮아 舞臺面의 有効面적을 51% 정도로 감소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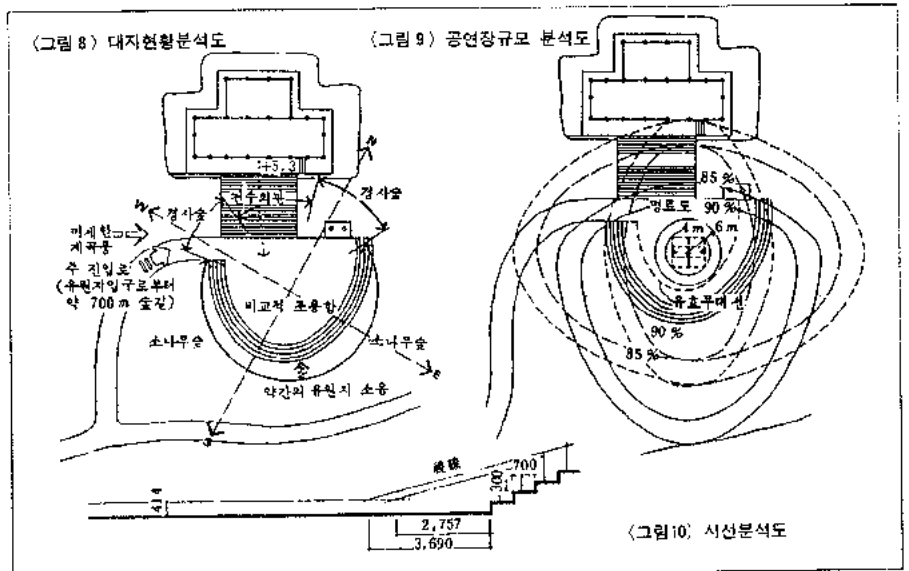
▲ 은평탈춤 야외공연장

바. 韓國民俗村 野外公演場 觀光園地인 韓國民俗村內에 觀光객을 위한 施設로써 건설되어 있다. 주위환경은 옛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으며 조용한 自然狀態를 유지하고 있다. 公演場內 騒音은 觀光객들의 騒音程度이다. 公演場은 平均地盤에서 1.5m 정도 파내려간 形態로 되어 있고 경사면은 좌석으로 이용하고 있다. 舞臺의 規模는 232㎡로서 農樂놀이 등에 알맞으며 假面劇演戲時는 여유가 많다. 좌석은 스텐드좌석식으로서는 다소 앞뒤간격이 넓은 900mm로써 視線狀態는 相對的으로 不利하게되어 有効무대면적을 33% 정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동북측을 제외한 객석의 3/4정도는 自然形態의 木材로써 파고라를 설치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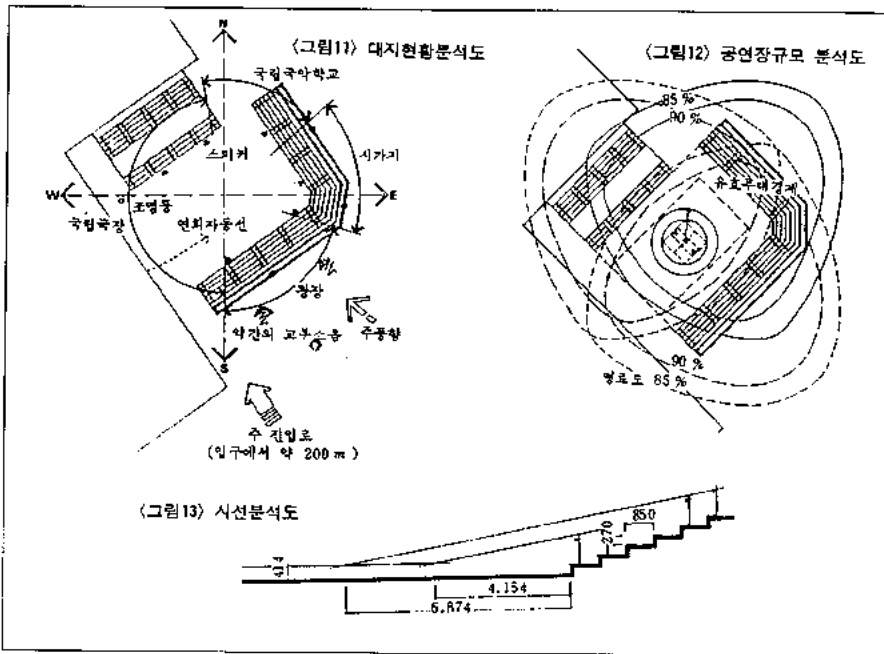


▲ 수영마을 야외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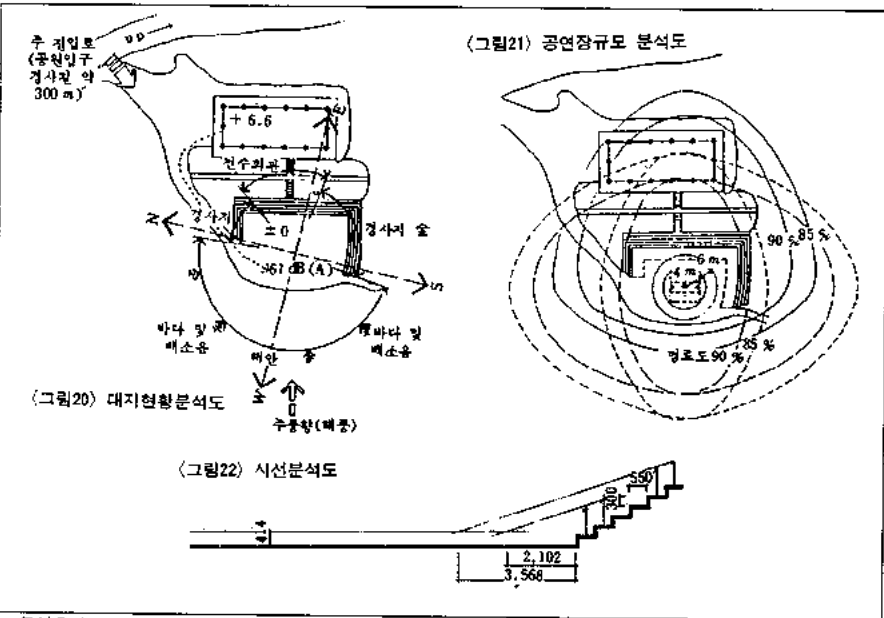
사. 松坡山臺 公演場(서울놀이마당)의 調査分析 아파트단지와 商街地域사이의 湖水公園 옆에 公演場이 있으며, 서측은 5層아파트群, 북측은 건설중인 商街建物이 있으며 남측과 동측은 湖水公園이다. 公演場의 音環境은 騒音度가 상당히 높은 57 dB(A) 정도이며, 서측과 북측의 폭25m, 4차선도로에서의 車輛騒音과 북측도로 건너편 공사장의 騒音이 主騒音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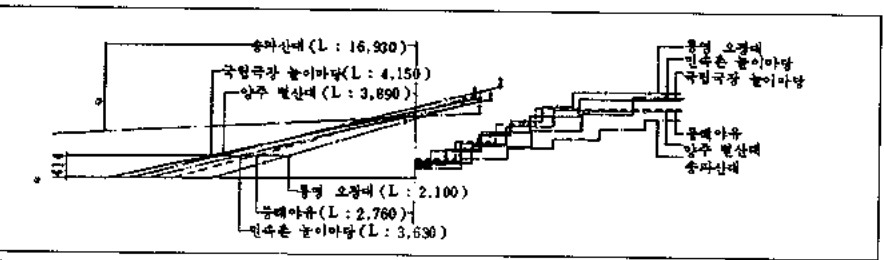
▲ 동래마을 야외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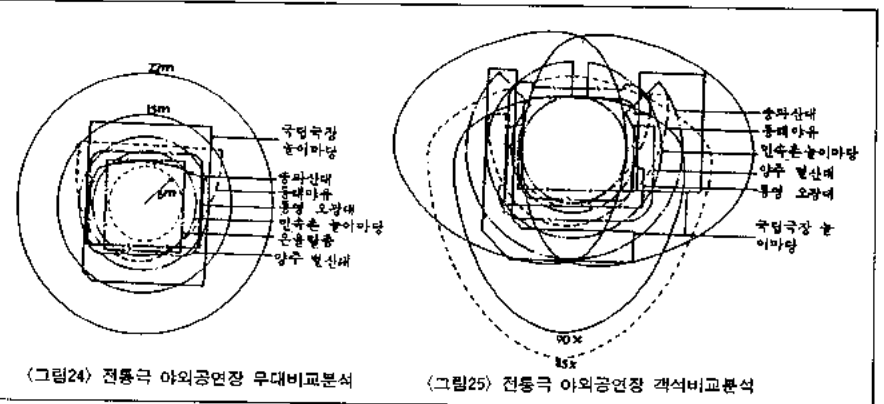
▲ 국립극장 야외 민속공연장



▲ 용영오폐대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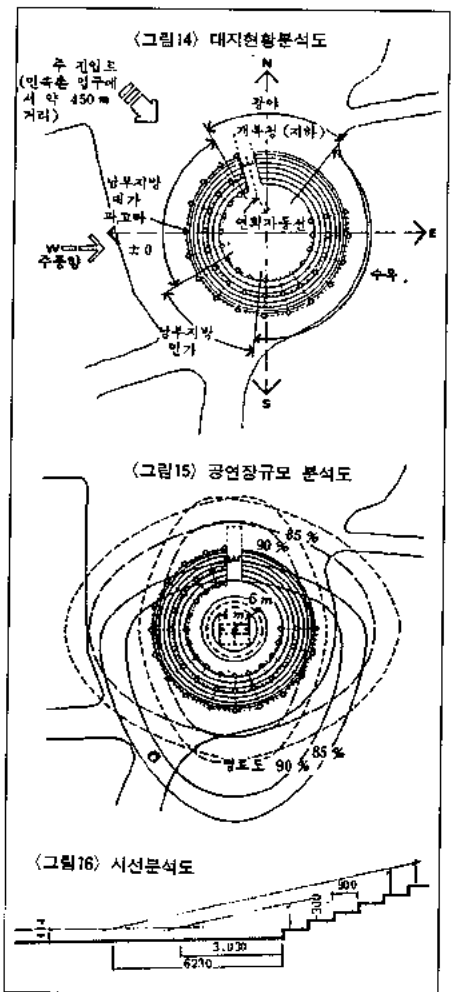


◁ 그림23) 전통극공연장 시선분석종합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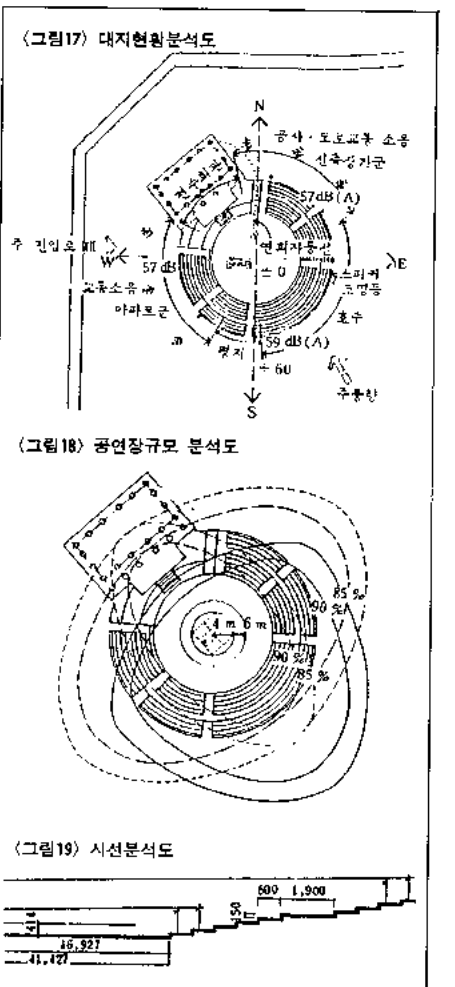


◁ 그림24) 전통극 야외공연장 무대비교분석

◁ 그림25) 전통극 야외공연장 객석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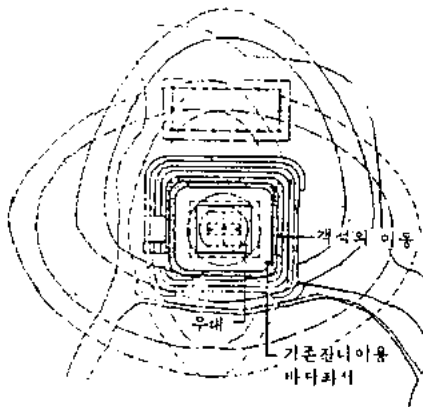


▲ 한국민속촌 야외공연장



▲ 송파산대 공연장 (서울놀이마당)

〈그림26〉



▲ 양주벌산대 야외공연장 개선안

판단되며, 농축과 서측의 湖水公園內에서 관광객들의 騒音이 포함되어 公演場의 騒音環境을 이루고 있다. 公演場은 원형으로 되어있으나 客席의 段이 낮아 音의 集中環境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舞臺의 規模가 459m²로서, 넓기 때문에 客席 뒷편은 演技者가 台詞를 할때 제대로 傳達되지 않고 있다. 〈그림17〉 참조 座席의 크기는 앞뒤간격 800mm, 높이 15mm로 합당하다고 보이나, 객석의 경사도가 낮아 視線이 앞사람에 가려져 公演觀覽時 不便을 초래하고 있다. 現狀態에서 騒音度는 서측도로변 대기경계에서 59 dB(A), 북측도로변 61 dB(A) 정도인데 북측도로의 경우 工事場騒音이 합쳐져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측, 북측과 로타리에서의 騒音이 동시에 발생되었을때 公演場 전체내지의 騒音度는 計算値로서 〈그림18〉과 같다. 公演場 외부부분의 騒音度는 測定結果 57 dB(A) 정도인데 計算値와의 차는 公園內 他地點에서의 騒音과 복합된 결과로 판단된다. 좌석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舞臺의 바닥은 흙을 잘 다져놓은 상태이다. 客席 뒷편 6개소에 水銀燈과 스피커가 公演場을 향해 配置되어 音의 상태가 좋지 않은 公演時 音의 간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 統營五廣大 公演場의 調査分析 市街地에서 떨어진 港口에 돌출되어 있는 公園의 중턱에 공연장이 있어 서측으로는 港口를 건너 멀리 옛놀이터인 龍華寺계곡이 보이고, 북측으로는 港口와 市街地가 한눈에 들어오는 景觀을 가지고 있다. 동측과 남측일부는 傾斜面이고 동측 傳修會館 뒷편 상부에 公園內 도로가 있다. 公演場의 音環境은 騒音度가 測定値 61 dB(A) 정도로 매우 소란한 환경으로 主騒音源은 公演場 서측 아래쪽 港口에서 出入港하는 선박의 엔진소리와 뱃고동소리이다. 公演場에서 港口까지 직선거리 약 100m 정도로서 公演場內의 騒音은 位置別로 차이가 없이 계산치 0.6 dB(A) 정도이다. 동측도로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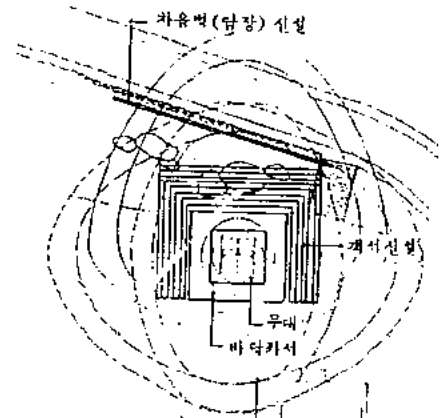
騒音이 예상되나 공연장 뒤편에 있고 他騒音으로 현재 문제되지 않고 있다. 公演場의 객석이 地形을 이용하여 설치되었으나 객석이 항구쪽을 향하고 있어 騒音에 직접 노출되어있고 좌석의 규모는 앞뒤간격이 550mm로서 狹小하게 되어 있다. 높이가 300mm로서 客席의 전체경사도는 視線에는 良好하게 시설되어 있다. 舞臺의 규모는 215m²로서 五廣大假面劇演戲에는 다소 크게 되어있으나 公演場이 남북으로 길게 配置되어 남북측客席에서 音의 明瞭度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좌석은 시멘트부력을 段지게 쌓아 이용하고 있어 바닥상태가 不便하게 되어 있다. 舞臺의 바닥은 흙을 다져놓은 상태 그대로 되어있다.

자. 傳統劇 野外公演場의 現地調査分析 綜合

以上の 傳統劇 野外公演場에 대한 現地調査分析 內容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1. 舞臺의 규모는 演戲特性에 비해 너무 넓게 되어 있다. 國立劇場 野外民俗公演場, 松坡山台公演場들은 많은 出演人員이 登場하는 民俗놀이에 敬用되고 있으나, 東萊野遊, 楊州別山台 및 統營五廣大公演場의 경우, 農樂놀이등에 이용되는 韓國民俗村野外公演場의 舞臺規模보다 크게 되어 있고 또한 出演者數와 演戲特性에 따른 一般的인 傳統劇舞臺規模(반경 6m)보다 모두 크다.
2. 客席의 視線分析結果 統營五廣大 2.1m에서 國立劇場 野外民俗公演場 4.1m 정도의 무대면의 縮少를 나타내고 松坡山台公演場의 경우는 舞臺面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 이는 유효무대면적이 現 舞臺面積의 70% 이하로 축소됨을 나타내며, 이러한 視線에 대한 改善는 舞臺面을 縮少시킬때 現在의 유효면적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3. 객석의 分析은 明瞭度 80% 이하 부분이 國立劇場 野外民俗公演場,

〈그림27〉



▲ 온음탈춤 야외공연장

松坡山台公演場, 東萊野遊公演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舞臺의 규모가 큰곳들로서 舞臺面의 유효한 縮少는 客席의 분포를 明瞭度가 높은 곳에 둘 수 있다.

4. 여러 傳統演戲가 公演되는 공연장의 경우 演戲에 따른 무대규모의 多樣性을 考慮하여 視線에 의해 縮少되는 부분에 바닥좌석을 설치하여 客席의 受容能力을 키울 수 있고, 이 경우 舞臺面의 上昇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全客席에서의 視線을 양호하게 만든다.

5. 騒音度의 영향으로 公演環境이 좋지 않을 경우, 遮音壁등의 대책이 요구되어 公演環境을 改善할 수 있으나, 暗騒音이 公演場 全體에 걸쳐 높은 경우, 遮音壁등의 시설이 비경제적인 공연장은 屋內公演場등의 별도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6. 좌석의 狀態로 統營五廣大公演場 座席의 앞뒤간격 550mm는 너무 좁으며, 韓國民俗村 野外公演場 앞뒤간격 900mm는 스탠드형 좌석으로 여유가 있으나, 이경우 좌석의 段높이가 낮을 경우 視線이 좋지 않게 되어, 視線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段높이를 높게하면 좌석이 불편해질 때가 많다.

松坡山台公演場의 좌석높이 150mm는 무릎높이(약 450mm)를 감안하면 너무 낮은데 이러한 좌석의 규모는 객석의 句配를 역시 낮게하여 視線을 좋지 않게 하는 原因이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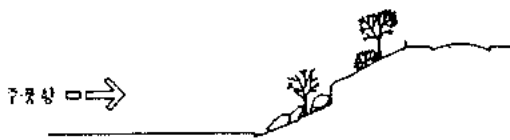
2. 現地調査分析에 依한 改善方案

앞에서 現地調査分析한 結果, 改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建築的 改善方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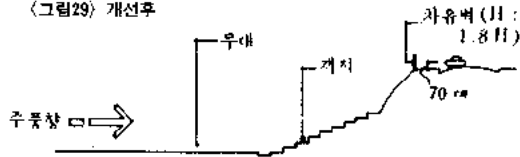
가. 楊州別山台 野外公演場

本 公演場은 무대규모의 過大로 인하여 客席에서 音의 明瞭度가 지하되고 있고 視線이 객석의 구배로 좋지않은 점이 있다. 假面劇專用的 公演場이므로 楊州別山台 假面劇演戲時 最大同時出演者數는

〈그림28〉 개선전



〈그림29〉 개선후



▲ 은율탈춤 야외공연장 개선안

11인으로 반경 6m 이상의 舞臺는 별다른意味가 없다. 앞에서 산정한 假面劇舞臺規模(8.4m×8.4m)와 바닥座席을 마련하면 16m×16m 정도로 舞臺規模를 줄이고 객석을 舞臺쪽에 이동시켜 객석 뒷편의 音의 明瞭度가 낮은 부분을 없애도록 한다. 좌석은 앞뒤간격 800mm, 객석의 높이가 270mm로 경사도가 낮아 視線에 의한 舞臺의 축소가 있으므로 높이를 300mm 이상으로 하여 有效舞臺面이 8.4m×8.4m 이상이 되게 한다. 좌석의 높이조정이 힘들 경우 舞臺面을 300mm 정도 높여 視線을 양호하게 한다. 바닥좌석은 잔디를 이용하도록하고, 演戲空間의 擴大와 演技者들의 客席待機席으로 利用할 수 있게 한다. 남측에서의 騷音은 높이 2.1m의 담장을 쌓아 遮音壁으로 利用하거나 公演場과 국도사이에 塹壕로 나무들을 심어 地上을 스치는 騷音을 감쇄시켜 公演場의 騷音이 許容騷音度 NC-20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公演은 音聲만으로 可能하게 된다.

나. 殷栗탈춤 野外公演場

公演場에는 舞臺以外 客席等の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舞臺의 調整과 客席設置案을 提示한다. 最大同時出演者數는 鳳山탈춤과 같이 14인이내이므로 무대의 규모는 반경 6m 이내에서 정해진다. 앞에서 算定한 8.4m×8.4m를 유효무대로하고 주위 3면에 바닥客席을 둔다. 스탠드식 객석은 주위 傾斜地를 이용하고 傾斜地 上部 도로변에는 담장을 겸한 遮音壁 2.1m 정도를 설치한다. 本 公演場에서 경사지이용은 자연상태의 이용과 더불어 騷音源에 관객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主風向이 무대쪽에서 객석쪽으로 향하게 되어 公演環境을 유리하게 조성시킬 수가 있다.

〈그림27〉, 〈그림29〉는 평면의 方案과 단면의 이용을 제시한다.

客席의 規模는 音의 明瞭度 90% 이내에서 配置되었으나 觀客의 增加時 音像方法으로 擴大시키는 범위를 定할 수 있다.

다. 水營野遊 野外公演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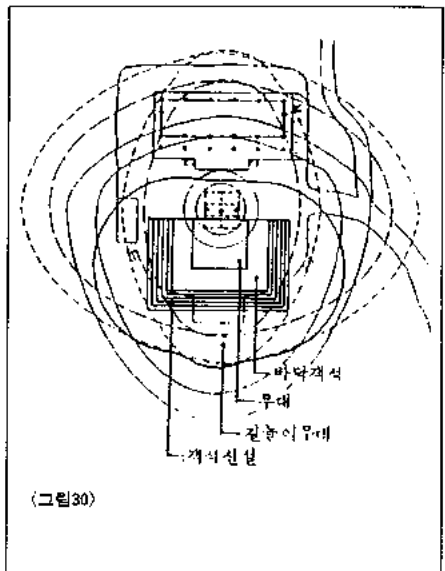
本 公演場은 工事豫定으로 現在 아무런 공연장시설은 되어 있지 않다. 自然地形을 이용하여 客席을 配置시키며 客席 뒷편에서의 風向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松林사이에 바람이 4m/sec 이상이 예상될때 樹木植栽로 防風林을 조성시킨다. 무대의 규모는 最大同時出演者數가 6인이내이므로 반경 4m 정도에서 定한다. 舞臺周圍는 3면에 객석을 두고 傳修會館과의 여유空地는 객석주위에 통로를 넓게 확보하여 길놀이 演戲時 利用할 수 있게 한다. 객석의 範圍는 音의 明瞭度 90% 이내에서 定한다.

라. 東萊野遊 野外公演場

公演場分析結果 무대규모가 過多하게 크게되어 있다. 假面劇專用公演場으로서는 客席뒷편의 音의 明瞭度가 낮으며 客席의 平面形態上 集中力이 弱化되어 있다. 무대의 규모는 最大同時出演者數가 6人以內로 반경 4m 정도의 舞臺面이면 演戲가 이루어진다. 다른 民俗놀이등의 이용을 고려한다면 무대주위에 바닥客席을 두고 舞臺부분을 약간 올려 객석의 視線을 改善할 수 있다. 그리고 客席의 配置形態가 산만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객석을 좀더 舞臺中心으로 調整한다. 순수 假面劇公演場만으로 利用할때는 〈그림31〉의 개선안을 참고로 하며 客席의 범위는 音의 明瞭度 90% 이내에 둔다.

마. 國立劇場 野外民俗公演場

本 公演場은 現地調査分析結果 傳統劇公演에 과도한 무대면적과



▲ 수영아류 야외공연장

周圍騷音問題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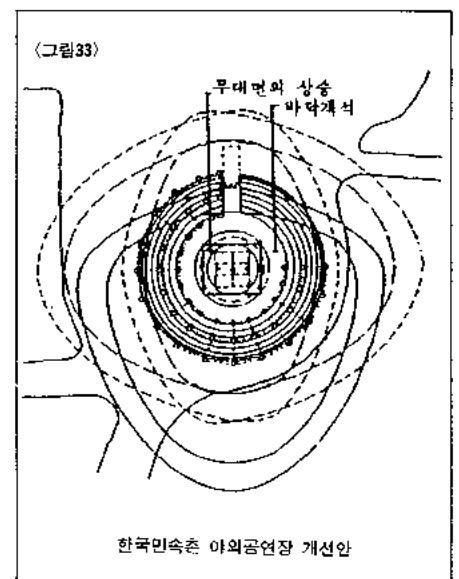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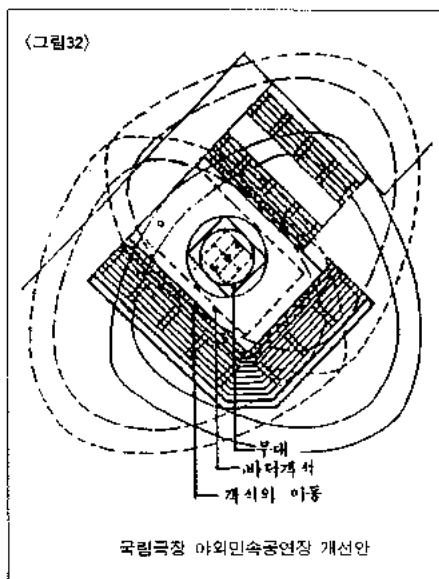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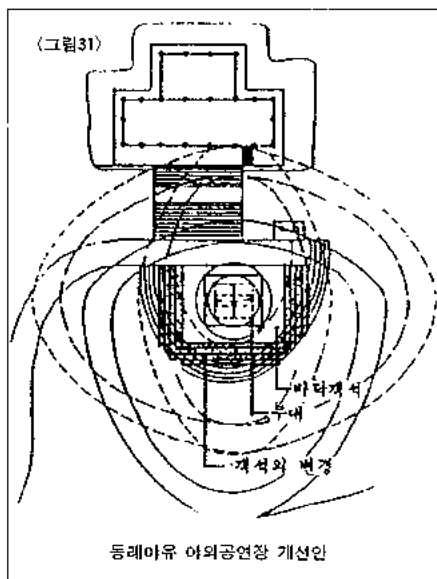
무대의 규모는 대규모놀이公演에 이용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나, 民俗놀이가 公演되는 규모와 演戲可能性 등에서 檢討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小規模出演人員이 등장할 때의 상대적인 무대규모의 축소등 舞臺規模의 可變性을 고려할 수 있다. 대사전달을 확정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視線距離 一次許容限度를 넘는 부분에서 演戲되는 公演物과 연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本 公演場은 무대규모의 變化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하며 바닥客席은 그 한 方案이 된다. 環境의인 騷音의 해결은 暗騷音度가 높아 野外公演場으로 物理的對策이 큰 효과를 볼 수 없으며, 단지 公演場周圍의 주차장과 廣場에서의 車輛騷音에 대한 遮音壁設置 정도이다. 駐車場騷音에 대한 遮音壁은 公演場客席 뒷편에서 10m 이상이 算定된다. 이 경우 遮音壁에 대한 經濟性이 동시에 고려되어 결정될 사항이다. 경제성에서 타당성이 없을때 屋內公演場의 變化를 提案한다.

바. 韓國民俗村 野外公演場

公演場에서 演戲되는 傳統劇과 여러 民俗놀이와 있어 무대의 규모가 假面劇演戲에는 다소 큰점과 視線의 상태가 경사도가 낮아 무대면적이 축소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改善方案은 視線을 양호하게 하는 것이다. 좌석의 앞뒤간격은 안락한 범위이고 좌석의 높이가 300mm역시 합당한 범위내에 있다. 그러므로 視線이 상태를 改善하는 方案은 舞臺面의 上昇이 適當하다. 자연스런 경사로써 무대를 300mm 정도 높이고 주위에 바닥座席을 설치하여 무대축소시 利用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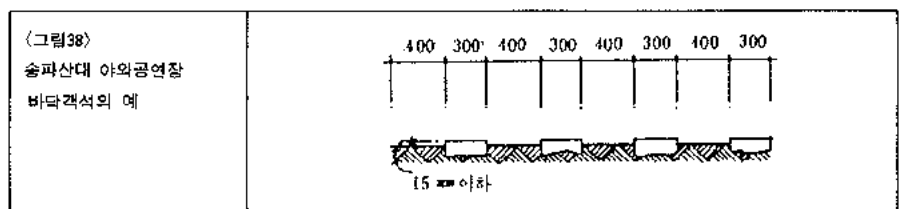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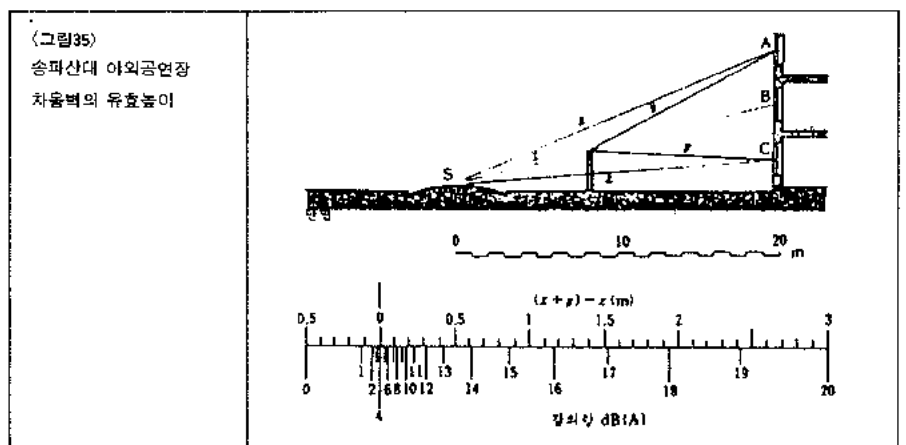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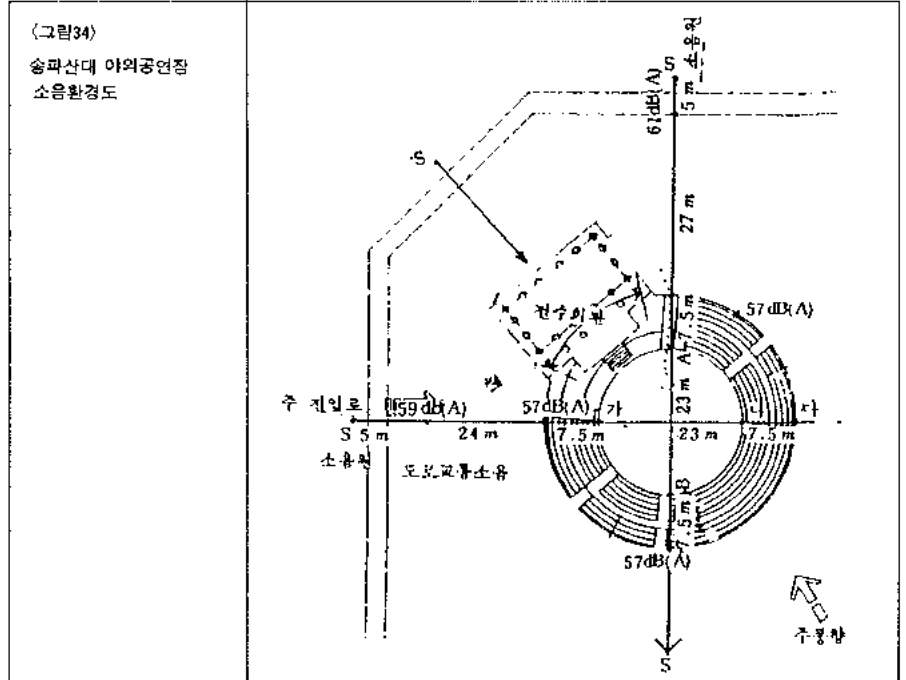
사. 松坡山台 野外公演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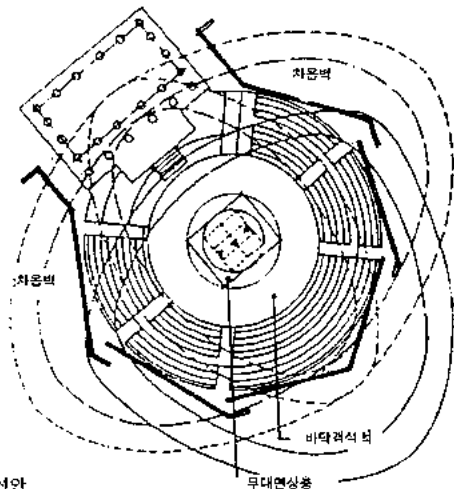
本 公演場의 現地調査分析結果, 개선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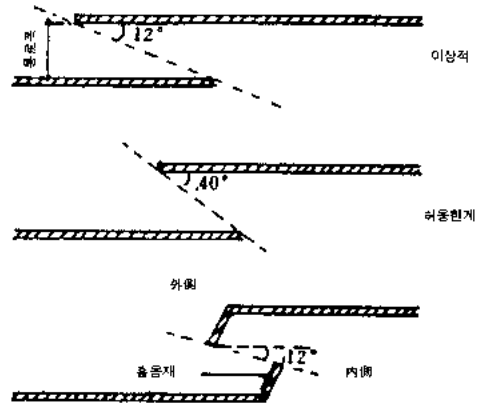
점으로는 周邊街路騒音에 대한 대책과
과다한 무대의 규모와 이에 따른 객석의 크기
및 좌석의 視線상태가 좋지 않은 점등이다.
현재의 騒音狀態는 (그림34)에서
서측도로변 59 dB(A), 북측도로변
61 dB(A) 정도이나 尙차 交通量의 증가로
騒音度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豫測된다.
현재도 公演場의 騒音度는 公演하기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다.
公演場을 許容騒音度 40 dB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野外公演場이므로 서측과
북측 그리고 로타리에서 騒音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遮音壁이나 樹林帶를 설치하는데
樹林帶는 遮音을 위하여 幅이 30m 이상이
요구되고 遮音性能도 7~11 dB(A)
정도이다.

本 公演場은 도로와의 여유공지가
서측24m, 북측27m로서 樹林帶配置를
위한 幅이 부족하며 許容騒音度를
얻기위한 遮音度도 最小 19 dB(A) 가
요구되므로 本 公演場의 遮音을 위한
시설은 遮音壁이 타당하다. 遮音壁은
遮音效果를 높이기 위하여는
騒音源側이나 受音側가끼이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나, 本 公演場의 경우에는
遮音壁의 설치를 公演場客席뒤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遮音壁을 公演場 客席 뒷편을 따라 설치할
때는 公演場의 平面型이 圓型이므로
遮音壁이 圓형으로 둘러쳐지게 되므로
遮音壁에 의한 公演場內에서 音의
集中現象이 豫測된다. 이러한 점에 대한
대비와 公演場의 出入等을 고려할때
遮音壁은 (그림36)과 같은 방법으로
直線型의 調合으로 設置한다. 遮音壁은
충분히 서로 겹쳐서 遮音壁의 效果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은
吸音材로 처리하여 反射音에 대비한다.
公演場의 무대규모는 半徑 11.5m로서
農樂이나 차전놀이등 대규모 놀이公演時를
위한 것으로 假面劇演戲時에는 매우
넓으며, 판소리장노래나 四物놀이시에는





〈그림36〉 공연장 개산안



〈그림37〉 차음벽 설치예

송파산대 야외공연장

관객이 舞臺를 占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演戲가 이루어짐에 따라 舞臺活用도를 감안하여 客席으로도 이용하며, 舞臺의 擴大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바닥客席으로 이용할 수 있는 材料의 配置만으로도 試圖가 가능하다. 이는 무대의 축소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좌석크기의 앞뒤간격은 적당하나 높이가 15cm로 낮아 視線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客席의 경사도가 낮아 생긴 현상이므로 객석의 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 객석의 높이조성이 어려울 경우 무대면을 45cm 정도로 〈그림 40〉와 같이 올린다.

아. 統營五廣大公演場

本 公演場의 調査分析結果, 公演場環境의 騒音度와 客席의 配置 및 不便한 사항이 추출되었다. 공연장의 主騒音源은 港口에 出入港하는 船舶들의 騒音이었으므로 港口側에 대한 遮音對策을 세워야 한다. 公演場과 港口는 거리 약 100m 정도에 높이차 30m 정도로 公演場의 港口側은 경사가 매우 심하다. 또한 騒音度가 높아 公演場을 許容騒音度以內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公演場空地內에 遮音壁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騒音은 港口 全體로부터 電波되고 있으므로 公演場의 港口側에 遮音壁을 충분히 길게 배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나 現地形狀態로는 이러한 遮音壁의 설치가 불리하므로 公演場周圍 3면에 설치시키므로써 遮音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港口와 公演場의 높이 차이로 遮音壁 上部에서 騒音의 陰影을 얻을 수 있으므로 遮音壁의 유효높이는 8.4m 정도가 算定된다. 騒音源과 공연장좌석의 受音點간의 높이차에 의한 공연장대지의 돌출부를 감안하면 公演場 外側에 높이 3.1m 이상의 遮音壁設置로써 許容騒音度以內로 유지시킬 수 있다.

公演場平面에서 舞臺의 규모는 最大同時出演者數가 8人以內이므로 假面劇舞臺의 算定規模인 8.4m×8.4m를 기준으로 하여 地形을 고려한 長方形으로 하고, 現 客席은 座席의 앞뒤간격이 너무 좁으므로 폭을 800mm 정도로 擴大시킨다. 또한 좌석의 材料는 좀더 安定된 상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客席의 배치를 남북측에서 줄인다면 音의 明瞭度 90%以內의 양호한 公演環境이 조성될 수 있다.

3.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計劃 方向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計劃은 過去 전통극이 演戲되었던 空間의 特徵과 물리적형태에서 건축계획요소를 抽出하고, 現代사회에 있어서 公演場에 適用시킴에 있어, 전통극 고유의 演戲特性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傳統劇을 발전시킬 수 있는 公演場으로 형성시키느냐에 그 解決方案이 있다. 過去 假面劇의 野外公演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연장의 任意性과 轉移 그리고 空間의 限定과 相對的인 擴散性은 現代에서 傳統劇의 공연을 위한 고정된 장소에서 一體感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實現시킬 수 있는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過去 그 때그 때의 임의의 장소에서 傳統劇의 公演場이 설치되었다고 해도 많은 公演이 행해지던 場所는 있었다. 現代에서 任意로 公演場을 確報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며, 都市에서는 고정된 公演場의 確報마저도 힘들다. 그러므로 고정된 공연장은 場所가 고정될 것이고, 限定된 空間 속에서 傳統劇이 가지고 있는 空間性을 表出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傳統劇의 無限의 暗示와 擴散性은 公演場 內外部의 空間을 一體性있게 連結시켜 느끼게 할 수 있다. 즉 공간의 자연스런 흐름을 誘導해 넘으로써 공연장 밖의 현실과 斷絶되지 않는 狀態를

維持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演戲場所의 轉移는 公演場內와 外部空間에서 혹은 舞臺의 擴大로써 관객석 중간이나 周圍에 舞臺를 增加시킴으로 制限된 場所에서도 시도가 가능하다.

公演場 즉, 劇場은 演技者와 觀客이 만나는 場所이고, 그곳에서 演技者와 관객의 공통된 融和가 이루어질때, 公演되는 傳統劇도 傳承의 意味를 갖게 된다. 이때 公演場內에서 觀客은 편한 상태로 觀覽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屋外公演場은 時期的인 제약이 너무 많으므로 자연주의적인 傳統劇의 精神에서 公演場 밖의 屋外空間과 時覺의 連結를 조성하면서 屋外公演場의 環境調節로써 時期的의 制約을 떨쳐 버려야 한다. 傳承空間의 확보만으로 解決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傳統劇 公演場은 觀衆의 접근이 용이해야만 한다. 傳統劇은 大衆의 劇이므로 大衆의 의지가 하나로 융합, 승화, 꽃피울 수 있는 자연스런 모임 장소가 되기 위하여는 都市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傳統劇을 위한 公演場이 建築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傳統劇은 각각 그 特性을 가지고 있으나, 傳統劇의 公演場들은 관객과의 接觸이라는 면에서, 돌출무대와 객석이라는 基本的인 可變性등을 고려한 설계와 규모의 적절한 調合으로 傳統劇公演場들을 並用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傳統劇公演場의 經濟性과 大衆에게 場所의 認識등을 고려할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傳統劇公演場을 並用할때는 各 傳統劇別 特性과 公演場規模에 따라 變化되는 舞臺와 客席의 範圍가 각기 다른점을 고려한 計劃이 타당하게 된다.

〈그림43〉에서 공연장의 규모들을 比較한 바 舞臺의 規模는 假面劇 또는 唱劇舞臺를 설치하고 판소리나 人形劇演戲時 舞臺部分의 立體的 變更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演戲空間을 제외한

송파산대 야외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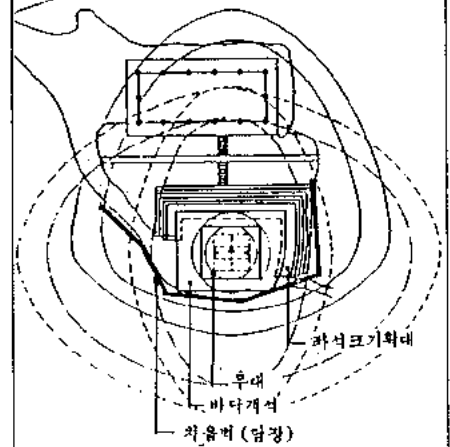


(그림39) 개선전



(그림40) 개선후

등영 도광대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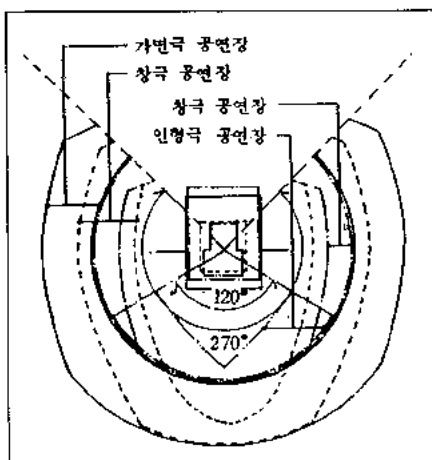


(그림41) 공연장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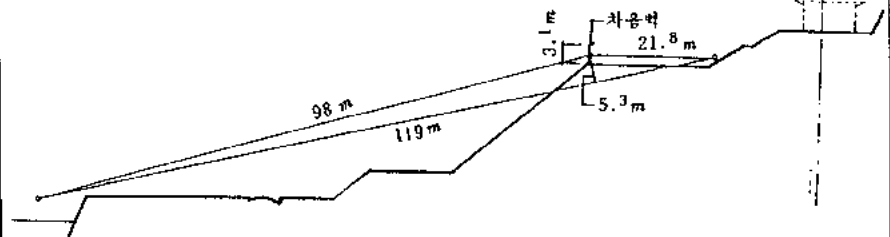
나머지 舞台부분에 바닥객석을 설치하여 適切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객석은 假面劇公演場客席에서 唱劇 또는 人形劇公演場客席範圍의 境界部分을 客席通路로 設置하여 公演場에서 各 傳統劇別 客席範圍를 區別할 수 있다. 傳統劇公演場은 과거 野外에서 公演되었던 점에서 屋外公演場과 屋內公演場으로 할 수 있다. 屋外公演場과 屋內公演場을 比較하면 (표1)과 같다.

以上에서 傳統劇公演場은 自然環境이 좋은 곳에서는 屋外公演場이 有利하다. 그러나 주변의 騒音等 環境이 좋지않은 現代都市에서 傳統劇公演場은 劇의 本質上, 관객과의 交感과 演戲環境의 理想的인 造成이 可能하고, 광중의 接近이 容易하며, 觀衆이 편안히 演戲者와 더불어 傳統劇을 즐길수 있는 傳統劇의 空間性을 살린 屋內公演場이 效果的이라 할 수 있다.

(그림43) 전통극 공연장 규모비교



(그림42) 차음벽 산정예 (현재시설)



등영 도광대 공연장

(표 1) 옥외내공연비교

公演場	屋外公演場	屋內公演場
自然環境	- 微氣候의 영향을 크게 받음 - 周圍騒音에 노출됨 - 對策이 極小	- 微氣候의 영향이 적음 - 周圍騒音에 크게 구애되지 않음 - 對策이 可能
場 所	市場, 廣場, 空地였으나 시골 혹은 公園에 施設	觀衆 接近이 쉬운 都市等 場所의 制約이 적음
配 置	- 自然地形을 利用하지 못할 경우 人爲的 施設이 必要 - 自然環境의 제약이 큼	自然環境의 制約이 비교적 작음
舞 臺	- 段을 쌓거나 自然狀態 - 바닥材料의 制約 - 舞臺附屬室等이 必要 - 舞臺裝置等이 힘들	- 별도의 施設은 不要 - 舞臺機能 擴大 可能
客 席	- 施設에 制約이 큼 - 과기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임시 다락석을 이용. - 바닥材料가 限定	- 施設에 制約이 작음 - 客席의 材料를 安락하게 하는 등 材料선택의 폭이 크다.
公演環境	- 音聲의 補強이 힘들 - 機械的 擴聲裝置 效果가 작음 - 장작불, 횃불이 이용되었고 수은등정도를 이용하고 있음 - 照明裝置 費用 過多	- 音聲의 補強이 可能 - 機械的 音補強이 쉽다. - 劇의 분위기에 따른 照明裝置 등을 固定施設로 費用이 작음
空間性	自然에 開放感	開放感의 表現이 制限的으로 可能
施設費	自然環境이 좋은 경우 施設費 最少	施設費가 많이 들

국제건축세미나의 성과

UIA 스포츠, 레저, 관광세미나를 치르고—

趙聖烈/동 세미나 기획위원장, 큐빅디자인연구소장

1. 개관

작년 10월 서울과 동경에서 9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던 국제건축가연맹의 스포츠·레저·관광세미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국제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동구권을 포함하여 17개국이 참가한 국제회의로서 많은 건축인과 관련분야의 관심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점에서 우리 建築史에 마크될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1988서울올림픽은 사상 최대의 제전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한 여러가지 기록을 남겼으며, 우리 국민의 결집된 역량과 우리의 국력을 나타내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1987년 영국 브라이턴에서 열렸던 국제건축가연맹(UIA) 총회에서 한국건축가협회는 스포츠, 레저, 관광에 대한 국제건축세미나의 개최를 제의하여 1988년 10월의 서울—동경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올림픽 개최 도시와 올림픽 건축에 관심이 있는 세계 각국 건축가들의 호응으로 큰 성과를 거둔 이번 세미나는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첫째는 올림픽 건축의 새 방향 모색으로서 거대한 올림픽 및 관련시설들은 보다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효율을 생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올림픽 시설의 사후 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앞으로의 올림픽 건축의 방향에 대해 다목적(Multi Purpose) 적인 건축, 시설 자체의 융통성(Flexibility) 부여, 시설의 경제적 관리(Management)에 착안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스포츠+레저+문화가 적절히 조화된 시민생활 시설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면 의의로서는 동서 조화의 계기이다. 근대 세계문화를 주도해온 서구권 지식층은 제3세계인들에 대해 관습적으로 외면하거나 낮은 비중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친구가 되고 형제같이 지내가는 어려운 일이나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를 가지고 테이블 위에 마주 앉았을 때 폭넓은 이해와 우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서구권 대표단이 대거 서울에 온 이번 세미나는 인종, 국경, 체제를 초월하여 인간생활 환경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국제사회 속에서 동서 조화의 좋은 본을 보였다고 하겠다.

세미나는 18개국 건축가들이 서울, 동경에서 주제 발표를 하며 그중 12개국—한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이집트, 소련, 서독, 동독, 영국, 불가리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의 대표가 서울에서 올림픽 및 도시 스포츠 시설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서울의 일정은 10월 24일, 25일 양일간 서울과 근교의 한국 고적과 토속 문화, 서울의 명소 및 올림픽 경기시설과 선수촌 등을 둘러보고 10월 26일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올림픽 및 스포츠 시설의 계획, 설계, 관리, 사후 용도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의 건축가 김종성씨(서울건축)의 서울올림픽 시설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가미야씨(일본)의 1964년 동경올림픽의 요요경기장에 대한 설계, 관리 및 사후용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가와구찌씨(Structural Engineer)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스포츠홀의 구조(Pentadome)에 대한 발표와 오르테고씨(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캐나다의 건축가 왕씨와 존슨씨의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시설의 설명과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및 1996년 토론토 올림픽 유치 계획안이 발표되었고, 고리쉬코프씨(소련)의 스포츠와 레저시설에 대한 소련의 현황이 소개되었다. 비어씨(동독)의 스포츠 및 체력 단련에 관한 국제정책과 지역단위의 시설설립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파라드씨(서독)의 기존 건물의 재이용과 민간 투자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과 Open Space 보존에 대한 토론에 이어 영국의 건축가 존씨의 스포츠 시설의 다목적 용도에 대한 계획과

설계지침의 발표로 서울의 세미나가 막을 내렸다.

서울세미나에 이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동경에서 레저와 관광에 관한 주제로 현지답사 및 세미나가 계속되었다. 동경세미나에서는 강건희 교수의 「신구의 공존」, 스위스의 메울리(B. Meuwly)의 환경 보존 측면에서의 스포츠, 레저, 관광시설의 방향, 무라마쥬(일본)의 역사유적 보존과 관광, 레스코브(B. Leskovec, 유고슬라비아)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레저센터 계획, 랑귀로브(V. Rangelov, 불가리아)의 불가리아 흑해에서의 스포츠, 레저가 발표되었고 이어서 왕(H. Wang, 캐나다), 쉘론(M. Shilon, 이스라엘), 키스(I. Kiss, 헝가리)의 레저·투어리즘에 관한 각국의 슬라이드 및 비디오쇼가 있었다. 발표자중에서 핀란드의 살미넨(P. Salminen)과 일본의 이소자키(A. Isozaki)는 자기 작품의 슬라이드 쇼를 통해 레저·관광시설의 새로운 모색을 보여주기도 했다.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 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이 세미나의 페어웰리셉션은 10월 26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박세직 위원장이 호스트가 되어 석별의 아쉬움을 달래는 잊을 수 없는 파티가 있었고 10월 28일 동경에서는 신 일본건축가협회 기다다이 회장의 환영 만찬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갠도단개도 참석하여 이 세미나를 더욱 빛내 주었다.

2. 회의진행

유.아이.에이 스포츠, 레저 관광 국제세미나의 진행은 준비기간과 회의진행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9일간의 회의를 위해 회의 준비기간은 9개월이나 걸렸으니 국제회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번 국제회의는 한국건축가협회와 일본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연속으로 열린다는 것 때문에 더욱



▲ 올림픽조직위원장 주치 환승리셉션

빈저로움이 다르게 되었다. 서울회의는 1988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올림픽 건축」을 주제로, 동경회의는 1988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레저, 관광」을 주제로 열렸다.

준비기간의 첫 단계에서는 공동주최 협의로서 기본계획에 속하는 회의일정, 장소, 주제, 발표자, 프로그램, 예산계획 및 분담, 회의유인물 인쇄계획, 디자인 등의 결정이다. 1988년 2월 23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세번의 공동주최협회의와 수십차례의 팩시밀리, 국제전화 등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두번째 단계는 회의 관계 제작물의 준비이다. 리플렛, 포스터, 프로그램, 신청서, 세미나 발표문의 출판,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표시물 등이 원고 취합, 디자인의 결정과정을 거쳐 완성되기까지 9개월이 소요되었다.

회의는 관광 및 현지답사, 세미나 그리고 국제건축가연맹 워킹 그룹회의의 세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에서는 전통문화의 관광, 올림픽시설 답사, 세미나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세미나, 동경의 스포츠, 레저, 관광, 마지막 2일간은 교토, 나라, 니코, 하코네 등의 관광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실시되었다. 회의준비와 회의진행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회의진행 개요

세미나 주제 서울

- 올림픽과 건축
오늘날의 올림픽시설 개선방향
올림픽 시설의 관리
- 올림픽후의 사용
올림픽 기간중과 행사후의 효율적 관리
- 올림픽건축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아이디어
올림픽 시설의 소개

동경

주거근린 레저시설
1일 생활권내에서의 레저시설
단기체류를 위한 레저와 여행시설
장기체류를 위한 레저와 여행시설

발표자

G. Gorlyshkov	(소 련)
G. John	(영 국)
G. Ortego	(스 페 인)
H. Wong	(캐 나 다)
K. Kamiya	(일 본)
M. Kawaguchi	(일 본)
J. Kimm	(한 국)
S. Aboul-Naga	(이 집 트)
V. Rangelov	(불 가 리 아)
B. Leskevec	(유고슬라비아)
C. K. Leong	(싱 가 폴)
Shlminen	(핀 랜 드)
B. Mcuwly	(스 위 스)
Y. Shibata	(일 본)
A. Isozaki	(일 본)
Y. Hamano	(일 본)
T. Muramatsu	(일 본)
K. Kang	(한 국)
M. Wimmer	(독 독)
I. Kiss	(헝 가 리)

올림픽시설 전시회

기간 및 장소 : 1988년 10월 26일 롯데호텔

1988년 11월 21~29일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요 : '88서울올림픽 건축, 시설물의

집약전시

'88서울올림픽을 위한 각종 기념물,

조각공원, 상징조형물

내용 : 잠실수경가장, 보조경기장,
국제방송센터, 올림픽 선수기자촌,
조형물

회의일정

서울

• 10월 23일(일)—등록

• 10월 24일(월)

관광 I — 전통문화(오전)

관광 II — 올림픽시설(오후)

UIA Sports, Leisure &
Tourism Work Group 회의 및
세미나추진위원회

• 10월 25일(화)

관광—수원성(오전)

용주사, 용건능, 민속촌(오후)

• 10월 26일(수)

세미나(오전), 세미나(오후)

올림픽조직위원장 주치 환승리셉션
일본

• 10월 27일(목)

출국(동경행) 환영리셉션

• 10월 28일(금)

UIA Sports, Leisure & Tourism
Work Group 회의, 세미나

• 10월 29일(토)

세미나, 카테일 파티

• 10월 30일(일)

관광 III — 동경관광, 스끼야끼파티

• 10월 31일(월)

관광(자비부담) 교토, 나라, 니코, 하코네

3. 결어

건축의 국제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것은 서울올림픽의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서간장 완화의 시류를 타고 체제가 다른 공산권에서 6개국 대표단이 참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제교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지고 성숙해질 기반을 조성한 셈이 된다.

한국건축가협회에 이런 규모의 행사를 처음 치루었지만 그동안 축적한 우리의 역량을 과시할 만큼 조직과 준비에 있어서 철저했으며, 빈틈없이 잘했다는 참가국대표들의 호평을 얻은 것이다.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주최국의 열의와 힘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다. 잘해야겠다, 우리의 자해를 모아야 한다, 땀물을 뺀겨야 한다 등의 마음들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국제행사에서 늘상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감각과 커뮤니케이션의 빈곤이다.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고 주도하는 경우에는 그 두가지 사항이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사 추진과 진행조직에 있어서 폭넓은 인선과 임무의 부여를 그 어느때 보다도 실질적으로 했다는 것을 명기해 두고 싶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대부분을 준비했고 일본은 따라오는 입장에 있었으나 양국단체가 조화를 이루어 협력을 잘했었다. 서울과 동경에서 연속으로 개최된 이 회의는 서구권 참가자들에게는 양국의 분위기를 차가 뚜렷했다는 후문이 있었다. 그것은 회의준비, 회의진행에 있어서 전진함의 차이라고 보겠다. 우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와 인종의 차를 극복하고 동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았고, 건축을 통한 인간환경의 개선이라고 하는 공동 관심사를 폭넓게 토의할 수 있는 장의 운영에 대한 값진 경험을 했다고 하겠다. (뒷면에 준비일정)

■ 준비일정

추진위원회 구성 1988. 2. 16
중동추진협의회 1988. 2. 23

항 목	업 무 명	시행기간	비고
1. 사무국 개설	1. 사무 진행자 결정 2. Correspondent 채용 결정 3. Information 및 Tour Guide 채용 4. 사무기기 입차 계약 5. 예산결정	4/10 5/10 7/30 5/15 4/10	
2. 등록요건 결정	1. 등록비 결정 2. 참가자 자격 결정 3. 신청요건 결정 4. 등록기간 결정	4/15 4/15 4/15	
3. 세미나	1. 테마확정 2. 리포터 선정 및 의뢰(국내, 국외) 3. 프로그램 확정 4. 리포트 수집 5. 리포트 번역자 수배 및 계약 6. 동시통역사 수배 계약 7. 동시통역사 자료 인계 8. 세미나 진행자 Premeeting 9. 세미나장 Lay Out 결정 10. Place Card용 명단작성 11. Place Card필결 완료 12. Projector, Mic. 동시통역설비 확인 13. 진행인원 배치계획수립 및 배치 14. 행사장 Setting 및 확인 15. 세미나 진행 보조	3/31 4/30 5/10 국내 5/30 국외 6/30 국내 6/5 국외 7/5 5/20 7/15 9/20 9/10 9/15 9/25 9/30 9/15 10/25 10/26	
4. 홍보	1. 홍보 계획 수립회의(Publicity) 계획 및 인쇄물 사양 결정 2. Mass Media 선정(국내·외) 3. 기자 섭외 4. 홍보자료 취합 5. 홍보자료 번역 6. 홍보자료 제공 기사 7. 등록 및 안내 리플렛, 신청서, 포스터, 봉투, 인쇄물 도안확정 8. 등록 및 안내 리플렛 교정인쇄 9. 회의록 디자인 10. ID Card 디자인 교정 인쇄 11. 종합 브로슈어 내용결정 12. 종합 브로슈어 도안확정 13. 종합 브로슈어용 Copy작성번역 14. 교정, 인쇄	5/1 5/1 5/15 5/10 5/15 5/15 5/15 5/18 4/20 8/30 7/15 7/15 7/30 8/30	
기타 인쇄물	15. 초청장 및 봉투 도안 및 인쇄 16. 초청자 명찰 도안 인쇄 17. 티켓 도안(종류별) 교정 인쇄	9/15 9/20 9/10	
제작물	18. 현판 Lay Out 19. 현수막 Lay Out 20. Binder Lay Out 21. Name Tag 사양 결정 22. 현판, 현수막 제작 의뢰 23. Binder, Name Tag제작 의뢰 24. 제작품 검수 25. 제작품 납품	8/30 8/30 8/30 8/30 9/1 9/1 9/7 9/15	
5. 섭 외	1. 총행사 계획 작성 2. 총행사 계획 작성 관계기관 제출 3. 총행사 계획 작성 심의필 4. 예방접설비(협조 공문발송, 확인)	3/30 4/10 4/20 5/20	
리포터선정	1. 리포터 선정회의 2. 협조 공문작성 발송 3. 회신 수납 4. 리포터 제출 독려	4/15 4/10 4/30 4/20 5/20	
영집, 촬영	1. 계획수립 2. 영집자 확인, 출연자 3. Transportation 확정 영집 4. 영집 스케줄 재통보 5. 영집 Transportation 재확인 6. 보조자 지정 7. 촬영 스케줄 재통보 8. 촬영 Transportation 9. 보조자지정	10/1 10/5 10/22 10/22 10/20 10/26 10/26 10/26 10/24	

항 목	작 업 명	시행기간	비고
6. 전 시 회	1. 전시물 소재 자료 업수 2. 전시장소 답사 결정 3. 전시 Lay Out 결정 4. Pannel 명제자료 번역의뢰 5. Pannel 명제번역 완료 6. 명제판 Lay Out 결정 7. 명제표 인쇄 의뢰, 인쇄 완료 8. 명제 Pannel 제작 9. 전시 Pannel업수 10. 전시장 작업	5/30 7/3 7/20 7/15 7/30 8/31 10/23 10/23	
7. 초청참석인사 확정	1. 초청 대상자 선정 (세미나, 연회, Tour) 2. 초청자 List Up 3. 참석자 확정 4. 참석자분류 5. 참석자 분류 List Up	5/10 5/30 8/5 8/10 8/15	
8.	1. 방문처 확정 2. Schedule 작성 3. 협조의뢰 4. 수행자결정 5. 예산확정 6. Tour참가 인원 확정 7. Transportation 8. 점심식사 장소 수배 9. 점심식사 방법결정 10. 점심식사 가격계약(?) 11. 점심식사 예약 확인 12. 등록일 참가신청 접수 13. 참가자 재조정 14. 관련업무자에게 인원 재통보 15. 제반사항 재 Confirm	5/10 5/10 4/30 5/10 5/10 8/5 5/10 5/10 5/10 8/10 10/23 10/23 10/23 10/23	
9. 수 송	1. 수송 스케줄 작성 2. 수송 차량 수배 3. 수송예산 확정 4. 차량계약 실시 5. 수송 담당자 선정 6. 수송 스케줄 Confirm/Paily	5/25 5/26 5/30 5/30 10/10 10/23 -27	
10. 예산 계획	1. 세미나 예산 확정 2. 전시회예산 확정 3. Tour예산 확정 4. 연회, 식사 예산 확정 5. 인쇄 예산 확정 6. 제작물 예산 확정 7. 번역 예산 확정 8. 동시통역 예산 확정 9. 홍보예산 확정 10. 섭외 예산 확정 11. 인건비 예산 확정 12. 통신 예산 확정 13. 사무비 예산 확정 14. 회의비 예산 확정 15. 업무추진비 예산 확정 16. 체제비 예산 확정 17. 한국측 주체 발표자 원고료	4/20 6/30 5/10 4/20 5/15 5/15 5/10 5/20 5/10 5/10 4/20 5/10 4/15 4/15 4/15 5/5 5/5	
제 정	1. 자체 조달계획 확정 2. 해당자 협조의뢰 3. 대금수금 완료 4. 경부지원 협의 마감 5. 광고 섭외 마감 (종합브로슈어에 게재) 6. 스폰서 협의마감 (종합브로슈어에 게재) 7. 재정 계획결산 8. 재정 적자대책 수립	4/8 4/11 4/21 7/15 7/15 7/16 7/16	
기 록	1. 국내 리포트 번역의뢰 2. 국내 리포트 번역완료 3. 해외리포터 번역의뢰 4. 해외리포터 번역완료 5. 리포트 인쇄 사양결정 6. 리포트 인쇄 의뢰 7. 리포트 교정 인쇄 완료 8. 사진기자 선정 의뢰 9. 녹음 (호텔의뢰)	5/1 5/20 7/1 7/20 5/15 7/21 8/20 9/10 9/10	

집(I)

吳成允 / 오성윤건축사사무소

1

생각하면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

이 그릇엔,
소중한 숨결이 응달샘 되어
안식과 자연을 속삭이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 머문다.

문풍지 차가운 날엔
따뜻하게 여기 머물고,
햇마루 차가운 날엔
시원하게 여기 머물며,
바람의 날개짓
햇빛의 속삭임을 듣는다.

생각하면.....

2

생각하면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

이 그릇엔,
삶의 갈구가 여울목 되어
감사와 기대를 노래하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 머문다.

튼튼히 올려진 기왓장엔
안전함과 쉼이 머물고,
편리한 너른 공간엔
만족함과 기쁨이 머물며,
생존의 미소짓
안락의 노래소릴 듣는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



吳成允

- 1944년 태진생
-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오성윤 건축사사무소 자영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

설계안 현상공모

대한주택공사는 200만호 주택건설계획 취지에 부응한 저렴주택개발 노력의 하나로 저소득층이 값싸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소형주택 설계안을 아래와 같이 널리 모집합니다.

◎ 공모부분

소형공동주택 고층형(15층 기준), 중층형(5-6층 기준) 2개 부문에 대한 단위주호 및 주동계획안

◎ 응모자 등록

자 격 : 제한없음

기 간 : '89. 1. 24 ~ '89. 1. 27 (매일 10:00 ~ 17:00)

접 수 처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 전화: 545-0579)

구비사항 :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 작품제출

제출도서 : 응모자 등록시 지침서 배부

제출마감 : '89. 3. 17 (금) 18:00

접 수 처 : 응모자 등록 접수처와 같음

◎ 심사 및 발표

심사 : 심사위원회 추후 구성 발표 : '89. 3. 31 (예정)

◎ 시상 및 특전

시상 : 입상자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 사장상을 수여하고 다음과 같이 상금을 지급함.

최우수작 (고층, 중층부문 각 1점) 상금 각 300만원

우 수 작 (고층, 중층부문 각 2점) 상금 각 200만원

특전 : 입상작품중 실제사업에 적용토록 채택된 작품의 설계자에게는 실시 설계권을 부여함.

◎ 기타사항

설계지침 : 설계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응모자 등록시 교부될 설계 설계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사항 : 현상응모의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주택공사주택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545-0579)

Ⓜ 대한주택공사

목동도서관 현상설계 경기

Competition:Mok-dong Public Library

서울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에서는 목동 신시가지내 아파트 주민 및 학생들에게 학문과 문화의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이번 현상설계공모에서는 서울시에서 7개의 건축사사무소를 지정, 작품을 공모하였는데, 그중 5개 건축사사무소(서울건축, 이공건축, 아키프란건축, 정림건축, 종합건축)가 응모하여 서울건축(안)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

본지에서는 5개 건축사사무소(안)을 모두 게재하며, 아울러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 김근덕 (연세대 교수)
- 변영진 (서울시 기술담당관)
- 안기태 (대한건축사협회)
- 양운재 (서울대 교수)
- 이경희 (연세대 교수)
- 이선영 (서울시 사업소장)
- 이정덕 (고려대 교수)
- 이호진 (건국대 교수)

설계지침

1) 건물의 성격

- 목동지구 아파트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문·문화의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의 성격.
- 조용하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현대식 건축물.
-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학문·문화·예술센터의 역할과 시민의 휴식처로서의 기능.

2) 건물의 규모

- 건축연면적: 6,360㎡ ±10% (약2,000평 내외)
- 층 수: 지상5층 이하, 지하 1층
-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부대설비
 - 기계실 및 전기실 설비
 - 기계: 냉·난방, 환기 등 (지역난방 이용)
 - 전기: 조명·방송설비 등
 - 부대시설: 조경 및 녹지시설, 장애인용 시설.

3) 대지

- 위치: 목동중심지구 6-9BL (도시설계지역)
- 면적: 4,255㎡ (1,287평)

서울건축 (案)

Seoul Architects & Associates Plan

◆
건축면적 / 1,661.0m²
면적 / 6,506.9m²
건폐율 / 39.0%
용적률 / 134.4%
층고 및 높이 / 지하층, 지상1층 : 4.8m
2층 : 4.2m, 4.8m
3~5층 : 4.2m
최고높이 / 25.4m
조경면적 / 계획 및 설계면적 : 820m²
법적요구면적 : 638m²
주차대수 / 30대 (장애자용 3대 포함)
법적요구대수 / 27대
주차면적 / 42.5m²
주요미감재료 / 적벽돌 치장쌓기



■ 배치계획

1) 건물의 출입

- 도시설계의 외도에 맞도록 보행자전용도로 끝에 생기는 소광장에서 건물로 주진입이 이루어지게 하고 차량은 뒷쪽 외곽도로 측에서만 진입하도록 한다.
- 도서관의 주진입은 보행자 도로변에 면한 열람·사무공간과 집회·휴게공간의 연결부분에 두고 그 반대편에 주차장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부 진입구를 둔다. 아동·주부열람실은 건물의 측면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에 면한 계단실 옆에 비상출입구를 계획한다.
- 보행자 도로변에는 대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식당·휴게실을 배치한다.

2) 소광장 조정

- 도서관 앞에 소광장의 조경에 특히 유의하여 질 높은 시민의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 건물의 형태 및 외관계획

1) 내부의 기능에 따라 건물을 두 덩어리로 구성한다.

- 몸체부분 : 남북방향으로 배치하고 도서관의

주기능이 위치하도록 한다.

- 집회·식당·휴게부분 : 보행자 전용도변에 평행하도록 배치한다.
- 두 덩어리의 연결부분 : 보행자 전용도로와 주차장 양측에서 모두 진입 가능한 입구를 둔다.
- 2) 건물덩어리 크기의 대조와 높이의 대조를 강조하고 두 덩어리 건물의 분명한 방향성을 부각하도록 한다.
- 3) 건물 외관을 벽돌면과 유리면으로 만들어지는 벽면의 요철과 치장벽돌의 질감으로 조화되는 매우 입체적이고 조형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 4) 내부의 기능과 구조가 외부에 표현되는 입면을 구성하고 외벽재료의 조화가 보여주는 건물을 설계한다.

■ 평면 및 동선계획

1) 건물의 두께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면의 깊이를 설정하고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폭의 기둥이 없는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포스트 텐션 공법에 의한 안정되고 합리적인 깊이인 18m를

채택하여 평면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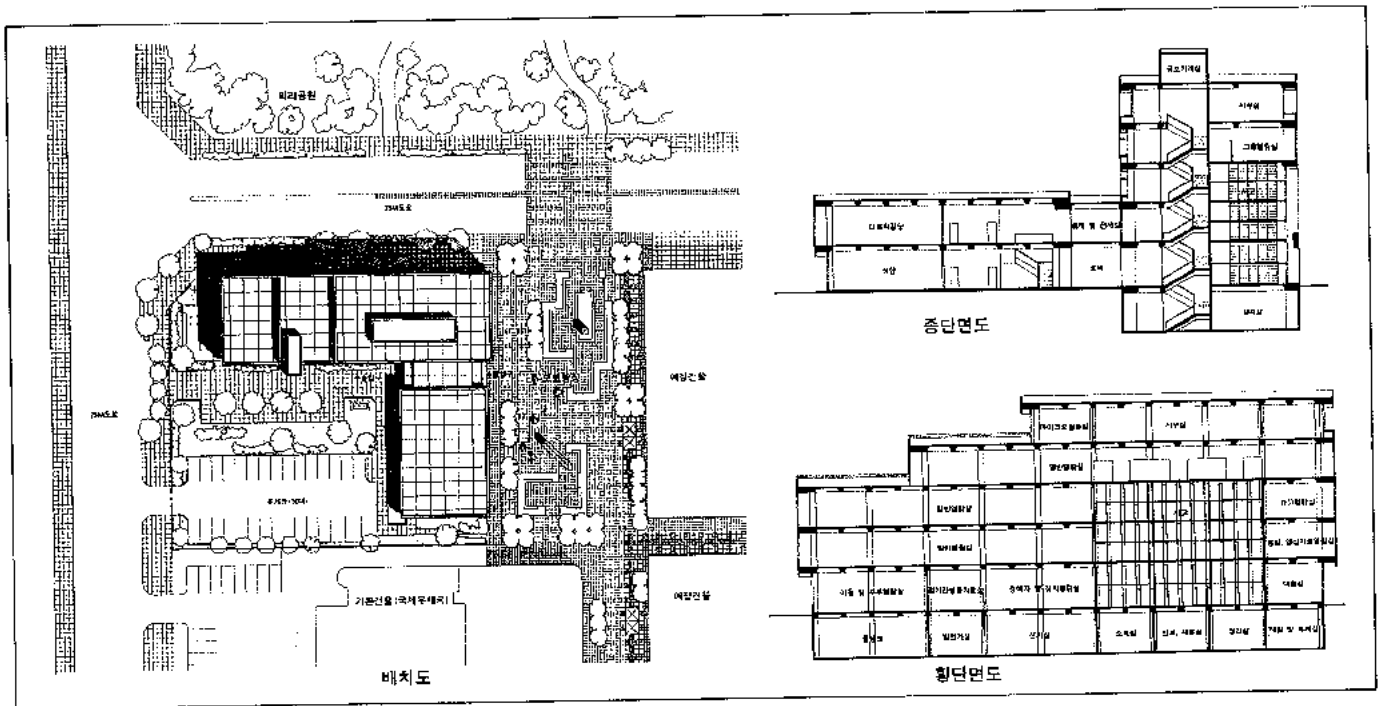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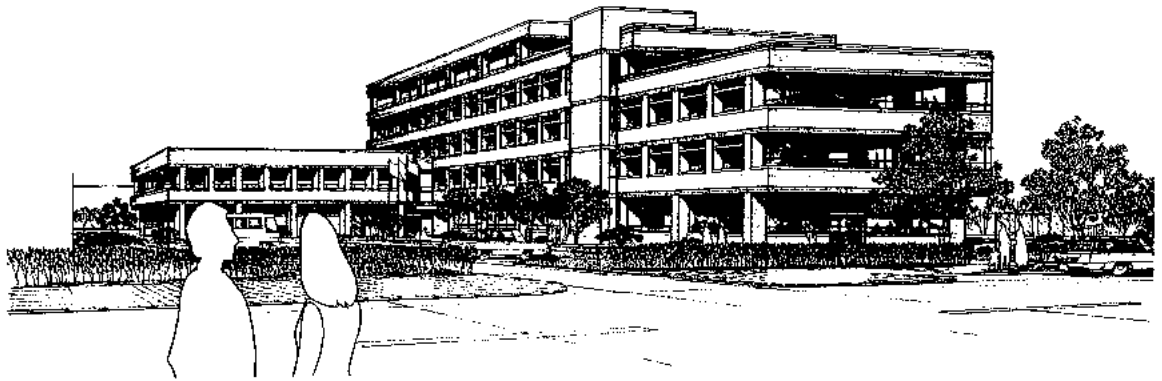
2) 모듈에 의한 평면계획

- 기본모듈을 6m×6m로 하여 서고를 제외한 모든 실을 6m의 2등분인 3m 간격마다 보를 노출시켜 각실의 구획 및 조명·냉난방설비의 기준 모듈로 삼는다.
- 서고는 6m를 4등분한 1.5m를 기준으로 서가를 배치하며, 서고를 복층으로 설계하여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 3) 건물내의 동선계획
- 도서관의 동선은 1층 로비에서 열람·사무동선과 집회·휴게동선으로 구분한다.
- 열람·사무동선은 각각의 계단실을 두어 열람자와 사무직원과의 동선의 교차를 방지한다.
- 집회·휴게동선은 1층 로비에 면한 별도의 계단실을 이용하여 도서관내의 주동선과 분리한다.

■ 구조계획

1) 개요

- 지하 1층, 지상 5층의 도서관 건물로서 주 기둥간격은 6m×18m이며, 철근콘크리트 일체식 구조방식을 사용한다.



2) 구조설계 계획

- 중력하중 (사하중, 활하중) 은 슬라브와 보에 의해 기둥으로 전달되며 특히 18m의 긴 Span Beam 은 Post Tension 방식을 도입하여 보높이 70cm로 한다.
- 횡력 (바람하중 등) 은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가 흡수하여 기초를 전달한다.
- 기초형식은 지질조사 후 상세설계가 되며 현재로 Pile 지지위 독립 기초로 가정한다.

3) Post Tension 공법 설명

- Post Tension 공법은,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도록 피복을 하여 배치한 긴장재를 콘크리트가 경화한 뒤에 Jack 으로 긴장해서 콘크리트에 Prestress 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긴장재 (초고강도철근) 의 한쪽을 콘크리트가 받게 하여 두고, 다른쪽에 Jack 을 설치한다. 이 반력도 콘크리트에 받게 하였으므로 긴장재의 긴장과 동시에 콘크리트에 Prestress 가 도입된다. Prestress 도입후 덮개속에 Grout 를 주입하여 긴장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력을 준다. Grout 를 주입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것을 Unbonded Post Tension 공법이라

한다.

4) 공법의 특징

-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내구성 및 수밀성이 좋다.
- 처짐이 작고 긴 Span 의 구조물에 유리하다.
- 안전성이 높다.
- 이 공법은 고강도의 재료를 사용하므로 같은 설계하중에 대하여 R. C 구조보다 재료가 절약된다.

■ 조경계획

1) 수목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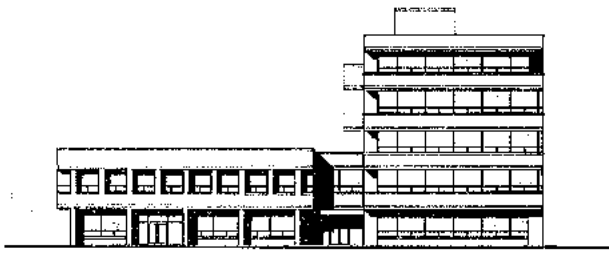
- 공해등 인위적인 피해에 강한 수종
- 계절감각이 풍부한 수종
- 자연의 수형이 아름다와 인공적인 전지, 전성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종
- 인체에 알레르기등의 피해를 주지 않는 수종
- 녹음이 풍부한 수종

2) 부분별 식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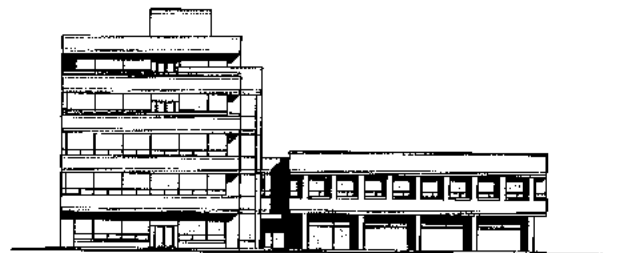
- 입구부분 (순환도로에 면한 입구)
 - 입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형적인 형태이며 상록수 ~ 독립 가문비
- 주차장 부분 (녹음수, 차폐용 재료)
 - 공해에 강하고 하절기 녹음이 풍부한 수종

: 프라타나스, 산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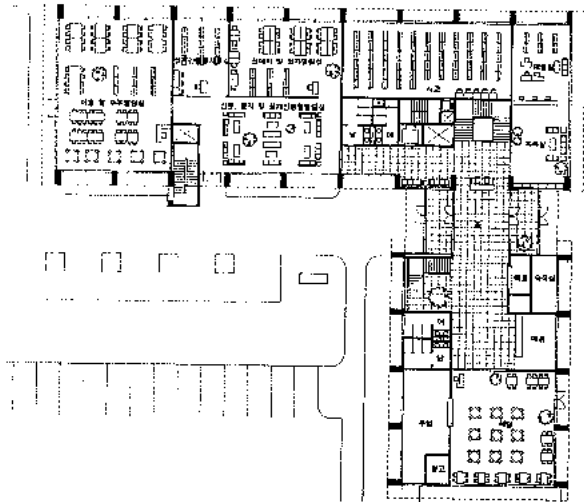
- 차폐효과가 크고 맹아력이 강하며 공해에 강한 수종: 쥐똥나무
- 건물인접 녹지
 - 건물에 의한 복사열에 견딜 수 있고 계절감각이 풍부한 수종: 화살나무, 단풍나무
- 진입광장 부분
 - 枝下高가 높고 수관폭이 커서 풍부한 녹음을 제공할 수 있으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종: 느티나무
- 주차장과 진입광장의 경계녹지 부분
 - 계절감각이 강하고 장식적인 형태, 색채를 갖는 수종: 산수유, 모과, 눈향, 주목
- 어린이놀이터 부분
 -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휴식부분에는 풍부한 녹음을 줄 수 있고 차폐 효과가 큰 수종: 쥐똥나무, 느티나무
- 북측도로와 면한 부분
 - 기존 가로수와 일체감을 줄 수 있고 공해에 강하며 계절감이 있고 녹음이 풍부한 수종: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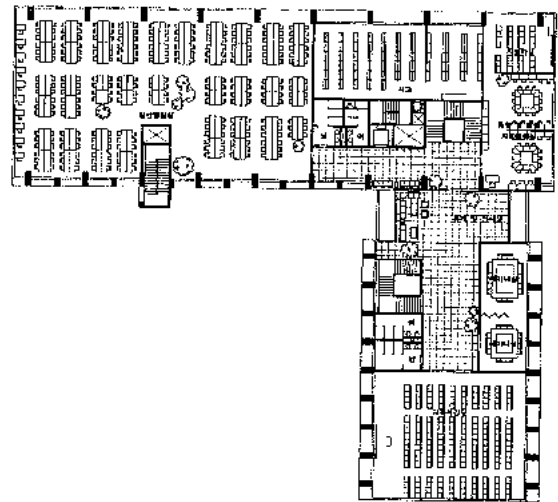
동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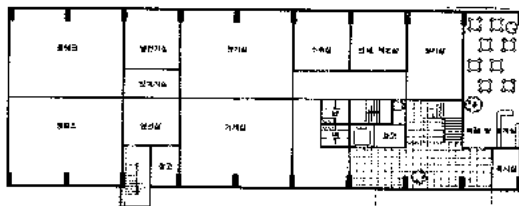
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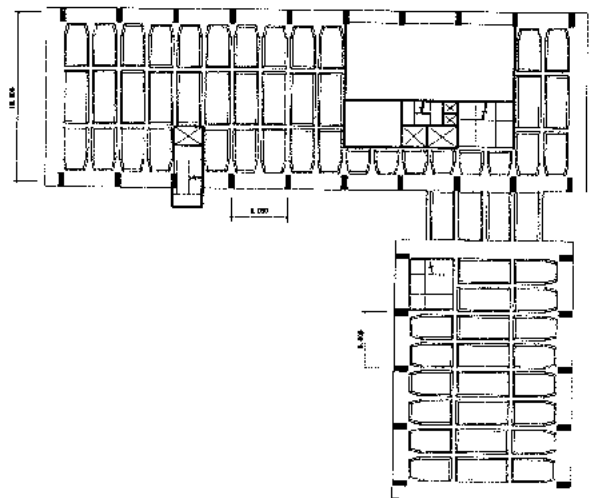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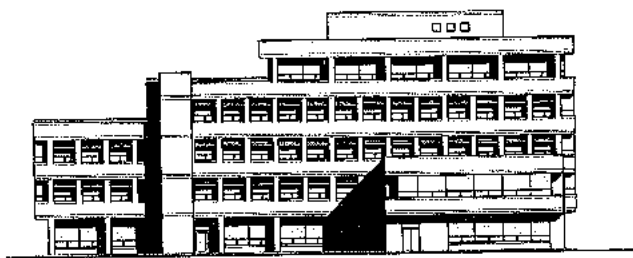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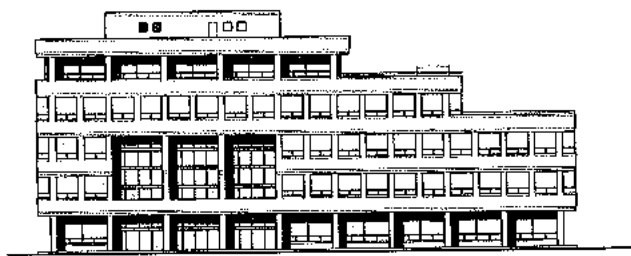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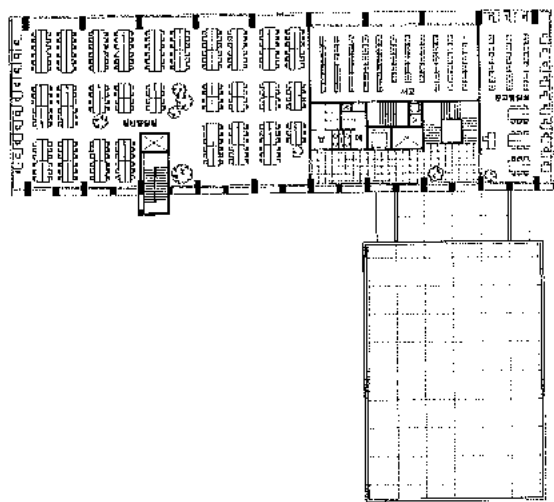
구조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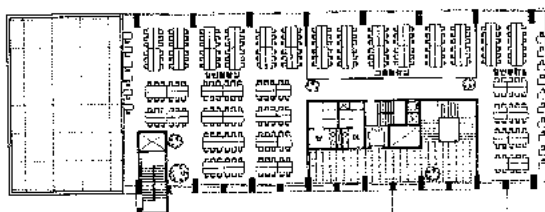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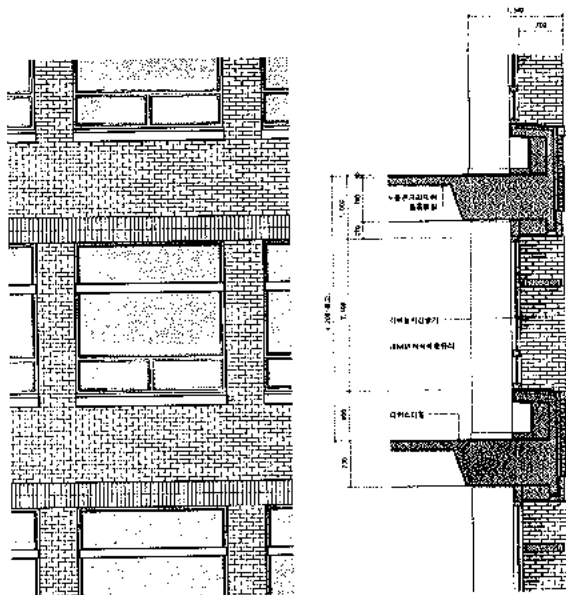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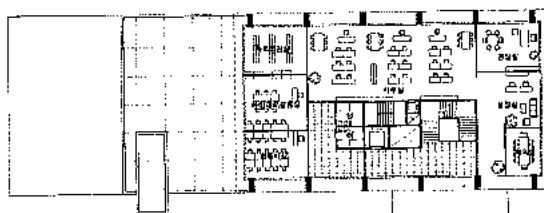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외벽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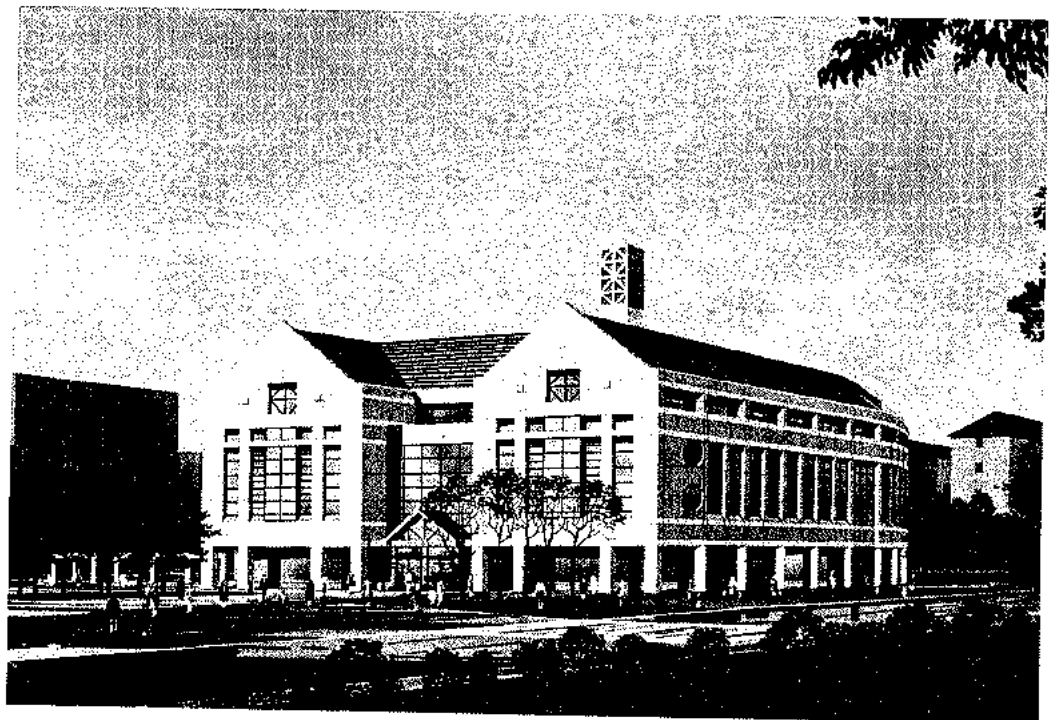


5층 평면도

정림건축 (金正澈) 案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Plan / Kim, Jeong-Cheol

◆ 건축면적 / 1,577m²
연면적 / 6,592m²
건폐율 / 37.1%
용적률 / 154.9%
층수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R.C 및 철골구조
외부마감 / 화강석 및 열선반사유리



■ 배치 및 평면계획

1) 배치계획

- 도시계획상의 전체적인 분구에서의 Terminus 성격을 부여
- 파리공원과 일체성을 갖게 함 (녹지공간에 흡수)
- 보행자 전용도로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하기 위해 전면 소광장을 앞마당 개념으로 흡수
- 건물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삼면에서 진입이 가능토록 함

2) 평면계획

- 이용자와 사무관리자의 동선을 분리, 사무·관리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별도 설치
- 도서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1층에 Community 관련시설들을 집중 배치
- 반 개가제에서 완전 개가제도의 전환이 가능토록 함,
- 가구배치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6.9m×6.9m 모듈을 기초로 한 변형 모듈 (6.9m+3.45m=10.35m) 채택
- 신체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별도 설치

■ 입면 및 단면계획

1) 입면계획

- 고전양식과 현대건축의 산뜻함이 조화된 학문적 분위기의 연출
- 박공지붕, 석조와벽, 원형Mass 등의 조합으로 온화하고 친근한 도서관 이미지를 구현
- 문화공간으로서의 상징성과 도서관으로서의 안정된 분위기, 그리고 주출입의 강한 흡입성을 구현
- 파리공원 및 소광장의 녹지와 어우러진 도서관 분위기를 연출

2) 단면계획

- 활력있는 내부공간을 위한 아트리움 설치
- 공간 상호간의 원활한 동선흐름
- 각실에 대한 충분한 일조 및 원활한 자연통풍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배치
- 4층은 일반열람실로 시간대에 따라 24시간 Zone의 별도 기능을 갖게 함
- 1층에는 공공시설을 두고, 2층에는 도서관 기능의 중추부분과 이용도가 높은 열람실을 둠
- 아동 및 주부, 노인열람실은 출입이 편리한 1층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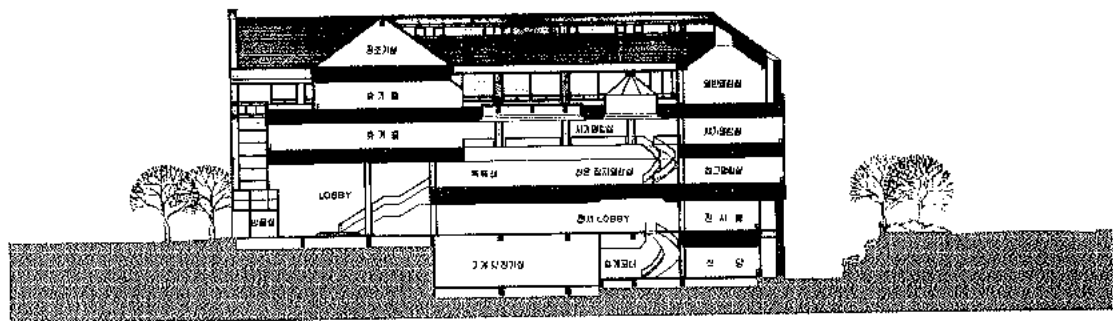
■ 구조 및 조경계획

1) 구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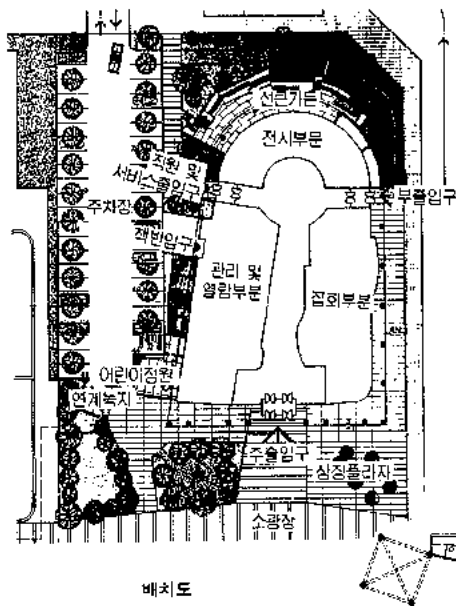
- 구조계획은 건축법·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 구조 기준 등에 의거 계획
- 구조형식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3층의 아트리움 상부 슬라브부분은 철골조로 계획하였다.
- 실내노출기둥은 건축의 장상 원형으로 계획하고 직경 80cm를 원칙으로 하였다.
- 설계하중은, 개가 열람실 : 750kg/m²
사무·관리실 : 300kg/m²

2) 조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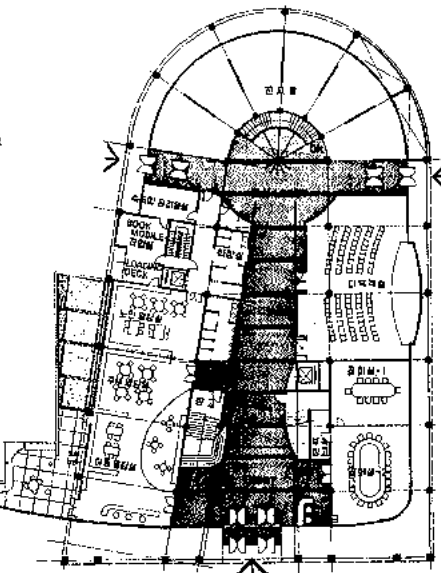
- Mounding : 대지의 안정성과 조정기능의 다양함을 수용
- Buffer Zone : 소음차단과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 아동열람실과 옥외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
- Sunken Garden을 두어 시각적인 즐거움과 여유있는 휴식공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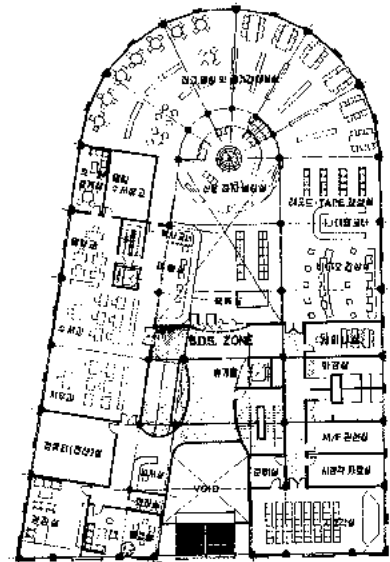
형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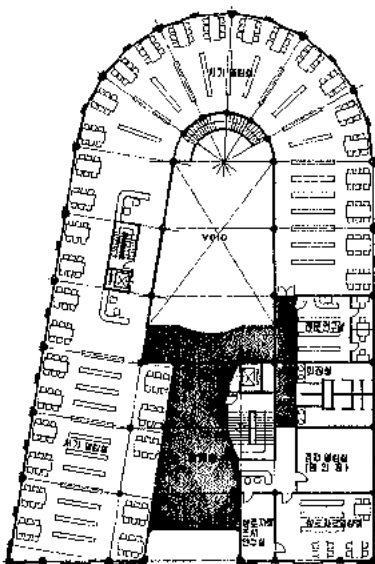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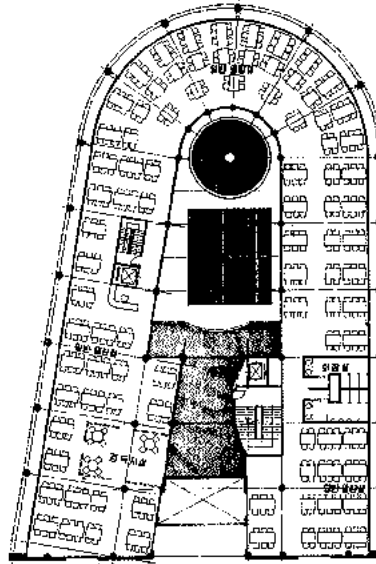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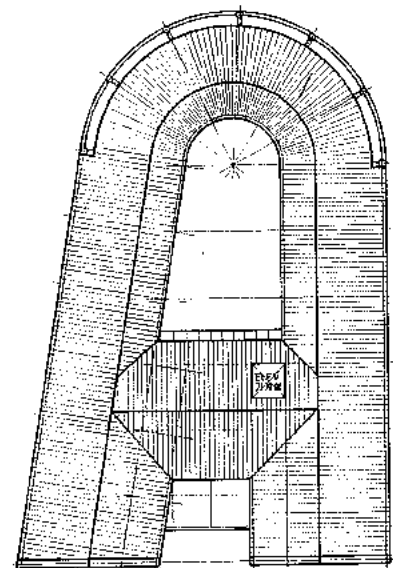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 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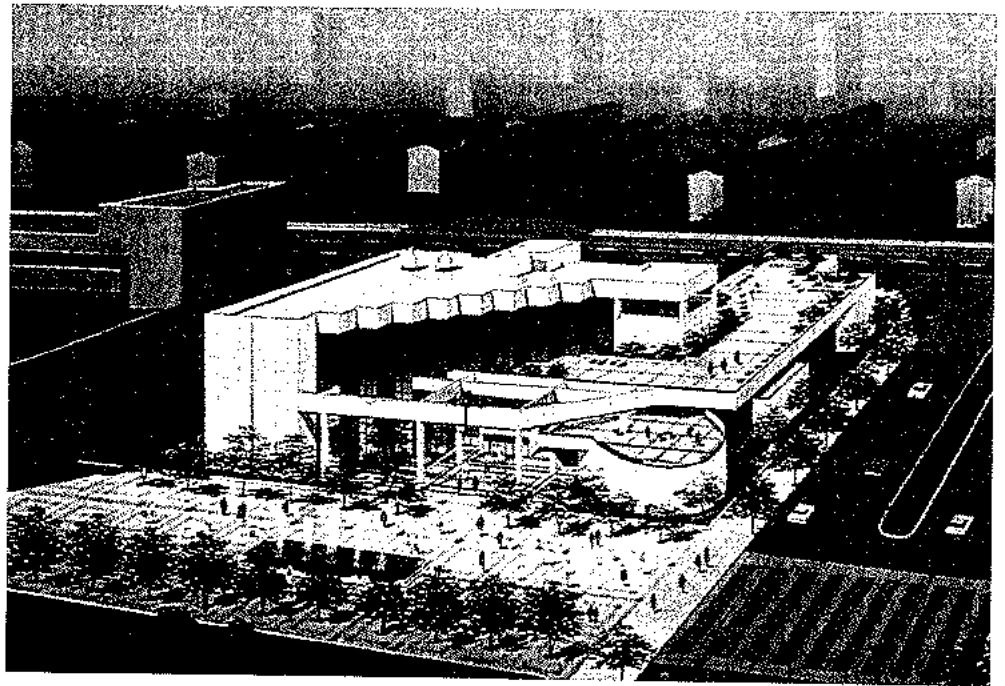


1000000

종합건축 (李承雨) 案

Chong Hap Architects & Associates Plan / Lee, Seung-Woo

건축면적 / 2,135m²
 연면적 / 6,909m²
 건폐율 / 50.18%
 용적률 / 126%
 층수 / 지하 1층, 지상 4층
 기준층고 / 4m
 기준층 천정고 / 2.7m
 설계모듈 / 8.1m × 8.1m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 백색외장타일, 백색알미늄
 푸레임에 복층 열반사유리
 주차대수 / 29대 (법정 28대)



■ 진입계획

동측 보행자 전용도로에서의 진입과 서측 아파트 단지에서의 보행자를 위주로 한 동서 보행자축을 설정

■ 배치계획

열람기능을 수용하는 Mass와 사무, 봉사 및 공공시설을 수용하는 Mass를 중앙 Lobby로 연결 배치하여 균형 형성

■ 조경계획

인접하는 기존건물(국제우체국) 및 북측 파리공원, 동측 보행자도로를 의식한 개성있는 외관 및 도서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형간격 추구

■ 공간계획

기존 도시설계에서 부여된 건축지정선을 기준하여 전면 및 후면 진입을 동시에 가능케 하고 각각 정원 및 조정공간, 구조물로서 완충공간을 형성, 시각적 안도감과 소음차폐 지향.
북측 파리공원의 훌륭한 조망을 최대한 이용하여 옥상정원 배치로 시각적 연속감 유도

■ 조형물 계획

동측 현관 입구에 건물의 골조만을 노출시킨 형태로 건물진체를 상징적인 조형물로 인식토록 유도.

■ 평면계획

- 중앙 로비를 중심으로 한 내부공간의 의식
- 피난 및 기능별로 균등히 이용할 수 있도록 Core 배치
- 동세부분 (개개열람실) 과 비동세부분 (자유열람실) 을 건물자체의 Mass로 구획

■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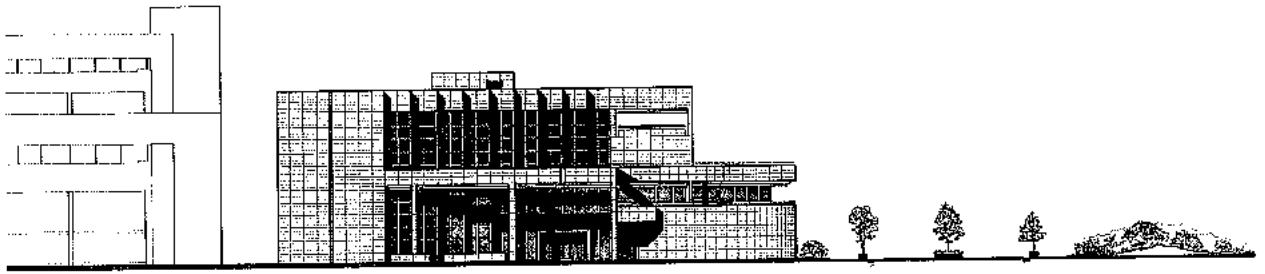
- 1층 중앙 로비를 통하여 각 열람실 및 사무, 관리기능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고는 관리 및 보관상 지하에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관련사무 및 출판관계는 전용계단 및 Book Lift를 사용하고 제시무실과 아동도서관 서고 및 차고는 1층에 배치하여 관리, 운영이 편리하도록 함.
- 아동, 주부 및 장애인 열람실은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함.
- 단시간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다목적홀은 별도의 출입구를 주어 동선을 분리하고 가까이

있는 계단을 통하여 상부 세미나실 및 각종 자료 열람실로 연결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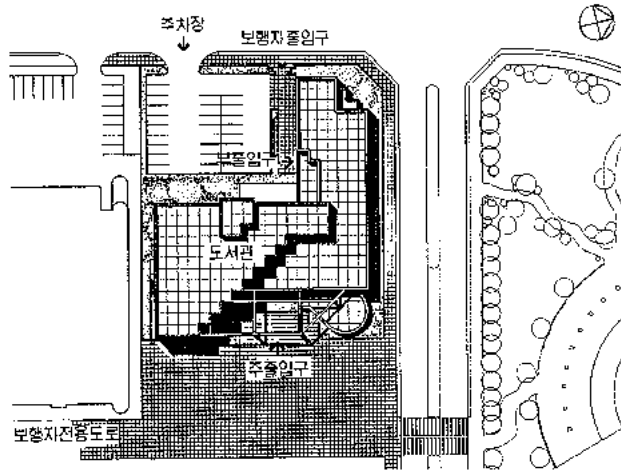
- 식당, 매점등 편의시설을 2층 전면에 두고 옥상정원을 두어 쾌적한 공간을 연출한다.
- 아동, 주부 열람실 및 간행물실, 참고열람실 등 성격이 개개 열람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실은 1층 및 2층에 배치하여 3, 4층의 자유열람실과 동선을 분리하여 각실의 고유 분위기를 유지토록 함.
- 각층은 2개의 직통계단을 이용하고 상에서 및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토록 함.

■ 구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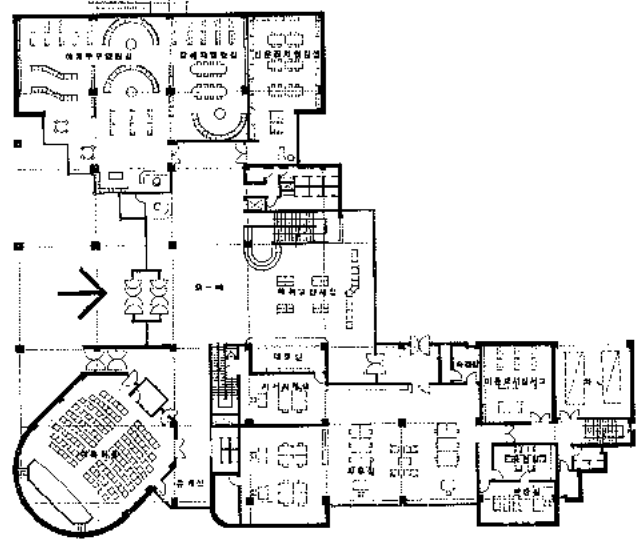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기초형식 : P.C Pile 위 독립기초
- 전층을 서가열람실 및 서고로 전용된 경우를 가정하여 Slab 설계시 750kg/m²으로 한다.
- 사용재료 강도 : 콘크리트 $F_c=210\text{kg/cm}^2$
 철근 $F_y=4,000\text{kg/cm}^2$
- 대한건축학회편 철근콘크리트 구조제안 규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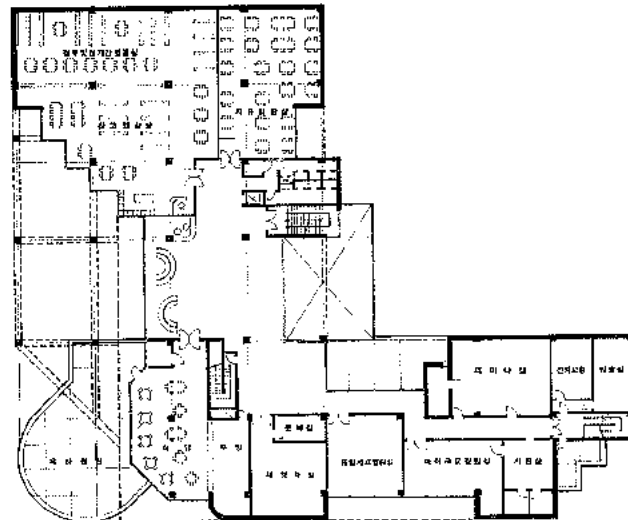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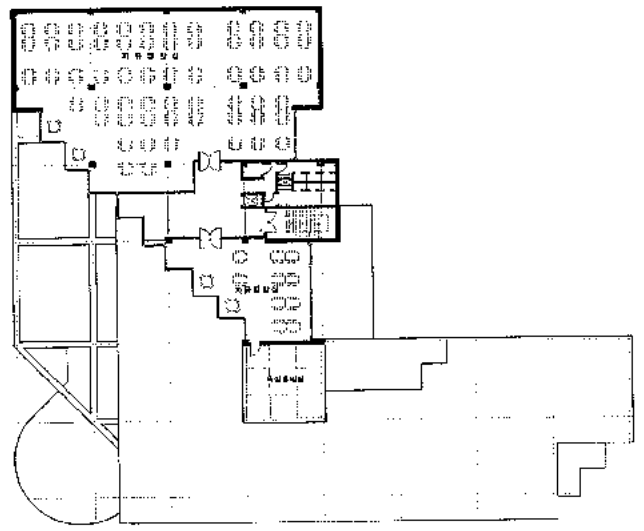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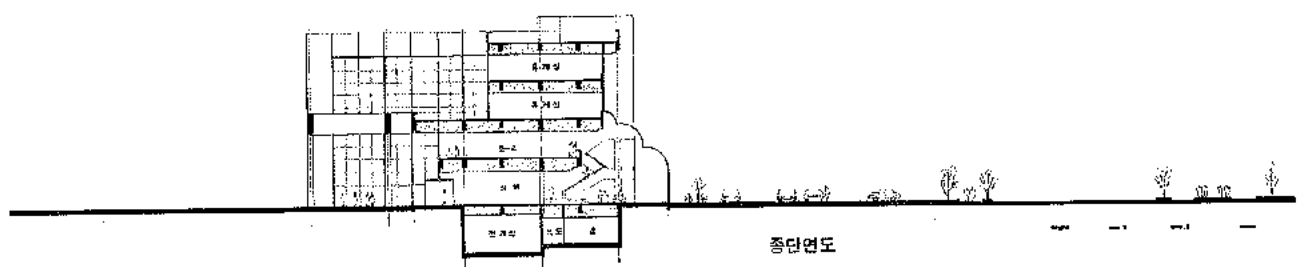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종단면도

아키프랜건축 (金宇成) 案

Archiplan Architects & Engineers Plan / Kim, Woo-Sung

건축면적 / 1,617m²

연면적 / 7,170m²

층수 / 지상 4층, 지하 1층

최고높이 / 23.15m

건폐율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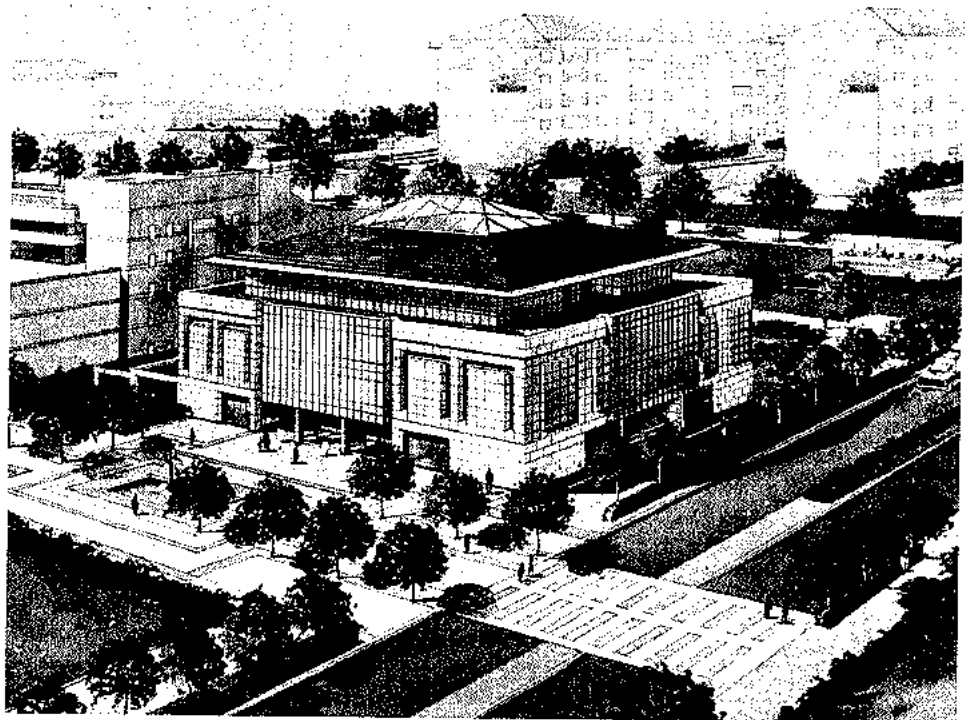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철골구조

설계모듈 / 6.9×6.9m, 6.9×10.35m,

6.9×13.8m

외부마감 / 화강석버너마감, 외장타일,

아스팔트성글, 열반사유리



■ 계획의 원칙

1) 지역커뮤니티 센터의 역할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장소제공
- 지역주민의 생활정보, 기술정보 제공

2) 주변환경과의 조화

- 목동중심지구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 파리공원과 연계되는 녹지의 체계화
- 전면 25m 도로에 의한 소음의 차단

3) 합리적인 동선계획

-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명확한 구분
- 이용자, 도서, 직원동선의 체계적 분리
- 문화공간 이용자와 상여자를 위한 원활한 동선처리

4) 형태와 외관

- 원근감을 주며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상징성추구
- 사방성 있는 건물의 형태
-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조형

5) 유지관리의 경제성

- 관련기능을 인접배치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성 증진
- 에너지절약 (자연채광, 일사조절) 계획
-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내구적인 자재 선정

■ 배치계획

- 합리적인 토지이용
- 접근동선의 체계적분리 (이용자 + 직원 + 서적 반입)
- 파리공원의 Green과 연결시키는 Green의 체계화
- 진입도로에서부터의 진입 용이성 추구
- 건물 전, 후면 동시출입 기능
- Pilotis 처리

■ 평면계획

- 1) 공간의 Flexibility 추구
 - 중심Core로 하여 공간의 연계성 강화
 - Modular Planing
- 2) 공간의 쾌적성 추구
 - 파리공원의 자연경관 실내에 최대한 유입, 중별 휴식공간
- 3) 편의성 제고
 - 유사기능의 인접배치
 - 장애인 이용에 대한 고려

■ 입면계획

- 1) 전통건축 형태요소 + 현대적 형태요소
 - 기단부 + 본체부 + 지붕부 3분 구성

- 전통창살Pattern + Grid Pattern, 화강석 + 유리

2) 상징성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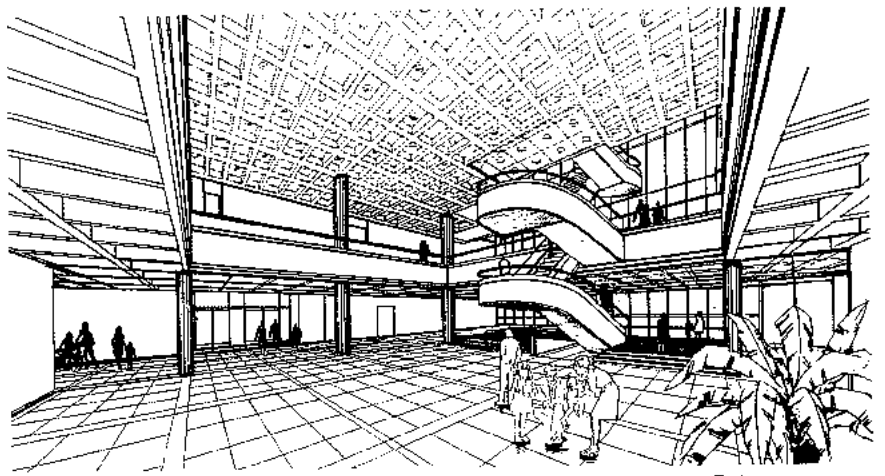
- 사방성 (25m 순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파리공원) 있는 건물로 표현
- 좌우대칭의 공공도서관의 Image 부각

3) 친근감 있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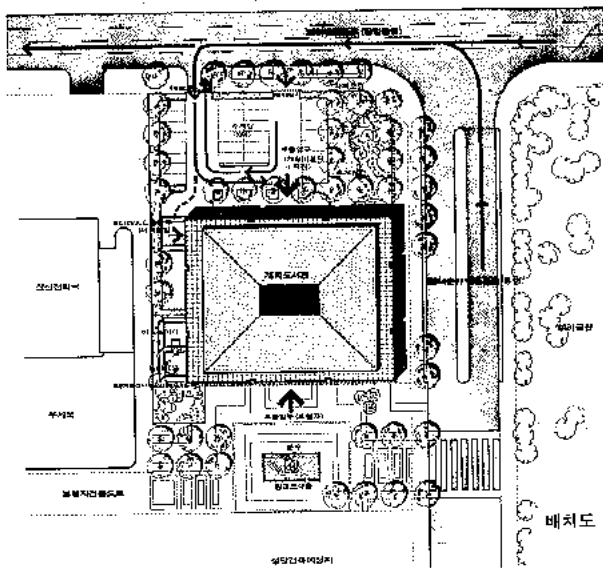
- 개방적인 중심부 개구부와 Pilotis 처리 및 4층부의 벽면선 후퇴로 Scale 의 순화
- 주변 고층아파트 단지에서 내려다 본 경관을 고려하여 지붕요소 도입

■ 단면, 구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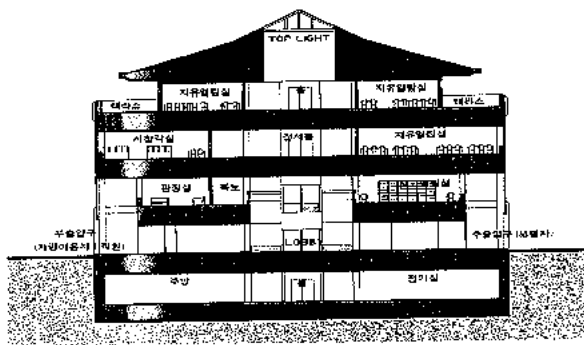
- 내부공간을 Major Space + Human Space로 구성
- 파리공원의 자연경관에 대한 시야개방
- 직, 간접채광에 의한 쾌적한 실내분위기 연출 (유영비 절감)
- 4층 Terrace에 옥상정원 / 휴게공간 조성
- Post Tension 구조시스템에 의한 Waffle Slab를 적용
- 넓은 공간을 구성하여 실이용의 극대화 및 융통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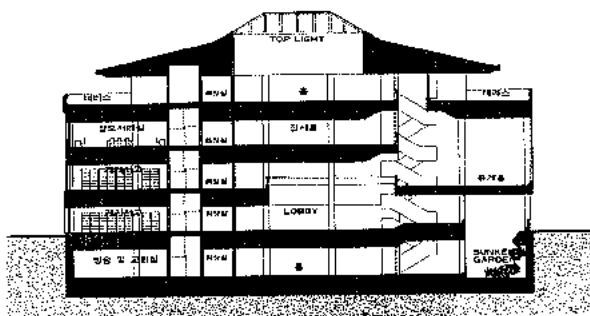
실내 로비 루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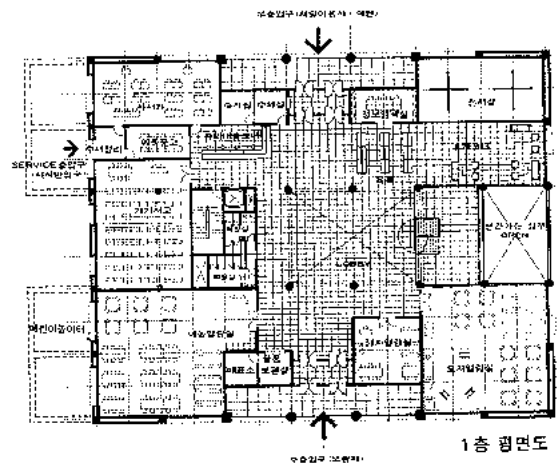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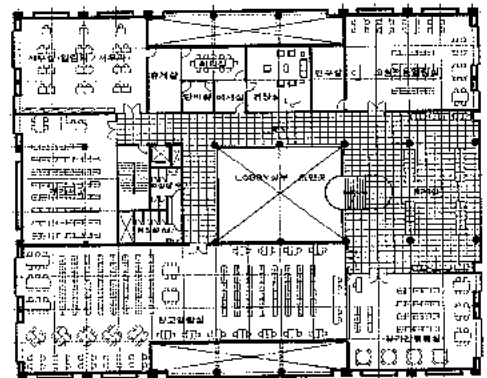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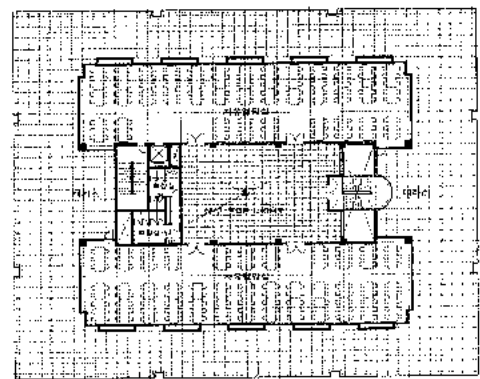
횡단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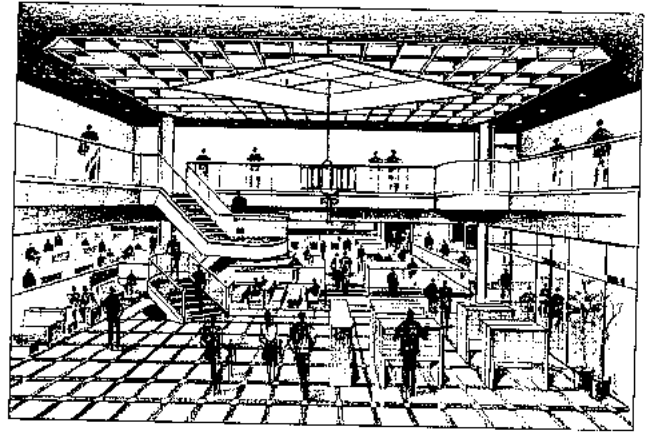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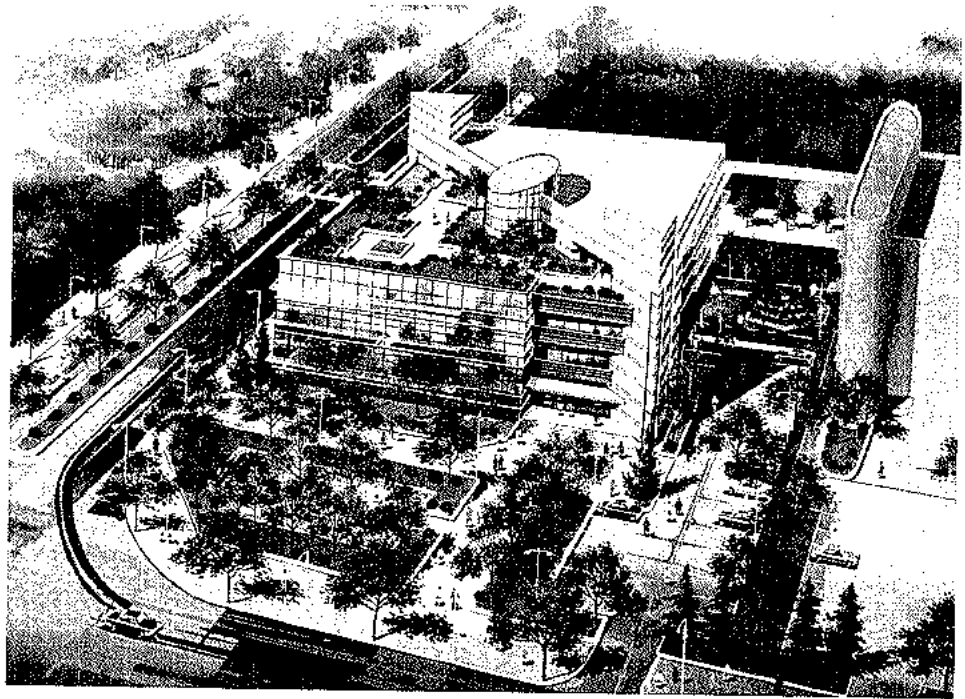
이공건축 (柳春秀) 案

Beyond Space Group Plan / Ryu, Choon-Soo



실내투시도

◆ 건축면적 / 1,319.57m²
 연면적 / 6,743.31m²
 건폐율 / 31.01%
 용적률 / 158.53%
 주차대수 / 27대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방식 / 철근 CONC. Post Tension 구조
 주요외장재 / 화강석 24mm복층반사유리 + AL



■ 계획의 기본원칙

- 1) 건물흡인력 및 인식성 강화
 - 문득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친근하고 비 권위적인 건물로 조성 (Stop-Over)
 - 입구가 도로에서 가깝고 높지 않고 밝게 한다.
 - 전망이 좋고 느긋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2) 문화활동의 중심
 - 인근의 문화 복지시설과 연계성을 높인다.
 - 장기적으로 수험, 학습기능 우선에 지향하고 교양과 문화적 활동을 강화한다.
- 3) 도서관기능의 현대화
 - 종래의 자료보존기능 중심에서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을 수용한다.
 - 첨단 정보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 4) 단순하고 합리적인 구성
 - 이용자와 관리자의 동선을 명확히 한다.
 - 전체 도서관의 기능을 단순, 명쾌하게 한다.
 - 장래의 도서관 성장에 대비한다.

■ 구조계획

본 계획의 구조방식은 12.6m×12.6m Span의 「Post-Tension」 구조로 계획하였다.

도서관의 내부공간에 강스팬의 구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열람실 및 서고등 기능실의 내부기둥을 배제시켜 실내치 및 가구배치에 융통성을 주고 보다 쾌적한 내부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재의 운반등 시공성을 제고시키고 구조의 강성을 높여 보다 내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다.

■ 서고 증설계획

장래 도서관의 성장에 따라 장서량도 필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본 계획에서는 지하층 층고 6.0m를 활용하여 증축시 적층서고화 할 수 있도록 수직 여유 공간을 마련했다.

즉, 이 방식을 활용한다면 현재 11만6천권을 수용할 수 있는 서고는 8만4천권을 더 수용할 수 있으므로 적층서고 증축후의 총장서 수용량은 20만권으로 증대된다.

■ 조경계획

1) 계획 일반사항

- 재공간의 기능에 적합한 수종의 선정
- 공간 상호간의 완충기능에 필요한 녹지의 조성

- 다양한 녹음공간의 제공 : 옥상정원, 실내조경, 옥외농지, 선관기

- 목동 단지내 기존 식재와의 연결성 강화
- 건축과의 조화 : 화강석 벽체

2) 식재수종

- 상록고목 : 소나무, 스토브 잣나무
- 낙엽고목 : 회화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홍단풍, 목련, 꽃사과
- 상록관목 : 화양목, 눈주목
- 낙엽관목 : 영산홍, 철쭉류, 쥐동나무, 개나리

■ 설비방식

1) 공기조화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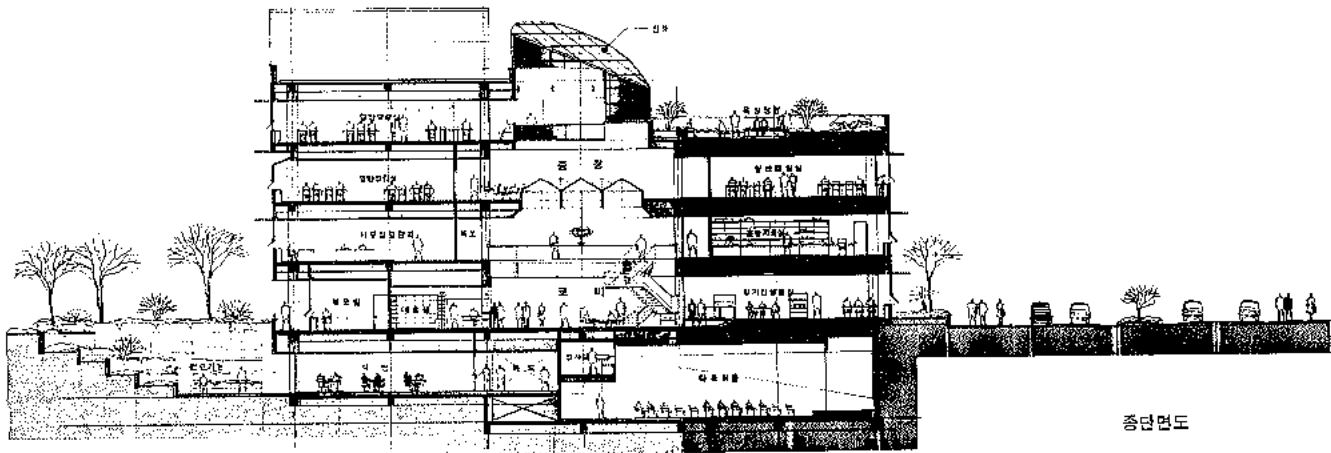
건물전체를 방위별 남·북 Zone으로 구획, 외주부는 제코일유니트로 결로현상 및 부하를 담당하며 내주부는 정풍량 단일 덕트방식으로 선내발열량 및 공기청 정도를 유지토록 한다. 사용빈도가 일정치 않은 다목적실은 PAC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

2) 열원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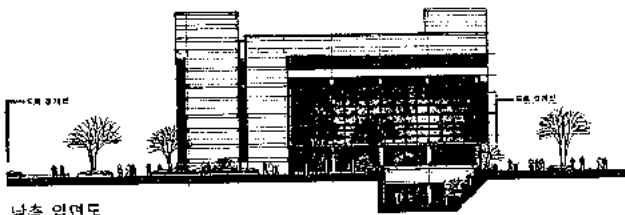
온 열 원 : 단지내 열병합 발전소 이용 (지역난방관 공급)

냉 열 원 : 별도 냉동기설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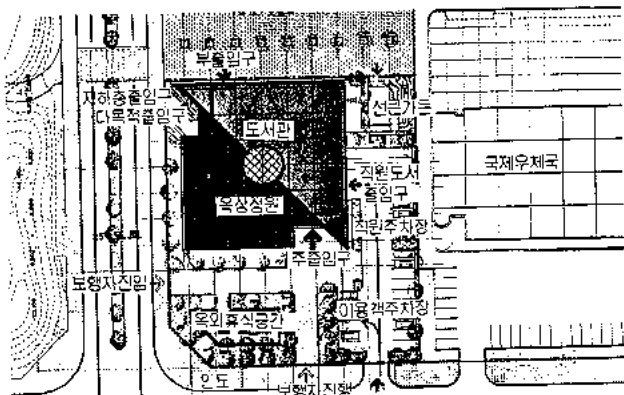
보조열원 : 주방 및 기숙용 스팀보일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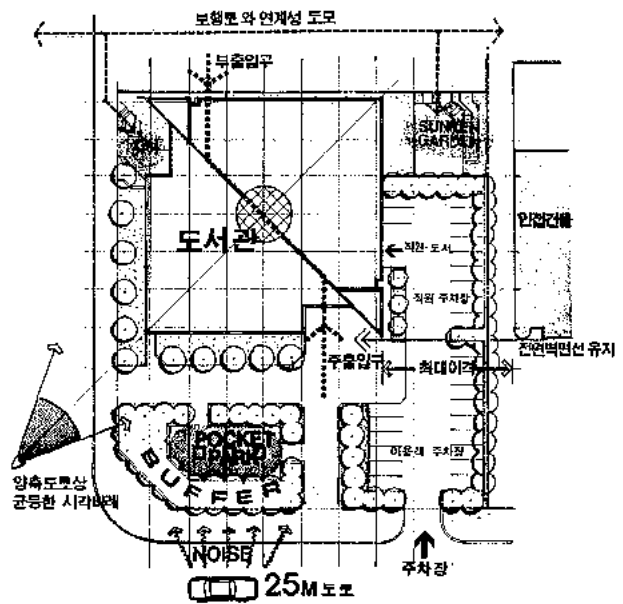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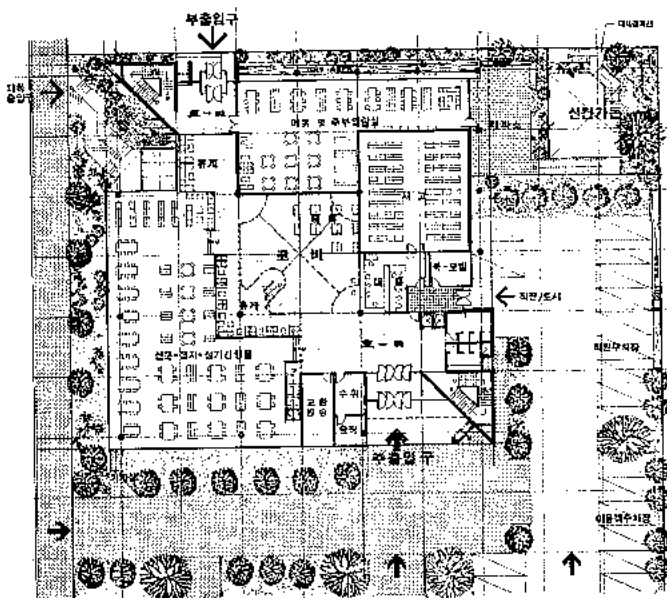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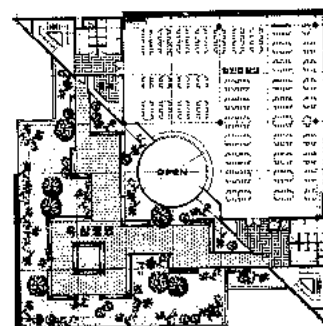
배치도



배치 개념도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綜合建築 35년에 즈음하여

尹錫祐 / 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 序

어느새 코트를 입어야 할 계절로 바뀌었다. 새삼스레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금년 겨울은 춥지않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 한해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니 종합건축이 지나온 35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면 결코 긴 세월이 아닌듯도 하다. 흔히 우리는 지난 일들을 생각할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또 미화시키는 버릇을 갖고 있다. 과거를 아름답게 생각하려는 人間 本性和 현실에 對한 불만족을 옛날로 회귀시켜 카타르시스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한때 어우러져 그렇게 느껴지나 보다. 주위에서는 종합건축이 35년이냐 되었으니 그 연륜으로만 생각해도 대단한 歷史라고들 했다. 한국건축의 “메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몸담고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우린 항상 새로움에 직면하고 그만큼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때문에 더더욱 외로운 싸움을 해 왔는지도 모른다.

4반세기를 綜合에 몸담으며 이 올라타가 뒀가모를 강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음을 항상 느껴왔다.

때로는 作業에 몰입해 時間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걸맞지 않는 현실에 울분과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며 이런 「종합」을 떼어내고는 建築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사람의 운명이란건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어인것 같다. 35년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보다 전후 지금까지의 세월동안 지속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그동안의 경과를 그리고 기억나는 일들을 적어 보기로 한다.

• 綜合建築과 1950년대

建築史的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近代建築은 西洋의 그것과는 시기적으로나 형성과정상 무척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쩌면 그런 기간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다. 고전, 낭만, 절충 등의 사조는 쇄국정치와

西學배제로 수입될 틈이 없었고 20 세기 초반의 근대건축운동도 일제에 의해 한번 걸러지고 수입된 까닭에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다. 더구나 해방이전까지 한국민의 손으로 설계되어진 건물은 수를 헤아릴 정도로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존폐위기를 겪은 전쟁을 치르고 난후 우리의 도시는 폐허화되다시피 했다. 綜合建築이 처음 빛을 올린때다. 당시 이천승선생이 설계한 종로2가 YMCA 맞은편 영보빌딩에서 몇개의 설계해상을 놓고 폐허복구작업부터 시작한 때가 1953년 9월 7일 월요일이었다. 이러한 태동의 계기는 당시 설계사무소의 不在상황에서 건축과 출신의 연구실 및 작업실의 필요를 느낀 故 김정수선생과 일제치하에서부터 작업활동을 해오고 있던 이천승선생과의 의견이 일치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듣고 있다. 이 시기에 綜合에 관계하신 분이 이천승, 김정수선생을 비롯하여 최종환, 지철근, 윤정섭, 이취선, 강진성, 이승우氏 등이었으며 이균상, 박인준선생이 고문의 역할을 맡았었다. 초기 몇년을 복구사업에 할당하고 그후 신신백화점(1956), 명동 성모병원(1958), 국제극장(1957), 시민회관(1956), YMCA 본관(1960), 장충체육관(1960) 등을 초기 작품으로 남겼다. 이때의 건물들이 매우 합리주의적인 경향을 띠었는데 Mass 에서는 대창적인 안정감이 작품전반의 기초를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국내의 많은 현상설계에 응모했는데 그중 생각나는 것이 남대문 교회(1954. 1등, 2등당선), 이화여자 대학교 강당(1955. 1등당선), 공군본부청사(1956. 1등당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사 (1957, 1등당선) 정부종합청사(1967. 1등당선) 등이다. 막걸리값 정도되는 월급과 설계도구도 변변찮은 때였는데 밤을 새어가며 작품을 해낸 것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다. 내가 입사한 것이 종합건축탄생후 10여년이 지난때였는데(종로시절의 후반기였다) 선배님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주변에서 사무실에 어떤 사례라도 할라치면 이천승

선생께서는 꼭 필요한 물품—스케일
△자등—으로 대신하도록 하셨다고 한다.
현상설계에 응모하는 방법도 사무실내에서
각자 여러가지의 案을 만들게 하고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토론하도록 하였는데
그중 안영배, 송종석팀은 가히 명품이었다고
한다.

• 明洞에서—

종로생활 16년동안 가라성같은 선배님들도
많이 거쳐가셨고 에피소드도 많은데 점잖은
지면에 일일이 기록할 수도 없고 1960年代
후반부터 시작된 명동시절을 회고해 본다.
이때는 국내 상황도 많이 호전되었고 16년간
종로에서 닦아온 터(?)도 있고 지금의
이승우 선생님의 패기도 대단해서 꽤많은
작업을 했던 때이다. 주요작품은
한국자동차보험(1969),
종합교통센터(1970),
ASPAC 문화센터(1970), 한국과학원
전체계획(197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1972), 울산공대
도서관(1972), 국회의장공관(1973),
서부역사(1973), 서울대학교
실내체육관(1973),
제2정부종합청사(1974),
미즈백화점(1975), 한국증권거래소(1975),
제외공무원지녀 기숙사(1977), 신라호텔
영빈관(1977), 사우디아라비아 스쿨(1977)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주로
철근콘크리트의 가소성을 나타낸 건물과
世人들이 얘기하는 극히 종합적인(?)
건물들로서 綜合의 어휘가 깊히 자리한
때였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건재한 이
시기의 작품들을 보며 남다른 감회에
젖는것은 모서리 모서리마다 땀방울이
금새라도 다시 배어날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까? 이때 같이 고민하던 동료들이 이제
각자 종전작가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건축에 심취하고 있음을 보면 그시절이 무척
중요했던 때임을 새삼 느낀다.
脈, 흔히 우린 그것을 脈이라고 불렀다.
개개의 특출한 個性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그 개성들이 뒤바뀌고

세대가 교체되어도 여전히 지켜지는 집단의
性格을……, 좀더 거창하게 얘기해서
“전통”이라고도 했다.

우리가 명동을 떠날때는 이미 종합이
태어난지 25년이 지났으니까 초기의
선구자이신 선배님들은 대부분 자리를
달리하셨지만 우린 그 “脈”을 가지고
낙원동의 新사옥으로 옮겨왔다. 1970年代
후반이었다. 정치도, 경제도,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건축인의 사고방식도, 자세도,
그리고 건물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 낙원동의 사옥을 지키며

애벌레는 해마다 껍질을 벗고 있다.
거듭나고 있는 기간이라는 생각도 든다.
작품의 규모로 보면 더 커지고 어려워지고
새로 종합에 발을 들여놓는 젊은 건축학도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작품에 임한다. 복잡한
세상을 옆에 두고 어떤 더 예치롭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더 전문적인
노우하우가 필요해졌고 체계적인 작업방식이
도입되어야 했고 최신 기자재를 이용해야
했다. 항상 시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쁜
세상을 가끔씩 원망도 해 본다. 여기서
이북한 우리의 作品은 옛날의 것도 아니고
지금의 숨결을 아직 지니고 있으니 새삼
해고할 이유가 없는 듯 하다.
오늘 다시한번 35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소년기를 새한 내 人生 전부다. 어떤
등산기는 고지에서 항상 허탈함을 느낀다고
했던가. 그리고 더 높은 봉우리를 발견해야
다시 살고 싶은 활력과 도전감에 사로
잡힌다고 했던가. 끝없는 봉우리의 연속,
더높은 봉우리가 있음을 항상 알기에 오늘도
지칠줄 모르고 책상의 불을 밝힌다.
그동안 綜合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한다. 지금의 종합이 있음은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노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리라.
또다른 35년을 맞이하고자 어둑어둑해지는
낙원동의 모퉁이를 지키다. 지나간 時間에
對한 알수 없는 향수를 집어든채….

한국의 목재구조 건축

Wood-Frame Construction For Korea

미국 국립 목재생산협회

by The National Forest Products Association

한국의 목재구조 건축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단위 주거용 건물은 목재가옥이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가족 단위 목재주택은 이제 국내에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목재자원의 사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강철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그 위치를 내어 주었다. 게다가, 단독 주택용 도시의 엄청난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고안된 대규모 고층 아파트에게 밀려났다. 그러나, 목재주택시대가 되돌아 오고 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고급 저층 주택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고 있으며, 목재 건축 자재는 현재 경쟁력있는 조건으로 해외로부터 얻을 수 있다. 목재구조 건물은 건축공사 및 냉난방에 경제적이고 거주자들에게 최대의 안락함을 제공해 준다. 주택건설에 있어 목재구조물에 필적할 수 있는 자재는 거의 없다. 목재건축은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택양식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목재는 미국에서는 기준 건축 자재이다. 거기서 사용하는 건축기술과 방법은 건축가 및 주택건설자들을 기업화함으로써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채택될 수 있다.

기본적인 사항

효율적인 설계, 적합한 자재 및 건전한 건축은 만족스러운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3가지 핵심적인 요소이다. 직사각형의 설계가 여러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반면, 그것이 반드시 최중적인 설계를 지배하지는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전체가 지하실을 갖고 있는 적당한 주택의 직사각형 설계는 현관문 크기를 다르게 한다거나 거실을 넓게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현대의 여러 주택설계에는 천장 들보 및 서까래로 사용될 수 있는 편편하거나 경사가 적은 지붕이 포함된다. 이것은 경사진 지붕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자재나 노동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주택이 그러한 지붕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어떤 설계는 경사진 지붕에 대하여 품질이 좋고 이미 조립된 지붕

트러스를 이용한다.

주택건축가가 여러가지 건축 세부사항 및 자재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면 전반적인 주택 건축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주택비용이 다소 감소될 수 있는 첫번째 분야가 설계단계이다. 주택의 규모 즉 넓이와 길이는 표준 길이의 둘보이어야 하며, 서까래와 표준 공간면적은 자재의 낭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올바른 자재

표준 크기의 자재를 사용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주택의 질이 개선된다.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자재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크기로 구입할 수 있다. 설계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치수와 일치시킬 수 있는데 이로인해 설계 뿐 아니라 건축도 덜 복잡하게 된다. 기초 공사용 목재, 장식 자재 및 판넬제품들은 한국의 건축 표준에 쉽게 채택될 수 있는 크기로 생산된다.

에너지 절연 효과

주택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재는 약간의 절연 효과를 갖고 있다. 대기공간이라 하더라도 열의 통과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그러나, 목재구조물에는 추가로 에너지 보존 기능치가 있다. 벽에 사용된 목재가 훌륭한 절연 효과를 제공하지만 통상 열 통구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에 판매되는 절연재를 노출된 벽, 천장 및 마루에 집어 넣는다. 최근 절연재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기후가 따뜻한 곳에서 절연재를 사용하는 것은 에어컨디션 장치에 의해 조정 되는데 이것은 운영비 절감 뿐만 아니라 보다 적은 용량의 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추운 날씨 속에서는 열 이동에 대한 높은 저항성이 또한 연료의 절약 효과를 가져다 준다. 가옥의 형태 및 방향, 창문의 크기 및 위치, 차양시설 및 바람의 형태를 포함한 자연적인 기후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추가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활발하지 못한 태양열 난방과 자연난방 시설을 사용하면 에너지

비용을 더욱 삭감할 기회가 생긴다.

세심하게 설계하고 열의 보호를 받도록 한 완전 불활성 태양 주택에서는 난방비용이 기후, 위치, 기타 다른 요인에 따라 줄내지 올정도 절감될 수 있다.

기초 공사물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두가지 기초 공사물 유형은 콘크리트 및 압력 보존식 목재이다. 여러가지 유형의 콘크리트 기초 공사물 가운데 가옥 설계에 지하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초 벽에는 콘크리트 불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속이 빈 콘크리트 불력이 다른 콘크리트 기초 공사물과 비교해 볼때 가장 절연 특성이 좋다. 콘크리트 기초 공사물에 대한 대체품은 압력식 목재기초 공사물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보다 많은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불력과 동일한 절연 효과를 제공해 준다.

결 론

상기 내용에는 목재구조물 가옥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비결과 장점이 일부 망라되어 있다. 전체 공정이 한국의 주택 건축 취향과 기준에 맞게 채택될 수 있다.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고 잘 건설된 목재구조 가옥은 수백년간 견딜 수 있음이 경험에 의해 드러났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목재구조 가옥은 재질이 낡게 되고 구성품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쉽게 대체 및 수선하여 건물의 전반적인 외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보다 오래된 많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기간의 주거지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인상에도 기여를 하는 외관상의 훌륭한 특징이 개발되고 있다. 목재의 다용도성은 새롭게 개선된 기술과 더불어 장차 주거용, 산업용, 축조용 및 장식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다 많은 가망성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

Wood-Frame Construction For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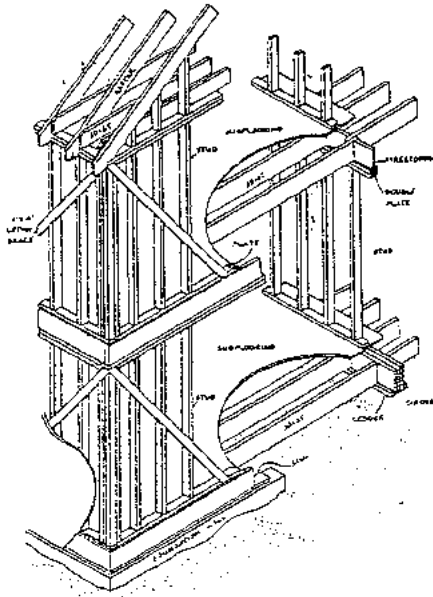
For centuries, the traditional family housing structure in Korea was the wooden house. In the past thirty years, however, family-style wooden houses have given way to steel and concrete structures designed to minimize the use of wood, a resource which became scarce domestically. Moreover, the single family house gave way to large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designed to meet the pressing housing needs in urban areas.

But the wooden house is making a come-back.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has resulted in new demand for quality, low-rise housing and wood construction materials are now competitively available from abroad. Wood frame buildings are economical to build, heat and cool and provide maximum comfort to occupants. Few, if any, materials can compete with wood framing in the construction of houses. Wood construction is readily adaptable to traditional, contemporary and the most futuristic building styles. It's a standard material in the United States. Building technology and construction methods used there can be successfully adapted in Korea by enterprising architects and homebuilders.

The Basics An efficient design, suitable materials and sound construction are three essentials to building a satisfactory house. While a rectangular plan is the most economical from many standpoints, it should not always govern final design. For example, a rectangular plan of the house proper, with a full basement, can be made more desirable by a porch wing of a different size or the extension of family meeting rooms. Many contemporary house designs include a flat or low-pitched roof which allows one type of member to serve as both ceiling joists and rafters. This generally reduces the cost compared to that of a pitched roof, both in materials and labor. However, not every style of house is adaptable to such a roof. Alternatively, some designs allow for high quality, preassembled roof trusses for pitched roofs.

The overall cost of a home may be reduced noticeably if the home builder pays attention to various construction details and to the choice of materials. The first area where cost of the house may be reduced somewhat is during

Platform Frame Construction



the design stages. The size of the house, width and length, should be such that standard-length joists and rafters and standard spacings can be used without wasting material. **The Right Materials** The use of standard-sized materials greatly reduces costs and improves construction. In the United States, virtually all housing construction materials are available in commonly used sizes. Designs can conform to commonly used dimensions, making them and the construction less complicated. **Framing lumber, trim materials and panel products** are produced in lengths that can be easily adapted to Korean building standards. **Energy Insulating Efficiencies** Most materials used in houses have some insulating value. Even air spaces resist the passage of heat. However, wood-framing provides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energy conservation. While the wood in the walls provides good insulation, commercial insulating materials are usually incorporated into exposed walls, ceiling, and floors to increase the resistance to heat passage. The increased use of insulation in recent years has resulted in significant energy savings. The use of insulation in warmer climates is

本稿는 미국 국립목재 생산협회가 목재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세미나를 기획하며 본원회에 기고한 글입니다.

□ 편집자주 □

justified with air conditioning, not only because of reduced operating costs but also because units of smaller capacity are required. During cold weather, high resistance to heat flow also means a saving in fuel. Additional savings are possible by incorporating natural climate control which includes shape and orientation of the house, size and placement of window, shading, and wind patterns. The use of a passive solar heating and natural cooling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duce energy costs even further. In a completely passive solar home that is carefully designed and thermally protected, heating costs may be reduced by as much as one-half to two-thirds depending on the climate, location, and other factors.

About Foundations. Two commonly used foundation types are concrete and pressure preservative treated wood. Of the various types of concrete foundations, concrete blocks are recommended for foundation walls if the house design includes a basement. The hollow concrete block provides the best insulating properties compared to other concrete foundation types. An alternative to concrete foundations is a pressure-treated wood foundation, which, in some cases, offers the same insulating quality as concrete block as well as an even greater cost reduction.

Conclusion

The above outline covers some general tips and advantages of building a wood framed house. The entire process can be adapted to Korean housing tastes and standards. Experience has shown that a properly maintained and well-built wood frame house can last for periods of several hundred years. In most instances, worn materials or outdated components of the wood-frame home can be easily replaced and renovated to maintain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structure. Furthermore, many older dwellings develop highly desirable attributes and qualities of appearance over time which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value as well as serving as a long-lasting domicile. The versatility of wood, combined with new and improved technology, promises even greater opportunities for residential, industrial, structural and decorative uses in the future.

1988년 11월분 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1월분 3,759,016m²보다 9.9%증가(373,391m²)한 4,132,407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1 - 11월 합계한 전년누계 48,060,046m²보다 30.2%증가(14,513,604m²)한 62,573,650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 월 비

지난 10월분 4,039,056m²보다 2.3%증가(93,351m²)한 4,132,407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概況 (地域別 増減狀況)

(연면적기준) (전년동월비)

(단위 M²)

구	분	87년도	88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722,011	895,769	173,758	24.07%
	인천지부	128,545	309,505	180,960	140.78%
	경기지부	655,303	1,003,864	348,561	52.19%
	강원지부	98,662	142,668	44,006	44.60%
	충북지부	89,081	151,882	62,801	70.50%
	충남지부	157,489	213,943	56,454	35.85%
	전북지부	97,089	135,341	38,252	39.40%
	경남지부	377,689	714,428	336,739	89.16%
감소지역	대구지부	346,137	153,730	(192,407)	-55.59%
	전남지부	159,840	131,031	(28,809)	-18.02%
	경북지부	256,969	242,253	(14,716)	-5.73%
	제주지부	43,279	37,993	(5,286)	-12.21%
	부산지부	327,622	0	(327,622)	-100.00%
	광주지부	299,300	0	(299,300)	-100.00%
합	계	3,759,016	4,132,407	373,391	9.93%

全國圖書申告概況 (種別前月 對比狀況)

(연면적기준)

(단위 M²)

종	별	10월분	11월분	증·감	비율(%)
단	독주택	592,549	276,559	(315,990)	-53.33%
다	세대주택	126,573	83,910	(42,663)	-33.71%
연	립주택	69,039	48,035	(21,004)	-30.42%
아	파트	716,709	1,073,708	356,999	49.81%
근	린생활시설	1,072,972	639,746	(433,226)	-40.38%
종	교시설	36,249	40,896	4,647	12.82%
외	료시설	10,552	11,680	1,128	10.69%
교	육연구시설	106,230	139,858	33,628	31.66%
업	무시설	251,913	491,691	239,778	95.18%
숙	박시설	66,998	104,561	37,563	56.07%
공	장	648,870	821,413	172,543	26.59%
기	타	340,402	400,350	59,948	17.61%
계		4,039,056	4,132,407	93,351	2.31%

* 10월 부산 11월 부산·광주지부 도서자료 누락

支部別 全國圖書申告現況 (11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지부	545	582	831,162	94	102	64,607	0	0	0	639	684	895,769
부산지부	0	0	0	0	0	0	0	0	0	0	0	0
대구지부	429	466	119,952	772	738	18,554	50	50	15,224	1,201	1,254	153,730
인천지부	179	242	270,142	25	32	30,002	12	12	9,361	216	286	309,505
광주지부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지부	805	1,018	863,177	162	184	109,125	62	62	31,562	1,029	1,264	1,003,864
강원지부	220	281	89,662	73	92	42,518	13	32	10,488	306	405	142,668
충북지부	268	330	128,067	81	92	16,430	32	42	7,385	381	464	151,882
충남지부	396	407	153,098	134	134	39,861	62	62	20,984	592	603	213,943
전북지부	148	167	100,731	55	62	27,494	28	28	7,116	231	257	135,341
전남지부	234	259	99,816	136	145	28,742	10	10	2,473	380	414	131,031
경북지부	298	380	161,129	124	154	77,357	20	20	3,767	442	554	242,253
경남지부	917	1,103	597,994	425	508	108,365	37	37	8,069	1,379	1,648	714,428
제주지부	145	166	35,034	43	43	2,959	0	0	0	188	209	37,993
합 계	4,584	5,401	3,449,964	2,074	2,286	566,014	326	355	116,429	6,984	8,042	4,132,407

支部別 全國圖書申告現況 (1月~11月)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지부	23,427	24,255	11,862,136	2,105	2,204	888,506	0	0	0	25,532	26,459	12,750,642
부산지부	11,076	12,667	4,047,453	3,030	5,355	517,559	442	462	146,435	14,548	16,484	4,711,447
대구지부	6,916	7,554	2,536,062	5,157	3,393	377,870	331	331	97,242	12,404	13,278	3,011,174
인천지부	5,290	5,628	4,221,076	470	513	233,037	178	179	66,009	5,938	6,320	4,510,122
광주지부	3,813	3,960	1,523,704	711	765	327,944	73	76	20,227	4,597	4,801	1,871,875
경기지부	20,931	22,725	10,087,120	2,660	2,957	1,517,226	590	590	412,225	24,181	26,272	12,016,571
강원지부	3,893	4,480	1,305,138	965	1,143	287,658	166	186	53,031	5,024	5,809	1,645,827
충북지부	4,708	5,347	1,801,754	1,272	1,391	399,775	207	234	42,893	6,187	6,972	2,244,422
충남지부	7,252	7,479	3,231,275	1,336	1,336	551,691	757	757	189,468	9,345	9,572	3,972,434
전북지부	3,080	3,386	1,715,422	843	880	341,938	202	202	48,768	4,125	4,468	2,106,128
전남지부	4,268	4,920	2,237,600	1,438	1,710	486,672	73	73	31,279	5,779	6,703	2,755,551
경북지부	6,314	7,145	2,756,232	1,820	2,135	1,091,747	211	212	82,373	8,345	9,492	3,930,352
경남지부	13,573	15,742	5,029,290	4,983	5,903	1,320,460	276	287	102,569	18,832	21,932	6,452,319
제주지부	2,034	2,274	539,752	284	285	54,859	2	2	175	2,320	2,561	594,786
누 계	116,575	127,562	52,884,014	27,074	29,970	8,396,942	3,508	3,591	1,292,694	147,157	161,123	62,573,650

* 10월 부산 11월 부산·광주지부 도서자료 누락

用途別 全國圖書申告現況 (11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1,887	1,962	244,081	687	708	29,840	38	39	2,638	2,612	2,709	276,559
다세대주택	340	352	80,105	266	269	3,805	0	0	0	606	621	83,910
연립주택	27	45	41,392	4	4	2,912	2	4	3,731	33	53	48,035
아파트	75	311	1,068,524	7	8	3,547	1	4	1,637	83	323	1,073,708
근린생활시설	1,194	1,228	542,710	449	455	63,359	144	145	33,677	1,787	1,828	639,746
종교시설	55	60	33,811	31	33	6,767	4	5	318	90	98	40,896
의료시설	3	3	533	5	5	9,899	2	2	1,248	10	10	11,680
교육연구시설	26	37	60,387	35	40	69,016	11	11	10,455	72	88	139,858
업무시설	66	71	456,587	42	46	30,935	4	4	4,169	112	121	491,691
숙박시설	66	84	74,652	26	26	20,238	3	22	9,671	95	132	104,561
공장	348	599	592,828	213	336	202,602	37	37	25,983	598	972	821,413
기타	497	649	254,354	309	356	123,094	80	82	22,902	886	1,087	400,350
합 계	4,584	5,401	3,449,964	2,074	2,286	566,014	326	355	116,429	6,984	8,042	4,132,40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現況 (1月~11月)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62,165	64,152	9,686,216	11,193	11,709	723,172	558	559	37,091	73,916	76,420	10,446,479
다세대주택	12,468	13,035	2,636,645	2,691	2,722	114,415	61	64	5,928	15,220	15,821	2,756,988
연립주택	594	1,109	1,384,320	38	45	23,269	3	5	3,963	635	1,159	1,411,552
아파트	990	4,125	13,236,562	119	228	376,867	15	26	31,180	1,124	4,379	13,664,609
근린생활시설	27,072	27,520	11,076,611	5,203	5,302	1,109,216	1,551	1,567	453,092	33,826	34,389	12,638,916
종교시설	706	806	449,315	454	498	156,327	33	34	7,215	1,193	1,338	612,857
의료시설	74	85	214,893	99	109	86,468	19	19	6,087	192	213	307,448
교육연구시설	395	539	873,406	570	655	788,851	116	118	117,371	1,081	1,312	1,779,628
업무시설	1,084	1,167	2,572,479	580	639	360,352	58	58	39,794	1,722	1,864	2,972,625
숙박시설	1,424	1,534	1,439,010	465	484	289,879	108	128	76,637	1,997	2,146	1,805,526
공장	3,760	6,288	6,466,352	2,265	3,598	2,913,097	360	379	279,553	6,385	10,265	9,659,002
기타	5,843	7,202	2,828,205	3,397	3,981	1,455,029	626	634	234,783	9,866	11,817	4,518,017
누 계	116,575	127,562	52,884,014	27,074	29,970	8,396,942	3,508	3,591	1,292,694	147,157	161,123	62,573,650

新入會員



李秀成

1952. 7. 18
성균관대, 동대학원 건축전공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동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6
568-9004



玄明曉

1950. 1. 16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서한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8-16
417-6323



金太旻

1955. 6. 7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주)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 25-1
777-4311



吉起弘

1957. 2. 13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길공사
서울시 중구 명동2가 54-28
776-4471



河海鎭

1954. 11. 18
중앙대 건축과, 동대학원
건축창조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동작구 노랑진동 240-27
817-3416



李柱勳

1955. 11. 3
건국대 건축공학과, 동대학원
건축사사무소 연안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1
484-8481



全鍾漠

1956. 3. 24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일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92-3
402-5418



徐柄震

1956. 10. 17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유창, 장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1-10
542-9357



李相敦

1939. 1. 27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삼일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1597-1
888-8996



吳在昇

1952. 11. 28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명, 신명
대구직할시 중구 삼덕1가 63-141
423-5400



金珍源

1957. 5. 17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석진
서울시 도봉구 수유3동 191-43
995-2524



金 碩

1957. 2. 22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동광
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 23
424-6644



金致亨

1948. 4. 10
광주경상대학 건축과
근화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84-6
423-0505



李鍾煥

1961. 1. 30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담
충북 청주시 북문로2가 116-245
52-5689



李昌雨

1956. 10. 14
국민대, 동대학원 건축
건축사사무소 이우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133
277-9405



金福燮

1959. 8. 10
부산공업전문학교
한울건축사사무소
경남 창원시 상남동 76-3
81-3011



崔炳國

1955. 10. 10
부산대학교 건축공학
건축사사무소 삼성
울산시 중구 학성동 432-413
45-6515



林鉉基

1958. 2. 10
서울산업대학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정인
서울시 강남구 청암동 1
546-0883



宋鍾台

1951. 1. 10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라인건축사사무소
경남 진주시 본성동 7-13
43-8292



李道熙

1956. 3. 11
천안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미건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7-3
634-3494



張春植

1959. 5. 14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남
충북 청주시 북문로2가 116-245
52-5689



李鎔杓

1939. 11. 25
삼척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이용표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191-38
907-9907



孫有坤

1950. 12. 18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진양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1
414-5843



羅英燦

1952. 10. 23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한국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2-31
543-9558



林敏洙

1948. 8. 6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예림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성동구 자양1동 224-25
452-4304



孫基贊

1950. 10. 21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동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5-5
548-7308



白勝日

1957. 9. 29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23-4
355-6091



蔡洙京

1941. 1. 22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京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상내동 112-69
488-0456

新入會員



朱長鎬

1953. 3. 26
부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우신건축사사무소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60
81-3636



廉 潜

1946. 5. 2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7-38
542-9974



李明教

1958. 4. 25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
세아건축사사무소 건축과
대구시 중구 동인동 1가 115
424-2729



申台植

1936. 7. 1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기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253-17
718-4288



李律求

1953. 1. 27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북문로 2가 116-168
52-9750



鄭宇烈

1955. 11. 22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시공건축사사무소
대구시 중구 동인동 4가 251
425-1262



金善中

1953. 6. 2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선종합건축사사무소
청주시 영동 50-2
56-4710



張光秀

1939. 8. 2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0-18
562-2663



張明煥

1952. 2. 3
경북산업대학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상건축
대구시 중구 동인2가 113-4
423-2195



朴龍羽

1938. 10. 21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삼희, 중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8
586-6226



金秀仁

1958. 11. 19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시공건축사사무소
대구시 중구 동인동 4가 251
425-1262



李哲夏

1927. 10. 12
소화공과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계림, 민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2-12
927-4331



金思沃

1952. 6. 27
인하공업전문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상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6
544-3177



金教善

1955. 10. 12
성균관대 건축, 전북대 대학원 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2-14
511-0361



金仁喆

1955. 7. 19

한양대, 동대학원 건축
(주)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4-4
590-1730



朴永逸

1958. 7. 25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유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74-13
324-8954



崔錫元

1955. 9. 8

연세대, 동대학원 건축
(주)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4-4
590-1730



金亨一

1955. 12. 24

연세대, 동대학원 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맥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0-3
540-1693



金帥坤

1956. 9. 2

동아대 건축, 홍익대 대학원
(주) 고려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순화동 2-6
778-6358



李在寬

1952. 3. 21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태양건설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1-4
540-0408



金達偉

1956. 9. 9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코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66-46
494-6705



趙誠達

1957. 1. 10

부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내외건축
서울시 중구 정동 1-11
776-6949



李榮漢

1957. 3. 30

서울대, 동대학원 건축
바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3-8
584-8113



李載運

1938. 2. 13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보궁건축사사무소
대구시 중구 남산동 595-6
22-9634

■ 會員動靜

江帆 鄭禹澤회원
「나 그대로」 出刊



江帆 鄭禹澤회원 (경기지부/신우건축사사무소/613-7680) 이 지난해 77세의 회수를 맞이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업 50주년과 감리교 입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회고록 「나 그대로」를 출간하였다.

지난 55년간 마포공덕교회에서 속장, 원사, 장로로 시무하면서 청년회장, 총무부장, 교육부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 평신도 전국연합회 섭외부장과 건축사협회 이사를 지낸 경력이 말해주듯 교회와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온 저자는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나에게는 어디인가 푸른하늘이 더러는 있으리라 생각하고 찻노라고 찾아보았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모습 그대로를 지나친 과장없이 사실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적노라고 적어 보았습니다」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70년의 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신앙론, 예술론, 정치론 등이 모두 담겨져 있다.

한편, 경기도지부 광명분소회원들이 준비한 출판기념회가 11월14일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져 張起仁 전 회장과 이일운 경기도지부장 등 많은 하객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89년도 始務式 거행

本協會 89년도 始務式이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본부와 서울특별시지부, 서울건축사복지회 임원 및 직원이 연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거행되었다. 宋基德 회장은 이날 新年辭를 통해 1989년도 協會運營의 指標를 「일하는 해」로 세우고 모든 노력이 여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토록 당부하며 「새해들어 政府는 文化公報部의 文化行政機能을 독립시켜 文化部로 승격 개편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우리 建築界를 위해서는 「建築行政을 전담하는 局단위 부서조차 없다는 현실과 비교할때 그간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미약하였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고 밝히고 이처럼 「무기력했던 어제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을 강조하면서 「일하는 協會로서 면모를 쇄신하고 새 전통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직원 일동은 宋基德 회장, 李永熙 서울특별시지부장, 許恪 서울건축사 복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團拜로써 개별적인 새해인사에 대신하였으며 40여분만에 始務式을 끝냈다. 한편, 구랍 31일에도 본부와 서울특별시지부, 서울건축사복지회가 합동으로 終務式을 거행한 바 있다.

89년도 각위원회 위원장

위 원 회	위 원 장	위 원 회	위 원 장
윤 리 위 원 회	정 환 호	세 무 운 영 위 원 회	황 용 주
건 축 위 원 회	박 성 규	연 금 연 구 위 원 회	강 기 세
편 찬 · 홍 보 위 원 회	우 남 용	법 령 연 구 위 원 회	이 중 업
법 제 위 원 회	조 상 호	회 원 업 무 조 정 위 원 회	정 효 환
국 제 위 원 회	김 지 덕	긴 급 대 책 협 의 회	이 중 완
연 수 위 원 회	이 세 훈	설 계 경 기 운 영 위 원 회	이 문 우
사 무 개 선 위 원 회	김 창 서	전 국 대 회 준 비 위 원 회	이 춘 상
특별전형대책위원회	김 춘 배		

제12회 理事會 개최

본 협회는 12월 21일(수) 제12회 理事會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협의하였다. 그 주요안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附議事項〉

- 案件: '89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안)
處理: 원안대로 승인
- 案件: '89위원회 위원선임 승인의 건
處理: 회장에게 위임(89년도 각위원회 위원장은 별표와 같다)
- 案件: 분소신설 승인의 건
處理: 경남지부의 삼천포분소 설치 요청의 승인을 보류하고 재검토하여 결정기로 함.
- 案件: 서울지부 분소운영(안)
處理: 송파분소를 도서신고 업무수행 분소로 추가 지정하고 분소신설에 따라 송파구 도서신고업무를 강동구 강동구에서 분리함
- 案件: 인천지부 직원 정원조정
處理: 인천지부 8급 여직원 1명 증원을 원안대로 승인
- 案件: 대구지부 직원 정원조정
處理: 대구지부 5급직원 1명 증원을 원안대로 승인
- 案件: ACA-3 유공자 부상지급
處理: ACA-3대회 집행본부 부분부장,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학생정보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4인에게 ACA-3유공자로 부상을 지급기로 함
- 案件: ACA-3 협찬업체 및 자재전시장 임대계약금 부담업체에 대한 건축사지 무료 광고게재에 관한 건
處理: 무료 광고를 1회에 한하여 게재해 주도록 함

〈協議事項〉

- 案件: 회관2층 활용계획의 건
處理: 원안대로 도서출판은 김문사에 임대하여 회관유지관리비 충당에 도움이 되도록 함.

ACA-3

추진위원회 解團式

제 3 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준비를 위해
구성되었던 ACA-3 추진위원회의 해단식이
지난 1월 6일 (금) '만리성'에서
宋基德 회장 (김행본부장) 등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建築 3團體 朝餐會

本協會가 주최한 建築 3團體 朝餐會가
本協會 회장단과 大韓建築學會,
韓國建築家協會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7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돼
건축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다.



▲ ACA-3 추진위원회 解團式

京畿 (지부장 李一潤)

불우이웃돕기사업 실시

경기도지부는 구랍 27일 연말 불우이웃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부장단 일행이
불우청소년 가장과 지체부자유자를 방문
백미 11가마분 (시가 1백만원 상당) 과
현금 50만원을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또한 지부사무실 주변의 우체부, 도로
청소부, 구두닦이, 신문배달원 11명에게도
구랍 30일 방한화와 내복, 라면 (시가
30만원 상당) 을 전달하고 위문하였다.

全南 (지부장 金仁模)

'88송년의 밤 開催

전라남도지부 회원상호간의 유대와 화합을
공고히 하며 단합된 회원상을 이룩하기 위해
12월 21일 (수) 순천분소관내 영화관에서
지부회원 및 사무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8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慶北 (지부장 崔鍾培)

해외 건축문화 시찰

경상북도지부는 외국의 건축양식과
설계기법을 비교 시찰하여 우리나라 건축
설계분야 전문가들의 안목을 넓히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원 59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구성, 11월 30일부터 12월 7일
까지 7박8일간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등을 시찰하였다.

▼ 불우이웃돕기사업 (경기지부) ▼



協會消息



▲ 전남지부 송년의 밤



▲ 경북지부 해외 건축문화 시찰단



▲ 경북지부 송년의 밤



▲ 제주지부 회원 부부동반 88송년회

慶北 (지부장 崔鍾培)

건축사 송년의 밤 개최

경상북도지부 송년의 밤 행사가 구랍 29일 경주 도곡호텔 루비룸에서 회원 53명이 (부부동반)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구지부장 이, 취임식을 결하여 전임지부장 및 부지부장에 대한 공로패 및 부상 전달이 있었다.

濟州 (지부장 李世晩)

해안경찰대 위문

제주도지부는 구랍 23일 연말을 맞아해 수협 제주도지부, 제주도 치과의사회, 그랜드호텔 등과 함께 제주지구 해양경찰대를 위문하고 6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회원 부부동반 송년회 개최

제주도지부는 12월 21일 제주시 파라다이스 제주호텔에서 회원 부부동반 '88송년회'를 개최하였다.

慶南支部 事務局長 壽宴

경상남도지부는 11월 20일 回甲을 맞은 박수원 사무국장을 위해 경남 건축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부회원 및 본부·지부 임직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壽宴을 베풀고 축하하였다.

